



제 8 편 민속

- 제 1 장 관혼상제
- 제 2 장 세시풍속
- 제 3 장 토속신앙
- 제 4 장 민요
- 제 5 장 설화
- 제 6 장 민속어
- 제 7 장 지명유래

여 백

제1장 관혼상제



전통의 제례

관혼상제란 4례 즉 관례(冠禮) · 혼례(婚禮) · 상례(喪禮) · 제례(祭禮)를 일컫는 말이다. 조선시대의 사상적 기초는 주자학의 예치에 있었으므로 4례를 잘 지키기 위하여 우리 선인들은 심혈을 기울였다. 그러므로 한국의 관혼상제는 예라는 단어를 이해하지 않고 내면적 세계를 제대로 알기 어렵다.

예란 말은 《설문해자(說文解字)》에 나타난 바처럼 이행이란 뜻을 지니고 있다. 곧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외형적 질서를 말한다. 그것은 형식적인 것만이 아니라 실제의 체험을 요구하기도 한다. 예는 천하만사의 의식으로 삶의 과정에서 습득을 통해 이루어진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한국의 예속은 중국 전래의 예속과 고유 민족의 충효를 바탕으로 하나의 특수성을 형성하게 되었다.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는 국가 정교에까지 큰 영향을 주었고, 《문공가례(文公家禮)》는 종족 · 친족 · 관혼상제에 관해 널리 사회생활의 규범을 이루어 가족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체계화된 유교적 의례라 할지라도 실제 생활의례에서는 풍토적 · 문화적 · 인종적 차이

로 한민족의 예식과 규범에 맞지 않는 것이 있다. 의례준칙을 우리 실정에 맞는 예서로 만들었으나, 영조대 도암(陶菴) 이재(李緯)의 《사례편람(四禮便覽)》이 바로 그것이다.

이후 전국적으로 예의규범이 통일되는 등 지역적인 특성이 두드러지지 않았다. 물론 사례가 예론(禮論)으로 발전하는 가운데 당쟁을 일으켜 소속 당파나 가문에 따라 행사절차가 다소 다르게 전하여 온 것이 없지 않다. 그러나 우리 지역은 《사례편람》에 따라 4례를 행하다가 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이미 행위의 규범이 될 수 없도록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더군다나 현대사회는 반상(班常)의 구분이 없어지고 전통적 대가족제도가 핵가족화되면서 생활의례도 바뀔 수밖에 없었다. 1912년의 〈화장취체규칙〉이나 1934년의 〈의례준칙〉, 1961년의 〈의례준칙〉, 1969년의 〈가정의례준칙〉 제정 등은 이를 대변하고 있다.

전통적 풍습이란 사회적 변화가 있을지라도 급격하게 근절되지 않는데 이것이 관습의 타력(惰力)이다. 원래 풍습은 인간의 정의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성현의 말씀에도 예출여정(禮出於情)이라 했거니와 예란 반상과 빈부귀천을 초월한다. 한국인의 통과의례는 한국인 본성의 발현이요, 전통적 생활풍습의 일단이다. 따라서 사회·문화적 가치관의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한 민족의 전통적 관습이자 생활규범인 관혼상제의 맥락은 다소 형태의 변화는 있을지언정 내적인 정신은 면면이 이어진다.

동두천 지역의 관혼상제는 《사례편람》을 기초자료로 하여 동두천지역에서 행해지고 있는 구체적인 예를 조사·수록하고자 했다. 또한 관혼상제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인류학에서 한 개인이 일생을 통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의례를 의미하는 통과의례에 속하는 출생의례와 우리 민족의 장수에 대한 염원과 경로효친 사상을 반영한 회갑·칠순·회혼례식등을 함께 살펴보았다.

제 1 절 관례

관례(冠禮)란 전통사회에서 남자 아이들이 옷을 단정하게 차려 입고 용모와 태도를 바로 하여 언어를 공손하게 하는 예도를 이는 성인임을 상징하기 위해 상투를 틀어 갓을 씌우는 의식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의 절차를 말한다. 15세 이상은 예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하였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15세에서 20세 사이에 행하였으나, 부모가 기년(朞年) 이상의 복상이 없어야 했고 대공복일지라도 장례 전에는 행하지 않았으므로 연령에 가감이 있었다. 또한 조선 후기에

는 조흔의 풍습과 더불어 10세 전후에 치르기도 하였으며, 일단 관례를 치른 후에는 미흔일지라도 성인으로 대우하였다.

1894년 갑오개혁(甲午改革) 이후 단발령이 내려져 두발을 깎았기 때문에 전통적인 관례는 자연히 사라지게 되었다. 다만 관례는 혼례식 속에 흡수되어 잔존하는 형편이었다. 지금은 정부에서 5월 20일을 '성년의 날'로 정하여, 20세 이상의 청년들에게 성년식을 갖게 할 뿐이다. 여자의 경우에 한하여 전통혼례식에서 간혹 쪽지는 예인 계례(계禮)가 행해지고 있을 뿐인데, 그나마 다행한 일이라 하겠다.

관례 절차의 대강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택 일

좋은 날을 가려서 행하였으나, 여의치 않으면 정월 중에 날을 정하였다. 만일 이때를 놓치면 4월 또는 7월 초하루에 일반적으로 관례를 행하였다. 이처럼 관례를 위한 날짜의 선택을 흔히 택일(擇日)이라고 한다.

2. 준비

관례일 3일 전에 관자의 할아버지나 아버지는 사당에 삼색 과일을 진설(陳設)하고 축문을 읽어 조상께 이를 고한다. 축문의 내용은 대개 다음과 같다.

〈告詞〉

維歲次干支某月干支朔某日干支

孝玄孫某敢昭告于

顯高祖考 學生府君

顯高祖 姦孺人某貫某氏 某之子某 年漸長成

將以某月某日 加冠於其首 謹以酒果 用伸 告謹告

(유세차 간지 모월간지삭 모일간지 효현손 모모는 감히 밝혀 고하노니

현고조고 학생부군

현고조비 유인 모관모씨 모모의 아들 모모가 나이가 점점 차서
장차 모월 모일 머리에 관을 씌우겠기로 주과를 펼쳐 놓고 삼가 고하나이다.)

관례일 하루 전에는 대청의 동북쪽에 휘장을 치고, 종손의 친구 가운데 어질고 예법을 잘 아는 사람을 택하여 정해논 빈객(관례를 주관하는 주례자)이 찬자의 안내로 도착하면, 주인은 그를 맞이하여 방으로 모신다. 관례를 치루는 당일에는 준비한 관복을 상 위에 진설한다.

3. 초가례(初家禮)

처음 행하는 예를 말하며, 관례자는 쌍상투[雙笄]를 하고 예복인 사규삼(四揆衫)이라는 띠를 두르고, 무늬 있는 신[彩履]을 신고 자리에 나와 끓어 앉는다. 옆에 시중드는 찬자가 관례자의 머리를 벗겨 상투를 틀고 망건을 씌우면 주례가 검은 관[緇冠]을 들고 나와 관례자 앞에서 축사를 읽은 뒤 치관과 계(비녀)를 꽂고 견을 씌운다.

이어 찬자가 간례자에게 띠를 둘러주면 관례자는 방으로 들어가 사규삼을 벗고 선비가 입는 옷[深衣]을 입으며, 큰 띠를 두른 다음 그 위에 실로 된 흰 띠[修]를 더하고 검은 신을 신고 방에서 나와 남쪽을 보고 앉는다. 이때 축사는 다음과 같다.

吉月令辰 始加元服 葉爾成德 壽考維旗 以介景福

(길한 달 좋은 때에 비로소 원복을 더하니 너의 어린 뜻을 버리고, 너의 장성한 덕을 따라 오래도록 수하고 경복을 받게 한다.)

4. 재가례(再家禮)

관례자가 정해진 장소에 앉아 있으면 빈객이 관례자 앞에 나아가 축사를 한다. 찬자(讚者)는 견을 벗기고 빈객이 초립을 씌운다. 이어 관례자는 방으로 들어가 심의를 벗고 조삼과 혁대를 두르고 신을 신고 나온다. 축사의 내용은 자식의 장수만복이 주를 이룬다.

吉月令辰 乃申爾福 謹爾減儀 淑慎爾德 眉壽永年 亨受假福

(길한 달 좋은 때에 너에게 옷을 입히고, 삼가 멸의를 갖추니 덕을 삼가고 닦아 눈썹이 세도록 오래 살고 많은 복을 누리리라)

5. 삼가례(三家禮)

관례자가 정해진 자리에 끓어 앉아 있으면, 빈객(賓客)이 나아가 축사를 하고, 찬자가 초립을 벗기면 빈객이 복두(僕頭)를 써운다. 관례자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조삼을 벗고 남산(南山)을 입으며, 혁대를 두르고 신을 신고 나온다.

6. 자관자례

빈객과 관례자가 마당으로 내려가서 빈객이 관례자에게 자(字)를 지어주는 것을 말한다. 빈객이 관례자에게 자를 지어 부를 때 축사를 한다. 관례자는 간단한 답사를 하고 절을 한다. 이때 빈객은 절을 받되 답례는 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주인은 관례자를 먼저 사당으로 데리고 가서 조상신위(祖上神位)에 알리는 고사를 읽은 후 절을 2번 하게 한다. 이로써 관례식을 마치고 이후에는 마을의 존장·내빈에게 인사를 드리며 음식을 대접한다.

한편 여자의 경우는 15세가 되면 계례(笄禮)를 행하는데, 계례에는 어머니가 중심이 되며, 계례일 3일 전에 친척 중에서 어질고 예법을 잘 알고 행하는 부인을 주례로 청한다.

당일에 날이 밝는 대로 의복을 준비하고 차례대로 서서 기다리고 있다가, 주례(主禮)가 도착하면 주부가 나가서 맞아들인다. 주례가 계례자에게 비녀를 꽂아주면 방으로 가서 배자(褙子)를 입는다. 이어 간단한 예를 올리고 주인이 계례자를 데리고 사당에 가서 조상에 고하는 것을 끝으로 의식을 마치고 손님을 대접한다. 그런데 여자의 경우에는 남자에 비해 상당히 절차가 간소하고 광범위하게 행해지지 않았다.

제2절 혼례



혼례

혼례란 남녀 두 사람의 사회적으로 인정된 성과 경제적인 결합을 뜻하는 혼인을 행할 때 수반되는 모든 의례 절차를 말한다. 즉 사회·경제적인 여건에 따라서 서로 다른 집단이 결합하는 이성지합(二姓之合)을 의미한다. 그런데 혼례는 《예서》의 내용과 실제의 관행은 많은 차이가 있었다.

이미 고려 말에 수용하여 조선

초기에 지배층의 예로 규정하여 시행한 《문공가례(文公家禮)》에서는 납채(納采)·문명(問名)·납길(納吉)·납폐(納幣)·청기(請期)·친영(親迎)으로, 영조대에 편찬된 《사례편람》에서는 의혼(議婚)·납채(納采)·납폐(納幣)·친영(親迎)으로 구분하였다. 실제의 관행은 의혼(議婚)·대례(大禮)·후례(後禮) 등으로 나누어졌다. 지역에 따라 혼례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1890년대부터 예배당에서 실시한 신식 결혼식과 1930년대에 계명구락부(啓明俱樂部)를 중심으로 오늘날의 예식장에서 행하는 사회결혼식의 실시로 많은 변화를 거듭하였다. 오늘날에는 모두 《가정의례준칙》에 의하여 현대사회 실정에 맞는 혼례식이 거행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전통사회에서 시행된 실제의 관행에 따른 혼례의 절차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의 혼

양자(兩者)가 중매인을 통한 상호의사를 조절할 때부터 대례를 거행하기 이전까지의 절차를 의혼이라고 한다. 이러한 관정은 납채(納采)·연길(涓吉)·의양(衣樣)·납폐 등 여러 절차가 포함된다.

1) 납 채

납채는 중매인을 통하여 의사를 교환한 뒤 혼인하기로 결정되면, 일가 친척들에게 알리며 사당(祠堂)에 간단히 고한다. 이어 남자의 집에서 여자의 집으로 처음 보내는 서신인 사주(四柱)를 보내는 절차를 말한다. 사주를 보내기 전에 아침 일찍 사당에 가서 과일과 술을 올리고 나서 “모모의 딸에게 오늘 납채를 하게 되어 삼가 고하나이다”라고 사당에 알린다.

사주는 사성 · 주단 · 단자라고도 하며 신랑의 생년월일시를 육십갑자에 따른 간지를 써서 신부집으로 보낸다. 사주는 흰 한지를 다섯 번 접어 가운데에 쓰는데 집안의 어른이나 본인이 직접 쓰기도 한다. 사주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접어 봉투에 넣는데, 이는 예로부터 왼쪽을 길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사주봉투 역시 흰 한지로 사주를 넣은 후 봉투를 봉하지 않으며 근봉(謹封)이라 쓴 띠를 봉투에 써운다. 그것은 싸릿대를 쪼개어 끼우고 양끝을 청홍실로 묶은 다음 청 · 홍색 겹으로 된 보자기에 청색이 위에 오도록 써서 신부집에 보낸다.

사주가 신부집에 도착하면 마루에 상을 펴 놓은 후 신부 아버지가 사주를 받아서 상위에 놓으면, 신부 어머니가 사주를 치마폭에 써서 안방으로 가지고 들어가 간직한다. 신부가 시집가서 아들을 낳은 뒤 친정집에 오면 건네 준다. 신부는 사주를 평생 간직한다.

사주의 교환은 궁합이나 택일에 편리하도록 하는 것이지만, 혼사를 결정하는데 이미 서로 사주를 알아서 비교한 후에 허혼(許婚)함으로 사실상 오늘날의 약혼(約婚)을 의미한다. 따라서 혼인을 거절하려면 사주를 받지 않아야 하며, 사주를 받은 뒤에 혼인을 거절하면 이혼이 된다.

이날 신부 집에서는 사주를 가져간 사람을 후하게 대접을 하며, 여유가 있는 집은 떡등으로 이웃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한다.

2) 연 길

연길(涓吉)은 사주를 받은 신부집에서 신랑집에 택일단자를 보내는 절차이다. 이때 혼인일자를 정해 통지하는데, 이를 택일 또는 날받이라고도 한다. 택일단자는 전안(奠雁)할 일자와 납폐할 일자를 기입한 단자로써 따로따로 기입하기도 하지만, 전안일시만 쓰고 납폐일시는 동일선 행이라고만 쓰는 경우도 있다.

격식을 따지는 집안은 전안, 납폐일시 외에 신랑 · 신부가 보아서는 안될 사람의 간지, 앉아서는 안될 방위 등을 기입하기도 한다.

택일단자는 봉투에 넣고 봉투 앞면에는 연길, 뒷면에는 근봉이라고 써서 중매인 또는 복많은

사람 편으로 신랑집에 보낸다. 이때 허혼서(許婚書)를 동봉하기도 하며, 다음과 같은 별도의 연길 송서장을 같이 보내기도 한다.

伏承華翰 感荷無量이오이다.

謹審滋者에

尊體侯萬重가 仰慰 區區之至라 第女阿親事는 既承柱單하오니

寒門慶事라 涓吉錄呈하오니 章製回示하심이 如何오 餘不備伏惟

尊熙 謹拜上壯하옵니다.

年 月 日

한편 신부측에서 정해 보낸 택일이 신랑집의 사정과 맞지 않으면, 양가가 협의하여 다시 정하는 예도 있다. 현재는 사전에 양가(兩家)가 상의하여 택일한다.

3) 의 양

연길서장을 받은 신랑 집에서 연길단자 돌아가는 편에 신랑의 도포치수와 버선치수 등을 적은 의양단자를 보내는 것을 말한다. 의양단자를 봉투에 넣고, 봉투의 앞면에 의양이라고 쓴다. 오늘날에는 양가가 협의하여 직접 양복점에 가서 맞추거나 백화점 등에서 본인이 직접 구입함이 상례이다.

4) 납 폐

납폐는 대례일 전에 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혼서지와 채단(採綴) 등을 넣은 함을 보내는 의식을 말한다. 혼서지란 예장지로서 일종의 혼인문서인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某官后人 ○ ○ ○ 再拜

伏惟 孟春(隨時)

尊體百福 僕之子某 年既長成 未有伉儷 伏承壽命 許以伏惟

尊熙 上狀

某年 某月 某日

위와 같은 혼서지를 흰 봉투에 넣고, 봉투 앞면에 '모관모성 존친집사(某官某姓 尊親執事)'를 써서 네 모서리에 금종이를 단 검은 보에 싸서 함에 넣는다.

채단의 내용물은 다양하다. 필수품은 신부의 상·하의 두 벌과 약간의 패물인데, 청홍사(青紅絲)로 매어 청홍지(青紅紙)에 싸서 함에 넣는다. 혼서지와 채단은 청색 옷감은 홍색 보자기로 싸며, 홍색 옷감은 청색 보자기에 싸서 넣는다. 함의 맨 밑바닥에 네 폭의 홍색 보자기를 깔고 혼서지를 넣은 후 채단을 차례로 넣었다.

함은 '함진애비'라하여 흔히 첫아들을 넣은 복많은 사람이 진다. 함을 받을 때에는 마루에 떡 시루를 상위에 받쳐 놓고 그 위에 받아 얹어 놓는다. 함을 받는 사람은 신부의 어머니나 복 많은 여자가 받는다. 함을 받은 뒤 바로 안방으로 가져가 깔고 앉으면서 "복 많이 들었네"하면서 함에 손을 넣어 잡히는 옷감의 색을 보고 첫 아이의 성별을 점치기도 한다. 즉 손에 잡힌 옷감의 색이 청색이면 첫아들, 홍색이면 첫딸을 낳는다고 한다. 함진애비는 신부측에서 후하게 대접한다. 오늘날에는 신랑 친구가 함진애비가 되어 혼인 전날이나 일주일 전 신부집에 함을 전하고 후한 대접과 함값을 받는 풍속이 성행되고 있다.

2. 대례(大禮)

대례는 의혼(議婚)의 절차를 거쳐 신랑이 신부집으로 혼례를 거행하려 가는 과정을 비롯하여 혼례식을 행하는 모든 의례를 말한다. 초행(初行)·전안지례(奠雁之禮)·교배지례(交拜之禮)·합근지례(合葷之禮)·신방(新房)·동상례(東床禮) 등이 이에 포함된다.

1) 초 행

신랑과 일행이 신부집에 혼례를 올리려 가는 의식으로서, 초행걸음 또는 신행이라고도 한다. 신랑 외의 신랑 일행에는 상객·흔행이 포함되며, 때로는 소동이라 하여 어린이 2명이 끼기도 한다. 상객은 조부가 계시면 조부가 되나 여의치 않으면 아버지·백부나 장형이 되기도 한다. 후행은 가까운 친척 중 2~3명이 된다. 신랑은 말 또는 나귀를 탔고 마부가 고삐를 잡으며, 쌍 일산을 받고 시배 등룡 2쌍과 안부를 앞세우고 가며, 하인의 후행이 뒤 따르고 상객이 맨 뒤에 간다.

신랑 일행이 신부집 마을에 도착하면 신부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인접(人接)이라 하여 신부집

에서 보낸 안내인이 정해 준 '정방'에서 잠깐 머무른다. 그리고 신부집에서 세 번 청좌(請座)하면 신랑은 사모관대관복목화(紗帽冠帶官服墨靴)를 착용하고 예를 행할 신부집으로 간다. 이때 큰 길로 행하며 고갯길이나 사이길은 피한다. 신부집에 들어설 때는 부정을 퇴치하는 뜻에서 짚불을 놓아 신랑이 그것을 넘어가도록 한다.

한편 신부는 머리에 화관이라 불리우는 족두리를 쓰며, 연지를 찍고 사포(紗布)로 앞을 가린다. 저고리는 황색비단, 치마는 홍색비단으로 만든 것을 입으며, 그 위에 활옷을 입고 신랑이 오기를 기다린다.

2) 전안지례

신랑이 신부의 혼주에게 나무로 깎은 기러기를 전하는 의례를 말하며, 이때부터 의식의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예절과 한문에 능한 노인으로 하여금 홀기(笏記)를 불러달라고 부탁하여 의례를 진행한다.

신랑이 혼례 시설을 준비해 놓은 전안청에 다달으면, 홀기의 부름에 따라 신랑이 전안상 앞에 무릎을 꿇고 앉는다. 그러면 하인이 나무로 만든 기러기 즉 목안을 신랑 손에 쥐어주는데, 신랑은 이것을 받아 상 위에 놓고 읍(揖)을 한 다음 일어서서 재배를 한다.

신랑이 절을 하는 사이에 하님(手母)이 기러기를 신부의 어머니에게 건네주고, 신부의 어머니는 이것을 치마로 받아들고 신부가 있는 안방에 던진다. 이때 목안이 누우면 첫 딸을 넣고, 일어서면 첫 아들을 낳는다고 한다. 이와 같은 전안지례는 기러기와 같이 의리를 지키겠다는 서약의 뜻을 지닌다.

전안지례의 홀기는 다음과 같다.



신부 혼례복

- ① 新郎下馬拱立 : 신랑이 말에서 내려서는 것.
- ② 賛引 : 접대인이 신랑에게 예하는 것.
- ③ 新郎答 : 신랑이 답례하는 것.
- ④ 新郎就尊所 : 전안상 앞으로 가라는 것.
- ⑤ 新郎 : 배석 위에 꿇어 앉는다.
- ⑥ 抱 : 기러기를 받아 앉는다.
- ⑦ 置於地 : 기러기를 전안상에 놓는다.
- ⑧ 新郎興 : 신랑이 일어난다.

- ⑨ 新郎再拜 : 신랑이 두 번 절한다.
- ⑩ 新郎興 : 신랑이 일어난다.
- ⑪ 新郎小退 : 신랑이 조금 물러난다.

3) 교배지례

교배지례란 신랑과 신부가 마주보고 교배하는 의례이다. 전안지례가 끝나면 신랑은 대례상 또는 교배상인 상 앞으로 안내되어 동쪽에 선다. 신부는 큰머리를 틀어 얹고 화관이라 불리우는 칠보족두리를 쓰고, 연지를 찍고 한삼(汗衫)으로 앞을 가린다.

저고리는 황색비단, 치마는 홍색비단으로 만든 것을 입고 그 위에 활옷을 입으며, 수모의 부축을 받아 대례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한 후, 수모의 도움으로 신부가 재배하면 신랑은 답례로 일배한다. 다시 신부가 재배하고 신랑은 답례로 일배한다. 이로써 교배지례를 마치게 된다.

대례상은 안 대청에 병풍을 치고 남향하여 놓고 좌우에 와룡촛대 한 쌍을 놓으며, 대추·밤·유과 등을 각 두 그릇씩을 맨 앞에 놓고 용떡과 알떡을 21개씩 담아 두 그릇을 놓으며, 콩팥을 각각 한 그릇씩을 진설한다.

암탉과 수탉은 색떡으로 만들어 수탉은 동쪽, 암탉은 서쪽으로 배열하는데, 산닭을 사람이 볼들고 서 있기도 한다. 또한 대례상 앞에 소반을 놓고 청실홍실을 맨 근배(近杯)·호리병·수저 등을 놓는다.

4) 합근지례

신랑과 신부가 서로 술잔을 나누는 의식을 합근지례라 한다. 교배지례가 끝나면 수모가 대례상 앞에 준비된 소반의 술잔에 술을 따른다. 따른 술을 먼저 신부에게 주어 입에 약간 대었다가 다시 받아서 신랑의 대반 즉 신랑의 시중을 드는 사람에게 준다. 신랑에게 주면 신랑은 받아서 마신다. 답례로 대반이 다른 잔에 술을 따라 신랑에게 주면 신랑이 입에 대었다가 대반을 통하여 수모에게 건네준다.

신부에게 주면 신부는 입에 대었다가 내려놓는다. 이렇게 두 번 반복한 후 셋째 잔은 서로 교환하여 마신 후 안주를 먹는 것을 끝으로 합근지례를 마치게 된다. 이러한 합근지례는 지금까지 속해 있던 사회적 관계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며, 이 때 마시는 술을 합환주(合歡酒)라고 한다.

교배지례와 합근지례 의식을 대례라고 하는데, 이때의 훌기는 다음과 같다.

- ① 新郎就酉焦禮廳 : 신랑이 말에서 내려서는 것.
- ② 新郎東向位 : 신랑은 신부가 나올 때 뒤돌아 선다.
- ③ 新婦出 : 신부가 나온다.
- ④ 新郎正面 : 신랑이 정면인 서향으로 돌아 선다.
- ⑤ 鹽洗執中 : 손을 씻고 수건으로 닦는다.
- ⑥ 新郎新婦興 : 신랑과 신부 일어선다.
- ⑦ 握婦就席 : 신랑이 신부에게 예하고 배석 위에 올라간다.
- ⑧ 新婦再拜 : 신부가 재배한다.
- ⑨ 新婦跪 : 신부가 배석 위에 꿇어 앉는다.
- ⑩ 新郎答一拜 : 신랑이 답으로 한 번 절한다.
- ⑪ 新婦興 : 신부가 일어선다.
- ⑫ 新婦再拜 : 신부가 두 번 절한다.
- ⑬ 新婦跪 : 신부가 꿇어 앉는다.
- ⑭ 新郎答一拜 : 신랑이 답으로 한 번 절한다.
- ⑮ 新郎新婦跪 : 꿇어 앉는다.
- ⑯ 行砂杯禮 : 신랑·신부가 술잔을 바꾸어 마시는 예
- ⑰ 行砂杯禮 : 신랑·신부가 술잔의 순번을 바꾸어 마시는 예
(이때는 술잔 대신 표주박을 사용)
- ⑱ 禮畢 : 혼례식이 끝난다.
- ⑲ 新郎新婦歸處所 : 신랑과 신부가 각각 처소로 돌아간다.

5) 신방

합근지례가 끝나면 신랑과 신부는 각각 다른 방으로 들어간다. 방에 든 신랑은 사모관대를 벗고 신부집에서 새로 만든 도포 또는 두루마기로 바꿔 입는데, 이것을 관대벗김이라 한다. 이후 신랑과 상객이 큰 상을 받는데, 손을 대는 흉내만 내고 물린다. 물린 음식은 상객편에 신랑집으로 보내는데, 신부집의 음식 솜씨를 기倨한다. 상객과 후행은 첫날밤 신방을 지켜보고 가기도 하지만 대개는 혼례 당일에 돌아간다.

대례가 끝난 날 저녁 때가 되면 신부의 동네 젊은이들이 사랑방에 모여 '신랑다루기'를 하는데 이를 동상례(東床禮)라고 한다. 신랑에게 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해서, 그 답이 신통치 않으면 '새 신랑 달아 먹는다' 하여 신랑 발목을 무명끈으로 매어 사랑방 대들보에 거꾸로 매달고 발바닥을 방망이나 북어로 친다. 신랑이 소리를 지르면 장모가 나와 말리고 음식대접을 한다. 양반집에서는 신랑에게 시를 읊게 하거나 화를 맞추도록 하여 신랑의 학식(學識)과 지혜를 떠보기도 한다.

이런 시간이 지나면 신랑신부가 첫날밤을 보낼 신방을 꾸며준다. 신랑이 먼저 들어가 있으면 혼례복을 입은 신부가 들어온다. 이어 간단한 술과 안주의 주안상이 들어오는데 술을 나눈 다음, 신랑은 신부의 족두리와 예복을 벗긴다. 족두리는 반드시 신랑이 풀어주어야 한다. 이때 '신방지킨다', '신방엿보기' 라 하여 가까운 이웃이나 친척들이 신방의 창호지 문을 손가락에 침을 빨라서 뚫고 엿본다. 그러다가 웃벗기는 것을 본 다음 신랑이 불을 끄면 구경꾼들은 모두 물러난다. 촛불을 끌 때는 입으로 불어 끄면 복이 나간다고 하여 신랑이 웃깃으로 바람을 내어 끈다.

첫날밤을 보낸 이튿날 아침이면 신방에 잣죽이나 대례상에 놓았던 떡으로 끓인 떡국을 가져온다. 아침밥을 먹은 후 신랑·신부는 신부의 부모와 가까운 친척 어른들에게 인사를 드린다.

3. 후례(後禮)

혼례의 중심인 대례가 끝나고 신부가 신랑집으로 오는 의식과 신랑집에 와서 행하는 의례를 말하는데, 신행(新行)·견구례(見舊禮)·근친(謹親) 따위가 여기에 포함된다.

1) 신행

신부가 시집으로 오는 것을 신행 또는 우귀(于歸)이라고 하는데, 당일에 우귀하는 당일 신행, 3일 후에 시집에 가는 3일 신행인 경우도 있다. 이밖에도 며칠 또는 몇 달, 때에 따라서는 해를 넘겨서 신행하는 경우도 있다. 달을 넘겨서 신행하는 것을 '달묵이'라고 하며, 해를 넘겨서 신행하는 것을 '해묵이'라고 한다. 해묵이나 달묵이를 할 경우 신랑이 몇 차례 신부집에 다니러 가는데, 이를 재행 또는 재행걸음이라고 하였다.

3일 신행이 생기면서 재행갈 시간이 없어졌다. 그래서 3일 내에 재행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

서 생긴 것이 인재행이다. 이것은 첫날 신부집에서 자고, 다음날 밤을 신부집의 이웃 마을에서 자고 3일째 다시 신부집에 와서 신부와 함께 신행하는 것을 말한다.

신행길에는 신부와 함께 여러 사람들이 동행하게 되는데 대체로 신부집을 대표하여 신부의 아버지나 조부가 가게 되고, 신부의 단장과 여러 가지 일을 거들어 줄 수모(手母)와 짐꾼들이 따르고 신랑은 말을 타고 앞장서 가며, 신부는 가마를 타고 뒤따라 간다. 수모는 친척 중에 젊은 부인이나 하인이 간다.

신부가 신랑집에 도착하면 접대자가 사처에 인도하여 잠시 쉬게 하는데, 이때 신부는 화장을 하고 옷매무새를 고친다. 일반적으로는 바로 신랑집에 들어간다. 이때 대문 앞에 짚불을 피워 여기를 뛰어 넘게 하기도 하고 소금·팥·목화씨 등을 뿌려 부정을 막는다.

신부가 탄 가마가 마루 앞까지 와서 내리면 신랑이 가마문을 열어 주며 신부는 방으로 들어간다. 신부는 방석을 깔고 고개를 숙여 앓아 있게 되는데, 간단한 요기상이 들어온 다음에는 또 다시 큰 상이 들어온다. 상이 물러지면 상의 음식은 모두 광주리에 담아 신부집에 보낸다.

2) 현구고례

신부가 시부모와 시가의 사람들에게 처음 드리는 인사를 구고례라 하여 폐백드린다고 한다.

폐백 때에는 신부집에서 장만해 온 닭찜·안주·밤·대추·과일 등을 상위에 차려놓고 술을 따라 올리며 절을 하는데, 절을 받는 순서는 시조부모(妣祖父母)가 계셔도 시부모(妣父母)가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시조부모가 받는다. 다음에는 세대순으로 백숙부모·고모내외·이모내외가 절을 받고, 동향렬의 형제자매는 맞절을 한다.

어른들은 절을 받으면서 예물을 주거나 대추나 밤을 치마폭에 던져 주면서 부귀다남할 것을 축원한다. 이때 시부모와 시집식구들에게 줄 옷이나 버선 등 선물을 가져온 것을 내놓는다. 신부가 신행한 뒤에는 신부가 해가지고 온 옷들을 모두 꺼내어 동네 부인들이 구경을 하는 풍습이 있다.

다음에 신부는 '사당차례' 라 하여 위패를 모신 곳에서 참례를 하는 의식을 치룬다. 신부는 신행한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단장을 하고 시부모에게 문안인사를 올리는데, 문안인사는 시부모가 그만 하라고 할 때까지 계속되지만 대개 3일만에 그친다. 시집에 온 지 3일간은 부엌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예이며,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데리고 가까운 친척의 집에 다니면서 인사를 시키는 가운데 자랑하기도 한다. 이때 친척들과 예단을 주고 받는다.

3) 근친

신부가 시집에 와서 생활하다가 처음으로 친정에 가는 것을 말하는데, 신랑의 경우는 혼례식 때 간 것이 초행이니까 이때는 재행이 된다. 보통 신행한 지 1주일 만에 근친을 가지만, 신부가 시가에서 첫 농사를 짓고 직접 수확한 것으로 떡과 술을 만들어 가지고 가기도 했다. 이때 장모는 사위를 데리고 친척집을 다니며 인사시키고 친척들은 식사대접을 한다.

근친은 성혼(成婚) 후에 신랑·신부가 처가의 부모에게 문안 겸 그간의 경과를 알리고 처가의 부모로 하여금 안심케하는데 있다. 이렇게 처가에서 며칠 지낸 다음 본가에 돌아오면 비로소 혼례가 완전히 끝나며, 신부는 한 주부로서 본격적인 시집살이가 시작된다.

제3절 상례

상례(喪禮)란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예로써 보내고 장사를 지내는 의식 절차를 말한다. 상(喪)이란 원래 사망을 뜻하는 것이며 특히 여자가 부모의 죽음을 말할 때 상을 당했다고 한다. 따라서 상은 슬픔을 뜻하며 부모의 상을 친상(親喪)이라고 하고, 상이 나면 모든 사람들은 애도의 뜻을 나타낸다.

상례는 조상숭배에 기인한 예의의 하나로서 제와 함께 죽은 자에 대한 의례인 것이며 형식은 오늘날에도 그리 많은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다. 동두천지역의 실제 관행을 중심으로 그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장례행렬(1910년대)

1. 초종

초종(初終)은 임종에 대한 준비로, 초혼(招魂), 수시(收屍), 상례 동안의 소임 분담, 관 준비 등의 절차가 포함된다.

1) 임종

임종이란 자손들이 숨을 거두게 하는 일을 말한다. 사람이 임종할 때에 직면하여 회춘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 정침(正寢)에 모신 후 가까운 친족에게 알린다. 이때 주위를 조용히 하여 근신하며, 운명할 사람의 의복을 평상복 중에서 깨끗한 것으로 갈아 입힌다.

이때 남자는 부절어부인지수(不絕於婦人之手), 여자는 부절어남자지수(不絕於男子之手)라 하여 남자는 여자의 손에 운명치 않게 하고, 여자는 남자의 손에 운명치 않게 한다. 그리고 속광(屬鑑)이라 하여 솜을 코 위에 놓아 호흡 여부를 확인한다.

2) 수시

수시는 천시(遷尸)라고도 하는데, 운명이 확인되면 눈을 감게 하고 시신의 머리를 서쪽으로 향하게 하여 바르게 눕힌다. 두 손을 배위에 모아 부드러운 천으로 묶고, 머리가 비틀어지지 않도록 목을 괴이며, 바로 서게 묶고, 귀와 코를 솜이나 탈지면으로 막는다. 이렇게 한 다음 흙이 불로 시신을 머리까지 덮는 한편 병풍으로 가린다. 이어 향을 편 후에 호곡(號哭)을 한다.

3) 복(復)

복은 고인의 흘어진 혼을 다시 부르기 위한 의식을 말하며, 고복(臯復) 또는 초혼(招魂)이라 고도 한다.

고인이 생시에 입던 흙 두루마기나 속적삼을 원손에 잡고 휘두르며, 허리에 오른손을 얹고 마당에 나가 북향하여 생시의 칭호를 세 번 부르고 “속적삼 받아가시오”라고 한다. 또는 “복, 복, 복, 무슨생 아무개 속적삼 받아가시오”라고도 한다.

복이 끝나면 옷을 가져다가 시신 위에 덮거나 옷을 시신 위에다 몇 번 흔들고 머리 밑에 놓기도 하며, 머리를 풀고 호곡을 한다. 수시와 복은 거의 동시에 한다.

4) 상주와 호상(護喪)

부모상에는 장자가 주상이 되고, 장자가 없으면 장손이 승중(承重)하고, 아들상에는 아버지가 주상이 되며, 처상에는 남편이 주상이 된다.

상사는 주상이 혼자 감당하지 못함으로 예절에 밝은 문중 친족이나 친구를 골라 상례를 주관하게 하는데 이를 상례(相禮)라고 한다. 상례를 돋고 예를 아는 사람을 호상으로 삼으며, 그밖에 사빈(司賓) · 사서(司書) · 사화(司貨) · 찬축(撰祝)을 하는 사람이 있다.

죽은 자손들이 담당하는 것이 보통이며, 사빈은 문상객을 맡는다. 사서는 모든 사역을 맡으며, 사화는 재무를 담당한다.

5) 역복(易服)

고인의 직계 비속들은 복 후에는 백의를 입되 성복례(成服禮)까지 외간상(外艱喪)에는 왼쪽 소매를, 내간상(內艱喪)에는 오른쪽 소매를 빼고 입으며, 장례시까지 곡을 그치지 않는다. 그리고 세면을 하지 않으며, 삼일불식이라 하여 삼일 동안은 일절의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라 하였으나, 육식을 피하며 미음이나 죽으로 소식한다.

6) 부고

상을 당한 사실을 호상의 이름으로 일가 친척과 친지들에게 알리는 일을 부고(訃告)라고 한다. 이웃의 친족에게는 직접 사람이 알리나 원거리에 있는 사람에게는 부고장을 보내는데, 서식은 다음과 같다.

〈訃告〉

族第某大人(부친의 경우이고, 모친은 대부인, 조부는 왕대인, 조모는 왕대부인)官名 또는 學生某官某氏 以宿患(隧其事態) 某月某日某時別世 此以訃告(인편으로 할 때는 專人訃告라고 씀)

嗣子 ○ ○

子 ○ ○

弟 ○ ○

孫 ○ ○

姪 ○ ○

參 ○ ○

發軔 : 月 日 時

葬地 : 所在地 山名

護喪 ○ ○ ○ 上

걸봉에는 부고 모위 좌전(訃告 某位 座前)이라 쓴다. 여기에서 영결식을 거행할 때에는 영결일시와 장소를 밀인일시 앞에 기입한다. 그리고 개별부고를 못 보내고 신문에 부고를 낼 때에는 맨끝에 팔호를 하고 개별부고 생략이라고 한다.

치관(治棺)은 송판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고, 천판지판사방판으로 만들며 관의 안팎에 옷칠을 하고 밀납이나 송진을 녹여서 이음새를 메운다. 칠성판도 송판으로 만들고 북두 모양의 구멍을 뚫는다. 이것은 남두성이 생을 맡고, 북두성이 사를 맡는다는 데서 연유한 것이라 한다. 그러나 요즈음은 장의사에서 제품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사다가 사용한다.

2. 염습

염습(殮襲)은 시신을 목욕시키고 의복을 갈아 입혀 관에 넣기까지의 절차로서 습(襲) · 소렴(小殮) · 대렴(大殮) · 입관(入棺)의 절차가 여기에 포함된다.

습은 시신을 목욕시켜 의복을 갈아 입히는 것이고, 소렴은 시신을 묶는 것이며, 대렴은 시신을 단단히 묶고 입관하는 것이다. 예전에는 운명한 당일에 습하고 다음날에 소렴하고 3일째에 대렴하였으나, 요즈음에는 이를 한 번에 하기도 하며 '염습(殮襲 : 잡순다)' 또는 '염(殮)'이라고 한다.

1) 습

습을 할 때에는 향탕수라 하여 향나무 삶은 물로 얼굴을 비롯하여 전신을 닦고, 염의(殮衣)로 갈아 입힌다. 염의는 망인이 입는 옷을 말하는데, 수의(壽衣)라고도 한다.

남자는 적삼 · 고의 · 저고리 · 중치막 · 행전 · 벼선 · 허리띠 · 대님 · 망건(건은 비단으로) · 벽목 · 악수 · 신 · 심의 · 큰띠 · 귀막이 등이고, 여자는 적삼 · 속곳 · 저고리 · 결마기 · 허리띠 ·

바지 · 치마 · 벼선 · 모자 · 먹목 · 악수 · 신 · 원삼 · 큰띠 · 귀막이 등이다.

염의로 갈아 입히고 나면, 조발낭이라고 하는 다섯 개의 작은 주머니에 손톱 · 발톱 · 머리카락을 잘라 각각 따로 넣어 두었다가 대렵 때 같이 넣는다.

2) 반 함

습이 끝나면 반함(飯含)이라 하여 귀와 코를 다시 막고 물에 불린 찹쌀을 벼드나무 수저로 세 번 입에 떠 넣고 이어 동전 또는 엽전 세 니을 입에 넣는다. 이때 한 번 넣고 '백냥이요', 두 번 넣고 '천냥이요', 세 번 넣고 '만석이요'라고 외친다. 이는 망인의 저승길에 식량과 노자를 드리는 의식이다.

3) 소 렴

소렴은 습과 반함을 한 이튿날에 거행하는데, 교포(絞布, 염하는 베)로 시신을 묶는 의식을 말한다.

교포는 세로를 묶은 뒤에 가로를 묶으면서 가로의 매수는 시신의 크기에 따라 5매듭 또는 7매듭으로 묶고 순서는 발끝에서 위로 3매듭, 다음에 머리쪽부터 아래를 묶어 내려가며 가운데 부분을 제일 나중에 묶는다. 묶는 방법은 교포 한 자락을 두 가닥으로 쪼개어 시신이 고루 싸이게 하고 오른쪽 교포가 밑으로, 왼쪽 교포가 아래로 가게 하고 매듭을 짓지 않고 틀어서 끼운 후 남은 가닥은 다음 가닥 밑으로 끼운다. 교포를 다 매면 고깔이라 하여 창호지를 접은 것을 묶은 사이 사이에 끼워 밑으로 향하도록 한다. 이것은 망인이 저승의 열두 대문을 지날 때 문지기에 게 씌워 주는 것이라 한다.

남자 상제들은 삼끈으로 머리를 묶고 웃옷의 어깨를 드러내며, 여자 상제들은 북머리쪽을 향하여 나무 비녀를 꽂고 곡을 한다. 이때 시신을 가린 병풍 앞에 자리를 깔고 교의(交椅)를 놓고 복의(復衣)를 백지로 싸서 교의 위에 놓고 그 위에 혼백상자를 봉안하고 수건(작은 포장)을 드리운다.

교의 앞에는 제상을 놓고 그 위 좌우에 촛대 한 쌍을 놓아 향안(香案)을 배설하고 곡을 계속 한다. 또 명정(銘旌)을 해 세운다. 명정은 붉은 비단의 길이를 4척 쯤으로 하고 분을 아교에 개어 해서체로 쓰고 대나무에 달아 영좌(靈座) 우측에 세운다. 명정 서식은 모관모관모공지구(某官某貫某公之柩)이다.

4) 대 렴

대령은 소령을 한 다음날에 한다. 이때는 염포(대령포) · 상의(도포) · 창의(중치막) · 산의(散衣, 평상시 입던 옷으로, 보공으로 쓴다) · 천금(天衾) · 지욕(地褥) 등을 준비하여 소령 때처럼 시신을 묶는다. 대령 후부터는 조석곡을 하는데, 이는 생시에 혼정신성(昏定晨省)의 예와 같다.

5) 입 관

입관은 시신이 있는 방 안에 마련한 괴임목에 올려 놓는다. 그리고 관 안에 재를 뿐리고 칠성판을 깔고 그 위에 다시 요를 깐다. 그 다음에는 시신을 안치시키고 어깨 · 허리 · 다리 등의 빈 곳은 짚이나 종이 또는 헌옷 등으로 보공을 채워 시신이 흔들리지 않게 한다.

이때 머리카락을 담은 주머니는 머리쪽에 넣고, 좌우 손톱을 담은 주머니는 좌우 띠에, 발톱을 담은 주머니는 발치에 넣는다. 그리고 나서 관뚜껑을 덮고 나무못으로 박아서 구의(柩衣, 널을 덮는 보자기)를 덮은 다음 병풍으로 가린다.

관위의 명정은 천판(天板, 관뚜껑)의 한가운데 오도록 하고 붉은 칠을 아교에 개서 해서로 쓴다. 실내 사면에 포장을 드리우고 천정에 양장을 친 뒤 영좌를 만들어 혼백을 안치하고 영정을 놓고 명정을 오른쪽에 걸쳐 놓는다.

6) 성 복

입관이 끝나면 상제들은 지금까지 입었던 통건과 소복을 벗고, 복제에 따라 상복을 입는 절차인 성복(成服)을 행한다.

상복은 망인과의 관계에 따라 차이를 두는 오복제에 의한 참쇠(斬衰) · 재쇠(齊衰) · 기년(基年) · 대공(大功) · 소공(小功) · 시마(缌麻) 등의 여섯 가지가 있다. 참쇠는 아주 거친 생포, 재쇠는 다음 거친 생포, 기년은 그 다음 생포, 대공은 조금 거친 숙포(熟布), 소공은 조금 가는 숙포, 시마는 아주 가는 숙포이다.

성복을 한 후에는 성복제를 올리는데, 다른 제사와는 달리 술은 한 잔만 올린다. 성복 후에는 정식으로 조객을 맞이한다. 조문하는 방법은 상제가 곡을 하면 조객은 영좌 앞에 나가서 곡을 하고 재배한 후 상제 앞으로 와서 상제와 맞절을 하면서 조의를 표하고, 일어나서 다시 한 번 맞

절을 한다.

한편 상제가 먼 곳에 있다가 상사를 들었을 때 행하는 문상은 부모의 상이면 우선 곡을 하고 옷을 바꿔입고 길을 떠나며, 도중에 슬픈 마음이 나면 곡을 하고, 빈소가 있는 곳이 보이면 다시 곡을 한다. 집에 들어서서는 영구 앞에서 재배를 하고 상복을 갈아입는다.

3. 치장

치장이란 사람이 죽어서 매장하는 절차를 말한다.

1) 득지택일

장지(葬地)와 장일(葬日) 택하는 것을 득지택일한다고 하는데, 장지는 풍수지리설에 따라 지관이 적지를 선정한다. 이른바 자손들의 빈부·귀천·현우·수요가 모두 여기에 달려있다 하여 명당자리에 모셔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장지는 돌아가신 분을 안장하겠다는 정신이 더 중요하다.

득지택일하면 영좌에 고하는데, 다음과 같이 한다.

今已得地於 某郡某里(先塋에 附禮하면 先塋下) 某座之原

將以某月某日 襫奉敢告

(이제 장지를 모군 모리〈선영에 모실 경우에는 선영하〉 모좌 언덕에 얻었으므로 장차 모월 모일에 장사 지내옵기에 감히 고하나이다.)

또 無服者인 遠親을 시켜 토지신에게 고한다.

維歲次干支某月干支朔某日干支姓名 敢昭告于 土地之神

今爲某官姓名 爲其父某官公 營建宅兆神其保佑

殺無後 謹以清酌脯 祇薦于神 尚饗

(해의 차례가 간지 모월간지삭 모일간지 성명 감히 밝히어 토지신께 고하나이다. 이제 모모의 아비 모모의 광중을 짓겠사오니 신은 도우사 근심이 없게 하소서 삼가 술과 포로 신에게 드리오니 흠향하소서)

이와 같이 고하고 일꾼들로 하여금 광중을 파게 한다. 그 다음에 지석과 신주 등을 만든다. 그러나 요즈음 상을 당하면 장지와 택일을 하고, 장일 당일에 광중을 파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기》에 의하면 신분에 따라 장기와 장일이 각각 달라. 대부분은 3개월, 선비는 1개월을 지내 야 장례를 지냈으며 기한 전에 하면 불회라 하였고, 기한이 지나면 태례(怠禮, 殆禮)라 하였다. 그러나 요즈음에는 3일장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2) 천 구

발인 하루 전에 조전(朝奠)에서 주상과 유가족들이 사자가 가묘에 하직케 하는 절차를 밟는 것을 말한다. 다음과 같이 고사(告詞)한다.

〈告詞〉

永遷之禮 靈辰不留 今奉柩車 式遵祖道

(이제 길한 때에 널을 옮기겠사옵기에 감히 고하나이다.)

3) 발 인

발인(發引)이란 상여가 장지로 떠나는 것을 말한다. 이때는 방에서 관을 마당으로 옮겨 놓고 발인제를 올리는데, 다음과 같이 고사한다.

〈告詞〉

今遷柩就舉敢告

(이제 널을 옮기어 상여에 실리옵기에 감히 고하나이다.)

관이 상여에 실리면

〈告詞〉

靈 旣駕 往卽幽宅 載陳遺禮 永訣終天

(상여차에 멍에를 매었으니 가시면 곧 만년유택이십니다. 예로써 보내드리오니 길이길이 이별하나이다.)

발인제(發引祭)는 상주로부터 차례대로 행사하되 역시 단작단배(單酌單拜)로 한다. 발인절차가 끝나면 상여 또는 영구차로 장지로 떠난다. 상여로 모실 때에는 조기(弔旗) · 환서(煥書) · 운아(雲亞) · 명정(銘旌) · 영위(靈位) · 행상인도자(行喪引導者) · 상여(喪輿) · 상주(喪主) · 백관(白官 : 망안의 친척 중 복인) · 조객 등의 순서로 행렬을 짓는다.



꽃상여 행렬

행상 도중에 상여를 놓고 노제를 지낼 경우 적당한 곳에 정상(停喪)하여 제수를 진설하고 제사를 지낸다. 이것은 망인의 제자나 우인이 망인을 보내는 고별인사로, 제문을 읽어 망인의 도덕을 추모하고 업적을 찬양하는 것이 주 내용이 된다.

상여가 묘소에 도착하기 전에 혼백을 모실 영좌를 설치하고 기다린다. 이는 묘소 부근에 천막을 치고, 그 아래에 병풍을 치고 제상을 놓고 교기(혼백틀)를 제상머리에 놓아 자리를 마련하여 두는 것을 말한다. 상여가 도착하면 혼백을 교기에 모시고 제수를 진설한 후 상주 이하가 서서 곡을 한다. 일정 시간의 곡이 끝나면 장지에 온 조객은 혼백에 재배하고 상주에게 조의를 표한 후 일어설 때까지 상주는 양손으로 땅을 짚고 끓어 앉아서 머리를 숙이고 있다가 조객이 일어선 뒤에 일어서야 한다.

하관시간이 되면 상주는 곡을 그치고 하관에 참여하되, 하관작업에 손대는 것은 아니다. 하관은 관을 광중에 넣는 일로 포(布)나 승(繩)을 관 밑에 넣어 조용히 들어서 수평이 되도록 광중에 넣고 포나 승을 빼낸다.

시신은 보통 머리를 북쪽으로, 발을 남쪽으로 가게 하는데, 이를 좌문(座問)이라고 한다. 하관이 끝나면 토지신께 고사한다. 이를 사토지신(祀土地神)이라 하며, 축문은 다음과 같다.

〈 祝 文 〉

維歲次干支某月干支朔某日干支 幼學姓名 敢昭告于

土地之神 今爲某官某公 兹幽宅 神其保佑 殀無後艱

觀以清酌脯 祇薦于神 尚饗

(해의 차례가 간지 모월 간지삭 모일간지 유학성명은 감히 밝히어 토지신께 고하나이다.)

이제 아무는 유택에 하관하였사오니 신은 도우사 뒷 근심이 없도록 삼가 술과 포로 신에게 드리오니 흠향하소서)

관이 반듯하게 놓이면 관의 좌상측에 운(雲), 우상측에 아(亞)를 넣은 뒤에 상주는 재배하고 복은 곡을 한다. 그리고 광중 위에 횡판을 쳐서 관을 가리고 난 후에, 상주가 삽으로 흙을 떠서 뿌리기도 하고, 옷자락에 흙을 담아 관의 위·중단·아랫부분의 세 곳에 뿌리는 천개(天蓋)를 행하고, 석회와 광중을 채운 다음 봉분을 만든다. 평토가 끝나면 묘전에 고사한다.

〈 祝 文 〉

維歲次干支某月干支朔某日干支 孤子(母喪엔 哀子, 父母俱歿이면 孤哀 子라 함) 敢昭告于
顯考學生府君 形 神返室堂 神主未成 伏惟 尊靈舍舊從新 是憑是依(지금은 신주를 만들지
않기에 혼백에 의한 축문을 예시하였음)

(해의 차례가 간지 모월 간지삭 모일간지 고자(父喪) 모모는 감히 밝히어 거룩하신 아버님
께 고하나이다. 형체는 광중으로 돌아가고 혼신은 집으로 반흔하시며 신주가 아직 안되었
사오니 바라옵건대 존령은 이 혼백에 의지하옵소서)

봉분 전명에 묘비·상석·향로석을 놓는다. 이와 같은 작업을 구석물을 갖춘다고 하는데, 장례 당일에 꼭 하는 것이 아니고 사후에 형편에 따라 하면 된다. 사후에 구석물을 갖출 때는 축을 읽고 고유를 해야 한다.

4) 반곡

봉분역사(封墳役事)가 완전히 끝나지 않고라도 평사제를 마치면, 백관에게 뒷일을 맡기고 신주와 혼백을 영여에 모시고 축관이 분향한 다음에 상주는 혼백을 모시고 귀가하기도 하는데, 이를 반곡 또는 반우(返處)라고 한다.

상주 일행은 영여를 빼고 집에 도착할 때까지 곡을 한다. 집에 도착하면 내상주들은 대문 밖으로 나와서 혼백을 맞이하여, 내·외 상주가 서로 마주보며 곡을 하고 축관이 영좌에 신주와 혼백을 모신다. 이어서 다시 조객을 맞이한다.

4. 흉제

치장이 끝난 후 길제(吉祭)까지의 제사를 흉제라 하는데, 이는 영좌가 산에서 반흔하여 반흔제를 지내면서부터 길제까지의 제사를 의미한다. 우제(虞祭) · 졸곡제(卒哭祭) · 삭망 · 소상은 이른 아침에, 대상은 첫새벽에 지낸다.

1) 우제

사자의 시신을 매장하였으므로, 그의 혼이 방황할 것을 우려하여 위안하는 의식으로서 우제를 지내는데, 초우제 · 재우제 · 삼우제 등의 제사를 말한다.

초우제는 장일 당일에 반흔하여 지내는 제사를 말하는데, 반흔제와 겹하는 경우도 있다. 만일 장지가 멀어서 당일 귀가하지 못할 때는 중도에서라도 지낸다.

재우제는 장례 후 첫 유일(柔日) 즉 일진이 을 · 정 · 사 · 해 · 계일에 지낸다.

삼우제는 강일 즉 일진이 갑 · 병 · 무 · 경 · 임일에 지내는데, 대개 장례 후 삼일 또는 사일 만이 된다.

우제는 부모가 살아 있을 때처럼 상식을 하며, 강신(降神) · 진찬(進饌) · 초헌(初獻) · 고축(告祝) · 아헌(亞獻) · 종헌(終獻) · 유식(侑食) · 합문(闔門) · 계문(啓門)의 순으로 올린다.

〈 祀 文 〉

維歲次干支某月干支朔某日干支 孤子 敢昭告于

顯考學生府君 日月不居 庵及初虞(再虞 · 三虞)

興夜處 哀慕不寧 謹以清酌 庶哀薦事 尚饗(再虞에는虞事, 三虞에는 성사라 함)

(해의 차례가 간지 모월 간지삭 모일간지 고자(父喪) 모모는 감히 밝히어 거룩하신 아버님께 고하나이다. 해와 달이 쉬지 않아 문득 초우가 되니 자나깨나 슬퍼 사모하여 거상하지 못하옵고 삼가 맑은 술과 여러 음식으로 슬프게 합사를 드리오니 흠향하소서)

2) 졸곡제

삼우제 후 강일에 무시곡(無時哭)을 마친다는 의미의 졸곡제(卒哭祭)를 올리는데, 신제의 관행에서는 삼우제 이튿날이나 백일쯤 되는 날에 올린다. 이때부터는 조석으로만 곡을 한다.

부모상은 삼년상이라 하여 만 2년간을 상주 노릇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재모상에는 만 1년을 집상하여 왔다. 이 기간 중 상주는 죄인으로 자처하여 매사에 근신하고 상복 또는 백의를 입었으며 상식과 삭망을 지냈다.

상식은 매일 조석에 식상을 빙소의 제상에 올려 놓고 분향하고 곡을 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삭망은 매월 1일과 15일에 제수와 식상을 특별히 마련하여 분향하고 곡을 하는 것을 말한다.

졸곡제를 올리게 되면 문상하여 준 사람에게 인사장을 쓴다.

〈答人慰疏 樣式〉

某 再拜言 某 罪逆深重 不自死滅 禍延先考 攀號 踵
五內分崩 地叫天 無所逮及 日月不居 菴及卒哭 罰罪苦
無望生前 卽日蒙恩 紙奉 筵 荷存親息 伏蒙 尊慈 俯賜
慰問 哀感之至 無任下誠 未由號訴 不勝隕絕 謹奉號 荒迷
不次謹疏

(아무는 이마를 조아려 재배하고 말씀 드립니다. 아무는 죄가 심중하와 스스로 죽지 못하고 화가 선고에 미쳐서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오장이 끊어지도록 땅을 치며 하늘에 부르짖어도 미칠 바가 없나이다. 일월이 쉬지 않고 어느덧 졸곡에 이르렀나이다. 죄가 심하와 살아날 길이 없던 차 그날 은혜를 입어 정성껏 궤연을 밟들어 모시고 구차히 생명을 부지하옵더니 엎드려 높이 위문을 주시와 애감하옵기 한이 없사와 삼가 글월을 밟들어 올리옵고 황미하여 이만 줄이나이다.)

3) 소·대상

(1) 소상(小喪)

소상은 초상 후 1주기에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하루 전에 상주 이하는 목욕제계하고, 제수와 상복도 깨끗하게 준비한다. 소상을 지내는 날, 날이 밝으면 일어나서 제상을 진설하고 상주 이하는 곡을 시작한다.

예전에는 날을 받아서 소상을 지냈지만 요즘에는 첫 기일(忌日)에 소상을 지낸다. 그러나 모선망(母先亡)의 경우에는 졸곡이 소상이 되고 소상일에는 대상을 지낸다. 그러나 부선망(父先亡)의 경우에는 원래대로 한다.

이날은 망인의 친구나 친척들이 찾아온다. 상주가 순서에 따라 분향하고 잔을 올리고 재배하면 모든 참석자도 곡하고 재배한다. 이날 차리는 제수는 일반 기제사와 동일하며 다만 많이 차

린다.

소상을 지낸 후부터는 조석으로 곡을 하지 않으며, 삭망 때에만 한다. 또한 소상을 지내고 탈상을 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에는 대상 후에 한다. 소상 때 읽는 축문은 다음과 같다.

〈 祝 文 〉

維歲次干支某月干支朔某日干支 孤子某 敢昭告于
顯考學生府君 日月不居 庵及小祥 夙興夜處 哀慕不寧
謹以清酌 庶羞哀薦 祥事 尚饗

(2) 대상(大喪)

대상은 소상을 지낸 지 1년만에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소상과 같이 하루 전에 목욕재계하고 제물을 준비한다. 날이 밝으면 소상 때와 마찬가지로 제를 올린다.

소상 때 탈상을 하지 않았으면 대상 후에 하는데, 탈상 때에는 축관이 신주를 사당에 모시며 영좌를 철폐하고 지팡이는 깨끗한 곳에 버린다. 상(祥)은 길한 것으로 길제(吉祭)라고도 한다. 대상 때 읽는 축문은 다음과 같다.

〈 祝 文 〉

維歲次干支某月干支朔某日干支 孤子某 敢昭告于
顯考學生府君 日月不居 庵及大祥 夙興夜處 哀慕不寧
謹以清酌 庶羞哀薦 祥事 尚饗

4) 담제 · 길제

대상 후 3개월이 되는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에 담제(譚祭)를 지내며, 담제 후 1개월이 되는 정일이나 해일에 길제(吉祭)를 지낸다. 담제는 효자의 심정이 이에 이르러 담담하고 평안하게 됨을 뜻한다. 신위는 영좌가 있던 자리로 정하여 모시고, 진설과 제순은 상과 같고, 복색은 담복을 입는다.

길제는 상을 마치는 특별한 제사이므로 사시의 제사가 아니라 했으니 원래는 이때에 탈상을 하는 것이 고례이었다. 담제를 행한 음주와 육식이 허용되었고, 길제 후에 부인과의 동침이 허용되었다.

제4 절 제례



제례

대한 제의가 발상되고, 여기에서 조상숭배의 의례가 기원하였다. 후자는 애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가족원의 상실에서 오는 아쉬움과 죽은 자에 대한 공포가 조상숭배를 낳게 하였다. 즉 죽은 조상과 산 자손은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며, 때로는 조상이 자손에게 덕과 해를 줄 수도 있다는 믿음에서 조상숭배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상에 대한 의례적인 행위는 죽은 사람을 산 사람과 따로 떼어내기 보다는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상호관계를 오히려 돋우기 해주는 성격을 지닌다.

우리 나라를 비롯한 동양은 원래 신명을 받들어 복을 빌고자 하는 의례를 제례라고 하였다. 예로부터 천지·일월·성신을 비롯하여 풍사·우사·사직·산악·강천, 그리고 선왕·선조·선사를 대상으로 제사를 지내왔다. 그러나 유교가 우리 사회에 정착됨에 따라 대부분의 제사 대상이 의미를 상실하고, 제례는 단지 선조 즉 조상에 대한 의례를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다시 말해 시조 이하 선대 선조들을 추모하는 여러 가지 의식을 비롯하여 돌아가신 고조부모,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형제와 배우자 기타 친족을 추도하기 위하여 돌아가신 날 혹은 사시명절에 차례를 올리는 의식절차만을 제사로 의식하였다.

이러한 제사는 삭망제를 비롯하여 정속대소(正俗大小)의 여러 가지가 있으나, 여기에서는 사당제(祠堂祭)·차례(茶禮)·기제(忌祭)·묘제(墓祭) 등으로 대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제례(祭禮)라 함은 조상숭배의 일종으로서 대부분의 사회에서 행해지고 있다.

제례의 발생에 대해서는 인간은 죽어도 영혼은 불멸한다는 영육 이중구조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된다는 설, 조상에 대한 애정과 공포라는 설 등이 있다.

전자는 인간은 죽어도 영혼 불멸한다는 영혼불멸사상 때문에 시체에

1. 사당제

사당제는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선조의 신주에 알리는 고사당(告祀堂)의 관습으로 본격적인 제례라고 볼 수 없으나, 신주를 대상으로 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제례로 볼 수도 있다. 고유(告由)라고도 하며, 제의의 장소는 사당이다.

사당은 안쪽에 세간 크기로 짓고 고조까지 신주를 모신다. 사당 안에는 북쪽에 있는 일가(一架)에 4개의 감실을 만든다. 감실은 일가를 4등분하여 나무판으로 막아서 만든다. 감실마다 탁자를 놓고 그 위에 신주를 모셔두는 케인 주독을 놓고, 주독 속에 신주를 모신다. 독은 남쪽으로 향하게 하여 탁자의 북쪽 끝에 놓는다. 고조고비의 신주는 첫번째의 감실인 서쪽에 모시고, 다음에 증조고비·조고비·고비의 신주를 차례대로 제2·제3·제4의 감실에 모신다.

사당에는 제례를 위한 많은 제기가 부속되어 있다. 사당제의 종류로는 신알례(晨謁禮)·출입례(出入禮)·참례(參禮)·천신례(薦新禮)·고사례(告辭禮) 등의 다섯 가지가 있다.

신알례는 주인이 매일 새벽에 일어나 심의를 입고 사당의 외문 안에 들어가 분향하고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출입례는 주인이나 주부가 가까운 곳에 출입할 때, 사당 대문 안에 들어가 간단히 쳐다보고 예를 올리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주인이 밖에서 자고 올 때는 분향·재배하며, 멀리 갈 때는 재배·분향·고사·재배, 그리고 중문 밖에서 또 다시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참례는 매달 초하루와 보름날, 정조(正朝)와 동지에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참례 하루 전 날 사당을 깨끗이 하고, 다음날 아침에 감실 앞에 제수를 진설한다. 그리고 주인과 주부가 신주를 주독에서 모셔내고, 다른 사람들은 사당 대문 안뜰에 선다. 주인이 분향·재배하며, 일동이 사신(辭神)하여 끝낸다. 참례가 끝난 후에는 주인과 주부가 다시 신주를 감실에 모신다.

천신례는 청명·한식·단오·중앙에 올리는 제사를 말한다. 이때는 별식이나 과일 등을 진설하며, 제의 절차는 참례와 같다.

고사례는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 사당에 고유하는 것을 말한다. 즉 돌아가신 조상에게 추증(追贈)이 내려 신주의 분면을 고칠 때, 적자가 태어났을 때, 벼슬길에 나갈 때, 돌아가신 부모의 생일이나 늙어 아들에게 가사를 위탁할 때, 사당을 수리할 때, 이사를 갈 때 고사례를 올린다.

고사례의 절차는 참례와 같으나 주인이 헌작한 다음에 축관이 고사를 읽는 절차가 있다.

2. 차례

차례는 《예서》의 사당제의 내용과 습합된 흔적이 많다. 차례는 대체로 매월 1일과 15일에 지내는 삭망차례, 설날·한식·단오·추석에 지내는 사절차례, 대보름날·삼진날·유두·칠석·중앙·동지·납일에 지내는 천신차례 등이 있는데, 오늘날에 일반화된 정초차례와 추석차례에 한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정초차례는 매년 음력 1월 1일에 세배로 드리는 차례이며, 추석차례는 새로 지은 곡식으로 음식을 해서 조상에게 추수를 감사하는 뜻으로 올리는 제사이다. 차례 방식은 모두 같으나, 정초차례 때는 떡국을 준비하고, 추석차례 때는 송편을 준비하는 것이 다르다. 차례의 장소는 사당을 원칙으로 하나 사당이 없는 집은 마루나 방 한 칸에 신주를 모신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임시로 지방을 모시고 지낸다.

지방을 모신 가장 윗대 즉, 고조부모의 지방을 붙이고 제물을 진서한다. 종손이 분향, 강신하고 일동 참신한다. 이어서 헌작한 다음 정저(正著)·유식(侑食)·낙저(落箸)하고 일동이 사신(辭神)한 후 지방을 소각하고 음복하는 순으로 마친다. 이와 같은 순으로 부모대까지 지낸다.

신주를 모시고 있는 경우 먼저 제물을 진설한 다음에 신주를 모신 곳 앞에 후손들이 양쪽으로 서서 읍하고 있으면 종손이 재배를 한 다음에 가장 윗대의 주독을 꺼내서 교교(交橋)에 모시고 주독을 열고 재배하여 참신한다. 이후 지방을 모시는 경우와 같은 순서로 제를 지내고 지방을 소각하는 대신 신주를 제자리에 모시고 음복하는 순으로 마친다.

3. 기제

기제는 돌아가신 조상의 기일에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기일이란 자기를 기준으로 고조까지의 조상을 포함하는 친속이 사망한 날을 뜻한다.

이 날에는 다른 일 하기를 꺼리기 때문에 기일(忌日) 또는 휘일(諱日)이라고도 부른다. 그러나 기제의 의미는 무엇보다도 고인이 별세한 그 날을 잊지 못하여 추모하는 데 있다고 하겠다.

제주는 고인의 장자 또는 장손이 되며, 장자와 장손이 없는 경우에는 차자나 차손이 제주가 되어 제사를 주관한다. 자손이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 주관하기도 한다. 상처한 경우에는 남편이나 자손이 제주가 되고, 자손 없이 상부한 경우에는 아내가 제주가 된다. 침제 범위는 고인의 직계 자손으로 하고 가까운 친척도 참여할 수 있다.

기제를 지내는 시간은 고인이 별세한 날의 첫 새벽(子時)에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별세한 날이 되면 우선 고인의 제사부터 올리는 정성을 강조한 데 있다고 본다.

차례와 기제를 지내는 대상은 4대 손(孫) 내의 방계 후손이 모두 사망할 때까지, 가장 윗 항렬의 후손에게 체천(滯遷)되어 기제의 대상이 되었다가 시제로 넘어간다.

제수는 가정 형편에 따라 정성껏 준비한다. 제수를 만들 때는 몸을 청결히 하고 정성껏 만든다. 그밖에 제사에 쓸 제기를 꺼내 닦아 놓는다. 제수는 메·탕·숙채(무나물·도라지나물·숙주나물 등의 삶은 나물)·생채·포·식혜·적·과일 등을 준비한다. 술과 포는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제수를 진설할 때는 홍동백서(紅東白西), 좌포우혜(左脯右醯), 어동육서(魚東肉西), 두동미서(頭東尾西)의 원칙을 따라서 진설한다. 젓상을 마주보고 오른쪽이 동, 왼쪽이 서가 된다.

신위는 지방으로 조성한다. 지방은 깨끗한 한지에 먹으로 쓰며, 크기는 대략 길이 25cm, 넓이 6cm로 한다. 지방의 서식은 다음과 같다.

顯	顯
高	曾
祖	祖
考妣	妣
學孺	學孺
生人	生人
府某	府某
君貫	君貫
某氏	某氏
神	神
位	位

(高祖·母)

顯	顯
曾	曾
祖	祖
妣	妣
學孺	學孺
生人	生人
府某	府某
君貫	君貫
某氏	某氏
神	神
位	位

(曾祖·母)

顯	顯
祖	祖
考妣	妣
學孺	學孺
生人	生人
府某	府某
君貫	君貫
某氏	某氏
神	神
位	位

(祖父·母)

顯	顯
妣	妣
學孺	學孺
生人	生人
府某	府某
君貫	君貫
某氏	某氏
神	神
位	位

(父母)

제사를 지내는 순서는 먼저 분향하고 강신(降神)한다. 분향은 조상의 영혼을 불러 모시는 것이고, 강신은 땅속에 있는 조상의 육신을 모신다는 의미이다. 이는 조상이 오셔서 음식을 드시라고 청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신을 모셔오는 뜻으로 문밖에 나갔다가 들어온다.

흔령이 들어오다가 걸리지 않도록 빨랫줄은 모두 걷고, 불을 켜서 집안을 밝힌다. 신을 모시고 들어와서는 제주 이하 참제자들이 차례대로 줄을 서고 제주가 신위 앞에 나아가 끓어앉아 분향을 한다. 이어서 우집사가 술 반잔을 따르면 제주는 술잔을 받아서 모사(茅沙) 위에 세 번에 나누어서 붓고 우집사에게 다시 주고 일어나서 두 번 절한다.

강신을 한 다음에는 참신한다. 제주 이하 참제자들이 두 번 절한다. 다음 순서는 초현이다. 처음 잔을 올리고 독축하는 것으로 집사가 술을 잔에 부으면 잔을 들어 모사에 세 번에 나누어 붓고 잔을 주면 집사는 그것을 받아서 올린다.

독축은 축문을 읽는 것으로 초현이 끝난 다음 제주 이하 모든 상제가 끓어앉고 제주가 천천히 축을 읽는다. 독축을 다하면 모두 일어나 두 번 절을 한다. 축문은 다음과 같다.

維歲次干支某月干支朔某日干支 孝子某某 敢昭告于

顯考學生府君 顯妣孺人某官某氏 歲序遷易

諱日復臨 追遠感時 昊天罔極(祖考 이상은 不勝永慕)

謹以清酌 庶羞恭伸 奠獻尚饗

(해의 차례가 간지 모월 간지삭 모일간지 효도스러운 이의 아들 모모는 감히 밝히어 거룩하신 아버님 · 어머님께 고하나이다. 해가 바뀌어 돌아가신 날을 다시 당하매 멀리 추억하니 때에 느낌이 하늘 끝까지 다함이 없사와 삼가 맑은 술과 여러 가지 음식을 공손히 펴서 드리오니 흠향하소서)

아현(亞獻)은 두번째 잔을 올리는 것으로 망인의 두번째 근친자가 올린다. 만일 장자가 제주라면 차자가 잔을 올린다. 종현(終獻)은 마지막 잔을 올리는 것으로 아현 때 잔을 올린 사람 다음으로 잔을 올린다. 이때는 제주를 반 잔만 올린다.

첨작은 첨작을 드리는 자가 신위 앞에 끓어 앉아 제주병을 신위를 향해 세 번 휘저어 집사에게 주면 집사는 종현 때 채우지 않은 나머지 반잔을 채운다. 첨작을 드리는 자는 재배하고 물려 선다.

계반삽시(啓飯挿匙)는 메그릇의 뚜껑을 열어 놓고 수저를 꽂는 것을 말한다. 다음으로는 승 능을 국과 바꾸어 올리고 메를 조금씩 세 번 떠서 말아 놓는다. 수저를 고르고 참사자 일동이 2

분 정도 뒤돌아있다가 바로 선다. 숭늉그릇에 놓인 수저를 거두고 메그릇에 뚜껑을 덮는다. 참사자 일동이 마지막으로 재배한다.

이렇게 모든 절차가 끝나면 자손들은 대문까지 나갔다가 들어온다. 이때 지방을 밖에 가지고 나가서 태운다. 제사를 지낸 후에는 가족들이 모여앉아 음복을 한다.

4. 묘제

묘제는 종손을 기준으로 하여 기제 봉사의 대상에서 넘어간 5대조 이상의 조상묘에서 올리는 제사를 말하며, 시제(時祭) · 시향(時享)이라고도 한다.

묘제는 일반적으로 10월 초순에서 중순 사이에 지낸다. 재실이 있는 문중에서는 우천시에 묘소를 대신하여 제를 올리기도 한다. 재실은 종중의 일을 의논하는 문중회의 장소로 사용하기도 한다. 이밖에도 문중의 화합과 단결력을 과시하기도 하고 가문의 위세와 상징물로서 유지해 나간다.

묘제의 준비는 종손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문중에 따라서는 위토가 있어 여기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제수비용을 충당하고, 이 위토를 맡아 운영하는 사람인 묘지기에게 차리도록 한다. 묘제의 순서는 높은 조상이 묘소로부터 아래조상의 묘로 내려오면서 지낸다. 각 묘에 제를 올리기 전에 산신제를 단현으로 지내는 문중도 있다. 이때의 제주는 친족 중의 한 사람이 된다.

묘제의 절차는 기제의 내용과 비슷하나 가문에 따라 삼현 또는 단현으로 되어있다. 진설은 메나 탕이 없을 뿐 기제와 비슷하고, 상석이 마련되어 있어 그곳에 진설한다. 상석이 없으면 젯상이나 돛자리를 가져가 그 위에 진설한다. 묘제의 제관들은 모두 남성이며 제복은 도포나 두루마기가 원칙이다. 묘제가 끝나면 음복을 하며, 참석하지 못하는 노인이나 어른에게는 '봉지' 라하여 제물을 싸서 보낸다. 묘제가 끝나면 경향 각지에서 모인 친족을 모아 종친회를 열어 종친회사업과 묘제 경비에 대한 회계보고를 하는 문중이 많다.

제5절 기타의례

1. 출산의례

1) 기자(祈子)

전통사회에서는 혼인을 자녀출산의 수단으로 여겼을 정도로 혼인한 여성은 아이를 낳는 일을 가장 큰 의무인 동시에 소망으로 생각했다. 특히 가계 계승자를 얻는 것이 중요한 효도의 한 가지였던 전통사회에서는 아들을 낳아야만 후손의 도리를 다하는 것으로 알았다.

남아 출산을 못하는 여인은 이른바 칠거지악(七去之惡)의 한 가지를 행한 것이 되어 쫓겨나든지 아니면 남편이 첨을 두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았다. 따라서 신부감을 고를 때 아들을 많이 낳을 수 있는 관상인가를 먼저 알아 보았다.

영조 42년(1776)에 간행된 『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에 득남할 신부의 관상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 * 눈매가 길고 눈끝이 젖지 않아야 한다.
- * 눈썹이 길고 이마가 평펴짐하여야 한다.
- * 콧날이 오똑하고 봉눈 같아야 한다.
- * 목소리가 고르고 기(氣)가 족하여야 한다.
- * 피부가 광택이 나고 향취가 있어야 한다.
- * 살결이 부드럽고 메마르지 않아야 한다.
- * 얼굴은 거위나 벼룩을 닮아야 좋다.
- * 어깨가 모나지 않고 등이 두툼하여야 한다.
- * 손이 봄에 돋아 난 죽순같아야 한다.
- * 손바닥이 붉어야 한다.
- * 젖꼭지가 검고 굵어야 한다.
- * 배꼽이 깊고 배가 두툼하여야 한다.
- * 엉덩이가 평평하고 배가 커야 한다.

이밖에도 신부의 머리카락이 굵고 푸르고 검은 빛이 돌면 피가 왕성하여 자녀를 많이 낳으리라 하였다.

이와 같이 신부감을 고를 때부터 가계 계승자인 아들을 보는데 지대한 관심을 보였던 전통사회의 우리 민족은 혼인 뒤 여러 해가 지나도 아들을 낳지 못하면 당사자는 물론 온 가족이 근심에 싸인다. 특히 남자가 장손이거나 여러 대를 이어 독자인 경우에는 친척들도 무심할 수가 없었다. 이때에 아들을 낳기 위하여 명산대천(名山大川)에 가서 빌거나 여러 가지 주술을 베푸는 기자행위를 하였다.

기자행위로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치성(致誠) · 식음 · 주술(呪術) · 공덕행위(功德行爲) 등으로 대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치성

아들을 낳으려는 치성행위는 장소에 따라 산치성 · 절치성 · 집치성 등으로 나누며, 비는 날 수에 따라 삼일기도, 칠일기도, 백일기도 등으로 부른다. 또 당사자가 혼자 드리는 외에 남편이나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 등 여럿이 함께 치성을 드리기도 한다.

우리 나라에는 산이 많을 뿐 아니라 예로부터 산에 대한 신앙을 가졌던 까닭에 산치성이 가장 보편적으로 행하여진다. 산치성은 산이 명산일 경우 그 산 자체를 치성의 대상으로 삼지만 보편적으로 큰 나무 · 샘 · 바위 등에서 빈다. 특히 바위의 경우 험상궂고 묘하게 생길 수록 영험이 있다고 여긴다.

이러한 곳에서 치성을 드릴 때는 손에 작은 돌을 쥐고 바위에 비비며 “부다 아들 하나 태워 주소서”라고 축원한다. 또 쌀을 일곱 번 씻어 밥을 지은 다음 밥 위에 실타래를 엎어 놓고 여러 시간 동안 합장하며 빌기도 한다.



치성

절치성은 흔히 큰 법당 위에 있는 산신각이나 칠성각에서 올린다. 스님의 지시에 따라 미리 쌀이나 광목 등을 시주하지만, 정성이 지극한 사람은 스님의 옷이나 부처님 방석을 지어바친다. 절치성은 보통 백일 동안 진행된다.

집치성은 몸을 셋은 다음 새옷으로 갈아 입고 상위에 쌀·실·물 따위를 올려놓고 빈다. 뒤 곁의 칠성님, 부엌의 조왕님, 우물의 용왕님을 주 대상으로 삼으나 삼신할머니를 포함시키기도 한다.

(2) 식 음

당사자가 자신의 출산력을 얻기 위해 흡월정(吸月精)을 한다. 음력 초열흘부터 보름까지 닷새 동안 달이 점점 차 오를 때, 갓 떠오르는 달을 마주 바라보고 서서 숨을 들이 마신다. 이렇게 하면 우주의 음기를 넣는 달의 기운이 몸 속에 들어와 출산력이 강해져서 아들을 낳게 된다는 것이다.

이밖에 고추·달걀·수탉이나 황소의 생식기 등 특정한 음식을 먹으면 남아를 낳는다는 관념도 있었으며, 심지어 석불·망부석·돌미륵 등의 코를 문질러서 그 가루를 마시기도 하였다. 이 돌가루를 마시는 것은 석불의 코를 남성의 성기로 여긴 테에서 나왔다.

(3) 주 술

쇠도끼나 나무도끼를 속옷 끈에 차고 다녔다. 또 '한 텃줄에 아들 삼형제' 라 하여 도끼 세 개를 한 줄에 이어 맨살에 당도록 차는 경우도 있었다.

도끼는 '남성이 쓰는 연장인 동시에 남성 그 자체를 나타내는 물건' 인 까닭이다. 또는 아들을 많이 낳은 여인의 개짐을 돈을 주고 사거나 몰래 훔쳐서 몸에 지니는 경우도 있었다.

(4) 공 덕

덕을 쌓거나 선을 베풀으로써 신의 감동을 얻어 아들을 낳게 되리라는 관념에서 비롯되었다. 공덕의 대표적인 것이 겨울에 찬 냇물을 건너 다니는 사람들을 위하여 다리를 놓는 '노두놓기'이다. 다리를 건너는 사람마다 복을 빌어주는 결과로 소원을 이루리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밖에 동네 길을 고치거나 어려운 사람을 열심히 도와주며, 심지어 새끼뱀 개가 더위를 먹어 고생할 때, 부채질을 해 주며 "나도 새끼배게 해다오"라고 했다.

이렇게 해서도 임신을 못하는 경우에는 '씨받이' 또는 '씨내리'라하여 남의 몸을 빌려 자식을 낳았다고 한다.

2) 임신

임신을 하게 되면 태아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하여 태교(胎教)를 하는데, 여기에는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음식물을 가려 먹음으로써 임신부의 건강을 유지시키려는 목적 외에 유감주술적인 배려에서 나온 것이다. 또한 태아가 남아인가, 여아인가를 궁금하게 여겨 이를 태몽과 태점으로 미리 알아 보았다.

부인이 임신하게 되면 남편도 태교를 했다. 즉 살생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뗜감을 마련할 때에도 낫이나 도끼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돋는 일에 열심이었다. 이와 같이 아버지의 태교가 강조되었지만, 가장 중요한 태교는 당사자인 임신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믿었다.

우선 임산부는 음식물을 가려 먹었다. 예컨대 오리고기를 먹으면 아기의 손이 오리발처럼 되고, 토끼고기를 먹으면 눈이 토끼눈처럼 붉으며, 상어고기는 피부를 거칠게 만든다고 여겨서 절대로 먹지 않았다. 또 돼지고기는 부스럼을 자주 일으키며, 달걀은 종기의 원인이 되고, 꿩고기는 목숨을 단축시키며, 쇠뼈는 광대뼈를 튀어나오게 한다고 믿었다.

한편 임산부에게 적극 권장한 식품도 적지 않았다. 잉어를 먹으면 아기가 단정한 모습으로 태어나고, 황소 콩팥과 보리밥은 힘이 세고 슬기롭게 만들며, 가물치는 총명이 짓들게 한다고 여겼다.

음식에 대한 이와 같은 관념은 태중의 아이가 건강을 유지하며, 무엇보다 정서적인 안정을 얻어 아이의 올바른 성품 형성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몸가짐을 바르게 가지라는 교훈도 적지 않았다. 말고삐·체·부·삽·도마 따위를 넘지 말고 시루나 독을 들지 말며, 빗자루를 깔고 앓지 말라는 따위이다. 또한 보거나 들어서는 안되는 일과 삼가거나 금해야 할 일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이다. 이밖에 산달에 아궁이나 쿨뚝을 고치면 아기가 언청이로 태어나고, 문구멍을 바르면 난산을 하며, 빨래를 삶으면 피부가 나빠진다고 여겼다.

태몽은 임신 중이나 출생 직후에 많이 꾸며, 아이의 성별뿐만 아니라 운명까지 좌우한다고 믿었다. 꿈을 꾸는 사람은 임산부를 비롯하여 남편이나 시집 또는 친정 식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태몽은 임신부가 언제나 아이를 생각하고 가족들도 지대한 관심을 가짐으로써 나타나는 심리적 현상이라 하겠다.

해와 달을 삼기거나 몸에 지니는 꿈, 용·범·구렁이·소·돼지·장닭·장끼 등의 동물과 호박·가지·무·고추·호두·송이버섯·밤 따위의 식물에 관한 꿈이면 아들을 낳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한편 암소·고양이·말·암탉·뱀 등과 감·참외·수박·애호박·꽃 따위는 딸기이다. 이와 같은 동·식물들은 남녀의 성격은 물론 성기와 관련된 상징물이기도 하다.

또한 태점이라 하여 태아의 성을 미리 알아보는 방법도 널리 시행되었다. 즉 임신부의 배가 뾰족하게 부르거나 입덧이 심하면 딸, 배가 높지 않고 평펴짐하고 입덧이 것의 없으면 아들이다. 또 부부의 나이를 더해서 홀수가 되면 아들, 짝수가 되면 딸이다. 임산부를 남쪽으로 걷도록 하고 뒤에서 갑자기 불러서 왼쪽으로 돌아보면 아들, 오른쪽으로 돌아보면 딸이다. 대개 남아는 왼쪽에 있으므로 머리도 왼쪽으로 돌아간다고 여긴 것이다. 태아가 여아로 판단되었을 때는 남아로 바꾸는 민간비법을 쓰기도 했다.

임신에서 출산까지 계속 왼쪽으로 누워자거나 고추를 많이 먹거나 심지어 남이 끈 남아태몽을 돈으로 사면 사내아이를 낳으리라 여겼다. 또 토끼나 수탉의 긴 꼬리 3개를 임산부 모르게 침상 밑에 두는 비법도 썼다.

이밖에 아들을 낳은 산모가 먹는 첫국밥을 얻어 먹으면 아들을 낳는다는 속설도 있다.

3) 해 산

(1) 산바라지

산달을 앞둔 집에서는 그 준비에 바쁘다. 기저귀·포대기·배내옷 등 아기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첫 아기의 포대기는 친정에서 해 주며, 반드시 해산 전에 준비해 둔다. 아기가 태어난 뒤에는 부정이 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기 물품을 살 때는 깎지 않는 것이 불문률이다. 이를 깎으면 아기의 복을 깎는 것으로 여겼다.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입는 배내옷은 첫 목욕을 시킨 뒤 바로 입히거나 사흘 뒤에 입힌다. 이 옷은 바늘로 꿰매며 단추를 달지 않고, 긴 끈을 붙여 가슴에 한 바퀴 돌려 맨다. 단추 대신 긴 끈을 쓰는 것은 아기의 수명이 그 만큼 길기를 바라서이다.

해산일이 가까워지면 산바라지도 정해 둔다. 이 일은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가 맡으나, 해산 경험이 많고 아이들을 모두 무사히 키운 복많은 노인에게 부탁하기도 한다.

산실 윗목에는 밥과 미역국을 소반에 올려 놓고 순산을 빌기도 한다. 삼신은 아이를 배게 하고 낳게 하며, 아이가 자라나는 것을 돋는 신이다. 이 신은 한 집에 한 분뿐이므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산달이 같으면 며느리는 반드시 친정으로 돌아가서 아이를 낳는다. 순산한 뒤에는 삼신에게 바쳤던 쌀과 미역으로 밥과 국을 지어 산모에게 먹인다.

아기가 태어나면 산바라지는 먼저 그 시간을 정확하게 알려준다. 출생 시간이 장래 운명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기가 첫 울음을 울기 전 손가락에 풀솜이나 비단을 감고 입 속에 넣어 좁쌀알갱이라 하는 이물질을 닦아낸다.

(2) 삼갈이

삼갈이라하여 텃줄을 자르는데, 텃줄을 잡고 아기쪽으로 훑은 다음 배꼽에서 한뼘쯤 되는 부분을 자르고 끝 부분을 실로 잡아매어 깨끗한 솜에 싸서 아기 배위에 올려 놓는다.

태는 흔히 가위로 자르지만 여아가 태어났을 때에는 동생이 남아이기를 바라는 뜻으로 소독 한 낫이나 식칼을 쓴다. 남아인 경우에는 낫이나 식칼 외에 산모가 이로 끊고 그 침을 삼키는데, 이렇게 하면 아이가 무병장수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태는 짚이나 종이에 싸고 삼신상 아래 두지만, 이를 귀하게 여기는 집에서는 일진에 맞추어 좋은 방위에 놓아둔다. 이 방향을 '장태방'이라 한다. 태는 보통 사흘이 지나기 전이나 사흘째 되는 날 잿불에 바짝 태워서 깨끗한 물에 띄우거나 산에 묻어 버린다. 이를 태우는 장소가 집에서 먼곳이면 동생 터울이 길고 가까우면 짧으리라고 여겼다.

(3) 금 줄

아기가 태어나면 한 이레 또는 세 이레 동안 대문에 금줄을 쳐 둔다. 출산을 외부에 알려서 다른 사람, 특히 부정한 사람의 출입을 막는다.

남아인 경우에는 새끼줄에 붉은 고추와 숯덩이를 끼워두며, 여아는 솔가지·종이 따위를 달아둔다. 금줄은 반드시 원새끼로 꼬며 양끝을 자르지 않는다. 원새끼는 잡귀를 쫓기 위해서이며, 양끝을 그대로 두는 것은 아기와 산모의 수명이 끝없이 길기를 바라서이다. 또 금줄을 걸기 위하여 기둥에 못을 박으면 아기가 장님이 된다고 믿었다. 붉은 고추는 남성의 성기를 상징하며, 붉은 기운 또한 잡귀를 물리친다고 여긴다. 숯은 제독의 뜻이 담겨 있고, 솔잎의 색상인 녹색은 여성의 성장을 나타내는 빛으로서 자라서 바느질을 잘 하리라 여겼기 때문이다.

금줄이 걸린 동안은 가족 가운데 개잡는 것을 보거나 상가에 다녀온 사람은 산실에 들어가지 않는 등 몸가짐을 조심한다. 이를 어기면 아기에게 붉은 반점이 돌아난다. 기간이 지난 금줄은 아무 곳에나 버리지 않고 걸어서 문 안쪽의 기둥 높은 곳에 감아 두었다가 태운다.

(4) 첫이레

아기가 태어난 지 7일 즉, 첫 이레에는 삼신상을 차려놓고 삼신에게 감사하는 동시에 아기의 명을 빈다. 이날 아기의 강보를 벗기고 깃 없는 옷을 입히며, 동여매었던 소매끝도 풀어준다.

할아버지는 이날 처음으로 손자를 보게 된다. 이로써 아기는 가족과 첫 대면을 하는 셈이다. 그리고 아기에게 장수를 기원하는 뜻으로 실꾸리를 채워주거나 곁에 놓아둔다.

(5) 두이례

두 이례날에도 삼신상을 마련하는 집이 있으나 보통은 상을 차리지 않는다. 깃이 달린 웃옷에 두렁이를 입히고 나머지 소매끝마저 풀어서 아기가 마음대로 활개짓을 하게 된다.

(6) 세이례

세 이례날에는 삼신상을 차려 마지막 감사를 드리고 금줄을 걸으며 산모나 아기, 그리고 가족들도 그동안 지켜야 했던 모든 금기도 풀어진다.

아기에게 위·아래 옷을 갖추어 입히며, 산모는 일상생활로 완전히 되돌아온다. 이웃과 친지에게 특별한 음식을 대접하며 수수떡과 속을 넣지 않은 만두를 빚어 문 앞에 놓아서 오가는 사람들에게 풀어 먹인다. 수수떡의 붉은 빛깔은 잡귀를 물리치고, 빈 만두는 아이의 도량이 넓어지라는 뜻이다. 사람들은 실타례나 건강하게 자란 아이 옷을 선물하며, 첫 아기인 경우 외가에서 옷·미역·실 따위를 가져와 아이와 첫 대면을 한다.

또한 오늘날에는 거의 매일 목욕을 시키지만 예전에는 첫 이례, 두 이례 그리고 삼칠일에 한 하였고, 이후에나 매일 목욕을 시켰다. 외기에 자주 노출되는 것을 해롭게 여긴 까닭이다.

한편 아이의 명이 길어지기를 바래서 아명을 따로 지어 부르기도 했다. 개똥이·쇠똥이·말똥이 따위가 그것으로 천하고 더러운 이름을 붙임으로써 잡귀가 달라붙지 않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 아이를 지나치게 귀여워하거나 자랑하는 일도 삼가하였으며, 오히려 잘생기고 귀여운 아이일수록 ‘밉게도 생겼네’ 또는 ‘못생긴 녀석’이라고 거꾸로 불렀다. 이와 같은 풍속은 유아사망률이 매우 높았던 예전에 유행된 것으로, 부모의 심리적 불안을 덜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였다.

이날로써 해산에 따른 실질적인 모든 의례가 마감된다.

(7) 백일과 첫돌

아이를 낳은지 100일이 되는 날에 아이를 위해서 해주는 잔치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100일을 넘기기 어려웠기 때문에 100일 넘긴 것을 축하하는 의미의 잔치였다. 일단 100일을 넘기면 살놈으로 볼 수 있다. 아이는 백일 때부터 색깔 있는 옷을 입힌다. 그 이유는 아이의 명이 길라는 뜻이다. 이때부터는 아이를 업어줄 수가 있는데, 백일 전에는 아이가 머리를 가누지도 못하

기 때문에 업어줄 수 없지만 백일을 넘긴 후부터는 업어준다.

배냇머리는 이모가 깎아주면 좋다고 한다. 깎아줄 때는 머리카락 몇 가닥을 남기고 깎아주는 데, 이것은 아기의 명이 길라는 뜻이다.

백일 아침에는 삼신상을 차린다. 주로 아이의 할머니가 차리는데 아이 머리맡에 미역국과 밥을 차린다. 이때 차린 음식은 아이 엄마가 먹는다. 귀한 음식이기 때문에 아이 엄마가 먹는 것이다.

백일 음식으로는 백설기와 수수경단을 비롯한 떡 종류와 미역국·밥·나물을 준비한다. 돌처럼 큰상을 차리거나 아이에게 옷을 해 입히지는 않는다. 친척과 주위 사람들을 불러 같이 음식을 나눠 먹고 축하한다. 백일음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설기이다. 백설기는 백 사람이 먹으라는 뜻으로 한다. 실제로 떡을 백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 백일 음식을 받은 집에서는 그릇을 셋지 않은 채로 실을 담아서 둔다. 이렇게 실을 담아 주는 것은 아이 명이 길라는 뜻이다. 또 백 조각의 헝겊으로 지은 옷을 아이에게 입히기도 한다. 작은 천조각을 기워 만든 옷이므로 아이의 수명도 길게 이어질 것으로 여겼다.

태어난 지 첫 해 되는 날에 이른바 돌잔치를 베풀어 준다. 이때도 백일 때와 마찬가지로 아침에 삼신상을 차린다. 삼신상을 차리는 방법은 백일과 동일하다.

이날 남자아이는 바지저고리에 남색 쾌자를 입히고 복건을 써운다. 여자아이는 다홍치마에 연두나 노랑저고리를 입힌 다음 당의나 마고자를 입히고 머리에는 조바위를 써운다. 그리고 돌때와 돌주머니를 채워주는데 돌때는 명이 길라는 뜻이고, 돌주머니는 복을 많이 받으라는 뜻이다. 따라서 돌주머니나 띠 앞에다가 복(福)·수(壽)자를 수놓기도 한다. 돌음식도 백일처럼 차리고 떡을 이웃에 돌리는데 이웃에서는 접시를 셋지 않고 그 접시에 실을 담아 돌려 보낸다. 이 또한 명이 길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이다. 요즈음에는 실 대신에 돈으로 답례한다.

돌잔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돌잡이이다. 돌상에 여러 가지를 올려 놓고 아기가 집어드는 물품에 따라 장래가 결정된다고 믿는 풍속이다. 남아 상에는 활·실·책·붓·먹·종이·두루마리·쌀·대추 따위를, 여아 상에는 쌀·먹·종이·실·국수·자·칼·바늘·가위 따위를 놓는다. 상 앞에 무명 피류 한 필이나 포대기를 접어서 아기를 앉힌다. 먼저 집은 것이 활이면 장차 장군이 되고, 쌀이면 부자가 되리라 생각한다. 또 실은 장수를 나타내고 책·먹·붓 따위는 학자나 관리가 될 조짐이다. 여아의 경우 자·바늘·가위를 집으면 바느질을 잘하고, 칼을 잡으면 음식솜씨가 뛰어나리라 한다. 돌상에는 아기의 장래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는 물품만을 놓으며, 부모는 아기의 미래와 연관되기를 바라는 것들을 집기 쉬운 자리에 놓아둔다.

2. 회갑

생일을 생신 또는 탄신이라고 하여 축하하는데 50세부터 특별히 축하하기 시작한다.

50세에 5순(五旬)잔치, 60세에 6순(六旬)잔치를 치르고 61세에는 회갑 잔치를 한다. 회갑은 60갑자가 한 바퀴 돌아왔다고 하여 회갑 또는 환갑·주갑이라고도 하는데 자손들이 헌수하는 큰 잔치를 베푼다. 아들·사위·아우·조카의 순으로 부부가 함께 축배로 장수를 헌가한다.

이때 만약 시하(侍下)에 회갑을 맞이하면 그 부모에게 헌수하는 상을 더 마련하여 회갑된 사람이 먼저 두 분께 헌수한 다음에 축하를 받는다. 특히 어머니를 모시고 회갑잔치를 할 때에는 회갑하는 사람이 풍채바지(뒤를 터 놓은 유아용)에 타리개 버선을 신고 붉은 돌띠(저고리 끈을 동으로 돌림)를 매고 엄마를 부르며 첫 돌잡이 행세를 하여 특별한 경사로 친다.

친구들은 시문을 지어 축하하는데 이것을 수연수(壽筵詩) 또는 장연운(長筵韻)이라 한다.

3. 칠순

칠순은 나이 칠십이 된 날을 기념해서 하는 잔치다. 옛 글귀에 '인생칠십고래희(人生七十古來稀)'라하여 나이가 칠십이 되는 것은 드물다 하여, 자손들이 부모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잔치를 베푼다. 대체로 회갑과 비슷하나 회갑보다는 훨씬 간략하게 한다.

회수(喜壽)·팔순(八旬)·미수(米壽)잔치도 칠순과 같다.

4. 회혼

혼인하여 60주년이 되는 날을 회혼(回婚)이라 한다.

자손들이 이날 의복을 갖추어 늙은 부부를 신혼과 같이 혼례식을 올려 헌수하는데, 이때에 장남은 함진아비가 되어 함을 지고 두부장사(함진아비의 별명) 노릇을 하며 해로장수를 축하하니 이것을 회혼이라 한다. 친척과 친지를 초청하여 잔치할 뿐 아니라 금침을 새로 마련하여 신방도 꾸민다.

〈백운화〉

제2장 세시풍속



양주 별산대 놀이

세시풍속이란 해마다 일정한 시기에 되풀이하는 주기전승(週期傳承)의 의례적인 풍속으로 조상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더욱이 우리 조상들은 세시풍속일을 명절로 만들었기 때문에 생활 과정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활력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 연대감과 민족의 생활 속에 훈훈한 인정과 토속적인 정취를 이어왔다. 그러나 세시풍속은 현대에 이르러 자연에 대한 의존력의 약화와 교육의 저변확대로 현재는 그 이름만이 남아 있고 일반적으로 행해지지 않고 있다. 이는 도시화에 따른 생활변화로 자연에 대한 인간의 의존적인 관계가 상대적으로 약해졌기 때문이다.

동두천시의 사정도 다른 지역과 비슷하다. 따라서 일반적인 세시풍속도 월별로 구분·서술하여 특성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제1절 정월

1. 절기와 풍속

정월은 맹춘지월(孟春之月)로 한 해가 시작되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때의 세시풍속은 제례(祭禮)로 설날에 행해지는 차례, 12간지에 의한 동물민속, 인일(人日)의 풍속과 대보름, 입춘의 각종 점세행사(占勢行事)와 놀이, 정초의 잡사(雜事)와 절식 등을 들 수 있다.

2. 제의

1) 정조차례

정조(正朝) 차례란 정월 초하루를 설날이라 하여 조상의 위패와 신주를 모신 가묘(家廟)에 자손 전원이 모여 신주를 교의에 내 모시고 떡국·세찬·세주로 제사를 지내는 것을 말한다. 이날 차례를 지내기 위하여 각지에 흩어져 살던 가족들은 자기 조상을 모시고 있는 종가(宗家)를 찾아 환세(煥歲)하는 기념행사를 한다. 이는 조상을 추모하고 보은하는 효도의 정신으로 차례를 지내고 웃어른께 세배를 하는 등 친족이 총집합하여 경조돈목(敬祖敦睦)을 이루는 미풍양속이다.

차례는 설날(元旦)·상원(정월 15일)·삼진날(3월 3일)·단오(5월 5일)·유두(6월 15일)·칠석(7월 7일)·추석(8월 15일)·중양(9월 9일)·동지 등의 속절제(俗節祭)에 행하는 제례를 총칭한 것인데, 지금은 설날과 추석에만 일반적으로 지낸다.

가묘는 따로 지은 집도 있었으나, 대개는 벽장을 대청마루의 북쪽에 설치하고 그 안에 신주를 모셔 두었다. 그러나 한국전쟁 중 대개 신주는 매안(埋安: 묘 앞에 묻어 버림)하여 현재는 지방 또는 사진으로 신주를 대신하며, 사당 대신에 대청이나 큰 방에서 제를 올리는 가정이 대부분이다.

한편 정월 초하룻날을 세수로 칭하여 원단이라 하기도 하는데, 고유어로 일반적인 명칭은 '설' 또는 '설날'이라 부른다.

2) 세 배

세배란 정월 초하룻날 차례를 지낸 후 일동이 자리를 정돈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다음으로 일가 친척의 연장자 순으로 새해 첫 인사를 드리는 것을 말한다. 한 집안의 세배가 끝나면 동네의 어른들을 찾아다니며 세배를 한다. 세배를 하러 온 사람들을 맞은 집에서는 젊은이에게는 술과 음식을 내어 대접하고, 아이들에게는 세뱃돈과 떡·과일 등 을 주며 덕담을 한다.

세배는 오래 전부터 내려오는 풍습으로 해마다 정초가 되면 멀리 있는 친척들까지 찾아다니며 세배를 하는 것이 예의로 되어 있다. 먼 곳에 있는 분은 정월 보름이 되기까지만 찾아가서 세배하면 예의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한편 설달 그믐날 저녁에 존장자(尊長者)에게 “과세 안녕히 하십시오” 또는 “환세 안녕히 하십시오”라고 절을 하기도 하는데, 이것을 ‘묵은 세배’라고 한다.

3) 설 빔

정월 초하룻날 아침에 남녀로소가 일찍 세수하고 입는 새 옷을 말한다.

예전에는 동짓달이나 설달에 주부들이 가족의 인원수에 따라 옷감을 장만하여 정성껏 지었다.

어른은 두루마기 또는 도포를 비롯하여 베선·대님까지 새로 한 벌을 하며, 바지와 저고리에 새 솜을 두어 엄동설한에도 추위를 모르게 하였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한 벌을 곱게 단장하였다. 여러 가지 색깔의 옷을 입으므로 마치 꽃밭처럼 아름답다. 설빔으로 갈아 입은 뒤에야 차례를 지낸다.



세 배

4) 세찬과 세주

설날 차례와 세배 오는 손님을 위해 준비하는 여러 가지 음식을 세찬(歲饌)이라고 한다.

설날의 세찬 중 어느 집에서나 만드는 것은 흰 떡이다. 흰 떡은 맵쌀을 가루를 내어 쪘서 떡판에 놓고 떡메로 찧은 다음, 손으로 길고 둥글게 만들었다. 오늘날에는 방앗간에서 만들어 주기 때문에 손쉽게 장만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든 흰 떡을 칼로 썰어 국을 끓이면 떡국이 된다. 떡국은 차례상에 오를 뿐만 아니라 설날 아침에 꼭 먹는 음식이므로 나이를 대신하여 “떡국 몇 그릇 먹었느냐?”고 묻기도 한다. 흰 떡국은 원래는 꿩고기 국물에 끓이지만, 꿩을 구하기가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닭이나 쇠고기의 국물로 끓이는 경우가 일반화되었다. 이런 연유로 ‘꿩 대신에 닭’ 이란 속담이 나왔다고 한다.

세주(歲酒)란 설날에 먹는 찬 술을 말한다. 정월 초하룻날에 한해서 찬 술을 쓰는데, 봄을 맞이하는 뜻을 나타낸다.

5) 덕담

덕담(德談)이란 한마디로 말해 잘되기를 비는 말이다. 즉 새해를 맞이하여 친지나 어른들을 만났을 때, “새해에도 건강하십시오”,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에는 소원 성취하시기를 빕니다”라고 한다. 반면 연소한 사람들에게는 “새해에 소원 성취하게.” 하는 등 사람과 형편에 따라 서로 복을 빌고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뜻에서 축의를 표한다.

6) 문안비

문안비란 정월 초이튿날 새해인사를 전하러 다니는 계집종을 말한다. 옛날 중류 이상의 가정에서는 부녀자의 외출이 자유롭지 못하였기에 부인들이 자기를 대신하여 성장한 계집종을 곱게 단장시켜, 일가 친척이나 그밖의 친분 있는 이에게 보내어, “과세 안녕히 하셨습니까?”, “새해에는 소원 성취 하신다니 고맙습니다” 등과 같은 새해인사를 전달하게 했다.

이런 문안을 받은 집에서는 세배상을 잘 차려 주고 약간의 세뱃돈을 주었으며, 문안을 받은 집에서도 답례로 문안비를 보냈다.

7) 조정하례

구한말까지의 풍속에 의정대신은 자기 집에서 아침 일찍 차례를 마치고 백관을 거느리고 대궐에 들어가 새해 문안하고, 전문(箋文, 연하장)과 표리(表裏, 시골에서 짠 거친 무명이나 명주)를 받들어 정전 뜰에 참여하여 하례하였다.

이때에 팔도의 감사·통제사·병사·수사·목사가 전문과 방물을 바치고, 주(州)·부(府)·군(郡)·현(縣)의 호장이 모두 와서 반열에 참여했다.

8) 상원제

정월 보름날은 상원(上元)이라 하여 옛날에는 가묘(家廟)에 간략한 제례를 지냈고, 초하루(朔)와 보름날(望)에는 참례의(參禮儀)라 하여 분향을 참례하였다. 그러나 근래에는 행하지 않고 있으며, 공자묘(孔子廟)인 경향 각지의 대성전에는 매월 삭망에 유림들이 모여 오전 9시 경에 분향배례를 한다. 이것이 유일하게 남아 있는 삭망 예의(朔望禮儀)인 듯 싶다.

9) 달맞이

대보름 날 초저녁 달이 떠오를 때 동산에 올라가 달을 보고 절을 하며 햇불을 켜는데, 이 해는 다북쪽이나 짚을 길게 묶어 만든다. 이때 짚은 자기의 나이 수대로 마디를 져 묶는다. 햇불을 켤 때도 달을 향하여 수없이 “달님 사료, 달님 사료”하면서 두 손 모아 합장하고 달을 향해 제각기 소원하는 바를 기원한다. 달을 제일 먼저 맞이한 사람은 소원이 성취된다 하여 좀 더 높은 곳으로 다투어 올라가기 때문에 이곳 저곳에서 불빛이 찬란하다.

한편 달빛으로 점을 치기도 하는데, 달빛이 밝으면 가물 징조인 반면에 희면 장마가 질 징조라 한다. 또 달의 4방이 짚으면 풍년이 들 징조이고, 열으면 흥년이 들 징조이다. 반면 조금도 차이가 없으면 평년작이 될 징조라 한다.

이는 농사와 달과의 관련성이 상당히 밀접함에서 파생되었다. 그런 만큼 달의 보양은 농민들의 주요한 관심사였다.

3. 주술과 금기

1) 계호도

정월 초하룻날 여염집에서는 닭·호랑이 그림을 벽에다 붙이는데, 닭은 초하룻날이 계일(鶴日), 호랑이는 정월이 인월(寅月)임을 뜻한다. 닭과 호랑이는 길상을 뜻하므로, 이를 통해 재액을 물리치려는 생각에서 나온 풍습이다.

2) 복조리

섣달 그믐날 밤 자정 이후부터 정월 초하룻날 아침 사이에 사서 걸어 놓는 조리를 말한다. 섣달 그믐날 자정이 지나면 조리장수들은 복조리를 사라고 외치며 돌아다닌다. 각 가정에서는 밖에 나가 일년 동안 쓸 만큼의 조리를 사는데, 어느 집은 식구 수대로 사서 가족의 머리맡에 한 개씩 놓아 두기도 한다. 식구 수가 적은 집은 한 개를 사서 방문이 마주 보이는 방벽이나 부엌의 물동이가 놓인 벽위 기둥에 걸어둔다. 섣달 그믐날 밤에 복조리를 사지 못한 집은 설날 아침에 사는데, 이것은 일찍 살수록 좋다고 믿기 때문이다. 몇 개를 한데 묶어 방 귀퉁이나 부엌에 매달아 두었다가 쓰는데, 그 안에 돈이나 옛 등을 넣어 두어 일년 동안의 복을 기원하는 정성의 징표로 삼기도 한다.

조리는 쌀을 이는 도구이므로 그 해의 복을 조리와 같이 긁어 모아 건진다는 뜻에서 이 풍속이 생긴 듯하며, 복조리를 문 위나 벽에 걸어두는 풍속은 조리의 무수한 눈이 신체의 눈과 같이 광명을 상징하는 데서 온 것으로 추측된다.

3) 야광귀 쫓기

설날 저녁에 하늘에 있는 귀신이 인간세상에 내려와 여러 곳을 돌아 다니다가 인가에 들어가서 사람들의 신을 신어 보고 자기 발에 맞으면 신고 간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이때에 신을 야광귀에게 도적맞은 사람은 일년 동안 운수가 나쁘다고 전한다. 그래서 설날 밤이면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두 신을 방에 들여놓거나 디락에 넣어둔다. 그렇게 하면 야광귀가 신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쫓는 방법으로 체를 걸어 두는데, 대문에 체를 걸어 두거나 마당에 높은 장대를 세워

그 위에 체를 걸어 두면 하늘에서 야광귀가 내려오다가 체를 발견하고 체눈이 얼마나 되지는 세어 본다. 그런데 체는 너무 촘촘히 박혀서 어디까지 세었는지 잊어버리고는 다시 세고 다시 세고 하는 사이에 날이 밝아 닦아 우는 소리가 들리면 되돌아가게 된다.

이와 같이 체의 구멍이 벽사의 힘이 있다고 생각한 것은 체의 구멍이 광명을 뜻하는 무수한 눈으로 여겼기 때문이라고 한다.

4) 삼재를 면하는 법

삼재(三災)란 수재·화재·풍재 또는 병난(病難)·질역(疾疫)·기근(饑饉)을 말하기도 하는데, 이런 액이 든 해를 삼재년이라고 한다. 따라서 삼재의 해에 해당하는 사람은 액을 쫓고 삼재를 면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불행이 닥쳐온다고 믿고 있다. 삼재란 누구나 맞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해라도 삼재의 해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으며 그것을 다음과 같이 따졌다.

12간지로 따져서 뱀(巳)·닭(酉)·소(丑)해에 난 사람은 돼지(亥)·쥐(子)·소(丑)해에, 원숭이(申)·쥐(子)·용(辰)해에 출생한 사람은 범(寅)·토끼(卯)·용(辰)해에, 돼지(亥)·토끼(卯)·염소(未)해에 태어난 사람은 뱀(巳)·말(午)·염소(未)해에, 범(寅)·말(午)·개(戌)해에 태어난 사람은 원숭이(申)·닭(酉)·개(戌)해에 각각 삼재가 든다고 한다. 따라서 사람은 9년마다 삼재를 당하게 된다.

삼재를 면하기 위해서는 남녀로소를 불문하고 설날 세 마리의 매를 그려서 문설주에 붙이면 재액을 면할 수 있다. 삼재가 든 사람은 그 해에 모든 일을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

삼재운이 든 첫째 해를 '들삼재', 둘째 해를 '누울 삼재', 셋째 해를 '날 삼재'라 하는데, 가장 불길하기로는 들삼재이고, 다음이 누울 삼재, 날 삼재 순이라고 한다.

5) 청참

새해의 첫 새벽에 치는 신수점을 말하는데, 정월 초하룻날 일찍 거리에 나가서 방향도 없이 돌아다니다가 사람의 소리나 짐승의 소리 등 처음 들리는 소리로써 일년 중 자기의 신수를 점친다.

까치소리를 들으면 풍년이 들고 행운이 오며, 새소리를 들으면 흥년이 들고 불행이 올 징조라고 한다.

6) 원일소발

요즈음은 남녀가 머리를 이발소나 미장원을 이용하여 깍거나 손질한다. 이러한 편의시설이 없던 시절에는 1년 동안 빗질할 때 빠진 머리카락을 그때 그때 버리지 않고 모아 두었다가 설날 저녁 황혼을 기다려 문 밖에서 태움으로 나쁜 병을 물리친다고 전한다. 머리카락을 길게 기르던 시절에는 신체발부가 모두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니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나왔다.

7) 유모일과 무모일

정월 초하룻날부터 12일까지는 간지(干支)의 이름을 일컫는 풍습이 있는데, 일진에 따라 털 있는 날을 유모일(有毛日)이라 하고, 털없는 날을 무모일(無毛日)이라 하였다. 즉 12간지의 동물 중에서 털 있는 동물인 쥐·토끼·소·호랑이·말·양·원숭이·닭·개·돼지 날은 유모일이 되고, 털없는 동물인 용·뱀날은 무모일이 된다. 정월 초하룻날이 유모일이면 그 해에는 풍년이 들고, 무모일이면 흉년이 든다고 한다.

8) 쥐불날

정월 첫째 자일을 쥐날[上子日]이라 하여 농가에서는 이날에 방아를 짧으면 그 해에 쥐가 없어진다는 속설이 있다. 따라서 밤중에 부녀자들이 빈 방아를 짧어대며 쥐가 없어지길 빌었다.

또한 이날은 쥐불날이라 하여 밭이나 논두렁에 짚을 던져 뿌려 놓고 해가 지면 일제히 불을 놓아 태워서 쥐를 잡고 해충을 없앴다. 요즈음은 이 쥐불놀이를 보름날 밤의 햇불놀이와 겸해서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9) 소날

정월 첫째 축일을 소날[上丑日]이라 하여, 이날은 소의 명절날로 소에게 콩을 많이 넣은 쇠죽을 주며 일을 시키지도 않았다. 또 곡식을 집 밖으로 퍼내지 않았는데, 이는 곡식을 퍼내면 소에게 재앙이 온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10) 호랑이날

정월 첫째 인일을 호랑이날〔上寅日〕 또는 범날이라고 하여 집안식구의 바깥 출입을 금하고 짐승에 대해 나쁜 말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호랑이에게 잡혀간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날 부녀자들이 남의 집에 가서 대소변을 보면 그 집의 식구 중 어느 누가 호랑이에게 해를 당하게 된다는 말도 전해진다.

11) 토끼날

정월 첫째 묘일을 토끼날〔上卯日〕 또는 톳날이라고 하는데, 이날은 집안의 가장이 되는 남자가 먼저 일어나 문을 열었다. 만일 여자가 먼저 나와 문을 열면 그 해의 신운(身運)이 불길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날에 무명실을 짜서 옷을 지으면 그 사람의 명이 길다고 하며 특히 부녀자들 사이에는 무명실을 선물로 주고 받았다. 이 무명실을 명사 또는 톳실이라고 하였는데, 명사란 긴 실과 같이 수명이 길어지라는 뜻에서 나온 것으로 짐작된다.

12) 용날

정월 첫째 진일을 용날〔上辰日〕이라고 하여 농가에서는 서로 남보다 먼저 일어나려고 한다. 이는 전날 밤에 하늘에서 용이 내려와 우물 속에 용알을 놓고 가는데, 이 물을 제일 먼저 길어서 밥을 지으면 그 해의 농사가 잘 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또한 우물물을 먼저 길어간 것을 표시하기 위하여 먼저 길어간 사람은 지푸라기를 둥글게 매어서 우물에 띄워 놓는다.

13) 뱀날

정월 첫째 사일은 뱀날〔上巳日〕로 뱀날에는 남녀 모두 머리를 벗거나 깎지 않는다. 만일 이를 어기면 그 해에 뱀이 집안에 들어와 화를 입게 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뱀은 생김새도 징그럽거나와 집념이 강해 누구나 혐기(嫌忌)한다. 죽은 뱀이 보복하는 믿음이 많은 것으로 보아 우리 조상들이 뱀을 매우 싫어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날에는 뱀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뱀 입춘문을 이용하였다. 즉 뱀을 잡았다는 적제자(赤帝

子) · 패왕검(霸王劍) · 항우검(項羽劍) 등을 쓴 입춘문을 대문에 붙여 주력으로 뱀의 침입을 막으려고 하였다. 다른 예방은 뱀구멍에 연기를 집어 넣거나, 사시(오전 9~11시)에 뱀의 새끼를 그려 아궁이에 넣고 불태우는 뱀지지기를 하면 뱀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속설도 있다.

14) 닭 날

정월 첫째 유일은 닭날[上酉日]이다. 이날에 부인들이 바느질이나 길쌈질을 하면 손이 닭발처럼 보기쉽게 된다고 하여 일을 하지 않고 노는 풍습이 전한다.

15) 개 날

정월 첫째 술일은 개날[上戌日]로 이날 풀을 쑤면 그 해에 개가 잘 토한다 하여 풀을 쑤지 않는다는 풍습이 전한다.

16) 돼지날

정월 첫째 해일은 돼지날[上亥日]로 이날에 부인들이 팔가루로 세수를 하면 얼굴이 희어진다고 한다. 이것은 돼지의 얼굴빛이 하얗기 때문에 반대의 뜻으로 이러한 풍습이 생긴 것 같다. 또한 주부들은 남편에게 주머니를 만들어 주는데 돼지는 식복이 있는 동물이라 돼지날에 주머니를 만들어 차면 재수가 있다는 뜻에서 생긴 풍습인 듯하다.

17) 인 일

정월 1일은 닭, 2일은 개, 3일은 양, 4일은 돼지, 5일은 소, 6일은 말, 7일은 사람, 8일은 곡식의 날이라 한다. 인일[寅日]인 7일에는 옛날 궁중에서 신하들에게 거울을 하사하였다고 한다.

18) 입춘 불이기(春祝)

입춘일은 천세력에 정해져 있는데, 대개는 양력 2월 4일 경이다. 이날 각 가정에서 대문 · 기

등 · 대들보 · 천정 · 문설주 등에 입춘문을 붙이고 송축했는데, 이것을 '입춘붙인다'고 한다.

입춘 글귀는 각자가 좋아하는 것을 고전에서 골라 쓰기도 하고 새로 짓기도 하는데, 다음과 같은 글귀가 많이 쓰인다.

歲在○○ 萬事如意大通

○○년에는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이루어지리라.

立春大吉 建陽多慶

봄이 되니 크게 길하고 경사가 많아지리라.

龍輪五福 虎逐三災(또는 대문에 용호 두 자를 크게 각 한 자씩 붙이기도 한다)

용이 오복을 실어오고 호랑이는 삼재를 쫓는다.

掃地黃金出 開門萬福來

땅을 쓰니 황금이 나오고 문을 여니 만복이 온다.

天增歲月入增壽 春滿乾坤福滿家

하늘은 세월을 더하고 사람은 수를 더하는데.

봄은 하늘과 땅에 가득하고 복은 집에 가득하다.

門迎春夏秋冬福 戶納東西南北財

문은 춘하추동 복을 맞이하고, 지게는 동서남북 재물을 들인다.

한편 옛날 대궐에서는 내전 기둥과 난간에다 설날에 문신들이 지은 연산시 중에서 좋은 것을 뽑아서 써 붙였는데 이것을 '춘첩자(春帖子)'라고 불렀다.

19) 소 밥주기

정월 보름 전날 저녁에는 하루 세 번 먹는 소에게 한 번 더 주었다. 밥과 나물을 상이나 키에 담아다가 직접 소에게 먹이는데, 이때 소가 밥을 먼저 먹으면 곡식의 풍년이 들고, 나물을 먼저 먹으면 목화가 잘 된다고 한다. 또한 음력 보름날에는 밥 · 떡 등을 담아서 소 외양간 앞에 놓고, 1년 내내 소가 아무 사고없이 일 잘하고 병에 걸리지 않기를 기원하기도 하였다.

20) 벼가릿대

정월 보름 전날 짚을 묶어서 깃대 모양으로 만들고 그 안에 벼·기장·피·조의 이삭을 넣어서 싸고, 목화를 깃대 끝에 매단다. 그 장대를 집 곁에 세우고 새끼줄을 늘어뜨려 고정시킨 것을 벼가릿대[禾竿, 禾積]라고 하는데, 그 해는 오곡이 모두 풍작이 되어 거두어 들인 노적(露積)가리가 마치 이 벼가릿대와 같이 높이 쌓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

21) 더위팔기

정월 보름날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서 친구를 찾아가 이름을 불러 대답하면, “내 더위 사가게” 또는 “네 더위 내 더위 먼디 더위”하고 말한다. 이렇게 하면 더위를 판 꼴이 되어 판사람은 일년 동안 더위에 들지 않는다고 한다. 그 대신에 몇 모르고 대답했다가 더위를 산 사람은 그 사람의 더위까지 두 사람 뜻의 더위를 먹게 된다. 그래서 대보름날 아침에 친구가 이름을 부르면 대답을 하지 않거나, 도리어 “내 더위 사가게”라고 말해서 더위를 팔려 왔던 사람이 오히려 더위를 먹는 경우가 있다. 또 무의식 중에 대답을 하여 더위를 샀다 해도 “내 더위 네 더위 맞더위”라고 하면 된다. 반드시 해가 뜨기 전에 더위를 팔아야 하는데 이것은 농사철에 대비한 근면성을 일깨우기 위함이라 하겠다.

한편 가축의 더위를 면하는 방법으로 원새끼를 꼬아서 소나 돼지의 목에 걸어주거나, 동으로 뻗은 복숭아 가지를 꺾어다 걸어주기도 한다. 원새끼를 목에 걸어주는 것은 좌삭(左索)으로 귀신을 묶었다는 중국의 고사에서 유래한 것이며, 동쪽으로 뻗은 복숭아 나무의 가지는 악귀를 쫓는 민속적 주술로 쓰이는 일이 많아 더위를 막는 효과가 있다고 믿어지는 데서 유래했다.

22) 제용

제용(處容)이란 짚으로 사람의 형상을 만드는 것으로 제용 또는 처용이라고도 한다. 이런 제용은 직성(直星)이 든 사람의 나쁜 운수를 대속(代贖)시키기 위한 주술심리(呪術心理)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직성이란 액년이 든 것으로 남자는 11, 20, 28, 38, 47, 56세이고, 여자는 10, 19, 28, 37, 46, 55세에 해당한다. 이처럼 가족 중에 직성이 든 해의 식구는 제용을 해야 하는데, 직성이 든 사람은 액운이 있어 만사가 여의치 않고 병이 들거나 큰 화를 입거나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된다고 믿었다.

주술성을 가진 제용은 성명설(星命說)에서 남녀 모두 가족 중에 액년에 당하는 이가 있을 때에 도액(度厄)의 양법(禳法)으로, 음력 정월 열나흘날 저녁에 제용에다가 옷을 입히고, 약간의 돈 또는 쌀을 넣어 해당하는 이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적어 길바닥이나 다리 밑에 버린다.

23) 과일나무 시집보내기

과일나무 시집보내기〔嫁樹〕란 정월 보름 전날 과일나무의 가지가 양쪽으로 벌어진 틈에 돌을 끼워 두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 과일이 많이 열린다고 한다. 이것은 벌어진 과일나무 가지를 여성으로 보고 돌을 끼움으로 성행위를 상징시켜 풍요를 기원하는 농경의례(農耕儀禮)의 하나이다.

자손의 번창은 남녀의 혼인에서 비롯되듯이, 과수(果樹)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같은 수단을 쓰면 될 것이라는 지극히 인간적인 발상에서 나무를 시집보냈다.

24) 복토 훔치기

정월 보름 전날 저녁에 잘 사는 집 대문 안의 흙을 몰래 훔쳐다가 보름날 아침에 자기집 부뚜막에 바르는 것이 복토(福土) 훔치기이다. 이렇게 하면 부자집의 복이 모두 전해와서 부자집처럼 잘살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 이날 밤에 부자집은 복토를 도둑맞지 않으려고 불을 밝혀 두고 지키게 하였다고 한다.

25) 귀밝이술(耳明酒)

정월 보름날 새벽에 청주(清酒)를 데우지 않고 마시면 귀가 밝아지고, 또 그해 내내 기쁜 소식을 듣는다. 이에 따라 이날 아침에는 남녀로소를 막론하고 평소에 술을 먹지 않는 사람도 조금씩 먹는다.

《경도잡지(京都雜誌)》〈상원조(上元條)〉에는 소주 한 잔을 마시어 사람의 귀를 밝게 한다고 하였고,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도 청주 한 잔을 데우지 않고 마시면 귀가 밝아진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풍습도 오래된 것으로 보인다.

26) 부럼깨기

정월 보름날 새벽에 날밤·호도·은행 등을 깨무는 것을 부럼깨기(腫果) 또는 부럼먹기라고 한다. 깨문 것은 마당에 버리면서 “일년 열두달 무사태평하고 종기나 부스럼이 나지 맙시다”하고 기원하고 다음 것부터 먹는다. 이렇게 하면 일년 동안 부스럼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나 일설에는 치아를 굳게 하기 위함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풍습은 벽사와 신복에서 생긴 관습인데, 특히 부럼에 쓰이는 호도나 잣 등에 들어 있는 필수지방산(必須脂肪酸)이 영양상의 효과(부스럼의 예방)를 생각할 때 풍습은 관념상의 벽사풍습만이 아닌 과학적 타당성을 지닌 합리적인 풍습이라 할 수 있다.

27) 백가반(百家飯)

대보름날 오곡밥은 여러 집의 것을 먹어야 좋다고 했듯이 흔히 백집의 밥을 먹으면 더욱 좋다고 하였다. 그래서 남의 집을 찾아다니며 일부러 걸식을 해서 많은 집의 밥을 먹는 일도 있었다. 그러나 요즈음 이와 같이 하는 일이 드물고, 백집의 밥을 먹는다는 것은 여러 집과 교분을 맺고 나누는 미풍양속을 간접적으로 보여 준다.

28) 개 보름쇠기

정월 보름날 개에게 밥을 먹이면 여름에 집안은 물론 개에게 파리가 들끓을 뿐만 아니라 개가 야위기 때문에 이날 만큼은 밥을 먹이지 않는다고 한다.

밥을 짖고 허망하게 보내는 날을 비유한 “개 보름 쇠듯 한다”는 속담이 있는데, 놀고 먹는 놈이 천대받는 날임을 보이기 위한 풍속인 듯 싶다.

29) 어부심

큰 개울을 건너서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집에서는 정월 보름날 조반 때에 해당 자녀의 밥에서 먼저 세 숟갈을 떠서 종이에 싸가지고 등교길의 큰 개울물에 던진다. 그러면 물을 건너도 물에 빠지지 않는다는 속설이 있기 때문인데, 이것을 어(魚)부심이라고 한다.

요즘은 다리가 견고하게 가설되어 물을 건너는 염려가 없게 되자 점차 없어져 가고 있다. 또

같은 식으로 덤불에도 갖다 버리는데, 이렇게 하면 뱀에게 물리지 않는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30) 십육일

정월 16일을 귀신날이라고 하는데, 이날에는 귀신이 동하기 때문에 온 동네 사람이 바깥 출입을 삼가하고 집안에서 쉰다. 남자가 일을 하면 일년 내내 우환이 따르고, 여자가 일을 하면 과부가 된다는 속설이 있다.

4. 점복(占卜)

1) 오행점

새해 첫날에 음양오행(陰陽五行)의 이치로 치는 점이 오행점이다. 새해의 신수를 보기 위해 나무를 깎아 바둑돌 크기의 다섯 개를 만들어 금, 목, 수, 화, 토의 다섯 글자를 새기고 손에 넣어 흔들며 주문을 외우고 던진다. 그 결과로 나타난 오행의 글자에 의하여 상쾌·중쾌·하쾌를 정하고 길흉을 알아보는 점이다.

주문과 상쾌·중쾌·하쾌의 예를 통해 인간사를 예언하였고, 이에 따라 행동지지에서 근신하였다.



점복

2) 토정비결

《토정비결》은 사람의 길흉화복을 예언한 예언서로서, 조선조 명종 때 토정 이지함이 지은 일종의 도참서(圖讖書)이다. 태세(太歲)·월건(月建)·일진(日辰)을 수리적으로 따지고, 내용

은 주역의 음양설에 기초를 두고 만들었다.

《동국세시기》와 《경도잡지》에 오행점으로 새해의 신수를 본다고 한 것을 볼 때, 정조 때 까지도 정월에 토정비결을 보는 풍속은 없었음을 알 수가 있다. 토정비결은 대략 조선말부터 보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 연초의 점복으로 가장 일반화된 토정비결의 길흉을 말한 총 6,480귀의 내용을 정리하면 거의 부귀·화복·구설·여색·이해·가정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인간의 행동에 근신과 신중을 기함으로써 불행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의도였다. 즉 행동하기 이전에 미리 스스로를 뒤돌아보는 생활자세이다.

3) 윷점(柵占)

설날에 윷을 던져 새해의 운수를 점치는 풍속을 말하는데, 《경도잡지》(원단조)에 “세속에는 설날에 윷가락을 던져 새해의 길흉을 점친다. 대개 세 번을 던져 짹을 짓는데, 64괘로써 하는 요사가 있다”고 하였듯이, 윷을 세 번 던져 짹을 지어 주역에 의한 64괘로 풀이한 패사(卦辭)에 맞추어 점치는 것이다.

윷점은 새해에 실내에서 널리 성행한 윷놀이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보급되었다. 특히 날씨가 춤거나 눈이 내리는 등 외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녀자들도 집안에서 윷점으로 서로의 화복길흉을 알아보았다.

4) 보리 뿌리점(麥根占)

입춘날 농가에서 보리뿌리로 그 해 농작물의 풍년과 흉년을 점쳤다. 즉 보리 뿌리가 세 가닥으로 되었으면 풍작이고, 두 가닥으로 되었으면 흉작이라 믿었다.

5) 일기점

설날의 일기로 그 해의 일들을 점치는 것을 말한다. 바람이 없이 날씨가 맑으면 풍년이 들고, 해가 붉으면 한재(旱災)가 있으며, 검은 구름이 하늘에 가득하면 흉수가 있다. 또 북풍이 불면 풍작이고, 남풍이 불면 흉작이라고 한다.

6) 닭울음점

정월 보름날 꼭두새벽에 닭이 우는 횟수를 세어 점치는 것을 말하는데, 계명점년(鶴鳴占年)이라고도 한다. 첫 닭울음 소리가 열 번 이상이면 풍년이 들고, 그렇지 않으면 흥년이 든다고 한다.

5. 놀이

1) 웃놀이

웃놀이는 새해 유희 중의 대표적인 민속놀이로 차례와 세배가 끝난 후 정월 보름까지 계속한다.

웃은 일반적으로 장작웃과 밤웃의 두 가지가 있는데, 장작웃은 장웃 또는 가락웃이라고도 한다. 길이 15~20cm와 직경 3~5cm 정도의 윤목(輪木) 2개를 각각 반으로 쪼개어 4짝을 만든다. 나무는 박달나무와 밤나무를 쓰는 것이 보통이며, 박달



웃놀이

나무웃은 대부분 여자용으로 비교적 작고 잘 다듬어 채색하는 경우도 있다. 밤웃은 좀웃이라고도 하며, 작은 밤알만한 크기의 나무조각으로 만든다. 장작웃은 네 짝을 높이 던져 바닥에 요란스럽게 떨어뜨리는데 반하여, 밤웃은 보통 조그만 공기 따위에 넣어 휘두르다가 바닥에 휙 던지는 식이다.

웃놀이는 대개 말판을 만들어 말판 쓰기로 승부를 가리며, 승부에 따라 상품을 걸거나 술내기 등을 하는데 양편으로 갈라서 함께 즐길 수 있다. 또 말판을 쓰지 않고 승부를 가리는 방법도 있으며, 어린 아이들은 옷뺏기·절하기 또는 자릿세 세기 등도 한다.

웃놀이의 유래나 기원에 대한 명확한 사실은 없지만, 다음 몇 가지 설이 전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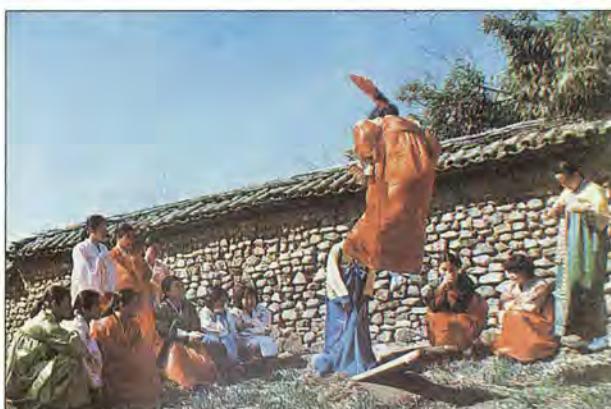
첫째는 부여시대에 다섯 가지 가축을 다섯 마을에 나누어 주고 그 가축들을 경쟁적으로 번식

시킬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이에 연유하여 도는 돼지(豚), 개는 개(犬), 걸은 양(羊), 윷은 소(牛), 모는 말(馬)에 비유하기도 한다. 당시 목축업이 부여의 주요한 산업임에서 비롯되었다.

둘째는 윷놀이가 삼국시대에 생겼다는 민간설이다. 즉 신라시대 궁녀들이 새해 초에 즐기던 놀이이며, 백제의 관직명인 저가(猪加)·우가(牛加)·마가(馬加)·대사(大使)에서 유래된 것이라고도 한다. 또는 고구려의 오가(五加) 즉 동·남·서·북·중앙을 가리키는 것에서 나온 것이라 하기도 한다.

셋째는 옛날 어느 장수가 적과 대전 중 적군의 아습을 경계하고 진중(陣中) 병사들의 잠을 막기 위하여 이 놀이를 창안하였다는 말도 전한다. 이밖에 윷판이 초폐왕 항우의 마지막 결전장이던 해하진형(垓下陣形)을 본 뜻이라고도 하나 확실하지는 않다.

2) 널뛰기



널뛰기

두 사람이 번갈아가며 뛰어오르기를 되풀이하는 놀이이다.

널뛰기의 유래에 상고할 자료가 없고, 고려시대 여성이 매우 활발하여 기마나 격구 같은 경기를 한다는 기록이 있다. 이로 보아 널뛰기는 고려 여성들의 활달한 기상을 표현한 것으로 여겨지므로 고려시대부터 전승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경도잡지》에는 부녀들이 널빤지 위에서 춤을 추는데 이를 '판무' (板舞)라고 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최남선의 《조선상식문답》에는 우리나라 여성의 대표적인 고유한 민속으로 널뛰기를 들고 있다.

한편 널뛰기와 비슷한 놀이로 유구(琉球)에 판무희(板舞戲)라는 것이 있었다. 이는 고려 말

널뛰기(跳板戲)는 음력 정초를 비롯하여 5월 단오와 8월 한가위 등의 명절에 젊은 부녀자들이 즐기는 놀이이다. 길이 7~8척, 너비 1척 정도의 두툼하고 긴 널빤지를 준비하여 그 가운데 밑에 짚단이나 가마니 같은 것을 뭉쳐서 고여 놓은 후, 양 쪽에 한 사람씩 올라서서 한 사람이 뛰었다가 내리 누르는 힘의 반동으로 상대방이 뛰어 오르는데, 이렇게

기부터 조선 중기에 걸쳐서 많이 내왕했던 유구의 사신과 상인들에 의해 우리 나라의 놀이가 전파된 것으로 추측된다.

속설에 정초에 널뛰기를 하면 일년 내내 가시에 찔리지 않는다고도 전해진다. 《한양세시기》(漢陽歲時記)에 실려있는 널뛰기에 관한 시 한 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붉으신 흰버선이 발에 찍어서
차고차니 날이 다하도록
판자 밟는 소리 행랑을 돌도다
가벼운 몸이 나는 제비 같기를
배워서 달은 해어 헤아리건데
쉽게 행하리라.

3) 연날리기

연을 날리는 시기는 음력 정월 초 하루부터 보름까지가 본격적이지만, 12월 20일 경이면 아이들이 여기 저기에서 연날리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연설에다 사기가루나 유리가루로 '챔치'를 먹여 연설에 서슬이 일게 하여 연을 날릴 때에 다른 연을 끊어 먹기도 하는데, 이렇게 하는 놀이를 연싸움이라고 한다. 연은 날리는 이의 솜씨에 따라 한 곳에 머무르는 일이 없고, 가로나 세로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는 뒤로 물러갔다 급전진하는 등 자유자재로 날린다.



연

연날리기는 정월 보름 며칠 전에 큰 성황을 이루는데, 대보름이 되면 액연(厄薦) 띄운다. 이 때 연에다 액 · 송액(送厄) · 송액영복(送厄迎福) · 가구모생신액소예(家口某生身厄消滅: 집안 식구 아무개 몸의 액을 없애버린다) 등을 써서 날린다. 이때 얼레에 감겨있던 실을 끊어서 멀리 날려 보내는데, 만약 보름이 지나서도 연을 날리는 이가 있으면 '고리백장'이라고 놀려대고 욕

을 한다. 그런데 음력 정월 보름에 액을 멀리 날려보내기 위해 띄운 액연이 자기 집에 떨어지면 좋지 못한 액을 받게 된다고 믿었으므로 집에 떨어진 연을 곧장 집 밖으로 가지고 나와 불살라 버렸다고 한다.

연의 모양은 사각 장방형에 가운데 방구멍이 뚫려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연면에 붙이는 색지나 칠하는 색깔과 표시의 모양에 따라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연의 종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꼭지연 : '꼭지'란 연의 이마 가운데에 둑근 달같이 원형의 색지를 오려 붙이는 표시로 빛깔에 따라 명칭이 다르다. 따라서 연의 바탕이 전부 백색일 때 이를 대표하는 명칭이다. 빛깔에 따른 꼭지연의 종류로는 먹꼭지, 청꼭지, 홍꼭지, 쪽꼭지, 별꼭지 등이 있다.

- 반달연 : '반달'이란 이마 가운데에 색지를 오려 붙이는 반달형의 표시로, 연의 바탕이 전부 백색일 때 이를 대표하는 명칭이다. 빛깔에 따른 반달연의 종류로는 먹반달, 청반달, 홍반달, 임반달 등이 있다.

- 치마연 : 치마연은 상반부가 희고, 하반부의 빛깔에 따라 먹치마, 홍치마, 황치마, 보라치마, 이동치마, 삼동치마, 사동치마 등으로 구분된다.

- 동이연 : '동이'란 연의 머리나 허리를 동이는 것으로 빛깔에 따라 먹머리동이, 청머리동이, 홍머리동이, 보라머리동이, 반머리동이, 실머리동이, 눈깔머리동이, 허리동이, 눈깔허리동이 등이 있다.

이외에도 오색연, 나비연, 거북선연, 가오리연, 호랑연, 용연 등 연의 모양에 따라 이름이 다른 여러 종류의 연이 있다.

연의 재료는 대나무 또는 가는 싸리와 창호지 등을 사용한다. 연을 만드는 과정은 연의 바탕이 될 종이를 접어서 크기를 정하고, 연의 크기는 연을 날리는 사람의 나이에 따라 차이를 두고 만든다. 또 연실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풀 끓인 물을 올리는 풀뜸을 한다. 이 풀 끓인 물에 사기가루나 유리가루를 타서 올리는 것을 '캠치 먹인다'고 하는데, 이는 연줄에 서슬이 있게 하여 남의 연줄을 잘 베어 먹게 하기 위함이다.

얼레는 실을 감아 연을 날리는 기구를 말하며, 일명 '감개'라고도 한다. 종류는 네모얼레, 육모얼레, 팔모얼레 등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네모얼레가 많이 쓰인다.

4) 줄다리기

줄다리기[索戰]의 관습은 세계적으로 분포되어 있는데,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여러 민족의

줄다리기는 농경제의와 깊은 관련이 있다.

줄다리기는 정월 보름날에 행하지만 단오절이나 한가위에 행하기도 한다. 줄은 한 마을이 동편과 서편으로 나누어 집집에서 모은 짚으로 새끼를 꼬아 만든다. 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동체의 구성원은 혼연일체가 된다. 일사불란한 작업과 단결력이 승패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줄다리기

줄에는 암줄과 수줄이 있는데, 동을 수줄, 서를 암줄이라 한다. 줄의 머리에 고리용 머리를 만들어 수줄의 머리를 암줄 고리에 꼬이고 링에 목을 질려 양줄을 연결시켜 당긴다. 남녀로소를 불문하고 줄을 당겨 이긴 편은 일년 내내 질병에 걸리지 않고 농사는 풍작이 된다고 하여 함성을 지르며 필사적으로 당긴다.

5) 다리밟기(踏橋)

정월 보름날 밤에 다리를 밟으면 일년 내내 건강한 다리로 지낼 뿐만 아니라 액을 면한다고 하여 남녀로소가 모두 다리를 밟는다. 이날에는 모두 새옷으로 갈아입고 부녀자들은 음식물을 냇물에 던지며 복을 빌기도 하고, 남자들은 농악을 앞세우고 무동을 서며 다리 위와 근처에서 술자리를 베풀어 한바탕 즐기기도 한다.

대보름 밤은 모두 다리를 밟으러 나오기 때문에 매우 혼잡하였고, 또한 양반들은 상민과 함께 어울리기를 꺼려 해서 앞당겨 14일에 다리를 밟았는데 이것을 '양반 다리밟기'라 한다. 또 부녀자들은 혼잡을 피하기 위해 하루 늦추어 16일에 밟기도 한다.

6) 돈치기

정초에 청소년들은 따뜻한 양지쪽에서 돈치기를 한다. 마당의 넓고 평평한 곳에서 5m 쯤 되는 거리에 금을 긋고 동전(銅錢) 하나 들어갈 만한 구멍을 뚫어 놓은 후 제각기 돈을 던져서 차례를 정한다. 순서대로 금을 밟고 돈을 던져 구멍에 든 것은 그냥 따먹고, 나중에 지정하는 것을

돌로 만든 목대를 던져 맞혀서 따먹는 놀이이다. 돈치기는 동전이 제 값을 지니던 시대에는 많이 성행하였으나, 주화의 값이 떨어진 지금은 별로 볼 수 없게 되었다.

6. 절식

1) 오곡밥

정월 보름 전날에는 쌀·좁쌀·보리·팥·콩 등의 오곡(五穀)을 섞어 밥을 지은 오곡밥과 함께 다섯 가지 나물을 무쳐 이웃끼리 서로 나누어 먹는다. 이날은 밥을 아홉 번 먹어야 좋다고 해서 틈틈히 여러 번 먹고, 일년 내내 부지런하라는 뜻으로 나무 아홉 짐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2) 복 쌈

복쌈[福裯]이란 정월 보름날에 김이나 나물로 쌈을 싸서 먹는 것을 말한다. 쌈을 먹을 때 “천석, 만석”하고 부르며 먹는데 여기에는 풍작을 기원하는 뜻이 담겨 있다.

한편 두부를 먹으면 두부처럼 살이 찐다고 하여 여러 가지 반찬을 섞어 먹기도 한다.

3) 약 밥

정월 보름의 절식으로 약밥[藥食]을 먹는 풍습이 있다. 그러나 요즈음에는 잔칫날이나 설날에 먹는 별미밥의 하나가 되었다.

약밥을 만드는 방법은, 우선 깨끗이 씻어 물에 담가 불린 찹쌀을 시루에 푹 짜서 큰 그릇에 쏟아 놓고 참기름을 넣어 밥알이 서로 떨어지도록 버무린다. 설탕·참기름·진간장·간밤·씨발린 대추·실백 등을 넣고 버무려 다시 시루에 오래 짜서 뜸을 들인다. 뜨거울 때 네모난 그릇에 반반하게 펴 담아 잘 식힌 다음 반듯반듯하게 썰어서 쓰기도 하고, 밥처럼 합에 담아서 쓰기도 한다.

7. 상치세전

상치세전(尙齒歲典)이란 조선시대 말까지 궁중에서 행하던 큰 행사로 새해에 서울과 지방관리의 부인으로 70세 이상 된 사람에게 궁중에서 쌀·고기·소금을 주었다.

한편 조관으로서 80세 된 이와 사서인으로서 90세 된 이에게 하자(賀資)를 올리고, 100세 된 이에게는 특별히 1품계를 주어 노인을 우대하였다고 한다. 노직(老職) 또는 수직(壽職)이라고 하는데, 이는 노인을 공경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성전(盛典)이라 하겠다.

제 2 절 2 월

1. 절기와 풍속

2월은 절기 중 경칩(驚蟄)과 춘분이 들어 있는데, 경칩은 글자 그대로 땅 속의 벌레들이 밖으로 뛰쳐나오는 때로 동면하던 동물들이 꿈틀거리기 시작한다. 이에 《농가월령가》에는 “반갑다 봄바람이 의구히 문을 여니 말랐던 풀뿌리는 속잎이 맹동한다. 개구리 우는 곳에 논물이 흘렀도다”라고 노래하였다.

2월의 풍속으로 상정일(上丁日), 제례, 머슴날, 콩볶기 등이 행해진다.

1) 경 칩

경칩일은 땅 속의 동물들이 겨울 잠을 마치고 깨어나 꿈틀거리기 시작한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날은 흙일을 하면 탈이 없다 하여 벽을 바르거나 담을 쌓기도 한다. 특히 벽을 바르면 빈대가 없다고 한다. 또한 이 시기의 도룡용 알이 몸에 좋다고 하여, 소주를 가지고 산이나 들에 가서 도룡용 알을 찾아내어 통째로 거둬서 먹기도 한다.

경칩일에 보리싹의 성장을 보아 일년의 풍흉을 예측하기도 하였으며, 단풍나무를 베어 나무에서 나는 물을 마시면 위장병에 좋다고 해서 약으로 먹기도 하였다.

2) 춘분

조선시대에는 춘분을 전후해서 우麥(雨麥)을 심은 다음, 관찰사와 지방유수들은 각각 관내의 농사 형편과 비가 흡족하게 내렸는지를 왕에게 아뢰었고, 대궐 안에서는 관상감과 승정원(承政院), 그리고 팔도의 사도영하(四都營下)에 측우기(測雨器)를 재치하고 이것을 살펴 당년의 농사가 풍년인지 흉년인지를 점쳤다.

한편 춘분과 추분 전에는 관찰사나 군수가 가족과 동행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이는 백성의 영역을 빼앗으면 농사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었다.

2. 상정일 제의

일진의 천간이 첫번째 정일(丁日)에 해당하는 날을 상정일(上丁日)이라고 하여 각지의 향교에서는 '춘기문묘석전(春期文廟釋奠)' 제향을 성대히 행한다. 문묘란 공자와 유학의 명현 20위와 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우리 나라 명현 18위를 동서에 배향한 곳이다.

팔월 상정에는 '춘기문묘석전'을 행하는데, 각지에 있는 서원제향(書院祭享)은 공자의 석전을 지낸 후 3월 상정(첫번째 정일), 중정(두번째 정일), 말정(세번째 정일) 중에서 미리 택하여 춘추제향을 지내왔다. 근래에는 삼정(三丁) 중 택정한 날짜에 고정하여 행하는 곳도 많다.



성균관의 석전

3. 주술과 금기

1) 영등풍

영등은 비바람을 일으키는 신을 말하는데, 2월 초하룻날은 영등할멈이 내리는 날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날은 닭의 꼬리만 흔들려도 바람이 세게 분다고 한다.

2) 콩볶기

각 가정에서는 2월 1일에 콩을 볶는다. 솥에 불을 지피고 콩을 넣은 후 주걱으로 타지 않게 젓는다. 볶은 콩을 식구들이 나누어 먹는데 아이들이 좋아라고 주머니에 가득 넣고 다니면 먹는다.

콩을 볶을 때는 주걱으로 저으면서, “새알 볶아라, 쥐알 볶아라, 콩 볶아라.”하고 주언을 한다. 그러면 새와 쥐가 없어져서 곡식을 축내는 일이 없다고 한다. 또한 콩 볶는 것으로 가을 수확을 예상하기도 하는데, 그 방법은 콩과 약간의 보리를 섞어서 한 되를 솥에 볶는다. 다 볶은 콩이 한 되가 더 되면 풍년이 들며, 한 되가 못되면 흉년이 들게 된다고 전한다.

3) 노래기 부적

2월 초부터 노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방에까지 들어오므로, 이것을 막기 위해 2월 1일 집안을 청소하고 부적을 만들어 붙인다. 백지에 ‘향랑각씨속거천리(香娘閣氏速居千里)’라고 써서 기둥·벽·서까래 등에 거꾸로 붙여 놓으면 노래기가 없어진다고 한다. 우리말에 여자를 ‘향랑각시’라고도 하는데, 이는 노래기를 미화해서 표현한 것으로 노래기를 물리치려는 말이다.

4. 좀생 점복

좀생이는 28일 성숙 중의 묘성(昴星)의 속명으로 작고도 오밀조밀한 별들의 무리로 육안을 통해 6~14개 정도를 볼 수 있다.

2월 6일 초저녁에 좀생이와 달의 거리로 풍흉작을 점쳤다. 좀생이가 달보다 멀리 앞서 있으

면 대풍이고, 달과 평행으로 가면 평년작이고, 달보다 뒤떨어져서 가면 흉년이고, 뒤로 멀리 떨어지면 큰 흉년이 든다고 한다. 또 좀생이 빛깔이 붉으면 가뭄이 심하고, 물을 머금은 듯 약간 투명하면 비가 많이 와서 곡식이 잘 된다고 한다.

5. 행사

1) 나이떡

2월 초하룻날 집안 식구의 나이만큼 숟가락으로 쌀을 떼서 송편을 빚고, 나이 수만큼 송편을 먹는다고 한다. 이것을 '나이떡〔松餅〕' 또는 '송병'을 먹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가내 평안하고 만사형통한다고 한다.

이러한 풍속은 정월 14일에 세워 놓았던 벼가릿대의 곡식으로 송편을 만들어 2월 1일에 솔잎을 켜켜로 놓고 송편을 쪘서 노비들에게 나이 수만큼 주어서 농사일의 시작대를 알리던 것(일명 노비떡)이 점차 변한 것이라고 한다.

2) 머슴날

2월이 되면 농사준비를 시작해야 하므로 초하룻날 머슴들에게 송편을 빚어 먹이며 위로하는 날을 머슴날이라고 한다. 이날 20세가 된 머슴은 선배 머슴에게 한 턱을 내야만 어른 대접을 받고, 품앗이에서 어른 뜻을 받을 수 있었다. 이는 바로 농경사회에서 노동력이 중요시되었던 머슴의 통과의례이자 성년식인 셈이다.

제3절 3월

1. 절기와 풍속

3월에는 청명, 곡우가 절기에 듈다. 흔히 '춘삼월 호시절'이라 하듯이, 봄의 실질적인 시작으로 청명, 한식, 삼진일, 화전 양잠 등의 풍속이 행해진다.

1) 청명

청명(清明)일은 한식 하루 전이거나 한식과 같은 날이 된다. 대부분의 농가는 이날을 기해 봄 일을 시작하므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한식날과 같이 이날 산소를 찾기도 한다. 조선시대에는 대궐에서 베드나무에 불을 붙여 각 사에 나누어 주었는데, 이것은 불을 소중히 여기는 데에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2) 곡우

곡우(穀雨)는 24절기의 하나이며 3월에 들어있다. 곡우 때가 되면 농가에서는 못자리를 하기 위해 범씨를 담기 시작하니, 이때부터는 본격적인 농사가 시작된다.

2. 제의

1) 삼진날

3월 3일은 보통 삼월 삼진날이라고 하는데, 상사일 또는 상제라고도 한다. 옛날에는 속절(俗節)로 정하여 시식(時食)으로 가문에 제사를 지냈는데, 점차 청명·한식에 통합되었다.

이 무렵이면 날씨도 온화하고 산과 들에 꽃들이 피기 시작하므로 놀이를 간다. 이날은 진달래 꽃을 따다가 쌀가루에 반죽하여 참기름을 빌라 지진 꽃지침(花煎)을 만들어 먹으며 봄을 즐겼다. 또 서당의 유생들은 사제간에 겨울 동안 움츠려 지냈던 생활 속에서 양춘가절(陽春佳節)

을 만나 산에 올라 춘색을 즐기며 화전을 먹고 시를 읊조리며 하루를 즐겼다.

이날 장을 담그면 맛이 좋고, 호박을 심으면 잘되며, 약물을 마시면 연중 무병하고, 아무리 집안 수리를 해도 별탈이 없다. 머리를 감으면 머리카라이 물에 흐르듯이 소담하고 아름답다고 해서 부녀자들은 다투어 머리를 감기도 한다. 강남갔던 제비도 돌아오고, 꽃을 찾아 날아드는 갖가지의 나비를 보고 점을 치는데 노랑나비나 호랑나비를 먼저 보면 소원이 이루어질 길조라고 하고, 흰 나비를 먼저 보게 되면 부모의 상(喪)을 당하게 될 흉조라고 한다.

2) 한식

한식(寒食)일은 동지로부터 105일째 되는 날이다. 이날은 조상의 묘에 차례를 지내고, 조상의 무덤에 떼를 다시 입히는데, 이것을 개사초라 하고 묘 둘레에 식목을 하기도 한다. 이것은 시기가 덥지도 춥지도 않으며 농한기이고 해빙이 되어 분묘가 얼었다가 녹아서 무너진 곳, 떼가 죽은 곳 등을 보수하기 적당한 때이기 때문이다.

한식날에는 찬밥을 먹는데 이것은 중국 진나라의 충신 개자추(介子推)의 혼령을 위로하기 위해이다. 개자추가 간신에게 몰려 면산에 숨어 있는데, 진문공이 개자추의 충성심을 알고 찾았으나 나오지 않으므로 이날 나오게 하기 위하여 면산에 불을 놓았다. 그러나 개자추는 나오지 않고 불에 타죽고 말았으니, 사람들이 그의 충성심에 감동하여 찬밥을 먹는 풍속이 생겼다.

한식날 묘제(墓祭)는 옛날에는 설날 · 단오 · 추석과 더불어 4명절로 행했는데, 근래에는 설날과 추석에만 가묘에서 차례를 지내고 묘제는 한식 또는 추석에 지내는 가문이 많다.

한식이나 전날인 청명일 무렵부터 따뜻한 봄날씨가 계속되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나무를 심거나, 채소 씨를 뿌리는 등 새해 농사가 본격화된다.

3. 놀이

1) 화류놀이

화란춘성하고 만화방춘하여 꽃과 버들이 봄빛을 자랑하는 3월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청명한 날을 택하여 노인은 노인들끼리, 젊은이는 젊은이들끼리, 부인들은 부인들끼리 경치 좋은 곳을 찾아 제각기 정성껏 마련한 음식을 서로 나누어 먹으며 하루를 즐겼다.

해가 질 무렵이면 진달래 꽃을 꺾어 꽃방망이를 만들고 취홍이 도도하여 장단 맞춰 노래하며 내려온다. 이것을 화류(花柳)놀이, 또는 꽃다림이라고 한다. 이 화류놀이는 옛부터 내려오는 민속이며, 요즈음에도 야유회로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2) 잔 춘

3월 말일, 봄을 보내는 서운함에서 문장가나 북객들이 주식(酒食)을 마련하여, 경치좋은 산이나 강가를 찾아 글을 짓기도 하고, 시조를 읊조리거나 그림을 그리며 선비다운 놀이로 하루를 즐기는 것을 말한다.

3) 각시놀이

풀각시 인형을 가지고 놀던 놀이를 말하는데, 봄이 되면 시골 여자 어린이들이 각시풀로 풀 각시를 만들어 놀았다.

무릇의 등근 부리에서 비늘을 벗겨내고 나뭇가지를 꽂아 몸통을 만들어 거기에 헝겊 조각을 입혀서 각시처럼 꾸미고 혼례식과 신방 등의 흉내를 내며 노는 소꿉놀이이다.

4) 벼들피리

소년들이 물오른 벼드나무 가지를 꺾어 비틀고 껍질을 통째로 뽑아서 그것으로 피리를 만들어 부는 것이 벼들피리이다.

4. 화전 절식

3월의 절식(節食)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화전(花煎)이다. 화전은 이때 쯤 산에 만발한 진달래꽃을 뜯어다가 쌀가루에 반죽하여 참기름을 발라 지져먹기에 '꽃지짐'이라고도 한다. 봄에는 진달래꽃을 이용하고, 가을에는 국화꽃을 쓰는 화전은 계절에 맞는 음식으로 미각을 돋구어 준다.

삼진날 무렵이면 봄기운이 왕성하고 흥이 절로 나서 사람들은 산과 들로 몰려나가 화전을 만들어 먹으며 즐긴다.

5. 양잠 행사

해마다 3월이 되면 일반 농가에서는 뽕잎을 따서 양잠을 시작한다. 이 양잠은 여자들이 전적으로 맙아서 하였다. 대궐에서도 후궁들의 친잠제(親蠶制)가 있어 3월이 되면 왕비가 친히 제명부(諸命婦)를 거느리고 후원의 상단에 이르러 뽕을 따는 예를 행했다고 한다.

춘추로 두 번 치는 양잠은 부녀자에게 상당한 수입이다. 《농가월령가》 양잠조에도 양잠이 성행했음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뽕눈을 살펴보니 누에 날 때 되겠구나.

어와 부녀들아 잡농을 전심하소.

잠실을 쇄소하고 제구를 준비하니.

다래끼, 칼, 도마며 채광주리 발발이라.

각별히 조심하여 냄새 없이 하소.

제4절 4월

1. 절기와 풍속

4월은 맹하(孟夏)로서 여름의 문턱이며 24절기로는 입하와 소만이 들어 있다. 농가에서는 농사일이 바쁘게 시작되고 보리이삭도 패기 시작한다.

이달의 풍속으로는 초파일이 있다.

2. 초파일

4월 8일은 석가모니의 탄생일로 욕불일(浴佛日)이라 부르며, 민간에서는 흔히 초파일(初八日)이라고 한다. 이날에는 각 사찰에서 축제를 올리는데, 남녀 신도는 물론 일반대중도 절에 모

여 대행사를 구경하고 양초와 향을
부처님께 바치고 복을 빈다.

또 여러 가지 등을 만들어 달아
놓고, 밤에는 등에 불을 켜서 제등행
렬을 하는데, 이것을 연등이라 한다.
연등하는 풍속은 신라의 팔관회에서
유래하여, 고려시대에도 이를 계승
하여 오다가, 8대 현종 때에 이르러
2월 보름에 연등회를 거행하다가,
고종 때부터 초파일에 연등했다. 조



초파일 제등

선시대에는 숭유억불책으로 쇠퇴하여 민간에서 세시풍속으로 전해오다가 8·15 해방 이후부터 점차 성행하여 1976년 공휴일로 제정되었다.

제5절 5월

1. 절기와 풍속

5월은 절기상 망종(芒種)과 하지(夏至)가 들어있다. 이때의 대표적인 세시풍속으로는 단오
절(端午節)을 들 수 있다.

2. 단오 제의

5월 5일은 단오라고 하니, 단오는 초오의 뜻으로 5월 처음의 말(午)의 날을 말한다. 단오를
순 우리말로는 수릿날이라고 한다. 《동국세시기》에 의하면 수릿날은 일년 중 큰 명절의 하나이
다. 그래서 신라 때부터 5월 5일을 단오절로 정하고, 위로는 왕실로부터 아래로 백성에 이르기
까지 이날을 경축일로 삼아 거국적인 잔치를 베풀어 흥겹게 지내왔다. 단오는 설, 추석, 동지와

더불어 4대 명절로 쳐왔다.

이날에 창포를 삶은 물에 머리를 감으면 윤기가 나 머리칼이 빠지지 않고 소담스러워 진다고 해서, 옛날에는 남녀가 창포물에 머리를 감았다. 또 홍록색의 새옷을 입고, 창포의 뿌리를 꺾어 비녀를 만들어 수복(壽福)의 두 글자를 새기고 끝에 연지로 붉게 칠하여 아이들 머리에 꽂아 주기도 하는데, 붉은색은 양색으로 재액을 물리치는 기능을 가진 데서 생긴 풍속인데 지금은 사라졌다.

3. 주술과 금기

1) 천중적부

천중적부(天中赤符)란 단오날 각 가정에서 악귀를 쫓는 뜻에서 주사(朱砂)로 벽사문을 써서 문기둥에 붙이는 부적을 말한다. 부적에는 “5월 5일 단오날, 위로는 하늘의 녹을 얻고, 아래로는 땅의 복을 얻는다. 우(尤)의 귀신은 구리 머리요, 쇠이마의 치우신은 404가지 병을 한꺼번에 없애되, 율령같이 급급할 지어다”라고 하였다.

이 부적을 단오날에 붙이는 까닭은 이날이 양기가 가장 왕성하여 액을 물리치는데 알맞는 날로 믿었기 때문이다.

2) 약쑥과 익모초 베기

단오날 이른 아침에 쑥과 익모초를 뜯어 말렸다가 약초로 쓰는 풍속이 있다. 쑥을 베어다가 다발을 묶어서 문옆에 세워두면 재액을 물리친다고 하며, 농부들이 밭에서 일할 때 약쑥으로 긴 허리를 만들어 불을 붙여 두고 종일 담뱃불을 땡기는데 쓰기도 한다.

익모초는 산모의 몸에 이롭다고 하며, 또 여름에 즙을 내서 마시면 입맛이 나고 식욕을 돋운다고 한다. 쑥과 익모초는 한약제로 많이 사용하지만, 특히 단오에 뜯은 것이 약효가 좋다고 한다

3) 대추나무 시집보내기

단오날 대추나무의 가지가 벌어진 사이에 작은 돌을 끼워놓은 것을 ‘대추나무 시집보낸다’라고 한다.

이렇게 하면 열매가 많이 열리고 나무가 잘 자란다고 한다.

4) 죽취일

5월 13일에 대나무를 심으면 잘 산다하여 대를 심으니, 이날을 죽취일(竹醉日)이라 한다.

4. 놀이

1) 그네뛰기

단오날 여성의 놀이로는 그네뛰기가 있다. 녹음이 짙은 5월의 거목 아래서 울긋불긋 곱게 차려 입은 소녀들이 그네뛰기를 할 때 치마폭을 바람에 날리며 하늘로 치솟는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같다. 부녀자들의 외출이 억제되었던 옛날에도 단오날만은 일년 내내 억눌렸던 몸과 마음을 활짝 펴 볼 수 있는 유일한 놀이였던 셈이다.

그네뛰기는 《고금예술도(古今藝術圖)》에 의하면, 북방 오랑캐들이 한식날 몸 단련을 위한 뜻으로 추천을 하였는데, 중국의 여자가 이를 배워 한식날의 유희로 삼았고, 우리 나라에 들어온 뒤에 단오날 유희로 된 것이라고 한다.



그네뛰기

2) 씨 름



씨 름(김홍도)

하기도 한다. 서로 자세를 갖추면 심판의 신호에 따라 힘과 기술로 상대방을 넘어뜨리려고 한다. 어느 쪽이든 먼저 신체 중 발바닥 이외의 신체가 먼저 땅에 닿는 사람이 지게 된다.

씨름의 기술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주로 상대방의 다리를 밖으로 감아걸어 쓰러뜨리는 방법, 상대방을 들어서 쓰러뜨리는 방법, 손으로 상대방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방법 등이 주로 많이 쓰인다. 한편 《동국세시기》에 의하면 씨름은 자주 이기는 사람을 도결국(都結局)이라 하였으며, 기술로는 내구·외구·윤기 등 여러 자세가 있다.

씨름대회는 도전자들을 모두 이겨 상대자가 없게 되면 우승을 하게 되는데, 우승한 사람을 장사라 부르며 상으로 황소를 주는 것이 관례이다.

상품으로 줄 황소는 미리 사다가 씨름판에 매어 두며 승리를 거둔 장사는 황소를 타거나 앞 세우고 의기양양하게 씨름판을 돌며 승리감을 만끽한다. 요즈음은 프로씨름 선수들이 생겨서 사철 많은 상금을 놓고 씨름대회가 열리고 있다.

단오날 남자들의 놀이로는 씨름이 있다. 지금도 장정들이나 소년들이 넓은 백사장 또는 잔디밭에 모여 서로의 힘과 기술을 겨루는 씨름대회가 도처에서 벌어진다. 장정들이 하는 씨름은 어른씨름, 소년들이 하는 것은 아기씨름이라 한다.

씨름은 상고 때부터 전해 내려왔으며, 중국에서 씨름을 고려기라고 부른 것으로 보아 한민족의 독특한 운동이었던 것이라 믿어진다.

씨름은 상대방을 마주보고 허리를 굽혀서 오른손으로는 상대방의 허리띠를 잡고 왼손으로는 상대방의 오른쪽 다리의 살바를 잡는 자세를 취하고 시작한다. 이때 오른쪽 넙적다리에 살바라고 하는 띠를 걸고

5. 태종우

5월 10일에 비가 오면 이를 태종우(太宗雨)라 하고 풍년이 들 것으로 믿는다.

태종우의 유래는 조선 3대 태종이 재위 22년(1422)에 병에 걸렸는데, 그 해 한발이 들어 백성들은 절망에 놓여 있었다. 이를 보고 태종이 “내 옥황상께 청하여 비를 오게 하여 백성을 구제하리라”고 말하고 승하했다. 태종이 승하한 후부터 소나기가 쏟아져서 가뭄을 면했고 그 해에 풍년도 들었는데, 백성들은 그것을 왕의 은혜로 알았다. 이런 일이 있는 후로 태종이 승하한 5월 10일에 매년 비가 내리게 되었고, 이날 오는 비를 태종우라 불렀다.

제6절 6월

1. 절기와 풍속

6월은 하절(夏節) 중 소서와 대서가 들어 있는 만큼 더운 계절이다. 이달의 대표적인 명절은 15일의 유두(流頭)로 보름 민속의 하나이다. 또한 풍속으로 복날의 행사가 행해진다.

2. 유두 제의

6월 15일은 유두라하여 가묘에 차례를 지내는데 밀국수·참외 등을 천신(薦新)한다. 또한 옛 풍속에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고, 목욕을 하여 액을 씻어버렸다.

3. 봉선화 물들이기

봉선화가 피는 음력 5월 경에 부녀자들 사이에는 손톱에 봉선화 물들이기가 성행한다. 방법은 봉선화의 잎과 꽃을 따서 백반을 섞어 찧은 다음에 물들이기를 원하는 손톱에 붙이고 헝겊으

로 싸멘 뒤 하루를 지낸다. 다음날 헝겊을 풀어보면 손톱에 봉선화 색깔이 아름답게 물들어져 있다. 이 풍속은 '붉은색이 사귀를 물리치다'는 데서 유래된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8월에 봉선화 물들이는 시누이가 있는 집에 시집가면 시집살이를 하고, 손톱의 봉선화 물이 첫 눈이 올 때까지 지워지지 않으면 첫사랑이 성공한다는 속설도 전해온다.

4. 놀이

1) 삼복

삼복은 초복·중복·말복을 말한다. 초복은 하지 후 세번째 경일(庚日)이고, 중복은 네번째 경일이며, 말복은 입추 후 첫번째 경일이다. 이때 더위를 삼복더위라고 하며 일년 중 더위가 가장 심한 때이다.

옛날에도 복중에는 더위를 피하기 위하여 산간 계곡을 찾아 밭을 물에 담그고 피서를 하였으니 이것을 탁족(濯足)이라 하였다. 근래에는 해변이나 산간 계곡으로 피서를 가는 계절로 되었다.

2) 유두놀이

유두놀이를 가는 것은 여름철의 풍류이다. 음력 6월 15일인 유두는 '동류수두목욕(東流水頭沐浴)'이란 말에서 나온 것으로 이날 개울을 찾아가서 목욕을 하고 머리를 감으며 하루를 청유(淸遊)하였다. 또한 선비들이나 동료들끼리 술과 고기를 장만하여 계곡이나 정자를 찾아가서 풍월을 즐으며 하루를 즐기는 것을 유두연(流頭宴)이라 한다.

《농가월령가》〈육월령조(六月令條)〉의 유두놀이에 대한 노래를 보면 다음과 같다.

삼복(三伏)은 속절(俗節)이요, 유두(流頭)는 가일(佳日)이라
원두밭에 참외따고 밀갈고 국수하여
가묘(家廟)에 천신(薦新)하고 한때 음식 즐겨보세
부녀는 헤이마라 밀기울 한데모아
누룩을 디디어라 유두면(流頭麵)을 하느니라

5. 계삼탕과 구탕

복중에 더위를 이기고 식욕을 돋구기 위하여 먹는 절식으로 계삼탕과 구탕이 있다. 계삼탕은 햅병아리를 잡아 인삼과 대추와 찹쌀을 넣고 곤 것이고, 구탕은 개고기를 곤 것이다. 《동국세시기》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전한다.

“개를 잡아 파와 된장을 넣고 끓 끓인 것을 개장이라 하는데, 이 개장국에 깨와 고추가루를 타고 밥을 말아서 시절 음식으로 먹는다. 그렇게 하여 땀을 흘리면 더위를 물리치고 허한 것을 보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예로부터 개를 잡는 것이 복날의 큰 행사였으니, 지금의 풍속에도 개장이 삼복 중의 가장 좋은 음식이 되었다. 요즈음도 삼복더위를 피하기 위하여 산간 계곡이나 물가를 찾아가 구탕이나 계삼탕을 먹으며 야유회 삼아 하루를 즐기는 복대림은 성행하고 있다.

제7절 7월

1. 절기와 풍속

7월에는 절기상으로 입추(立秋)와 처서(處暑)가 있다. 입추는 가을의 시작을 말하는 뜻으로, 처서는 더운 기운이 멈춘다는 뜻으로 쓰인다. 이때 쯤이면 가을의 서늘한 바람이 불게 된다.

이달의 풍속으로는 칠석 · 망혼일 · 중혼 등이 들어 있다. 또한 ‘어정 칠월’ 이란 말도 있듯이 호미씻기를 하는 등 농가에서는 휴식을 취하는 때이기도 하다.

2. 제의

1) 칠석

7월 7일 저녁을 칠석으로 이날 저녁에 직녀성이 하늘에서 바느질을 관찰한다는 관념에서 처

녀들은 바느질과 과일을 마당에 차려놓고 바느질 솜씨가 늘게 해달라고 빌었다. 그리고 칠석날 밤 견우성과 직녀성을 승상하며 경건히 지낸 것은 다음과 같은 애듯한 전설이 있기 때문이다.

견우와 직녀는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동서로 갈라져 있어, 서로 사랑하지만 다리가 없어 만날 수가 없었다. 이러한 딱한 사정을 헤아린 까마귀와 까치가 이날이면 은하수에다 오작교란 다리를 놓아 주어 견우와 직녀가 다리를 건너와 1년에 한 번 만나게 된다. 그러나 사랑의 회포를 다 풀기도 전에 새벽 닭이 울고 동쪽 하늘이 밝으니 다시 이별을 하여야만 했다. 그래서 견우와 직녀는 또 다시 1년 동안 베를 짜고 밭을 갈면서 고독하게 보내야 했다는 전설이다.

이날 저녁에 비가 내리면 견우와 직녀가 상봉한 기쁨의 눈물이라고 하며, 이튿날 새벽에 비가 내리면 이별의 슬픈 눈물이라고 한다.

2) 백종

7월 15일은 백종(百種) · 백중(百中) · 중원(中元) · 망혼(亡魂)일이라고도 한다.

이날 승가에서는 백 가지의 꽃과 음식을 차려놓고 우란분재(盂蘭盆齋)를 개최한다. 이는 죽은 사람의 영혼에 대한 공양인데, 그 유래는 부처님의 제자 일련존자(日蓮尊者)의 어머니가 죽어 극락으로 가지 못하고 악귀가 되어 고생을 하고 있을 때, 부처님이 우란분재를 열어 백 가지 음식을 차려 놓고 어머니께 공양하라고 말하였다. 이런 연유에서 백종날에 부모를 위하여 공양을 하게 되었다.

한편 망혼일이라고 하는 것은 백종날 밤에 술 · 고기 · 밥 · 떡 · 과실 등 많은 음식을 차려 놓고 망친의 혼을 불러들여 제를 지낸다는 데서 연유되었다. 또한 이 날은 그해에 농사를 잘 지은 집의 머슴을 소에 태우거나 가마에 태운 후 위로하고 흥겹게 놀기도 하였다.

3. 놀이

1) 호미씻이

봄부터 바쁜 농사일에 쫓기다가 백중 때에 논밭의 김을 다 매면 추수 때까지 농부는 한가로이 어정거리게 되므로, '어정 7월, 건들 8월'이라는 말이 생길 만큼 한가한 때이다.

이 농한기를 이용해서 호미를 씻어 둔다는 뜻으로, 이 날은 각 호별로 배당해서 주식을 장만

하여 냇가나 나무 그늘에 모여서 하루를 즐긴다.

2) 꽈리불기

7월에는 꽈리들이 많이 열린다. 소녀들은 그 열매를 따서 꼭지가 붙었던 자리에 바늘로 구멍을 내어, 속을 꺼내 버리고 공기를 불어 입 안에 넣고 놀려서 빠드득하는 소리를 내면서 노는 놀이를 꽈리불기라 한다.

4. 행사

1) 쇄서포의

7월 7일에 장마동안에 늑늑해진 옷이나 책을 햇볕에 말려 좀이나 곰팡이를 예방하는 풍속을 말한다.

2) 삼삼기

7월 15일부터 농촌 부녀자들이 수십 명씩 패를 이루어 매일 저녁 돌려가며 하루 한 집씩 삼을 삼는 것을 '둘레삼〔協同續麻〕'이라 한다.

둘레삼을 하는 것은 각 가정에서 제각기 따로 하면 능률도 나지 않고 시일이 오래 걸리는데, 협동작업을 하면 시간 가는 줄도 힘드는 줄도 모르게 되기 때문이다.

제8절 8월

1. 절기와 풍속

8월은 절기상 중추로서 백로(白露)와 추분(秋分)이 들어 있다. 이 달은 추석이 들어 있어 속 담에도 있듯이 '5월 농부, 8월 신선'과 같이 수확의 기쁨을 맛보는 때이다. 비교적 이른 벼를 추수하여 천신하고 풍요로움을 경축하는 추석날은 대표적인 보름 명절이다.

2. 제의

1) 상정일

2월 상정일(上丁日)과 같이 첫번째 정일에 서울 문묘를 비롯하여 각 지방 향교(鄉校)에서 일제히 추기석전 제향이 거행된다.

2) 추석



중추절 차례광경

찾아가는 귀성객들이 봄빈다.

한편 추석을 가위, 또는 한가위라고도 하는데, 그 어원은 지금까지 '가븐데'로 중간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해 왔다. 또한 신라 가위의 유래담에서 진 편이 이긴 편에 베푸는 잔치나 놀이로서 '갑다 [報價]'에서 나온 것으로 보기도 한다.

추석의 우리말은 가위이며, 한자로는 가배일(嘉俳日) · 중추절(仲秋節) 등으로 쓰인다. 추석날인 8월 15일은 우리 민족의 오랜 명절로서 햇곡식으로 빚은 송편과 술, 그리고 햇과일을 차려놓고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고 선조의 묘에 성묘하는 풍속이 있다. 지금도 추석 명절을 지내는 풍습은 옛날과 다름없고, 이때만 되면 민족 대이동이라 할 만큼 고향을

3) 벌초

벌초(伐草)란 추석을 전후하여 조상의 묘에 무성한 잡초를 제거하고 잔디를 다듬는 풍속을 말한다. 조상을 기리는 아름다운 풍속이라 하겠다. 지금도 성행하고 있으나, 다만 날짜를 잡음에 있어서 8월 중 문중의 일가친척이 모두 모일 수 있는 휴일을 택하여 가문의 친목회를 겸하기도 한다.

3. 거북이놀이

거북이놀이는 한가위날 밤 청소년들이 박으로 거북이 머리를 만들고 수솟대잎으로 거북이 등처럼 둑글게 엮어 속에 세 사람이 들어가 한 사람은 머리, 두 사람은 좌우를 각각 맡아 뛰고 노는 것이다. 새끼 거북이는 수솟대잎 도롱이를 머리서부터 혼자 뒤집어 쓰고 수십 명이 뛰노는 데 “거북아 거북아 놀아라, 남상남강 놀아라” 하며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놀다가 어미 거북이 쓰러져 엎드리면 새끼 거북이도 일제히 쓰러져 꼼짝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거북을 몰고 다닌 사람이 거북이에게 “너 쓰러져서 아니 일어나느냐?”고 물으면 “동해를 건너 이 댁까지 복을 신고 오느라고 지쳐서 누웠다”고 대답한다. “네가 무엇을 먹으면 힘이 되겠느냐?”고 물으면 술·고기·떡 등 여러 가지 음식을 청한다.

이 말을 주인에게 전달하면 주인은 여러 가지 음식을 내어 놓는다. 그러면 거북을 모는 사람이 거북이에게 큰 소리로 나온 음식이 무엇무엇이라고 호들갑을 떨어 알리면서, 이 댁의 잡귀잡인을 몰아내고 무병장수를 축원하자고 떠들면 다시 일어나 한바탕 놀고 다른 집으로 떠나간다.

4. 반보기

옛날 부녀자들은 외출이 자유롭지 못했다. 따라서 8월 중에 만나고 싶은 사람들끼리 연락을 취해 중간 지점의 경치 좋은 곳에서 서로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와 나누어 먹으며, 그간의 밀린 회포를 푸는 풍속을 말한다. 특히 친정 어머니와 출가한 딸이 서로 보고 싶으나 시집살이가 심하여 만날 말미를 얻지 못할 때에는 반보기를 하였다.

만날 때에 만나는 시간이 한나절 밖에 될 수 없기 때문에 온보기가 못되어 반보기라고 한다.

제9절 9월

1. 절기와 풍속

9월에는 24절기상 한로(寒露)와 상강(霜降)이 들어 있다. 이때는 찬 이슬과 서리가 내리며 제비는 강남으로 돌아가고 북쪽으로부터 기러기가 돌아온다.

2. 중앙절

9월 9일을 중구 또는 중양이라고 하는데, 이는 양이 겹쳤다는 뜻이다. 양수인 기수가 겹친 3월 3일, 5월 5일, 7월 7일이 다 중양이지만, 중양하면 중구를 지칭했다.

이날은 국화로 만든 술과 떡을 만들어 먹는 풍속이 있으며, 3월 3일 강남에서 왔던 제비는 돌아가고 기러기가 돌아온다는 날이기도 하다.

제10절 10월

1. 절기와 풍속

10월은 상달이라 하여 좋은 달로서 각종 의례가 집중되어 있는 달이기도 하고, 추수를 끝낸 후 풍요로움을 누리며 감사제를 지내는 때이기도 하다.

절기상으로는 겨울의 시작을 뜻하는 입동이 들어 있다. 풍속으로는 무오일 행사와 각종 기원제와 김장담그기 등이 행해진다.

2. 제 의

1) 개천절

10월 3일을 개천절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양력 10월 3일을 개천절로 하여 국경일로 정하고 의식을 행하고 있다. 개천이란 10월 3일 국조 단군이 천계에서 천문을 열고 인간계로 내려왔다 는 건국신화(建國神話)에서 유래되었다.

2) 무오일

10월의 오일을 말날이라 하여 팥으로 시루떡을 만들어 외양간에다 갖다 놓고 말의 건강을 비는 풍속이 있다. 그러나 병오일(丙午日)은 병(病)과 음이 같다고 하여 피하였고 무오일(戊午日)은 좋다고 하는데, 이는 무(茂)와 음이 같아서 말이 무성하게 자란다는 뜻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3) 성주제

10월은 상달 즉 1년 중 가장 높은 달이라 생각하여 각 가정에서는 길일을 택하여 햇곡식으로 떡과 술을 빚고, 과일과 여러 가지 음식을 갖춰 놓고 성주신에게 평안무사를 빈다. 이때 무당이나 박수를 불러서 경문을 읽게 하는 가정도 있으니 이것을 안택고사라고 한다.

4) 시 제

명절의 차례와 기제로 4대까지는 사당에서 제사를 지내지만, 5대가 넘은 조상들에게는 10월에 날짜를 정해 묘제를 지내는데 이를 시제라 한다.

제물은 후손들 중 세대주 별로 차례를 정해 차리거나 묘지기가 있어 재실에서 차리기도 한다. 시제의 경비는 위토에서 경작한 수확물로 충당하는데, 위로는 각 문중의 형편에 따라 소유의 제한이 없었으나 1950년 농지개혁에 의하여 묘 1기당 3단보로 제한되고 나머지는 분배되었다.

시제는 조상들의 은공을 기리는 일이지 결코 상례와 같은 슬픈 제사는 아니다. 따라서 각지



시제(時祭)

3. 손돌풍

10월 20일에 큰 바람이 부니 이 바람을 '손돌풍'이라고 하는데, 《동국세시기》에 전하는 다음과 같은 설화에서 유래되었다.

고려시대 원종이 원나라의 침입을 받아 배를 타고 강화로 피난을 가는데, 험한 여울목에 이르러 때마침 폭풍이 부는지라 손돌(사공)이 왕에게 안전한 곳에서 쉬었다가 폭풍이 지나간 뒤에 행차하도록 간하였다. 왕은 촌각을 다투는 긴박한 때에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 하여 손돌의 목을 베고 건너려 하였으나 폭풍이 멈추지 않았다. 이에 왕의 말을 잡아 손돌의 영을 위로하는 제사를 지내니 그제서야 폭풍이 멈춰서 무사히 강화도에 도착하였다.

이 후로 이 여울목을 '손돌목'이라 하고, 이날 부는 바람을 '손돌바람'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4. 신선로

겨울철에 밥상 위에서 조리하여 따끈하고 맛있게 요리를 먹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신선로이다. 신선로는 큰 대접 복판에 연통을 둘러 세운 모양으로 우리 나라 고유의 그릇인데, 그 안에 고기 · 두부 · 고사리 · 도라지 · 계란 · 호도 · 잣 · 은행 등 갖은 양념을 넣고 육수를 부어 숯불을 피우면 상 위에서 맛있게 끓여 식지 않게 먹을 수 있다. 이러한 신선로를 열구자탕이라고도 한다.

에서 모여든 후손들은 젊은 자제들을 데리고 와서 일가 어른들께 인사시키기도 하고,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정담을 나누기도 하며, 문중 재산 · 묘제 따위를 안전으로 문중의 대동회를 열기도 한다.

제11절 11월

1. 절기와 풍속

11월 중에는 동지가 있는데, '아세' 또는 '작은 설'이라고도 한다. 민간에서는 흔히 동지팥죽을 먹어야 나이를 한 살 더 먹은 것으로 여겼다.

2. 동지팥죽

동지는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이다. 동짓날에는 어느 가정이나 팥죽을 쑤어 먹는다. 팥죽은 팥을 삶아 으깨거나 체에 걸러서 그 물에다 단지를 새알만큼씩 만들어 넣고 쑨다. 찹쌀 단지를 새알심 또는 용심이라 하여 사당에 놓아 차례를 지낸 다음 방·마루·광 등에 한 그릇씩 퍼놓고 식구들이 둘러앉아 먹는다. 이는 팥죽이 재액을 막아 준다는 데서 나왔다.

이러한 유래는 옛날 중국에서 공공(共工)이란 사람의 아들이 동짓날 죽어 역귀가 되었는데, 이 역귀는 팥을 무서워했다고 한다. 이후로부터 그 역귀를 쫓기 위해 동짓날 팥죽을 쑤어 먹는 풍속이 생겼다.

3. 동치미와 수정과

겨울의 별미로 동치미가 있다. 동치미는 흔히 김장할 때 담그지만, 겨울에는 언제든지 담글 수 있다. 동치미는 한자로는 동침(冬沈)이라 썼는데, 늦은 봄까지 먹을 수 있다.

그리고 곶감을 꿀물이나 설탕물에 담그고 생강·잣·계피가루를 넣어서 차게 한 후 먹는 수정과가 있다.

4. 책 력

옛날에는 하선동력(夏扇冬曆)이라 하여 '관상감'에서 동짓날에 다음 해의 달력을 만들어 조정에 올리면, 조정에서는 이것을 문무백관에게 나누어 주었다. 현재 연말에 달력을 선사하는 것이 이러한 풍속에서 유래되었다.

제 12 절 12 월

1. 절기와 풍속

12월은 설달이라고도 하며, 절기상으로 소한(小寒)과 대한(大寒)이 들어 있다.

1) 제야

1년의 마지막 날인 12월 30일을 제석 또는 제야라고 부른다. 제야에는 그 해에 있었던 모든 거래의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데, 빚이 있는 사람은 이날 다 갚고, 받을 것이 있는 사람은 이날까지 다 받으며, 혹 받지 못하면 정월 보름까지 받으러 가지 않는 것이 상례이다.

집안의 묵은 약을 모두 태워버리는데, 이렇게 하면 모든 질병이 약타는 냄새를 따라 없어진다고 한다. 그리고 집안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를 한다. 이것은 묵은 것은 깨끗이 청산하고, 맑고 깨끗한 것을 맞이하려는 마음에서 생긴 풍속이다.

2) 묵은 세배

섣달 그믐날 한 해를 보내는 인사로서 일가친척의 어른들을 찾아 뵙고 과세의 편안을 여쭙는 것을 묵은 세배라 한다. 이때는 가까운 집안에 한정되고, 술이나 담배를 사가기도 했다고 한다. 또 사대부 집안에서는 사당에 참례를 했다고 하나, 지금은 보기 어려운 풍속이 됐다.

2. 납향

동지 후 세번째의 미일(未日)인 납일에 종묘와 사직에 큰 제사를 지낸다. 납(臘)은 혈(獵)의 뜻으로 짐승을 사냥하여 선조에게 올린다는 뜻이다. 그래서 옛날에는 고을 수령이 온 군민을 동원하여 납향에 쓰이는 산돼지와 토끼를 잡아 바쳤다. 또 '납일 참새는 황소 한 마리보다 낫다'는 말이 있듯이, 납일 저녁에 참새고기를 먹으면 무병하다고 하여 처마 끝 새 구멍을 뒤지거나 그물을 쳐 놓고 잡았다. 납일에 궁중의 내의원에서 환약을 만들어 조정에 헌납했으며, 나라에서 대신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3. 주술과 금기

1) 수세등

수세등이란 설날 밤에 각 가정에서 방·마루·다락·부엌은 물론 외양간·변소·대문간 등의 집 안팎을 마치 대낮같이 환하게 밝혀두고 밤을 지새우는 풍속을 말한다.

2) 폭죽

제석(除夕)의 자정 무렵 마당에 불을 피운 후 청죽(青竹)에 불을 붙이면 청죽마디가 큰 소리를 내며 요란스럽게 타는데, 이를 폭죽 또는 대불놓기라고 한다. 이렇게 하면 묵은 해에 집안에 있었던 잡귀들이 놀라서 모두 달아나고, 신성하게 신년을 맞이할 수 있다고 믿었다.

4. 세찬

세모에는 꿩·대추·어란(魚卵)·마른생선·굴·건포(乾脯) 등을 친척 또는 친지들 사이에 주고 받는데, 이것을 세찬이라고 한다.

옛날에는 각 도 수령방백(守令方伯)들이 조관·친척·친지들에게 토산품을 세찬으로 보냈으며, 이때 봉함 속에 토산품의 목록을 적어 보냈는데 이것을 청명지(聰明紙)라고 하였다.

5. 윤월

윤달은 4년에 한 번씩 있으며, 평년보다 한달이 더 있는 달로 공달 또는 덤달이라고도 한다. 속담에 송장을 거꾸로 세워도 탈이 없다고 할 만큼 무탈한 달이다. 따라서 민간에서는 혼례, 수의마련, 집수리, 사초 등을 윤달이 있는 해에 주로 하였다.

〈백운화〉

제 13 절 지경닷이 놀이

1. 개요



지경닷이 놀이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이 놀이를 시연할 수 있는 기능보유자들이 노령이어서 재연하기에 매우 어려움이 많고 더군다나 농악을 연주할 수 있는 기능인이 적은 실정이다.

재래의 지경닷이 분포는 주로 기호지방(경기·충청)과 해서지방(황해도)에서 행하여졌다. 오늘날 해서지방의 사정은 알 수 없으나, 기호지방에서도 지표(地表)가 약한 내륙지방에서 많이 성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선시대 때에 성행하여 근대까지 전래되어 오다가 한국전쟁 이후로는 새로운 건축구조의 유입으로 거의 볼

2. 놀이의 특징

지경닦이는 옛부터 집을 짓기 위해 집터를 돋우고 다지는 집터닦기인데, 이 공사(工事) 과정을 마을의 경사로 승화시켜 가옥이 완공되기까지 역사장에서의 공정과정을 놀이화한 것이다. 이 놀이는 타령으로 시작하여 축원으로 끝을 맺는 경사놀이의 일부로 오락·예능기능에 속하며, 농경의례에서 연희로 발전하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즉 단순한 무속(巫俗)에서 거행하고 이어지는 대사·가사·축원으로 엮어지는데 특징이 있다.

3. 놀이의 구성과 순서

집터를 돋운 장소가 곧 무대이며, 집터를 돋우고 다지는 데서부터 놀이가 시작된다. 주연은 상좌이고, 조연은 집주인 내외와 지관·잽이 등이며 출연자들은 경꾼과 구경꾼들로 구성된다.

진행은 상좌와 집주인·지관 등의 대사로부터 시작해서 창·타령·덕담·집이의 동작, 집주인의 춤·선창·후창 등으로 엮어지며 주요 배역은 마을주민들로 이루어진다.

첫째 마당은 지관에 의해 집터가 정해지면 덕담과 축원으로 집주인 내외가 토지신에게 고사 를 드린다. 둘째 마당은 일꾼들이 메기는 소리와 뒷소리에 맞춰 집터 닦기와 지경다지기가 펼쳐지고, 셋째 마당은 일꾼들과 목수가 건물을 세우고 농악패들은 홍을 돋구어 일의 능률을 도와준다. 넷째 마당은 건물이 상랑식(上樑式)을 거행하고 성주굿을 드리며 출연진 전원이 한마당 어울려 노는 것으로 막을 내린다.

제 14 절 행단제(杏壇祭)

이 놀이는 1945년 8·15일 해방을 전후로 잊혀졌던 놀이였으나, 경기도가 지역에 묻혀 있는 전통놀이의 발굴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민속예술 경연대회를 계기로 동두천 문화원의 발굴계획에 의해 향토사가인 조규진(曹圭鑑)에 의해 세인의 망각 속에 사라질 뻔한 향토문화의 뿌리를 찾아내 재현하기에 이른 것이니 매우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놀이의 시작은 조선 초기인 세조 때부터 행하여 전해진 놀이라고 하는데 이 놀이의 유형은 천여 년 된 은행나무에 마을의 안녕과 주민들의 무병장수, 그리고 새해의 풍년을 기원하는 수제(樹祭)로부터 시작된다. 인근 마을(행단, 송내, 지행) 주민들이 참여해 농악·씨름·힘겨루기 등 세 종목을 가지고 마을간에 경진하여 각 종목에서 장원을 뽑아 장원자가 많이 나온 마을이 그 해의 장원을 차지하는 것으로 일반 놀이와 같다. 이 과정에서 마을간의 협동심이 강조되고 특히 힘의 대결로 결정되는 요소가 강하게 나타나 무인의 행사와 같은 경향이 짙게 나타나 있다.

1. 행단제의 특징



행단제

민속놀이는 대체적으로 목적이나 내용에 따라 놀이 자체가 목적인 놀이가 있고, 풍년을 기원하는 놀이, 내기놀이, 겨루기놀이, 개인의 복락(福樂)이나 마을의 태평을 기원하는 놀이로 나눌 수 있다.

행단제는 동신(洞神)인 수신(樹神) '천여 년 된 은행나무'에게 그 해의 풍년에 감사하고, 이듬해의 풍년과 마을의 무사태평을 기원하는 제사의식으로 시작되는 대동제(大洞祭)

의 형태로서 줄다리기, 씨름, 힘겨루기(2백근이나 되는 돌을 들고 은행나무 주위를 맴도는데 제일 많이 든 사람이 승자) 등의 뒷풀이로 구성된 놀이이다. 특히 장원한 마을에서는 장원기와 힘겨루기에 사용된 거석(2백 근으로 3백여 년 째 전해온 돌)을 다음 놀이가 있을 때까지 보관하는 전통이 이어져 오고 있다.

행단제의 시원은 조선 초기부터 전해져 온 놀이로 구전되는데, 세조와 성종 연간에 무인이었던 어유소(魚有沼)장군이 소년시절 이 놀이의 힘겨루기에서 장원하였다고 하며 이 은행나무 아래서 학문과 무예를 연마하여 세조때 무과에 급제하여 나라에 큰 기동이 되었다고 한다.

2. 놀이의 구성

행단제의 구성은 인근 3개 마을 지행, 송내, 행단 주민들이 참여하였으며 매년 10월 상단(上日)에 길일(吉日)을 택하여 3일간이나 지속하였다. 그러나 8·15 해방 전까지는 원형태로 지속되어 왔으나 한국전쟁 이후로는 놀이와 의식이 축소된 채로 2년 또는 3년에 한 번 수제의식(樹祭儀式)만으로 전통을 이어오다가 1994년 10월 경기도 민속예술 경연대회를 계기로 발굴하여 참가하게 되었다.

〈구연(口演) 행단제 기능보유자〉

박영빈(朴榮彬, 85세)

이강진(李康鎮, 69세)

안병철(安秉哲, 72세)

3. 행단제 홀기

행단제 홀기(杏檀祭 疏記)는 행단제의 진행 순서이다. 우리 선조들은 제례 등 의식의 절차를 매우 중시하였다. 곧 형식적인 완성을 통해 내면적인 완성을 이루고자 노력했다. 형식은 단순한 겉치례가 아니라 자신의 겸양을 표현하는 과정이었다. 그런 만큼 절차는 곧 일상사의 과정 자체였다. 행단제의 순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행관세례(行盥洗禮)

獻官以下 諸執事 皆盛服 盥手洗手 序立 壇下

② 행진설례(行陳設禮)

陳設先人 壇上 陣設一如陣設

③ 행분향례(行焚香禮)

獻官詣 香案前詭 奉爵奉盞盤 奉爐奉香爐

獻官 三上香 再拜

④ 행강신례(行降神禮)

獻官詣 香案前詭 奉爵奉盞盤 司樽酌酒

獻官奉盞盤 三祭 莎上 奠爵奉空盞奠子位前

⑤ 행참신례(行參神禮)

獻官以下 諸執事 皆再拜

⑥ 행현작례(行獻爵禮)

獻官詣 香案前詭 奉爵奉盞盤 司樽酌酒

奠爵奉空盞奠子位前 大祝詣獻官之左 東向

詭 讀祝 獻官 再拜

⑦ 행사신례(行辭神禮)

祝焚祝文 獻官以下 諸執事 皆再拜

⑧ 행음복례(行飲福禮)

祝取爵 取脯詭進于獻官 獻官盥爵

諸執事 序次撤饌

4. 집사자와 제물

제례를 집행하는데 각각의 임무가 부여된다. 이를 집사자(執事者)라고 한다. 특히 마을단위 일 경우에는 덕망과 복덕이 있는 사람을 선출하여 이들에게 모든 과정과 절차를 맡긴다. 집사자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관(獻官) 1人, 집례(執禮) 1人 대축(大祝) 1人, 봉향(奉香) 1人 봉작(奉爵) 1人, 사준(司樽) 1人 등이다. 이들은 각각 맡은 바에 임무를 다한다.

한편 제례를 위한 준비물은 유진 · 도포 · 행전 · 짚신(고무신) 등이다. 그리고 제물은 · 떡 1시루, 데지머리, 삼색과일, 포, 쌀과 족쌀 각 1되, 제주(막걸리) 등이다. 제물은 마을의 공동재산이나 각 가정의 부담으로 준비한다.

5. 행단치성제 축문

축문은 제례의 가장 귀중한 부분이다. 곧 모든 참가자의 정성을 축문을 통해 표현한다. 이는 일반 가정의 기제사에서도 보편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수 없다. 행단제 축문과 고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축문〉

모년 모월 모일 아모는 존신위께 감히 고하나이다.

이(理)와 기(氣)는 양과 음이 있으며, 물체는 나고 죽는 것이 있고, 오면 반드시 가고, 신이 있으면 반드시 귀가 있나니 물체의 남음이 없으면 어찌 귀신의 주가 없으리요.

정이 없는 것이 음양이요 정이 있는 것이 귀신이니 정이 없으면 더불어 말하지 못하고 정이 있으면 가히 깨달을 것이라. 오직 물과 불이 사람을 기르나 때로는 혹 사람을 상하게 하며, 귀신이 사람을 주로 하나 때로는 혹 사람을 해하는지라. 그러나 사람을 상하게 하는 자는 물과 불이 아닌 사람이고 사람을 해하는 자는 귀신이 아니고 사람이다. 그러므로 추위와 더위며 비오고 개이며, 오미의 음식으로 사람을 살게 하나 사람이 조화를 자실하면 병이 생기는 고로 귀신의 성덕이 천지와 한 가지니 이제 괴기 실로 귀신의 장난이 아니요 사람의 자작지얼이라. 해가 넓이 침노하여 무고히 죽는 것이 어찌 사람이 혹 실덕하여 옥석을 구분함이 아니리요 사람은 양덕이요 귀신은 아니며 사람이 주로 살 곳이 없어 음과 양이 서로서로 기다리여 하나도 빠질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이라. 항상 한 가지도 조심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횡리 요찰을 차마 볼 수 있으랴 이에 우리 한 집안이 단을 설치하고 술과 음식으로 제사를 드리오니 오직 존신께서는 괴상한 요기 를 맑게 거두어 생생한 큰 덕을 펴 주옵소서. 상향

〈고사〉

단기 4천 3백 0년 십0월 십0일 길일을 택하여 행단동민 일동은 정성을 한데 모아 치성을 올리오니 영험(靈驗)하신 은행영수(銀杏靈樹)님께서는 강림(降臨)하사 두루 살피시여 그 정성을 너그러이 받아 주시옵소서. 여기에 행단동민 일동을 대표하여 제주(祭主) 000는 영주(靈主)님 앞에 삼가 고하나이다. 00년 올해에도 영주님의 보살핌 속에 동민일동은 근면·성실·화합으로 풍요로운 한 해가 되었습니다.

유구(悠久)한 역사의 변천 속에 풍운은 얼마나 지났으며, 갖은 풍진(風塵)은 몇몇이나 겹쳤습니까? 오늘도 묵묵히 서있는 자태는 무수히 지나간 풍진 속에 시달린 그 혼적에서 역력히 지난 일들을 더듬어 볼 수가 있습니다.

타지에서는 거의 보기 드문 평화의 상징이며 행단의 자랑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곧 대대로 전승해 온 우리 마을 주민들의 화합의 상징이요 평화로운 행단의 표상인 것입니다.

지난날 선조들께서도 대대로 이 행단 아래서 마을의 중대사를 의논하고 어려울 때면 의지도

하며, 모진 재난에서 구원도 기원해 왔기에 그때마다 천재(天災)의 지변(地變) 등 갖은 고난의 화를 극복해 왔습니다.

이제 오늘도 마을주민 일동은 한마음 한뜻으로 이 자리에 모여서 머리숙여 기원합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앞날에도 천재지변이나 수마(水魔)와 함께 길이길이 누리도록 너그레이 받아주시어 우리 고장에 서광과 영광을 비쳐주시옵기 기원하오며 간소하나마 여기에 주민들의 정성으로 장만한 주찬(酒饌)을 올리오니 흠향하시옵소서

행단제(杏壇祭) 제주(祭主) ○○○ 채배

제 15 절 농악놀이



이담농악

은 문화권에서 많은 영향을 받으며 발전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8·15 해방을 전후로 양주군이 각 면별로 농악경진대회를 개최할 때면, 이담농악이 우수한 기량을 보여 군민들로부터 찬사를 받으며 성장해 온 사실은 지금 70대 이상된 노인들의 구술(口述)로도 충분히 짐작이 간다.

당시 남사당 놀이의 기능이 뛰어났던 송내동의 조임득씨(1989년 사망, 79세)는 상쇄잽이로 송내농악을 이끌었고, 행단농악은 3무 등 위에서 상쇄복상을 돌려치는 신기에 가까운 기량을 보유했던 이창인(1951년 사망, 48세)가 이담농악을 양주군에서 상위로 끌어올린 장본인들이

옛날부터 경기북부 지방에 전해지는 민속놀이 · 농경의례 · 무속 등과 남사당 놀이의 본류를 양주 문화권에 두고 있다. 특히 현재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양주 별산대 · 소놀이 굿 등의 놀이 내용은 무속과 농경의례 등 우리 민족의 시대별 애환을 담고 있다. 물론 남사당 놀이도 이 범주 안에 포함되고 있다고 하겠다.

우리 동두천의 이담농악 역시 같

었다. 이러한 관계로 우리지역에서 많은 뜬쇄들이 배출되었으며 마을마다 농악대가 구성되었다.

필자가 1985년 조사한 바로는 행단농악, 송내농악, 안흥농악, 광암농악, 하봉암농악 등이 있었다. 그런데 농악의 특출한 기능을 가진 사람들은 이미 고인이 되었고, 시대의 변천에 따라 기능을 잊는 사람들이 소수에 불과해 그저 명맥만은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옛날부터 전승되어온 송내농악과 행단농악이 4월 초8일부터 5월 단오절까지 행단마을 은행나무(1천년 된 노거수) 아래서 벌려오던 굿이 다시 재현된 것은 향토문화의 발전이며, 전통민속 문화의 재조명으로 연연이 이어져야겠다. 이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연구가 절실하다.

〈구술〉

송내동: 어형우(魚亨禹, 85세), 육태신(陸泰信, 82세)

지행동: 박영빈(朴榮彬, 85세), 이강진(李康鎭, 69세)

이담농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이담농악은 경기·충청 판제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 가락으로는 광복가락이 있으며, 또한 벽구의 농사풀이 동작을 소고놀이로 표현한다.
- 농기에는 태극기를 그려 넣은 것이 특징이다.
- 쇠가락이 힘차고 섬세하며 윗놀음이 화려하고 상모가 돋보인다.
- 상쇄의 채발림이 섬세하고 채상놀이가 화려하다.
- 판제가 다양하며 가락의 수는 많지 않으나 일채, 삼채, 칠채, 굿거리가 적절하게 잘 다듬어 있다.
- 전승의 내력을 갖추고 있으며 가락의 신명을 가지고 있다.

제 16 절 하봉암동의 도당굿

1. 유래



하봉암 도당굿

경기도 북동부 지방의 무의식(巫儀式)은 주로 강신무(降神巫)들이 연희하는 방식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 이 고장 역시 강신무계(降神巫系) 지역이라서 파주(坡州) · 연천(連川) · 포천(抱川) · 가평(加平) 등 지와 같이 경기도 북동부의 무속계 대로 행하여 전래된다.

특히 이 고장은 옛부터 경기 북부권 문화의 중심지로 농경의례와 함

께 양주 별산놀이와 양주소놀이굿, 지경닻이, 이담(伊淡) 농악 등 여러 가지 민속문화가 뿌리내려 민속신앙의 형태가 거의 원형대로 전한다.

하봉암의 도당굿은 사람들의 제재초복(際災招福)을 위하고 주민의 길복(吉福)과 번영을 축원하는식의 마을 축제성격의 굿이다. 도당신(都堂神)을 중심으로 강한 지역적인 유대감을 유발시켜 마을 전주민이 참여하여 공동의 번영을 추구하는 목적이 담긴 굿이다. 이 마을은 동두천시 소요동에 위치하며 마을의 지명은 하봉암(下鳳岩) 또는 아래사야위(아래뜰)로 불려 전해지고 있으며 주민의 분포는 수성 최씨(隨城崔氏), 양천 허씨(陽川許氏), 진주 강씨(晋州姜氏) 등이 수백년간 세거해온 뿐리깊은 마을이다.

마을냇가 옆에는 4백여 년된 느티나무 세 그루가 군락을 이루고 있는데 높이가 무려 20여 미터나 된다. 마을 수호신으로 섬겨 치성을 드림은 물론 당굿도 여기에서 행한다. 1980년대 이후 산업화로 이농과 노인들의 죽음 등이 요인이 되어 비용각출까지 어렵게 되자 굿판이 점차 사라져 가는 것을 1977년 경기도 민속예술 경연대회를 계기로 다시 발굴하여 재현하게 되었다.

2. 도당굿의 내용

음력 10월 상달에 날을 택해 하는데 마을에 초상이 났거나 부정한 일이 있으면 다시 잡기도 한다. 이 나무는 한국전쟁시에도 아무런 피해도 안 입었고 역시 마을 사람도 해를 입지 않았다. 굿은 마을에 굿은 일이 생기면 회의를 열어서 하였다.

제보자인 최두한(76세) 옹에 따르면 14대 선조인 최영이라는 사람이 중종대에 역적으로 몰려 함북 길주로 난을 피해서 갔다가 이곳으로 정착했는데, 그때부터 최씨(본관 수성: 지금의 화성군)가 맨처음 들어오고 다음이 남양 홍씨, 진주 강씨가 터를 잡았다 한다.

이 지방에서 행한 마을 굿의 방식은 한강 이북의 경기도 북동부 지역의 일반적인 열두거리를 하는데, 어느 지방과 같은 경기도 지역이라도 무의식이 차이가 나는 점이 있다. 이 지방에 살면서 하봉암리에 마을굿을 주재한 이들의 말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먼제 제관 집사를 선출한다. 무당이 그 해의 간지와 생기복덕에 맞는 성인 남자를 뽑는데 조금이라도 어긋남이 있는 사람은 뽑지 않는다. 선출된 이들은 상화주·중화주·하화주·소임이 있으며, 예전에는 유사가 한 명이 더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그대로 4명만 뽑는다.

상화주로 뽑힌 이는 그 집앞에 인줄을 매고 집 대문앞에는 황토를 깔며 화주는 뽑힌 날로부터 목욕제례하고 바깥 출입도 안되며 초상이 나거나 부인이 경도가 있어도 선출되지 못하며 가축도 도살하지 못하며 온갖 정성을 들인다. 마을 사람들 가운데 중화주는 대동굿에 쓰일 조리술을 전날 만든다. 대동계가 있는 마을이라면 동리의 공동 기금을 가지고 운용하겠지만, 그런 향토계가 조직되지 않은 마을은 집집마다 곡식이나 돈을 정성껏 내놓는다.

이 지역은 사당패가 들어서서 걸립같은 것은 없고 마을의 두레·풍장꾼들이 있어서 굿을 하기 전에 걷는 수도 있다. 어느 마을에서는 공동으로 경작하는 전답의 소출로 마을의 일을 공동으로 하지만, 그런 제도가 끊긴 지는 해방 전까지라고 한다.

마을굿을 하게 되면 동리 사람들이 나가지도 못하고 마을에 일단 들어온 사람이라면 그 굿이 끝날 때까지 나가지 못했다. 상화주는 굿을 하기 하루 전날에 부군나무(이 동네 사람은 이렇게 부른다) 맞은편 밭에 있는 상석(上石)에 삼색 과실, 삼색 나물, 술 3잔, 노그메 세탕기를 놓고서 유교식을 제사를 지낸다. 축문은 읽고 나중에 태워 버린다.

예전에는 홀기, 독축관, 찬인, 유사 중·하·화주 등이 모두 올라가서 했으나, 해방 이후로는 인원도 줄어들고 간략하게 되었다.

3. 구성과 진행순서

도당굿의 구성은 한강 이북의 도당굿과 유사하다. 이는 이 지역 일대의 문화와 생활 양식 속에서 계승되어 왔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행추물림
- ② 초부정
- ③ 대내림
- ④ 돌돌이(유가놀이)
- ⑤ 당맞이
- ⑥ 조상모셔 옴
- ⑦ 푸살
- ⑧ 조상보냄
- ⑨ 초대감
- ⑩ 산거리
- ⑪ 산칠성
- ⑫ 말명거리
- ⑬ 별상거리
- ⑭ 성주거리
- ⑮ 장군거리
- ⑯ 사냥거리
- ⑰ 쌍대감(왕방대감놀이)
- ⑱ 영산풀이

한편 진행순서는 다음과 같다.

- 길놀이 : 시기→오방기→만장기→무녀→악사→천존기→주민→쌍호적→두레풍장꾼 순으로 입장한다.
- 만수받이 : 강신무 계통에서 신을 청할 때 장고잽이와 산거리하는 무녀가 주고받는 사설
- 사냥놀이(거리)

1. 원님과 사신의 사설
 2. 사냥놀이 : “사냥가세, 사냥가세 / 노루사슴 사냥가세” 하며 만수받이를 향녀서 부군 당나무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번 돌고 이어 주저리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세 번 돌다가 사냥감을 잡아간다.
- 쌍대감놀이 : 만수받이를 하고 남대감 여대감을 청해놓고 남대감 · 여대감이 합의해서 즐겁게 놀고 마치는 무의식인데, 이 지방에서만 있는 무의식이며 집굿에는 없는 의식이다.
 - 뒷 전 : 일명 영산풀이로 잡귀 귀신을 마지막으로 대접하고 보내는 의식

4. 가사

사냥 가세 사냥 가세 / 노루 사슴 사냥 가세
팔도 명산 사냥 가세 / 일자 포수 대령 햇소
일자 사냥개 대령했소 / 소요산으로 사냥 가세
마차산으로 사냥 가세 / 감악산으로 사냥 가세
왕방산으로 사냥 가세 / 우여— 우여—

제 17 절 매사냥

1. 개요

매사냥은 길들인 매로 꿩이나 토끼를 잡는 사냥법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삼국시대에 이미 매사냥을 하였으며 간도와 북한지방에서 ‘해동청’이라는 우수한 매가 산출되어 중국 · 일본 등지에까지 수출되기도 하였다. 매사냥은 특히 조선시대에 성행하였으며 매사냥을 담당하는 응방(鷹坊)을 따로 두었다.

매에는 헛새끼인 보라매, 산에 사는 산지니, 새끼를 받아 기른 수지니 등 세 종류가 있다. 보



매사냥

라매는 햇새끼이며 산지니는 생매를 산에서 받아 길들인 것이고, 수지니는 사냥에 나서게 된 보라매를 이른다.

매사냥은 옛날부터 일반에서도 크게 행해져 잔 솔밭 가까이 있는 마을은 거의 어느 곳에서나 매를 길렀다. 매는 길들이는 과정이 까다롭고 비용도 적지 않게 들기 때문에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면 손대기 어려워서 한 마을에 한 두 사람 정도가 매를 기를 뿐이었다. 식민지시기에 매 한 마리는 보통 쌀 대여섯 가마에 값을 하였으며, 사냥을 잘하는 매는 황소 한 마리와 바꾸기도 하였다.

매사냥에는 마을 사람들이 합세하였는데 사냥이 목적이라기 보다는 겨울철의 놀이로 행해져 왔다.

2. 매사냥 방법

매사냥에는 매를 부리는 수알치(봉밭이) · 매방소라고도 한다)와 꿩을 찾아 날리는 텔이꾼, 그리고 건너 산등성이에서 꿩이나 매의 방향을 알려주는 배꾼 등이 한 동아리가 되며, 인원은 보통 7~8명이지만 십여 명에 이르는 때도 있다.

사냥 전날은 매에게 먹이를 주지 않고 잠도 재우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 사냥을 잘하기 때문이다. 매는 사냥 중에 배가 부르면 달아나기도 한다. 이에 대비하여 꽁지에는 수알치의 이름과 주소를 새긴 얇은 뗏조각(단장고)을 담아둔다.

3. 사냥의 종류

사냥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이는 인간이 생활하면서 자연환경과 동물의 분포 등을 감안하여 지역적인 특성에 맞는 방법을 터득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체적인 방법은 함정사냥, 셋사냥,

사냥개 등이 있었다.

함정사냥은 짐승을 구덩이에 빠뜨려서 잡는 사냥법이다. 함정의 위는 좁고 아래는 내려갈수록 넓게 판다. 바닥에는 참나무로 깎은 여러 개의 창을 박아 놓기도 한다.

덫사냥은 굴속에 들어 있는 짐승을 밖으로 끌어내어 잡기 위해 연기를 피우는 방법이다. 곰·너구리·오소리 등을 잡는다.

사냥에 이용하던 개는 함남 풍산지방의 풍산개, 전남 진도의 진도개, 그리고 거제도와 제주도에서 산출되던 개 등이 쓰였으나 현재 진도개만 남고 나머지는 멸종된 것 같다.

4. 매봉재의 유래

동안역에서 동북으로 약 500m 지점에 홀로 우뚝 서 있는 산봉우리를 매봉 또는 매봉재라고 부른다. 구전에 의하면 조선 초기부터 한말까지 500여 년간 역대 왕실의 대군과 사대부들의 매사냥터로 지정되었던 곳인 보뚜둑이 빈양말 별판이었다. 매사냥은 반드시 매봉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후부터 이 봉우리를 매봉재 또는 매봉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위 내용을 증언한 박승찬(현 38세)씨는 보뚜둑이(보안)에서 10여 대를 세거해 온 반남 박씨의 후손으로 6대째 사냥(매를 길들이고 훈련시키는 방법)을 전수받은 사람이며, 박승희·박한서·이충형 씨 등도 매사냥을 전수받은 사람들이다.

〈조규진〉

제3장 토속신앙

제1절 민간신앙의 종류



민간신앙(마을벽수)

민간신앙은 어떤 인물에 의해 조직된 종교와는 달리 가족이나 마을공동체를 기반으로 생활 속에서 생성·발전됨으로써 서민 생활이나 민속과 밀착되어 있다. 따라서 가족보다 작은 단위인 개인신앙이나, 종교로 발전하기에 많은 제한을 가지고 있다. 때때로 민간신앙이 종교로 발전하고 나아가 세계적인 종교로까지 발전하는 경우가 있으나, 여기에는

새로운 혁신적인 발전의 계기가 조건이 된다.

우리 나라의 민간신앙은 거의 가족과 마을애가 밀착되어 있다. 전자인 가정신앙은 혈연성(血緣性)이 강조되어 있고, 후자인 마을신앙은 지연성(地緣性)이 두드러진 것이 특징이다.

가정신앙이나 마을신앙도 여러 가지 신을 모시는 등 다양하다. 가정신앙의 대상신으로서 성주[成造], 터주조상, 조왕(竈王), 칠성(七星), 업 등의 많은 신이다. 이러한 신의 종류나 명칭은 지방에 따라 매우 다양하며 신에 대한 의례도 다양하다.

의례의 종류를 보면, 아이가 아플 때 주부가 간단히 행하는 주술적(呪術的) 의례로 '손비빔'이 있고, 조상신에게 특별히 행하는 의례인 '제사'와 모든 신들을 초치(招致)하여 종합적인 축제를 행하는굿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가 행하여진다. 가정신앙은 이러한 의례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하여 본다.

제2절 가정신앙

1. 주술

프레이저(J.G. Frazer)는 주술(呪術)을 유감(類感)주술과 감염(感染)주술로 구분한다. 유감주술은 비슷한 행위나 물건에 의해 비슷한 효과를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이고, 감염주술은 전염의 원리에 의해 행해지는 주술을 말한다.

우리 나라의 주술도 이와 같이 분류될 수 있다. 예컨대 유감주술로서는 난산(難產)을 쉽게 하기 위하여 소의 고삐를 풀어 놓는다든지 계란을 먹인다든지 수(水) 자를 써서 문 위에 붙여 둔다. 즉 소의 고삐가 풀리듯이 쉽게 몸을 풀며, 계란처럼 미끄럽게 쉽게 미끄러져 나오며, 물처럼 흘러나오라는 주술적 심리에 의한 행위이다. 또 과일나무의 가지가 두 갈래로 뻗은 곳에 돌을 끼워두는 '나무시집보내기'가 있다. 이는 상징적인 성행위를 시킴으로써 나무에 열매가 많이 열기를 기원하는 뜻에서 생겼다.

감염주술로는 미끄러지를 산 채로 끓여서 도둑의 발자국에 부어 놓으면 도둑질을 한 사람의 발이 미끄러지 썩는 상태와 마찬가지로 썩는다 하여 주술을 하는 경우도 있다. 또 본처가 첨의 고무신을 훔쳐옴으로써 그녀의 마음을 빼앗아온다고 믿어서 행해지는 것이 있다. 이러한 주술은 유감주술과 분명하게 분류되지 않고 오히려 유감주술과 복합적인 것이 보통이다.

감염주술처럼 남에게 해를 끼칠 목적으로 행해지는 '검은 주술'이 있고, 반대로 비오기를 비는 것과 같이 사회적으로 선의(善意)를 가지고 행하여지는 '흰 주술'이 있다.

우리 나라는 검은 주술이 실제로 행하여졌던 것은 아니고 주로 이야기로 전해지고 비사회적 행위를 방지시키려는 매카니즘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아프리카에서는 실제로 검은 주술이 많이 행해지고 있다.

주술 가운데 특히 병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주의(呪醫)라고 한다. 예를 들면 흔히 민가에서 '삼눈'이라는 눈병이 생기면 녹두나 팥을 물에 담가서 낱알에 물방울이 생길 때 젓가락으로 물방울을 뗀다. 또 벽에다 사람의 얼굴을 그려 놓고 삼눈이 선 쪽의 눈알에 송곳을 박아둔다. 이렇게 함으로써 삼눈을 고칠 수 있다고 해서 실제로 민간에서는 많이 행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주술은 전문적 주술사에 의해서 행해지기보다는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행할 수 있다.

2. 점 복

점복(占卜)은 무엇인가의 징조(徵兆)를 가지고 앞으로 생길 일이나 또는 과거·현재에 숨겨져 있는 일을 예언하고 알아내는 것을 말한다. 그러한 방법은 경험이나 과학적인 것이 아니고, 초자연적·신비적인 것이 일반적인 특징이다.

점복은 징조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인간을 징조로 하는 판단한다. 귀가 가려우면 누가 자기의 말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 인체의 특징으로 손발이 크면 도둑의 기질이 있고, 귀볼이 크면 복이 많고, 이마가 넓으면 마음이 넓다고 하는 등과 생년월일과 시간, 필적, 기타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언동 따위이다.

둘째는 자연을 징조로 화복길흉을 예언한다. 해·달의 천체현상, 까치가 울면 손님이 온다는 조수(鳥獸)나 짐승의 행동이나 울음소리 동식물에서 변이(變異)의 발생에서 예를 들면 겨울에 꽃이 핀다든지 하는 것이다.

셋째는 도구를 사용해서 인위적으로 징조를 만들어 점을 친다. 예컨대 대를 내린다든지 점구(占具)를 사용하거나 《토정비결》이나 사주와 같은 책자를 사용하기도 한다. 전문적으로 이러한 점을 치는 민간신앙의 종사자가 있으니 신을 강신(降神)시켜서 점을 치는 샤먼이 있고, 역학(易學)을 이용하는 역리인(易理人)들이 있다. 특히 신에 의해 점을 치는 무당들은 강신을 받으면서도 점구를 이용하는 등 종합적인 방법을 행한다.

3. 고수례

고수례라고 하면 흔히 야외에서 음식을 먹기 전에 극히 소량을 신에게 헌식(獻食)하는 의미로 '고수례'라고 소리를 지르며 던진다. 즉 음식을 먹기 전에 신에게 바치는 아주 간단한 의례이다. 또 민간에서 첫 수확된 생산물을 조상이나 신에게 바치는 '천신(薦新)'이 있는데, 남부 지방에서는 제사를 지내기도 하며, 중부 지방에서는 무녀(巫女)를 불러서 천신굿을 하기도 한다.

이외에 밖에서 가져온 음식을 처음 어른이 입을 댄 후에 어린 아이에게 주는 습관이 있는데, 이는 밖에서 잡귀가 묻어 들어온 경우 어린 아이에게 병이 날까봐 어른이 미리 예방코자 하는 것으로서 앞의 고수례나 천신과는 약간 다르다.

4. 고사

고사(告祀)는 일년에 1~2번 집의 여러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가정신앙의 행사라고 할 수 있다. 여름에 고사를 지낼 경우에는 밀전병을 부쳐서 집안 여러 곳에 놓아 두었다가 먹는다. 그러나 10월에 햇곡식으로 시루떡을 만들어 고사를 지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시루떡은 대개 검은 시루떡과 백설기의 두 종류를 만드는데, 백설기는 삼신(안방)이나 칠성(장독대)신에게 바치는 것으로 가족만이 먹는다.

보통 목판에 떡을 담아서 안방·건너방·마루·사랑방·부엌·마구간·변소·광·마당·터주가리(집터신)·우물·장독대 등 그야말로 집안 구석구석에 놓는다. 그냥 놓아 두었다가 이웃과 나누어 먹기도 하지만, 보통은 주부가 각각 떡을 놓아둔 곳에 가서 손을 비비면서 기원한다. 때로는 무녀를 불러 기원(祈願)을 부탁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때는 무녀가 제금만을 올리면서 앓아서 축원만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민가의 고사가 궁중에서는 대규모로 행해졌다. 한 말의 궁중의 발기(撥記)를 보면 떡을 수십 시루씩 하여 시루째 놓았으니 얼마나 고사를 중요시하였는가를 알 수 있다.

5. 푸닥거리

집안의 우환(憂患)이 있을 경우에 무녀 한 사람만을 불러서 간단히 하는 의례이다. 재물도 그리 많이 차리지 않으며, 무녀가 앓아서 고리짝을 긁으면서 구송식으로 주언(呪言)을 중심으로 행해진다. 주로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경우가 많았다.

6. 살풀이

가정의 불화와 재수, 운이 없는 경우에는 식구나 집터에 살이 끼어있기 때문에 살을 풀어야 한다고 해서 무녀를 불러 행한다.

살이 낀 사람의 생일날을 잡아서 행하되 의례의 형태나 규모는 거의 푸닥거리와 비슷하다. 역시 무녀가 고리짝을 긁으면서 하며 이때에는 수수떡을 하고 화살촉을 만들어 대문 밖으로 쏘는 주술적인 행위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7. 독경



독경

전문적으로 독경을 하는 사람을 독경장이 · 경장이 · 경문장이라고 하는데, 보통 장님이 하기 때문에 장님 · 맹인이라고도 부른다. 독경의 규모에 따라 맹인의 참가자는 다양하지만, 보통은 한 사람이다. 독경하는 시일은 1일 · 3일 · 7일 · 9일에서 13일까지 걸리는 경우 등 병의 정도나 경제적 여건 등에 의해 다양해진다.

떡을 비롯한 재물을 차려 놓으면 맹인이 복을 치면서 경문을 구송한다. 경문은 병의 종류에 따라 다소 다르나 대체로 '옥추경(玉樞經)' 따위가 유명하다. 대개 무녀를 불러 굿을 하는 집은 독경을 하지 않고, 굿하기를 꺼려하는 집에서는 독경을 하는데 이처럼 독경을 하는 가문과 굿을 하는 가문이 따로 있는 것이 보통이다.

맹인들은 무당을 허망한 것이라고 하기가 일쑤이고, 무녀는 장님타령 따위의 무가(巫歌)로써 맹인을 비방한다.

8. 굿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집안의 모든 신은 물론 산신 · 불사(佛事) · 용왕 · 칠성 · 터주 · 대감 · 성주 · 호구(戶口) · 별상(別相) · 부정 · 잡귀에 이르기까지 모든 신을 맞이해서 모시는 축제적 의례이다.

무녀가 신복(神服)을 입고 장고 · 제금 · 피리 · 해금 등으로 연주하는 무악에 맞추어 춤과 노

독경(讀經)이란 경문(經文)을 읽어서 귀신을 쫓는 주술적 의례이다. 특히 귀신이 붙어서 생긴 병을 고치기 위하여 사람에게 붙은 귀신을 떼어서 축거하는 것이다. 병의 증세로는 잘 놀라거나 헛소리를 심히 할 때, 정신이상이라고 판단되는 병이거나 무녀가 오랫동안 치료 의례를 하였음에도 전혀 효과가 없는 때에 행한다.

래로서 수일간 진행하는 의례이다. 이처럼 굿은 종합 예술적인 제의(祭儀)이며, 가정신앙의 의례로서는 가장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가정신앙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굿의 형태나 내용은 지방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대체로 '열두 거리'라는 형식을 갖는 실제의 거리의 수가 반드시 열둘은 아니지만- 종합적 무의(巫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지방 특징에 따라 분류할 때, 함경도·평안도·중부 지방·전라도·경상도 동해안·제주도 지방의 굿으로 나뉜다.

또 굿의 목적에 따라 분류하면, ① 치병을 위한 우환굿, ② 재수나 운을 비는 경사굿, ③ 죽은이를 천도하는 사령(死靈)굿 등으로 나눌 수 있으나, 반드시 구별되지는 않는다. 즉 치병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사령굿이 되는 것이 보통이다. 또 굿의 목적이 다르다 하여 굿의 형식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굿의 기본적인 형태는 별로 변하지 않는다.

굿의 규모나 내용이 진행되는 가운데 굿을 하는 집의 여러 가지 가정사정이나 경제적·사회적 관계 등이 잘 나타나므로 종교적 기능 외에 여러 가지 의미를 굿에서 알아낼 수 있다.



마마 별신굿

〈백운화〉

제3절 마을신앙

마을신앙은 마을이라는 생활공동체가 신에게 평안을 기원하는 마을제를 비롯하여 기타 여러 가지 주술·점복 등을 포함한다. 비를 오게 위하여 기우제를 지내거나 주술을 행하여 서로 성스러운 기간으로 금기를 지키는 등의 신앙생활이 있으나, 가장 두드러진 형태는 마을제(일명 동제)라고 할 수 있다.

마을제에는 유교식 제사로 행하는 동제(洞祭)와 무당의 굿으로 하는 도당굿 또는 별신굿이

있다. 동제와 도당굿의 형태나 내용은 가정의 굿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으며, 다만 목적·규모 등에서 차이가 있다.

이 두 가지의 형태는 마을신앙의 이중적 기능을 다하고 있으나, 마을에 따라 종합적인 하나의 제의를 가진 곳과 두 개의 마을제를 행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 마을은 도당굿을 그만두고 동제만을 지내고 있으며, 아예 마을제를 전혀 지내지 않는 마을도 있다.

이것은 시대의 변천에 따른 사회구조의 변화로 말미암아 전통적 마을이 변질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추세 또한 마을제를 통하여 사회를 이해하는 좋은 표본이 될 수 있다.

1. 미륵치성(彌勒致誠)



미륵치성

이 동네의 수호신처럼 받들어 내려온다.

동두천시 상폐동(인곡동)에 미륵 불상이 있다. 미륵의 조성 연대와 미륵치성의 시초는 알 수 없으나, 매년 음력 사월 초팔일이면 인곡동 주민들은 떡과 과실을 차려 촛불을 켜고 동네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한다.

이곳 소지명이 '인사 절골'이라는 사실에서 옛날 절터임이 분명하다. 미륵집은 원래 초가였는데 한국전쟁 때 불타버리고 지금은 벽돌에 스레 이트 지붕으로 개축하였는데, 마치

2. 가신제

가신제(家神祭)는 농촌 전래의 풍속이다. 집 뒷뜰 정결한 곳에 터주[土主·垈主]를 모셔 토기 항아리에 절하게 고른 벼 5홉 정도를 담고-근래에는 흑동전 약간을 넣어 놓은 경우도 있음-짚으로 둥글게 엮어서 우두지를 틀어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씌워 놓고 원새끼를 둘러매고 백지

를 접어 끼워둔다.

이곳은 평소에도 신성한 곳으로 취급하여 청결을 유지하고 추수 후에는 고사라 하여 시루떡을 쪘서 시루째로 놓거나 한 그릇을 갖다 놓고, 정화수 한 그릇이나 탁주 한 잔을 바치며 집안의 무사번영을 기원하는 행사를 한다.

이 고사에는 성주[成造大監]마루, 상기등 혹은 상량보 위에 백지를 붙여 조왕(竈王) 문신(門神), 칙신(惻神), 외양간 신에게도 탁주와 같이 떡과 정화수 혹은 술을 놓고 기원하여 재앙을 쫓고 복을 빈다. 또 연중 특별한 음식을 만들었을 때에 먼저 터주와 성주께 바치고 치성을 드린 후에 가족이 먹는다.

가을 고사를 지낸 후에는 그 음식을 이웃끼리 나누어 먹는다. 과거에는 이웃사람들을 초대하여 회식을 하였는데 점차 번잡을 피하여 이웃집에 나누어 보내는 것이 지금의 통례인 듯하다.

3. 산신제

1) 걸산마을의 소요산신제 축문(逍遙山神祭祀文)

수신(水神)과 지신(地神)의 제사는 놓어 ön 행사인 반면에 산신(山神)의 제사는 산간민의 성전이다. 걸산마을 산신제는 매년 9월 9일에 생기와 복덕을 가리어 화주 1인, 화덕 1인, 현관 1인, 축관 1인 등 총 4인을 선택하여 돼지를 잡고 신곡·실과를 차려놓고 제사를 올린다. 그런데 어느 시대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며 제문도 누가 지었는지 알 길이 없다. 다만 이곳이 사람이 정착한 이후 산신제가 시행되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제문의 내용을 풀이해 보면 다음과 같다.

모년 모월 모일에 걸산리 민 아무개 등이
소요산 신령님께 감히 고하옵나이다.
튼튼한 저 산이여 한 지역을 진정하도다.
우리 백성을 도와주시니 성하도다.
그 덕이여 심으면 병이 없고
역질에도 심함이 없으니 모든 것이 상서로워
신령님의 극진함이라 일월이 빛나게 개이고

믿음이 금석과 같으니 촌늙은이 분주히 제사 드리는
밤이라 상서로운 새는 집 앞으로 내려오고
교통은 폭포에서 춤을 추네.
신령님이 더욱 영험하시니 양양한 복이 내려오도다.
생돈과 술을 올리며 좋은 과일 가득히 담아
이것으로 제사를 올리오니 흠향하시옵소서

逍遙山神祭祀

維歲次干支九月九日姓名敢昭古于
逍遙山之靈日 維山岩岩 鎮子一域 佑我居民 盛矣其德
稼不爲痒 厽不爲瘧 凡百休祥 莫非爾極 光霽日月
信如金石 村翁奔走 將祀之夕 祥禽下臺 潛蛟舞瀑
神其靈爾 洋洋降福 牲豚酒饗 珍果盈鞠 薦此明禋
庶幾欽格

2) 상패동 산신제축문(上牌洞山神祭祀文)

상패동에도 산신제에 거행되었고, 축문의 내용이 현존하고 있다.
축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세차 정해 팔월 정유삭 초오일 신축
유학성명 감소고우
진산지령 오직 산에는 신이 있어
우리 마을을 살펴 주시니
오십여 호 상하로소를
때때로 수호하여 불상사를 웃으며 금하고
역질에 적은 재앙이며 호표가 자취를 멀리 하여
사방 이웃이 즐겁게 살며 육축이 병이 없어
우리가 편안한 것은
신령님의 도우심이 아닌 것이 없어서

세공을 고하는 것이 법칙의 값는 일이며
또 해마다 이어가기를 기도하오니
생과 술이 비록 적으나
성의를 다하여 보살펴 주시기를 의뢰하오며
편협한 사욕으로 길이 무궁하기를
감히 밝게 천신합니다.

上牌洞 山川祭祀文

維歲次丁亥八月丁酉朔初五日辛丑
幼學 姓名 敢昭告于
鎮山之靈 維嶽有紳 鎮我鄉閭 五十餘戶
上下老少 對時守護 呵禁不祥 厲疫彌灾
虎豹達跡 四隣樂生 六畜無瘴 惟我安土
莫非神休 今此仲秋 巍功告早 式昭報事
又祈嗣歲 牲醪雖微 庶將誠意 尚賴鑒享
永奠無窮 陝持奢欲 敢陳明薦 尚饗

현편 산신제에 진설되는 제물을 보면 다음과 같다. 북어 4마리, 소머리 1, 대추 5홉, 멱살 3
말, 사족, 밤 5홉, 팔 7되, 전육 4근, 사과 4개, 소지 2권 등이다.

3) 탑동 산신제축문(塔洞山神祭祀文)

유세차 년 월 일 유학 성명 리중부로 자제를 거느리고
왕방 해룡 천보 칠봉 옥금산
신령님께 가히 고하나이다.
암암한 험준함이 하늘에 닿아
열한 가지 줄기를 나누어
촘추는 봉과 건장한 용이 북으로 뻗어
앞뒤로 맞이하여 중간에 들을 이루어
백성이 마을을 이루고 마을에 옛 예가 있어

일년에 한번 씩 신령님께 제사를 올리나이다.
길일을 택하여 몸을 깨끗이 하고
그릇을 세탁 술을 빚어 올리오니 엎드려 원하옵건대
높으신 신령님은 자리에 강림하시어
모든 백성이 재앙이 없어 노인과 어른이 무고하여
집안이 편안하고 농사는 풍등하고
가축은 번성하여 역질이 들어오지 아니하고
도적이 오지 아니하며 사나운 짐승들은
자취를 감추어 백성들이 길이길이 편안하게 하옵소서
정성들여 삼가 고하오니 흠향하십시오

塔洞山神祭祝

維歲次 年 月 日 幼學 姓名 率里中父老 子弟 敢昭告于 王方 海龍 天寶 七峰 玉琴 山之
靈曰 膽階嚴嚴 峻極于天 連枝分幹 凤舞龍 離遷迤北
迎送後先 中作郊原 齊民所止 墟落點綴 兹成坊里 里有古禮 歲祀于
神 兹將授例 于差吉辰 既潔我身 又濯我器 瓦□磁椀 禮野意備 有釀其酒 有芬其糟 伏願
尊靈 陟降臨 莅俾村也珉 無有外殃 老幼晏晏 室家康康 以穀則登 以蓄則蓄 厲不入村 盜不闖門
虎豹遠跡 民以永有存 庚告謹告 尚饗

4) 마차산 산신부군축문(磨叉山 山神府君祝文)

유세차 년 월 일 안흥리 리민인 등이
삼가 비각지전으로써 목욕재계 하옵고 백배 하오며
이에 감히 마차산 산신부군께 공경하여 드리나이다.
산신의 신령됨이 외외히 하늘같고 소소히 태양과 같아
탕탕한 그 바탕이요
호호한 그 기운이라 조화는 손에서 나고
만물은 몸에서 나와 어진 성덕과 어진 은택은
천지와 같이 다를 것이 없을 것이요
날로 마을에 요사함을 토벌하고

때로 사람을 괴롭히는 악귀를 쫓아내니
임의 힘입은 은덕은 구산보다 중하고 하해보다 깊어
만의 하나도 갚을 길이 없어 다시 엎드려 비오니
지금부터 노소 년수하고 아동은 점장하며
만 가지 액과 백 가지 병은 봄바람에 눈과 같이 사라지고
관재와 구설은 여름에 얼음같이 녹아
재물은 늘어나고 농사는 잘 되어
춥고 주리는 일 없이 태평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늘에는 우성이 있으니 소를 버리지 않을 것이요
땅에는 우산이 있으니 소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
남산의 범과 여우는 굴속으로 쫓아 버리고
화재와 도적은 수시로 예방하여
닭은 새벽에 울고 개는 밤을 지키며 육축이 번식하고
인물이 부성하면 막비현화의 성덕이니
우리 리민의 지성을 감응하시고
은덕을 베풀어 주시어
우리 마을을 길이 보호해 주시기를
천만 번 엎드려 비옵나이다.

磨叉山山神府居祝文

維歲次年月日安興里民人等謹以菲薄
之奠으로 齊沐百拜하고 兹敢敬獻于
磨叉山 山神府君之靈日 神之爲靈이] 巍巍乎如天
하고 昭昭乎如日 하야 蕩蕩其質이요 浩浩其氣라
造化는 生乎手하고 萬物은 生乎身하야 賢化
聖德과 仁宜恩澤은 如天地同流而無異요 日討
村中之妖邪하고 時逐蕩人之惡鬼하니 己被之恩과
既蒙之德은 恩重丘山이요, 德深河海라
無以仰報萬一而更伏乞하오니 自茲以往으로
老少延壽하고 兒童漸長하며 萬厄百病은

如春風之雪消하고 官灾口舌은 若夏月之冰釋 阜殖其財하고 農碩其苗하여 無寒無餓하야
 同樂太平하소서 天有牛星하니 天不可捨牛여
 地有牛山하니 地牛可捨牛라 隣境牛疫은 堤防
 不入하고 老牛壯犢은 苗長無損이요 南山虎嘯에
 崔際狐鳴이요 興妖作蘖은 非細非輕이라
 慮虎狐狸는 逐竄窟穴하고 火灾盜賊은 隨時 鷄翱翔而司하여 狗咆哮而吠夜하야
 六畜이 蕃息하고 人物이 富盛則此莫非賢化之聖德이니
 感此人民之至誠하고 布德施恩하야 永護此村을
 千萬福祝하나이다.

5) 행단 치성제축문(杏壇 致誠祭祀文)

이 축문은 구전되어 오던 것을 어느 시점에서 기록으로 정리하였다. 축문의 내용에 나타듯이, 유교적인 내용을 상당히 포함하고 있다. 현존 축문은 1930년 김대경(金大卿)이 기록한 것이다.

모년 모월 모일 아모는 존신위께
 감히 고하나이다.
 이와 기는 양과 음이 있으며
 물체는 나고 죽는 것이 있고
 오면 반드시 가고 신이 있으면 반드시 귀가 있나니
 물체의 남음이 없으면 어찌 귀신의 주가 없으리요
 정이 없는 것이 음양이요
 정이 있는 것이 귀신이니
 정이 없으면 더불어 말하지 못하고
 정이 있으면 가히 깨달을 것이다.
 오직 물과 불이 사람을 기르나
 때로는 혹 사람을 상하게 하며



행단 치성제 들돌

때로는 혹 사람을 해하는지라
그러나 사람을 상하게 하는 자는 물과 불이 아닌 사람이고
사람을 해하는 자는 귀신이 아니고 사람이다.
그러므로 추위와 더위며 비오고 개이며
오미의 음식으로 사람을 살게 하나
사람이 조화를 자실하면 병이 생기는 고로
귀신의 성덕이 천지와 한 가지니
이제 괴기 실로 귀신의 장난이 아니요
사람의 자작지얼이라 해가 넓이 침노하여
무고히 죽는 것이 어찌 사람이 혹 실덕하여
옥석이 구분함이 아니리요
사람은 양덕이요 귀신은 음덕이니
사람이 아니면 귀신이 의지할 곳이 없으며
귀신이 아니면 사람이 주로 살 곳이 없어
음과 양이 서로 서로 기다리며
하나도 빠질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이라
항상 한 가지라도 조심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횡리요차를 차마 볼 수 있으랴
이에 우리 한 집안이 단을 설치하고
술과 음식으로 제사를 드리오니
오직 존신께서는 괴상한 요기를 맑게 거두어
생생한 덕을 펴 주옵소서

杏壇致誠祭 祝文

維歲次丙年 十月乙亥朔 初八日壬午 朴應彬 敢昭告于
尊神之位하노이다 理不能純陽而有陰하며 物不能長生而有死하고
有來면 必有往이요 有神이면 必有鬼니 固體物而不遺면
豈鬼神之無主리요 無情之謂陰陽이요 有情之謂鬼神이니
無情則不可與言이요 有情則不可以理曉라 子惟 水火養人而或有時
傷人하며 鬼神이 主人而或有時害人이라 然이나

傷人하며 鬼神이] 主人而或有時害人이라 然이나
 傷人者는 非水火也라 人也요 害人者는 非鬼神也요
 人也라 故로 寒署雨暘에 五味之食이] 天地養人之能事而人自失其調
 和則病乃作焉故로 鬼神盛德이] 理一天地하니 今之乘氣 實非鬼神之作慝
 이요 人自作孽 이라 傳害侵廣하야
 使無辜殞沒이] 豈非人或失德하야 玉石이] 俱焚者乎야
 人爲陽德이요
 鬼爲陰德이니 非人이면 鬼無所依요 非鬼면 人無所主하야
 如陰陽之相須資에 不可闕一也라 常懼一物이라도 有不獲其所면
 忽視吾人之橫羅 天札乎아 紛吾一家 今於所在에 說爲壇場하야
 祭以酒饌하오니 惟鬼惟神은 收霽乘戾之妖氣하야
 以布生生之大德하소서 尚饗
 (一九三〇) 庚午十月八日 牛峰 金 大卿 書.

4. 아차동(峨嵯洞)의 솟대



아차돌이 솟대

데 보다 중요한 것은, 마을공동체가 갖는 종교적 성소(聖所)로서 성격을 지니고 있는 곳이 바로 마을이다.

마을은 산신을 중심으로 장승 · 솟대 · 선돌 · 탑 · 서낭당 등에 대한 신앙의식과 의례가 행해

솟대는 민간신앙의 한 형태이다. 민간신앙이란 다른 어떠한 종교보다도 오랜 역사성을 가지며, 대다수 민중의 생활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한민족의 기층문화를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민간신앙의 형태는 가신신앙 · 동신신앙과 주술 · 점복 · 풍수 · 무속 등이 있다. 그런데 민간신앙을 통하여 기층문화의 한 성격을 파악하는

지며, 이러한 의식은 마을공동체 구성원에게 정신적 일체감과 위안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솟대는 장승과 더불어 마을공동체의 중요한 신앙대상 중 하나이다. 그러나 오늘날 남아 있는 솟대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조사·연구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솟대가 세워지는 위치는 마을 입구가 보편적으로 가장 많다. 여기서 '마을 입구'가 갖는 의미는 마을 안의 신성과 질서의 세계, 마을 밖의 부정과 무질서의 세계가 경계지워지며, 동시에 접촉되는 공간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솟대의 형태는 마을공동체의 안녕과 수호를 지원하는 액막이와 풍농(豐農)을 위하여 마을에서 공동으로 세우는 '일반 솟대' 와 풍수도참설에 의해 행주형지세(行舟刑地勢)의 마을에 둑대를 나타내기 위해 세우는 '급제기념의 솟대' 등이 있다.

솟대의 호칭은 지역과 마을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불리워진다. 따라서 솟대의 호칭을 분석함으로써 일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먼저 곁모양을 기준으로 하여 솟대(솔대)·침대(진대·진대배기·진또배기)·돛대·새대·등으로 불리워지며, 새의 종류를 기준으로 오리·기러기·갈매기·따오기·까치·까마귀·학·봉 등으로 불리워진다. 기능을 기준으로 액막이(수막이·수살이대)와 급제기념의 솟대(화주대·표주대), 그리고 행주지세의 솟대(침대·돛대·멜대), 농경(난가리대) 등으로 불리워진다. 이밖에도 세워진 위치나 의인화해서 여러 가지로 불리워지고 있다.

민간신앙의 중요한 자료인 솟대의 분포를 살펴보면, 한강 이남 지역에는 거의 보편적으로 분포하지만 북쪽으로 갈수록 그 형태를 찾기가 쉽지 않다. 경기도의 솟대는 파주군·강화군·시흥군·김포군 등 일부를 제외하면, 광주군 중부면의 남한산성 부근 마을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한수(漢水)이북 지역에서는 현존하는 솟대를 찾기란 그리 쉽지 않다. 이렇게 볼 때, 아차동의 솟대는 마을공동체의 상징으로 이 지역의 민간신앙의 고찰 등 학술적인 가치가 높다고 사료된다.

아차동은 서울에서 동두천으로 연결되는 3번 국도의 동두천 남단 초입에 있으며, 솟대는 3번 국도에서 아차마을 쪽의 농로를 약 600m 들어서면 마을 입구에 위치하고 있다. 형태는 체신용 전주에 황토칠을 했으며, Y자형의 몸통 위로는 그자 형태로 새머리를 상징한 것을 꽂아 놓았으며, 이 새를 상징한 전체부분을 전주와 볼트로 연결시켜 놓았다. 그리고 새를 묶은 밧줄은 전주에 닿게 해 놓았다. 솟대 아래에는 대리석의 판석을 2장 깔아 제단으로 만들어 제물을 진설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이 마을에서 8대째 살고 있는 토박이 채수연(현 70세)씨와 10여 대째 살고 있는 박춘빈(현 77세)씨 말에 의하면, 이 솟대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세워져 있으며, '수살막이'라 칭한다고 한

다. 매년 정월 열 나흘날 해질 무렵에 동리 주민들에 의해 제를 올리고 있는데, 재물은 떡 한 시루·포·막걸리 등을 제주로 쓴다.

제의 기원은 농사의 풍년과 마을의 안녕과 질병으로부터 마을 사람들을 보호해 줄 것을 소원하는 의식을 행한다. 이 마을에서의 제례는 공동제사, 즉 제(祭)의 준비를 통해 상부상조와 마을의 지역적 소속감을 심어 주면, 정신적 유대·강화의 의미를 가진다. 제사 후 음복·동회(洞會)·능역·오락을 통해 도덕의 전승, 마을의 중대사를 결정하고 공동체의식을 살려 발전적인 삶의 영위를 추구하는 활력소가 된다. 따라서 아차동의 솟대는 일반 솟대의 성격을 지니며, 마을 입구에 세워져 마을의 안녕과 풍농을 기원하며 액막이 기능을 하는 신앙의 한 형태임을 알 수 있다.

5. 탑동의 장승거리

1) 장승의 유래와 명칭



장승과 솟대

로 보이나, 대개의 경우 연대를 알 수 없다. 특히 나무장승의 경우는 매년 새로운 장승을 깎아 세워야 하므로 추적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장승의 선조격인 선돌문화는 선사시대까지 올라가는 것도 많은 탓으로 그 중간시기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자료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또한 당대의 문자를 독점한 지배세력들은 민중생활의 기록에는 지나치게 인색했던 탓으로 별반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장승의 유래에 관해 다양한 견해가 있다. 사찰이 소유한 땅을 경계 표시하는 의미에서 장승

우리는 마을이나 절 입구, 성문에 가면 바보같이 서있는 순진한 모습의 석인(石人)이나 목각물(木刻物)을 자주 마주하게 된다. 그들은 단독으로 서있기도 하고, 솟대·돌무더기·당산나무·선돌 등과 함께 자리 잡는 양상을 보여주기도 한다. 장승은 지나칠 정도로 복잡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장승의 역사는 매우 오래된 것으로

이 세워졌다고 하며, 이들은 장생(長生)에서 착안하여 장생고표지설(長生庫標識說)을 주장한다. 솟대·선돌·서낭당 같이 한민족 고유의 토착신앙에서 기원했다는 설, 고대사회의 성신양(性信仰)인 남근 숭배로부터 기원했다는 설, 고대사회의 퉁구스문화설 같이 인근 지역과의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제기되는 설도 만만치 않다. 근년에는 몽고문화와 관련설을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장승의 기원은 역시 어느 하나만의 설로써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따라서 고유의 전래설과 비교문화설이 함께 받아들여지고 있는 경향이다.

장승의 명칭은 신라, 고려 때에는 장생(長生)·장생표주(長生標柱)·목방장생표(木榜長生標)·국장생석표(國長生石標)·석적장생표(石積長生標) 등이 보이고, 고려 후기부터 조선시대에는 생(생)시대와 장생(長生)·장생우(長牲偶)·후(後)·장승(長丞, 長承)·장성(長性, 長城)·장선생(長先生)·장선(長先, 長仙)·당승·장신 등의 기록이 보인다.

특히 조선시대에 와서 장승(長丞)으로 표기된 것이 대표적 명칭이며, 최세진(崔世珍)은 《훈몽자회(訓蒙字會)》에서 후(후)자를 '당승 후'로 새기고 있어 '장승'이라는 명칭은 16세기 이래로 써어진 일반적 명칭인 듯하다.

현존 민속의 지역 조사에서도 전라남·북도와 경상남도 해안에서는 장승·장성·빅수·빅시·법수·법시·당산 할아버지, 충청북도에서는 장승·장신·수살막이·수살이·수살목 경기도에서는 장신, 평안도와 함경도에서는 당승·돌미륵·제주도에서는 돌하루망·우석목·옹중석·거오기·거액·기타 거령신 등의 명칭이 지역과 문화에 따라 다르게 불리어지고 있다.

2) 장승의 분류

장승의 재질은 나무나 돌로 나눌 수 있으며, 목장승은 비바람에 10년을 넘기지 못하고 부식하므로 2년 내지 3년마다 새 장승과 솟대를 만들어 세운다. 장승은 하나만 서있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남녀 한 쌍을 세우며, 때로 다섯 방위 또는 경계 표시마다 11~12개소에 세우기도 한다.

장승 신앙의 신체(神體)를 사용된 재료로 분류할 때 목장승, 석장승과 복합장생(複合長生)(후)나 상당(上堂), 당산(堂山)으로 불리는 흙무더기 형태 또는 서낭당, 돌무더기, 돌탑, 탑(塔; 조산으로 불리우는 돌무더기 위에 석인이나 솟대를 세운 형태) 등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형식에서도 소나무나 밤나무를 주로 사용한 목장승에는 솟대형[立木鳥形竿; 나무장대에 새를 조각하여 올려 놓은 형태], 목주형(木柱形) 인태신(人態神)을 조각한 신장조상형(神將彫像型)이 있다.

서장승 유형에도 선돌(立石)형 조산, 돌무더기 또는 석적형[造山], 탑(塔), 석적형(石積型), 석비형(石碑型), 신장조상형이 있고, 복합장승 유형에는 흙무더기·돌무더기·흙돌무더기에 솟대(침대)·석인(石人)·선돌·거북 등을 올려 놓은 복합 유형이 있다.

성별 생김새에 있어서도 솟장승은 붉은색 몸체에 머리에 관을 쓰고 부릅 뜯 눈과 날카로운 송곳 덧니와 수염을 단, 때로 인자한 할아버지를 닮은 남장승과, 또는 관이 없고 얼굴에 연지 곤지를 찍고 청색을 칠한 할머니 모습의 여장승이 있다.

인상의 형태에도 소박한 인면상(人面像) 왕방울 눈, 주먹코, 송곳니를 드러낸 귀면괴수형(鬼面怪獸形), 불교 조각과는 다르게 절박하고 자비스러우며 친밀감 있는 미륵형(彌勒形), 성신앙(性信仰) 대상으로 남성기를 표현한 남근형(男根形), 문관과 무관을 나타낸 문무관형(文武官形), 기타 식비형, 입식형, 단순히 돌무더기를 쌓아서 서낭당같이 만든 석적형(石積形) 등이 있다.

장승의 소재(所在)나 소속별로는 마을 입구나 동제신성(洞祭神城) 등에 세워진 마을 장승, 사찰 입구나 사방 경계에 세워진 사찰(寺刹) 장생·성문·병영·해창·관로 읍역의 공공 장승 등이 있다.

3) 장승의 역할

장승의 기능은 마을(민속)장승은 동체의 신으로 마을 수호, 축귀(逐鬼), 방재(防災), 진경(進慶)을, 사찰장생은 호법금제(護法禁制)와 절의 경계 표시, 사방산천비보(四方山川裨補), 외부 흉계를 막아 사찰 수호를 하고, 공공 장승은 이정표 겸 노신(路神)으로서 공로(公路)·성문·병영·해운의 안전과 길을 지키고, 비보(裨補)장승은 풍수지리설에 의한 보허 진압을 한다.

또한 장승은 속신의 대상으로 남성 성기를 상징하여 임신을 해주고, 반대로 코나 눈을 짙어서 비방약으로 감초와 삶아 낙태의 비방약으로 이용되었다. 또한 민중의 소원에 따라 풍년·풍어·건강·소원 성취 등등 한없는 포용력을 가지고 있다.

4) 장승 제의(祭儀)

대부분 마을에는 수호신을 모신 사당으로 산신당(山神堂)과 성황당(城隍堂)이 있고, 마을 입구에 하당으로 장승과 솟대의 돌무더기 서낭당이 있는 것이 보통이다. 이같이 당산·장승·솟대·서낭당의 성역을 갖고 있는 것이 흔히 볼 수 있는 당산의 복합 형태이며, 산신제날 장승과 솟대를 깎아 세우고, 주제인 산신제나 성황제 전후 장승 고사를 지낸다.

장승의 일반적 제의(祭儀)로 사원장승은 사람 수호신으로서 신앙의식이 거의 없고, 일반 신도의 비손 등이 있다. 그리고 군계(郡界) · 노방(路傍)의 장승은 길을 지켜주는 신으로서 제사의식이 거의 없으나 행인이 침을 벨거나 장승 밑의 훑무더기에 돌을 던져 쌓거나 형겼 조각이나 종이 조각, 오색 비단을 달아 두거나 원새끼를 치거나 하는 등 의식 행사가 있다.

마을장승은 수호신으로서 악귀와 액을 막으려고 동민이 1년 1회 또는 2회 정월이나 10월에 동민이 모여 장승 고사를 올린다. 특히 장승제의 기능은 질병과 악역으로부터 마을 사람을 보호해 주고, 풍어(豐魚) · 풍농(豐農)을 지켜주고, 제사 후에는 정신적 위안을 심어준다. 공동제사와 제의 준비를 통해 상부상조와 마을의 지역적 소속감을 심어 주며, 정신적 유대와 강화의 기능을 가진다. 제사 후 음복 · 동회 · 농악 · 오락을 통해 전통 예술과 도덕의 전승, 마을의 중대사 결정, 농악 마당에서 어려운 농어촌 생활의 한과 고뇌를 멋과 신명으로 발산시켜주는 오락적 기능을 가진다.

동두천 지역에는 탑동에 오래 전부터 장승거리라 불리는 터가 있지만, 현재 장승은 세워져 있지 않다. 때문에 이곳의 장승 실체는 알 수 없으나, 장승과 관련된 여러 조사 · 연구에 의하면, 장승은 결코 미신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민간신앙의 한 형태임을 알 수 있다.

6. 동점마을의 석적(石積, 영탑)

마을 입구 양쪽에 쌓아 놓은 돌탑은 지금부터 300여년 전 풍수지리설(風水地理說)에 의해 주민들이 마을의 안녕과 풍농을 기원하기 위하여 허(虛)한 형국(形局)의 수구(마을 입구)를 비보(裨補)하는 대책의 방안으로 돌을 쌓아 수살막이 또는 마을 수호신으로 모셔 놓았다.

1) 고사의 준비와 절차

(1) 절차

정초에 마을회관에서 동회를 개최하고, (음)2월 초순으로 좋은 날을 택한다. 동제(洞祭)의 경비는 주민 공동으로 추념하고, 준비를 각각 분담한다. 고사 전일 석탑에 금줄(원 새끼)를 치고, 오색 비단이나 형겼 조각을 매어 단다. 정월 달에 제관과 집사를 선출한다. 제관과 집사는 마을 주민 중에서 최근 몇 년동안 좋은 일만 있었던 사람을 선정한다.

(2) 고사(告祀)

매년 음력 2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사(告祀)를 지내고 난 뒤, 다음날 아침부터 탑굿을 시작한다. 이때 풍년을 기원하며 마을의 평안과 주민들의 무병장수를 비는 행사로 신명(神明)나게 놀고 축원하는 잔치마당으로 절정을 이루다가 해질 무렵 소지를 올리는 것으로 모든 행사가 마무리된다.

구술 : 金文永(현 93세)

2) 석적의 기능과 유래

(1) 돌에 대한 주술적(呪術的) 신앙

돌은 항구불변성으로 초자연적인 힘과 영힘이 깃들어 있는 것으로 믿고 고대로부터 이를 신성시하여 주술적 신앙의 대상으로 삼았다.



동점마을 서쪽 영적(높이 20m, 둘레 12m)



동점마을 동쪽 영적(높이3m, 둘레10m)

(2) 석적의 영적(靈的) 기능

석적(石積)의 역할은 마을 동제의 신으로 마을수호, 벽사(벽邪), 축귀(逐鬼), 방재(防災), 진경(進慶) 기타 민중의 소원에 따라 풍년·건강·소원 성취 등이다.

(3) 제의의 현대적 의미

석적 제의(祭儀) 기능은 풍농(豐農)과 마을 평안의 기원을 위하여 마을민 전체가 촌락수호신, 조상신에게 귀의함으로써 정신적 위안과 마을 대청소, 목욕제례, 신과 이웃에 대한 여러 가

지 금기(禁忌)를 통해서 도덕 규범의 전승과 행위양식을 성원해 전달해 준다. 또한 제사 비용의 공동조달, 상호협력, 공동주관을 통하여 연장자의 공경, 상하의 소통, 의견 전달, 마을 중대사 협의 등 공동체 기능을 가진다. 제사(祭祀) 후의 굿판, 농악, 줄다리기 등 잔치와 신명(神明)나는 놀이를 통하여 향토예술에

까지 축적되어지고, 땀·한(恨)·고뇌를 여과시켜 주는 건전한 제전의 장이 되어 전통 문화의 뿌리가 되는 것이다.

수구(水口)라 함은 소천(小川)이 대천(大川)으로 유입하는 곳을 이르는 말이다. 우리 나라는 대부분이 산지이고 그 사이에 있는 평지는 경작지로 이용되어서 주민은 평지에 가까운 구릉 사이의 계면(溪邊)에 양지 바른 터를 잡아서 남향집을 짓고, 취락을 이루며 살아왔다. 평지에는 관아(官衙)가 집중하여 축성으로 호위(護衛)하였고, 그 주위에 관원과 상공업 종사자들이 읍락을 형성하였다. 이 읍들 사이로 역(驛)이나 군영(軍營)을 연락하는 국도(관로, 역로, 군로 등)가 통하였다.

산촌 마을은 3방(三方)에 산이 둘러 있고, 1방(一方)만 낮아서 물이 흘러나가게 되어 있다. 그런데 배후의 산에서 발원하여 마을을 지나는 계류(溪流)는 마을 어귀(洞口) 밖의 합류점을 수구(水口)라고 한다. 마을에서 수구에 이르는 형국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마을에서 수구에 이르는 수류(水流)와 양쪽 언덕의 산기슭이 갑각형(岬角形)으로 엇물려 내민 사이를 S자 형으로 구불구불 굽이져서 내려가므로 수구 밖에서는 마을이 직접 보이지 않는 형국을 수구 장문(藏門)이라 한다.

둘째, 마을에서 내려가는 냇물과 길이 거의 직선으로 나가서 수구 밖에서 마을이 바로 보이는 형국은 수구가 '허(虛)하다'고 한다. 따라서 수구 장문(水口 藏門)인 경우는 마을의 득이 쉽게 내려가지 않으면 밖에서 찾아오는 사귀(邪鬼)가 수구 밖 큰 길에서 이 마을의 존재를 알기 어려워서 그냥 지나가 버리게 되어서 명당 마을이 될 수 있으며, 허한 형국(形局)의 경우는 수구가 터져서 쉽게 득(得)이 흘러 내려가고, 마을의 소재가 바로 보여서 사귀나 외적이 침범하기 쉬워서 그 대책으로 수구 막이를 시설하여 결함을 보충하여야 한다. 이를 비보(裨補)라고도 한다. 그 방법으로는 수구의 양쪽 산록 사이에 오래 살아서 거목이 되는 수종인 느티나무나 회나



무속의 대상 (벽장바위)

무 등을 많이 심어서 술정이를 이루게하여 시선을 막았고, 선돌(立石), 석적(石積), 솟대 등의 주물(呪物)을 쌓거나 세웠으며, 길의 양쪽(또는 길과 溪流)를 합친)에 벽수(장승)를 세워서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守護神)으로 모셔 놓았다.

7. 행단의 들돌

돌은 항구불변성으로 초자연적(超自然的)인 힘과 영험(靈驗)이 깃들어 있는 것으로 믿고 고대부터 이를 신성시(神聖視)하여 주술적 신앙의 대상으로 삼았다.

들돌은 신성한 당(堂)집이나 제장(祭場)인 당나무 밑에 놓여 있거나 나루목 또는 장자(長者)집에 있는 업(業)으로 풍요와 방액(防厄)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노작(勞作)의 두례(儀禮)와 농공행사와 연계되는 진쇠(大同 품앗이꾼) 돌이다.

들돌은 여러 빛깔을 띠고 있다. 흔히 동구 밖에 있는 들돌은 백색이며, 마을 앞 당산(堂山) 나무 아래에 이쓴 들돌은 청색이고, 마을 안에 있는 들돌은 황색이며, 산중 마을이나 어촌(漁村) 마을 붉은 들돌이다. 붉은 돌은 장년이 들고 청색 돌은 소동들이 주로 듦다.

청석은 풍년을 들게 하고, 흑석은 풍우를 고르게 하였으며, 백석은 귀신을 막고, 적석은 돌림병이나 액살을 물리치며, 황석은 부귀영화를 얻는다 한다.

들돌은 고대의 주술적(呪術的) 신앙과 관계가 깊다. 들돌은 제의(祭儀)의 신의(神意)를 알게하고, 생식(生食)과 풍요의 제신(祭神)으로 당산(堂山)에 모셔져 있다. 들돌놀이는 진쇠(成人)가 되는 농촌의 유일한 관례의식(冠禮儀式)이며, 노작(勞作)의 협동관행(協同慣行)의 두례(儀禮)이다. 또한 농공행사(農功行事)의 연예적(演藝的) 기능을 갖는 건전한 두례놀이이다.

들돌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마을 경제력과 반비례하여 부촌을 가벼운 반면에 빈촌은 무겁다.

〈조규진〉

제4장 민요

민요는 구비전승되는 노래로 비전문적인 민중의 노래이며, 생활상의 필요에 의해 창자(唱者)가 스스로 즐기는 노래이다. 민요는 가장 폭넓은 서민문학으로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졌으며,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민요는 특별한 재주나 기교가 없어도 이 땅에 사는 사람이면 누구나 만들고 부를 수 있는 소리이며, 가장 순수한 민중들의 생활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는 문학의 한 장르라 할 수 있다.

민요를 들으면 당시 민중들의 속마음을 여실히 알 수가 있었다. 옛날 중국에는 민요의 채시(採詩)는 《한서》예문지, 헌시(獻詩)는 《국어》주어(周語), 진시(陳詩)는 《예기》왕제 등의 제도가 있었다. 이러한 자료들에서 《시경(詩經)》도 편찬되었다.

민요는 노동을 즐겁게 하기 위해 부르는 노동요(勞動謠), 신적인 존재를 대상의 주술적(呪術的)·종교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부르는 의식요(儀式謠), 놀이에 흥을 돋우기 위하여 부르는 유희요(遊戲謠) 등의 기능요(機能謠)와 특정한 기능이 없이 노래 자체의 즐거움 때문에 부르는 비기능요(非機能謠)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 고장의 경우는 사단법인 한국전통예악개발총연합회 동두천지회장 겸 본부 부회장 이윤형(한의사, 74세)옹의 “동두천은 일찍이 상권이 형성되고 선비 및 퇴임 재상들을 비롯한 선비들이 주구성원이었다”는 증언과 현장 답사를 통한 결과 기능요보다는 비기능요가 상대적으로 강한 전승력을 띠고 있었다. 특히 기능요는 영농의 기계화로 민요의 가장 무대(歌舞舞臺)였던 공동체인 ‘두레’가 현격히 줄어 들었으며, 집을 짓는 방식이나 장례 절차에도 많은 변화가 이루어진 현시점에는 그나마도 몇몇 분의 민요를 아끼는 분들에 의해 그 명맥을 유지되는 실정이다.

본 장에 수록된 민요는 현지 답사를 통해 얻은 현장 자료들과 문헌 자료들을 총망라하였다. 문헌 자료 중 임동권의 《한국민요집》,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 동두천시지부편의 《한국고전 음악선집》과 정동화의 〈양주지방의 민요고〉이다. 동두천이 1981년 시로 승격되기 이전에는 양주군에 속해 있었다. 따라서 이 책에 수록된 자료 중 동두천시와 인접한 지역의 자료 역시 우리에게 동두천시의 민요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까닭에 함께 정리하였다.

민요는 기능에 따라 노동요·의식요·유희요·비기능요 등의 네 갈래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아울러 중요 제보자와 문헌은 다음과 같다.

① 제보자

이윤형(74세)

이명의(69세)

홍순봉(60세)

김연욱(64세)

김집경(76세)

이철규(75세)

② 문헌자료

임동권, 『한국민요집』 (집문당, 1975)

정동화, 〈양주지방의 민요고〉, 『기전문화연구』 18(인천교대 기전문화연구소, 1989)

『한국구비문학대계』 1-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동두천애향동지회편, 『향토지』 (동두천문화원, 1988)

『동두천 민속 지경닻이』 (동두천시 · 동두천문화원, 1986)

『동두천 고삿반 놀이』 (동두천시 · 동두천문화원, 1993)

제 1 절 노동요

노동요는 말 그대로 노동현장에서 감정을 교류하므로써 피로를 덜고 일을 흥겹게 하면서 동작을 통일시키고 노동 효율을 높이기 위해 창작하고 부른 민요를 말한다. 노동요는 노동의 종류에 따라 농업노동요, 어업노동요, 임업노동요와 그밖의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부르는 잡역노동(雜役勞動謠)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농업노동요와 어업노동요는 대부분 여러 사람이 함께 일하면서 부르는 집단노동요이다.

반면 잡역노동요는 종류가 무척 다양한데, 토목 · 운반 · 집터다지기 등에서 부르는 것은 집단노동요이고, 수공업이나 집안일을 하면서 부르는 것은 개인노동요인 경우가 많다. 대체로 남자들이 하는 일은 집단노동요이고, 여자들이 하는 일은 개인노동요를 필요로 하는 것이 많다. 격렬하고 힘든 동작을 일제히 함께 하면서 부르는 집단노동요는 악곡이나 사설이 단순하게 반복되고, 이와는 반대로 느린 동작을 하면서 부르는 개인노동요는 표현이 다채롭고 내용이 풍부

하다.

전국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대표적인 노동요를 들면 농업노동요로서는 보리타작소리·모내기소리·논매기소리 등이 있고, 잡역노동요는 지경닻이 소리가 있다. 이 가운데 보리타작소리·논매기소리·지경닻이 소리는 한 사람이 메기면 여럿이 받는다. 메기는 사람은 의미있는 사설(辭說)을, 받는 사람들은 의미없는 여음(餘音)을 담당하는 선후창방식(先後唱方式)을 택한다. 모내기소리는 사람들이 두 패로 나누어서 의미있는 사설을 한 줄씩 부르는 교환창(交換唱)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차이는 노동의 동작이 서로 다른 데 연유한다. 같은 선후창을 택하지만 격렬한 동작을 일제히 하면서 부르는 보리타작소리는 사설이 짧고 여음도 한 마디 뿐이다. 사설과 여음이 더 길게 늘어지는 논매기소리는 지역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모내기소리는 서정적인 표현을 묘미있게 지니고 있다.

선후창과 교환창은 그밖의 다른 노동요에서도 보이는 민요 가창방식의 기본적인 형태이다. 여자들이 맷돌질을 하면서 부르는 민요는 두 사람이 주고 받는 교환창으로 이루어진다. 모내기 소리는 주고받는 것으로 사설 하나가 끝나는데, 맷돌소리의 경우에는 사설이 연속되는 점이 다르다. 부르는 사람들이 역할 분담을 하지 않고 제창과 독창은 노동에 따르는 동작이 완만할 때 채택되는 가창방식이다. 여자들의 잡역노동요이자 개인노동요의 대표적인 길쌈노래가 이에 해당한다.

우리 지역에선 상술한 바와 같이 일찍이 상권이 형성된 지역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노동요는 모내는 소리 두 편과 논매는 소리가, 잡역노동요로서는 지경소리가 각각 전해지고 있을 뿐이다.

1. 이양요

하나 하날기로구나
연안백천만은 모로심어라
어화 농부들아
열 심을지라도
하나 지침이없게 심어주세요
하나 하날기로구나
어서바삐 심어주게

2. 모내는 소리

선소리 : 허어나 허어나 한알기로구나

후 렴 : 허어나 허어나 한알기로구나

선소리 : 여기저기다 심어도 정조식으로 심어라

후 렴 : 허어나 허어나 한알기로구나

선소리 : 여기저기다 꽂아도 삼배출자리로 심어라

후 렴 : 허어나 허어나 한알기로구나

선소리 : 여기저기다 심어도 정조식으로 심어라

후 렴 : 허어나 허어나 한알기로구나

선소리 : 여기저기 심어도 삼배출자리로 심어라

후 렴 : 허어나 허어나 한알기로구나

선소리 : 여주 이천 자체베로 심어라

후 렴 : 허어나 허어나 한알기로구나

선소리 : 김포 통진 일다리베로 심어라

후 렴 : 허어나 허어나 한알기로구나

3. 논매는 소리

선소리 : 에헹 에헤히오 헤이에헤 에헤히야 에야 에이야 에야루 방아좋소

후 렴 : 에헹 에헤히오 헤이에헤 에헤히야 에야 에이야 에야루 방아좋소

선소리 : 좋다 좋구나 오다가다 만난님은 정은 어이 깊었는지 생각하구서

에루하 또 생각나니

후 렴 : 에헹 에헤히오 헤이에헤 에溷야 에야 에이야 에야루 방아좋소

선소리 : 좋다 좋구나 해다지구 저문날에 옥천앵두가 다 붉었구나 시호시호는

에루야 부재재라

후 렴 : 에헹 에溷야 헤이에헤 에溷야 에야 에이야 에야루 방아좋소

선소리 : 좋다 좋구나 오다가다 만난 님은 정은 어이 깊었는지 생각하구서 에루하 또 생각하니

후 렴 : 에헹 에헤히오 헤이에헤 에헤히야 에야 에이야 에야루 방아좋소
선소리 : 좋다 좋구나 헤다지구 저문날에 옥천앵두 다 붉었구나 시호시호는 애루하 부재래라
후 렴 : 에헹 에헤히오 헤이에헤 에헤히야 에야 에헤히야 에야루 방아좋소
선소리 : 좋다 좋구나 강남서 나온 제비란 놈 박씨 하나를 입에다 물고 부러진 쪽지를
 애루하 잘잘 끌면
후 렴 : 에헹 에헤히오 헤이에헤 에헤히야 에야 에헤히야 에야루 방아좋소
선소리 : 좋다 박석고개를 썩 넘어가서 흥부네 문전을 당도허니 안어이해루
 애루하 썰어를 졌네
후 렴 : 에헹 에헤히오 헤이에헤 에헤히야 에야 에헤히야 에야루 방아좋소
선소리 : 좋다 어떤 호걸이 써붙인 글씨 모진 광풍에 다 떨어지구 충성충짜와
 애루하 매울열짜
후 렴 : 에헹 에헤히오 헤이에헤 에헤히야 에야 에헤히야 에야루 방아좋소
선소리 : 좋다 이십오현 탄야월에 불승청원 저 기러기 갈순 하나를 애루하 입에다 물구
후 렴 : 에헹 에헤히오 헤이에헤 에헤히야 에야 에헤히야 에야루 방아좋소
선소리 : 좋다 거지중천 높이 떠서 에강어디루 가려느냐 어떤 호걸을 애루하 찾어가나
후 렴 : 에헹 에헤히오 헤이에헤 에헤히야 에야 에헤히야 에야루 방아좋소
선소리 : 좋다 치악산 지역에 동낙대하니 신선이 모여서 애루하 바둑만두나
후 렴 : 에헹 에헤히오 헤이에헤 에溷야 에야 에溷야 에야루 방아좋소
선소리 : 좋다 하늘천짜 따지당에 집우짜루다 집을 짓구 날일짜 애루하 영창문에
후 렴 : 에헹 에溷야오 헤이 애溷에溷야 에야 애溷야 에야루 방아좋소
선소리 : 좋다 달월짜루 달이를 놓구 방중삼경 긴데다 쓰니 별진잘숙에 애루하 불어줘라
후 렴 : 에헹 애溷야오 헤이 애溷에溷야 에야 애溷야 에야루 방아좋소

4. 지경 소리

선소리 : 에라어리 지경이요(3번)

후 렴 : 에라어리 지경이요(3번)

선소리 : 태백산으로 올라가서

후 렴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사해사방 바라보니

후 렴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제주도라 한라산이요

후 렴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전라도라 지리산이요
후 렴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충청도라 계룡산이요
후 렴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황해도라 구월산이요
후 렴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평안도라 묘향산이요
후 렴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강원도라 금강산이요
후 렴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경기도로 치달아
후 렴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삼각산이 되었구나
후 렴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대산에 올라 대솔씨 심고
후 렴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중산에 올라 중솔씨 심고
후 렴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소산에 올라 소솔씨 심은 뒤에
후 렴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본향산에 내려와서
후 렴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소요산에 심은 뒤에
후 렴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낮이면 양기를 쐬고
후 렴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밤이면 음기를 쐬고
후 렴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눈비 찬이슬 맞은 후에
후 렴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아퀴트고 싹이 나서
후 렴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청송영이 되었구나
후 렴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집터전을 잡을 적에
후 렴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무학도선 상고 고흔되고
후 렴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상거사란 지관을 불러다
후 렴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좌자오향 쇠를 띠니
후 렴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주산좋고 안산좋다
후 렴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삼각산이 뚫렸어져
후 렴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도봉산이 되었고
후 렴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도봉산이 뚫렸어져
후 렴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칠봉산이 되었고
후 렴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소요산이 되었구나
후 렴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소요산이 이 터전 모아 놓고
후 렴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지경을 다져보자
후 렴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동쪽을 다져보니
후 렴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금구렁이 복구렁이
후 렘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이리저리 들어온다
후 렘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남쪽을 다져보자
후 렘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업 쪽제비 북 쪽제비
후 렘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이리저리 왕래하고
후 렘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서쪽을 다져보자
후 렘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난데없는 금거북이
후 렘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서출 등유수로
후 렘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수구를 안고 들어온다
후 렘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북쪽을 다져보자
후 렘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업두꺼비 북두꺼비
후 렘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이리저리 왕래하고
후 렘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엉금설설 기어든다
후 렘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중앙으로 다져보자
후 렘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부엉새 나래펴고 날아든다
후 렘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옥황상제 친입해서
후 렘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사해용왕 입실들고
후 렘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오방내가 마르도록
후 렘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물을 주어 길어낼 제
후 렘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삼사년이 지나더니
후 렘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방석송이 되었구나
후 렘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일이십년 지나더니
후 렘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소부동이 되었구나
후 렘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오육십년 지나더니
후 렘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중부동이 되었구나
후 렘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칠팔십년 지나더니
후 렘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대부동이 되었구나
후 렘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일이백년 지나더니
후 렘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황참목이 되었구나
후 렘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그 재목 내려하고
후 렘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호주 공중 인간을 내어
후 렴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역군을 택출하여
후 렴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설흔세 명 거느리고
후 렴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나무 베어 헛짚 짓고
후 렴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새풀 베어 뺨두르고
후 렴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상탕에 메를 짓고
후 렴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중탕에 목욕하고
후 렴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하탕에 수족을 씻고
후 렴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감로술 양치질하고
후 렴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삼색으로 진설하고
후 렴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좌우에 촛불켜고
후 렴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향불을 피운 후에
후 렴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소지삼창 올릴제
후 렴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축원축수 비는 말이
후 렴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차야장산 들어와서
후 렴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각인각성 벌목할제
후 렴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사방명산 신령님은
후 렴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굽어 살피소서
후 렴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빌기를 다한 후에
후 렴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천근도채 옥도끼 들러매고
후 렴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고상상봉 치달아
후 렴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한나무를 비자하니
후 렴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오작이 집을 짓고
후 렴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새끼치고 넘나드니
후 렴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그 나무는 못 비리라
후 렴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또 한나무를 비자하니
후 렴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황금같은 피꼬리
후 렴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집을 짓고 넘나드니
후 렴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그나무도 못비리라
후 렴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또 한나무 비자하니
후 렴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난데없는 부엉새가
후 렴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깃을 펴고 날아든다
후 렴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부엉새는 인간지 영물이라
후 렴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유덕하단 말을 듣고
후 렴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그나무를 비어서
후 렴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성주 대들보 마련하고
후 렴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굵은 나무는 벽련하고
후 렴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긴 나무는 동을 치고
후 렴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속빈 나무는 산자를 패고
후 렴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양산에 칡을 끊고
후 렴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음산에 외가지 찍고
후 렴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그 재목을 육지에 모아
후 렴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녹수강변에 갖다놓고
후 렴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배에 실을 적에
후 렴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낚시배 거룻배며
후 렴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대동강선 추렵선
후 렴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집재목을 베어다
후 렴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잔뜩 실어놓고
후 렴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뱃 고사를 드릴 적에
후 렴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말밥하여 독주빛고
후 렴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섬떡하여 우두 제두 칼 꽂고
후 렴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도사공이 엄정의관 한 후에
후 렴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북을 둉둥 울리면서
후 렴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축원축수 비는 말이
후 렴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사해용왕 굽어 살피소서
후 렴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수중액난 모진강풍에 제치시고
후 렴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어진순풍을 빌리소서
후 렴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빌기를 다한 후에
후 렴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난데없는 청풍이 일어나
후 렴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홍사홍천 흘러져어
후 렴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춘천 낭천 내다라
후 렴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여주 이천 바빠지나
후 렴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한강 두무포 마포에 대어 놓고
후 렴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역군들을 택출하여
후 렴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집 재목을 운반하여
후 렴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동두천에 대어놓고
후 렴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대편수 대림을 보고
후 렴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제자편수 목줄치고
후 렴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기둥도리 안방 중방
후 렴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대패편탕 치목하고
후 렴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사개사홍 아선 후에
후 렴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이집을 이룩할 제
후 렴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집터 한 번 닦아보자
후 렴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좌자 오향쇠를 놓아
후 렴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사방을 둘러보니
후 렴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필봉산 솟았는데
후 렴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오봉산 오형제여
후 렴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필봉산은 장원급제
후 렴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열일이 날 자리라
후 렴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천년유택 만년복가
후 렴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에라어리 지경이요
후 렴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지경을 다한 후에
후 렴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집주상양 하올차로
후 렴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감상관에 찾아가서
후 렴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상냥봉일 하여보니
후 렴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대주는 생기일이요
후 렴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계주는 복덕일이라
후 렴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원근지세 살펴보자
후 렴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만수산이 비쳤으니
후 렴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억척만년 살것이요
후 렴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복내산이 비쳤으니
후 렴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오복팔복 올것이요
후 렴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이구산이 비쳤으니
후 렴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성현군자 날것이요
후 렴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문필봉이 비쳤으니
후 렴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문장재사 날것이요

후 렴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동자봉이 비쳤으니
후 렴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귀동자도 날것이요
후 렴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에라어리 지경이요
후 렴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에라어리 지경이요
후 렴 : 에라어리 지경이요
선소리 : 에라어리 지경이요
후 렴 : 에라어리 지경이요

제2절 의식요

의식요는 사람의 일생에 따르는 통과의례(通過儀禮)와 일년 동안의 절후에 따르는 세시의례(歲時儀禮)를 거행하면서 부르는 민요이다. 통과의례는 여러 단계로 나누어져 있으며, 혼인할 때 교군(轎軍)들이 부르는 노래, 환갑잔치에서 부르는 노래도 통과의례 의식요라 할 수 있다. 장례절차에 따르는 신적인 존재를 대상으로 주술적(呪術的)·종교적(宗教的)인 기능을 목적으로 부르는 민요를 말하며, 세시의식요와 장례의식요 등이 이에 해당된다.

우리 고장은 세시의식요로서 고삿반 소리, 장례의식요로서 상엿소리·달고질소리 등이 전해지고 있다.

1. 고삿반 소리

고사 고사 고사로다
만복을 점지할 때

학을 놀리라 대궐 짓고
육조 앞에는 오영문 혜각사

범운자 돌아든다
삼각산천 기봉되고
대궐 앞에는 육조로다
각도 각읍 마련할 때
동구재 만리재 백호로다
동적강수 긴 머리
북으로 고였으니
우리 나라 금상님은
은하는 금여차일
해동 대한은 유명국
경상도는 칠십이관
충청도는 오십삼관
이 대면내는 대면내요
권명 ㅇㅇㅇ씨 댁에
중남자 도련님이요
어깨너머 길동자
노랑머리 더벅머리
작년 같은 험한 세월
흰용 흰용 가리어 보자
흔인장사에 주당살이요
이세 태평은 후세로다
국태민안 시화년풍
이씨 한양 등극시에
마루대청에는 성주님살
아래 윗방 지석님살
햇대 끝엔 삼신살
금일 고삿반에 도액을 하니
글란 그리도 하려니와
호구역살이 세다고 하니
강남은 대한국이요

왕십리 청룡되고
한강수는 호수가 되고
인왕산 나린 줄기는
여천지는 무궁되고
태평성대가 장안되고
사바세계로다
경기하고 삼십칠관
강원도는 이십칠관
양승같은 대목 안에
내 이대동중 대동이요
상남자 서방님이요
하남자 여자기
무릎 밑에 손등자
우르르 칭칭 자라날 때
꿈결같이 지내놓고
모수적삼에 거상살이요
원근 도중에 왕래살
내외 간에도 이별살
들로 나리면 들룡살
집으로 들어가자
안 마당엔 비천살이요
장독간엔 고두대살
팔만하고 대장군살
햇대 밑엔 능마대살
이살 저살 휘몰아다
만사는 대길이요
이댁 가중에는
호구역살을 풀고 가자
우리 나라는 조 한국이요
저궁을 받으려고 드나드는

십이지국이 열두나라
호구별 쌍의 손님마다
신불은 뚝 떨어지다만
앞뒤 강도 열두강
무슨배를 타고 갈까
나무 배는 모진 태풍을 못이겨
돌배를 집어타니
무쇠배를 타고가니
흙두선을 집어 타니
흙이라 슬슬 풀리고
배 하나를 지어보자
산으로 오르면 산신살
물에 들면 용왕님살
바깥 마당에 벼락살이요
마굿간에 우마다살
부엌 한 칸 들어서니
마루 대청 올라서니
안방으로 들어서니
아랫 대궐 윗 대궐
한양을 뚝 떠나서
경안장을 썩 지나서
곤지암을 썩 지나서
○○시 ○○동 ○○번지 ○○씨 댁의
하루 이틀 자리보고
천지대역의 백중력을
일상생거 이중천의
오상화해 육중복덕
좋고 좋은 날을 가려
중에 한 쌍 돋았구나
하에 한 쌍 돋았으니

심신불이 나오실 때
심신불이 나오실 때
이십사 강을 건널적에
나무 배를 타고 가자
흘렁 쓰러져 뒤집혀 버리고
가로 덤벙 가라앉고
지남철이라 들러붙고
물이라 힘을 못이겨
았다. 그 배는 못 타겠다.
수양산 마림산 앵무공작이
놀다 가던 베드나무
세네잎 쭈루루 훑어서
거무패는 청산개
복을 치켜 달고
이십사 강을 건넜으니
부산 장안 잠시 보고
한양터에 들어서서
금지문에 진을 치니
왕십리 살고지요
아래 쌍용 윗 쌍용
이천 장 당도하니
손님마마 들어오신다.
사흘 나흘 보람보고
여기저기 펼쳐 놓고
삼하절테 사중유흔
철하절명 팔중귀흔
일광보살 점지하여
칠성님의 은덕으로
손님마마는 곱게 곱게 지나가서
글란 그리도 하려니와

이런 경사가 어데 있나
농사 한 철을 짓고 가자
낮은 데는 눈을 풀어
벼농사를 지을 적에
벼들가지에 벼들 잎을
엽엽선을 모아 보라
저무폐는 황성개
두리둥실 울리면서
부산관에 숙조하고
부산을 뚝떠나서
온지문에 말을 매고
입문휘선 잠시하고
불탄 대궐 구경하고
두태농사를 지어보자
불쌍하다 호래비콩
알록달록 까투리콩
여기저기 심어놓고
옥조 참절미 차조
여기저기 심어놓고
깔닭낫 싹 갈아서
서마지기 논배미 가서
저리로 걸어 이리로 배고
앵무같은 한님네는
았다. 그 일 못하겠다
억억부리 저격부리
꽁지없는 동격소요
들어오면 참바리요
싹쓸어라 검불벼요
적게 먹어라 훌쭉벼요
덜커덩 푸드덩 쟁기찰

높은 데는 밭을 풀고
농사 한 철을 짓고 가자
어떤 벼를 심었느뇨
두렁 밑엔 들청벼요
많이 먹어라 등터지기
흔자 먹어라 돼지벼요
휘휘 둘러라 상모찰
여기저기 심어놓고
은방도 그미도 칠성도 다마금을
보리농사를 지을적에
가을보리 봄보리
흘랑벗어라 쌀보리
둘러붙은 매미보리도
방정맞은 주어니콩
도갈포수의 검은 콩을
스슥(서숙) 농사도 지어보자
여수거리 쉰날 거리도
잠방이 입고 곰방이 몰고
지게에다 꽂아 지고
이리로 걸어 저리로 배고
논두렁 마다 걸어 놓으니
따뱅이 발을 여드릴 때
소 한마리를 부려보다
별백이는 노고지리
나가면 빈바리
앞으로 부리면 앞노적
뒤부리면 뒷노적
암불담불 쌓아노니
상봉에 깃도 되고
울음을 울음을 울적에

환갑 진갑에 노인벼
요즈음 시체 나는 벼
여기저기 심어놓고
무슨 보리를 심었느뇨.
쑥 깍어라 중보리
이모저모 육모보리
여기 저기 심어 놓고
만리타국의 강남콩
이월에 드는 액은
제배 또는 맹맥이로 막아주고
사월 초파일 석가여래
사월에 드는 액은
그네줄로 막아내고
유월이라 유두일
견우 직녀 상봉일에
까치머리로 막아주고
팔월이라 한가위날
이웃집에 나누어 주던
팔월에 드는 액은
명에 노적에 싸노적을
난데없는 봉덕새가 날아와서
중봉에 내려 낮아
이 날개를 툭탁 치면
저 날개를 툭탁 치면
말을 치면 용마가 되고
닭을 치면 봉황이 된다
있는 아기는 수명장수
짧은 명은 이어 담아
오동지 육석달인데
다 풀어 점지하자

저리로 만석이 쏟아지고
이리로 만석이 쏟아진다.
개를 치면 내눈백이
없는 아기는 점지하고
긴명은 서려 담고
정칠월 이팔월 삼구월 사시월
이 가문에 묻은 정을
정월에 드는 액은
삼월에 드는 액은
관등놀이로 막아내고
오월 단오 그네 타는
오월에 드는 액은
밀젬뱅이로 막아 주고
칠월이라 칠석날
칠월에 드는 액은
헵쌀 송편을 많이 빚어
쟁반 굽으로 막아주고
구월이라 궁구날에
국화 농주를 많이 빚어
사당차리로 막아주고
사월이라 상달인데
시루떡으로 막아주고
동지달이라 동지날
양손에 죽 퍼들고
이리 저리 끼얹으니
뜨거운 팥죽을 뒤집어 쓰고
동지달에 드는 액은
흰 떡 가래로 막아주고
내년 정월 열 나흘날
방망이 맞은 북어 대가리

이월 영등 막아주고
삼월이라 삼짓날
마음가짐 잡순대로
동지에 하는 굿은
생각을 해도 축근자거니
정월하고 상달인데
이웃에 모셔다가 백지
구월에 드는 액은
좋고 좋은 날 가리어서
시월에 드는 액은
동지 팔죽을 정히 쑤어
중문 대문 드나들며
오는 잡귀 가는 잡귀

막걸리 한 잔 끼얹은 채로
만사가 대길이요
았다. 뜨겁다 도망가자
섣달에 그믐달
섣달에 드는 액은
오곡밥을 정히 지어
한 장에 둘둘 말아
원강에 소멸하니
백사가 여일하고
소원성취 발원이라
이고사 복 받으신다.
받아주어서 오실적에
고삿반으로 놀아보세

2. 상여 소리

선소리 : 어하어하 어휘리 딸랑
후 렘 : 어하어하 어휘리 딸랑
선소리 : 간다간다 나는간다
후 렘 : 어하어하 어휘리 딸랑
선소리 : 인제가면 언제오나
후 렘 : 어하어하 어휘리 딸랑
선소리 : 일가친척 동리양반
후 렘 : 어하어하 어휘리 딸랑
선소리 : 인사말씀 들어보소
후 렘 : 어하어하 어휘리 딸랑
선소리 : 일향만강 하옵시고
후 렘 : 어하어하 어휘리 딸랑
선소리 : 천년만년 불로장수

후 렘 : 어하어하 어휘리 딸랑
선소리 : 두손 모아 비나이다
후 렘 : 어하어하 어휘리 딸랑
선소리 : 일락서산 지는 해는
후 렘 : 어하어하 어휘리 딸랑
선소리 : 지고 싶어 지려느냐
후 렘 : 어하어하 어휘리 딸랑
선소리 : 북망산천 가는 나는
후 렘 : 어하어하 어휘리 딸랑
선소리 : 가고 싶어 가려느냐
후 렘 : 어하어하 어휘리 딸랑
선소리 : 어이갈고 어이갈고
후 렘 : 어하어하 어휘리 딸랑

선소리 : 구만리황천 어이갈까
후 렴 : 어하어하 어휘리 딸랑
선소리 : 하늘보고 한숨쉬고
후 렴 : 어하어하 어휘리 딸랑
선소리 : 땅을치고 통곡하니
후 렴 : 어하어하 어휘리 딸랑
선소리 : 산도 울고 물도 울고
후 렴 : 어하어하 어휘리 딸랑
선소리 : 산천초목이 다 우는구나
후 렴 : 어하어하 어휘리 딸랑
선소리 : 일가친척 많다지만
후 렴 : 어하어하 어휘리 딸랑
선소리 : 나의 갈길 대신가며
후 렴 : 어하어하 어휘리 딸랑
선소리 : 벗친구가 많다지만
후 렴 : 어하어하 어휘리 딸랑
선소리 : 나의 갈길 동행할까
후 렴 : 어하어하 어휘리 딸랑
선소리 : 심산야곡 슬피우는
후 렴 : 어하어하 어휘리 딸랑
선소리 : 저 두견이 새야아
후 렴 : 어하어하 어휘리 딸랑
선소리 : 너는 무슨 회포있어
후 렴 : 어하어하 어휘리 딸랑
선소리 : 그다지도 슬피우느냐
후 렴 : 어하어하 어휘리 딸랑
선소리 : 북망산천 가는 나와
후 렴 : 어하어하 어휘리 딸랑
선소리 : 만담설하 풀어보자
후 렴 : 어하어하 어휘리 딸랑

선소리 : 청춘가고 백발오면
후 렴 : 어하어하 어휘리 딸랑
선소리 : 황천고흔 될 줄 알고
후 렴 : 어하어하 어휘리 딸랑
선소리 : 오는 세월 못 오도록
후 렴 : 어하어하 어휘리 딸랑
선소리 : 철강대로 가로막고
후 렴 : 어하어하 어휘리 딸랑
선소리 : 가는 세월 잡으려고
후 렴 : 어하어하 어휘리 딸랑
선소리 : 뱃줄로 동여매고
후 렴 : 어하어하 어휘리 딸랑
선소리 : 천년만년 불로장수
후 렴 : 어하어하 어휘리 딸랑
선소리 : 지긋지긋 살자더니
후 렴 : 어하어하 어휘리 딸랑
선소리 : 가는 세월 못 막고서
후 렴 : 어하어하 어휘리 딸랑
선소리 : 황천고흔 되었구나
후 렴 : 어하어하 어휘리 딸랑
선소리 : 일구월심 살던 세상
후 렴 : 어하어하 어휘리 딸랑
선소리 : 죽음길이 웬말이오
후 렴 : 어하어하 어휘리 딸랑
선소리 : 달아달아 밝은 달아
후 렴 : 어하어하 어휘리 딸랑
선소리 : 우주강산 비친 달아
후 렴 : 어하어하 어휘리 딸랑
선소리 : 황천으로 가는 발길
후 렴 : 어하어하 어휘리 딸랑

선소리 : 밝고 밝게 비치어라
후 렴 : 어하어하 어휘리 딸랑
선소리 : 명사십리 해당화야
후 렴 : 어하어하 어휘리 딸랑
선소리 : 꽂진다고 슬퍼마라
후 렴 : 어하어하 어휘리 딸랑
선소리 : 구시월에 낙엽지고
후 렴 : 어하어하 어휘리 딸랑
선소리 : 동지 선달 죽었다가
후 렴 : 어하어하 어휘리 딸랑
선소리 : 춘삼월 봄이오면
후 렴 : 어하어하 어휘리 딸랑
선소리 : 너는 다시 피련마는
후 렴 : 어하어하 어휘리 딸랑
선소리 : 초로같은 우리 인생
후 렴 : 어하어하 어휘리 딸랑
선소리 : 아차 한 번 죽어지면
후 렴 : 어하어하 어휘리 딸랑
선소리 : 웜이 날가 짹이 날까
후 렴 : 어하어하 어휘리 딸랑
선소리 : 또다시 못 오는 인생
후 렴 : 어하어하 어휘리 딸랑
선소리 : 먹고 가고 쓰고 가고
후 렴 : 어하어하 어휘리 딸랑
선소리 : 마음대로 놀다가소
후 렴 : 어하어하 어휘리 딸랑
선소리 : 청춘홍안 네 자랑마라
후 렴 : 어하어하 어휘리 딸랑
선소리 : 덧없는 세월 백발오네
후 렴 : 어하어하 어휘리 딸랑

선소리 : 세상만사 생각하면
후 렴 : 어하어하 어휘리 딸랑
선소리 : 묘창해지가 일속이라
후 렴 : 어하어하 어휘리 딸랑
선소리 : 요지일월 천지건곤
후 렴 : 어하어하 어휘리 딸랑
선소리 : 태평성대 이루소서
후 렴 : 어하어하 어휘리 딸랑
선소리 : 유유창천 호생지덕
후 렴 : 어하어하 어휘리 딸랑
선소리 : 북망산천 물어보자
후 렴 : 어하어하 어휘리 딸랑
선소리 : 역대제왕 영웅열사
후 렴 : 어하어하 어휘리 딸랑
선소리 : 모두 네게로 가더란말가
후 렴 : 어하어하 어휘리 딸랑
선소리 : 천금같은 짧은 세월
후 렴 : 어하어하 어휘리 딸랑
선소리 : 허송세월 하지마소
후 렴 : 어하어하 어휘리 딸랑
선소리 : 청천하늘 구름돌고
후 렴 : 어하어하 어휘리 딸랑
선소리 : 이내 눈에 눈물돈다
후 렴 : 어하어하 어휘리 딸랑
선소리 : 반공중에 슬퍼우는
후 렴 : 어하어하 어휘리 딸랑
선소리 : 저 종다리새~야
후 렴 : 어하어하 어휘리 딸랑
선소리 : 황천기는 나와 같이
후 렴 : 어하어하 어휘리 딸랑

선소리 : 슬픈 회포 풀어보자
후 렴 : 어하어하 어휘리 딸랑
선소리 : 사우디아 가는 사람
후 렴 : 어하어하 어휘리 딸랑
선소리 : 돈벌며는 오겠지만
후 렴 : 어하어하 어휘리 딸랑
선소리 : 황천으로 가는 나는
후 렴 : 어하어하 어휘리 딸랑
선소리 : 오는 날이 기약없네
후 렴 : 어하어하 어휘리 딸랑
선소리 : 진나라의 진시황은
후 렴 : 어하어하 어휘리 딸랑
선소리 : 돈이 없어 죽었으며
후 렴 : 어하어하 어휘리 딸랑
선소리 : 삼천갑자 동방삭은
후 렴 : 어하어하 어휘리 딸랑
선소리 : 명이 짧아 죽었으니
후 렴 : 어하어하 어휘리 딸랑
선소리 : 천하명의 편작이는
후 렴 : 어하어하 어휘리 딸랑
선소리 : 약명 몰라 죽었으며
후 렴 : 어하어하 어휘리 딸랑
선소리 : 기비상천 이태백은

후 렴 : 어하어하 어휘리 딸랑
선소리 : 술이 없어 죽었으며
후 렴 : 어하어하 어휘리 딸랑
선소리 : 북망산천 가는 나도
후 렴 : 어하어하 어휘리 딸랑
선소리 : 이내 명이 이뿐이라
후 렴 : 어하어하 어휘리 딸랑
선소리 : 이팔청춘 소년들아
후 렴 : 어하어하 어휘리 딸랑
선소리 : 백발보고 웃지마라
후 렴 : 어하어하 어휘리 딸랑
선소리 : 네가 항시 청춘이며
후 렴 : 어하어하 어휘리 딸랑
선소리 : 내가 본시 백발이더냐
후 렴 : 어하어하 어휘리 딸랑
선소리 : 나도 엊그제 이팔청춘
후 렴 : 어하어하 어휘리 딸랑
선소리 : 소년행락 하였건만
후 렴 : 어하어하 어휘리 딸랑
선소리 : 무정세월 여류하여
후 렴 : 어하어하 어휘리 딸랑
선소리 : 금일백발 원수로다

3. 달고질 소리

선소리 : 해가 서산에 걸렸으니 역사행로 빨리 합시다
후 렴 : 예~해
선소리 : 애해리 훠어리 달궁

후 렴 : 애해리 달궁
선소리 : 먼데 사람 듣기도 좋게
후 렴 : 애해리 달궁

선소리 : 오신 손님 보기도 좋게
후 렴 : 애해리 달궁
선소리 : 한발 두발 달고대로
후 렴 : 애해리 달궁
선소리 : 깍은 머리 흔들면서
후 렴 : 애해리 달궁
선소리 : 산둥허리를 보면서
후 렴 : 애해리 달궁
선소리 : 아주 쾌광광 잘 다져 봅세
후 렴 : 애해리 달궁
선소리 : 그럭으로 하려니와
후 렴 : 애해리 달궁
선소리 : 무슨 소리 해보시오
후 렴 : 애해리 달궁
선소리 : 함경도라 백두산은
후 렴 : 애해리 달궁
선소리 : 천지못이 생기어서
후 렴 : 애해리 달궁
선소리 : 압록강이 되어서는
후 렴 : 애해리 달궁
선소리 : 두만강이 되어서는
후 렴 : 애해리 달궁
선소리 : 동해바다로 내려가고
후 렴 : 애해리 달궁
선소리 : 무산십이 높은 봉은
후 렴 : 애해리 달궁
선소리 : 구름 위로 솟아있고
후 렴 : 애해리 달궁
선소리 : 평안도라 모란봉은
후 렴 : 애해리 달궁

선소리 : 대동강이 흘러서는
후 렴 : 애해리 달궁
선소리 : 서해바다로 내려가고
후 렴 : 애해리 달궁
선소리 : 구월산 푸른 산정
후 렴 : 애해리 달궁
선소리 : 녹록장송 우거지고
후 렴 : 애해리 달궁
선소리 : 황해도라 봉산땅은
후 렴 : 애해리 달궁
선소리 : 인심좋기로 소문나고
후 렴 : 애해리 달궁
선소리 : 신계곡산 흐르는 물은
후 렴 : 애해리 달궁
선소리 : 예성강이 되어서는
후 렴 : 애해리 달궁
선소리 : 평산연백 감돌아서
후 렴 : 애해리 달궁
선소리 : 경기만으로 내려가고
후 렴 : 애해리 달궁
선소리 : 강원도라 금강산은
후 렴 : 애해리 달궁
선소리 : 일만 이천봉이로다
후 렴 : 애해리 달궁
선소리 : 봉봉마다 기암절벽
후 렴 : 애해리 달궁
선소리 : 산골마다 폭포수라
후 렴 : 애해리 달궁
선소리 : 양구양천 흐르는 물은
후 렴 : 애해리 달궁

선소리 : 소양호가 되어 있고
후 렴 : 애해리 달궁
선소리 : 산화요조 우거지니
후 렴 : 애해리 달궁
선소리 : 세계에 명산이라
후 렴 : 애해리 달궁
선소리 : 경기도라 삼각산은
후 렴 : 애해리 달궁
선소리 : 품위를 자랑하고
후 렴 : 애해리 달궁
선소리 : 북악산과 인왕산이
후 렴 : 애해리 달궁
선소리 : 병풍처럼 둘러싸여
후 렴 : 애해리 달궁
선소리 : 한강수 흘러내려
후 렴 : 애해리 달궁
선소리 : 한양도읍 되었으니
후 렴 : 애해리 달궁
선소리 : 십만 장안 백만 가구
후 렴 : 애해리 달궁
선소리 : 고층빌딩 즐비하고
후 렴 : 애해리 달궁
선소리 : 일천만민 살고 있고
후 렴 : 애해리 달궁
선소리 : 충청도라 계룡산은
후 렴 : 애해리 달궁
선소리 : 은선풍포 선녀 놀고
후 렴 : 애해리 달궁
선소리 : 공주금강 흘러내려
후 렴 : 애해리 달궁

선소리 : 백제도읍 부여에서
후 렴 : 애해리 달궁
선소리 : 백마강이 합류되어
후 렴 : 애해리 달궁
선소리 : 군산만으로 내려가고
후 렴 : 애해리 달궁
선소리 : 속리산의 법주사는
후 렴 : 애해리 달궁
선소리 : 신라 문화 자랑하고
후 렴 : 애해리 달궁
선소리 : 천옹봉에 암벽송림
후 렴 : 애해리 달궁
선소리 : 붉은 단풍 아름다워
후 렴 : 애해리 달궁
선소리 : 관광객이 몰려오고
후 렴 : 애해리 달궁
선소리 : 낙동강 칠백리는
후 렴 : 애해리 달궁
선소리 : 선산왜관 구비 돌아
후 렴 : 애해리 달궁
선소리 : 합천의령 감싸고서
후 렴 : 애해리 달궁
선소리 : 진주남강 합류되어
후 렴 : 애해리 달궁
선소리 : 삼랑진을 구비 돌아
후 렴 : 애해리 달궁
선소리 : 김해평야를 감돌아
후 렴 : 애해리 달궁
선소리 : 남해로 내려가고
후 렴 : 애해리 달궁

- 선소리 : 전라도라 남원땅은
 후 렴 : 애해리 달궁
- 선소리 : 열녀춘향 고향이라
 후 렴 : 애해리 달궁
- 선소리 : 광한루 오작교가
 후 렴 : 애해리 달궁
- 선소리 : 역대역사 자랑하고
 후 렴 : 애해리 달궁
- 선소리 : 김제평야 넓은 벌판
 후 렴 : 애해리 달궁
- 선소리 : 오곡백과 풍성하고
 후 렴 : 애해리 달궁
- 선소리 : 서해바다 조수물은
 후 렴 : 애해리 달궁
- 선소리 : 때를 맞춰 들고나고
 후 렴 : 애해리 달궁
- 선소리 : 무주구천 흐르는 물은
 후 렴 : 애해리 달궁
- 선소리 : 섬진강이 되어서는
 후 렴 : 애해리 달궁
- 선소리 : 경상도 하동으로
 후 렴 : 애해리 달궁
- 선소리 : 너울지며 내려가고
 후 렴 : 애해리 달궁
- 선소리 : 제주도라 한라산은
 후 렴 : 애해리 달궁
- 선소리 : 구름 밖으로 높이 솟아
 후 렴 : 애해리 달궁
- 선소리 : 백록담 폭포수가
 후 렴 : 애해리 달궁
- 선소리 : 기화요초 만발한 테
 후 렴 : 애해리 달궁
- 선소리 : 파도 위에 백구 떠서
 후 렴 : 애해리 달궁
- 선소리 : 둉실둥실 춤을 추고
 후 렴 : 애해리 달궁
- 선소리 : 일출봉 월출봉에
 후 렴 : 애해리 달궁
- 선소리 : 산해풍경 자랑하니
 후 렴 : 애해리 달궁
- 선소리 : 명승지로 이름나서
 후 렴 : 애해리 달궁
- 선소리 : 관광지로 변모되니
 후 렴 : 애해리 달궁
- 선소리 : 또다시 올라를 와서
 후 렴 : 애해리 달궁
- 선소리 : 이곳저곳 살펴보니
 후 렴 : 애해리 달궁
- 선소리 : 지방에 따라 산이름으로
 후 렴 : 애해리 달궁
- 선소리 : 봉마다 내린 산맥
 후 렴 : 애해리 달궁
- 선소리 : 좌에는 청룡이요
 후 렴 : 애해리 달궁
- 선소리 : 우에는 백호로구나
 후 렴 : 애해리 달궁
- 선소리 : 현수주작 되어 있고
 후 렴 : 애해리 달궁
- 선소리 : 득수파국 분명하니
 후 렴 : 애해리 달궁

선소리 : 여기가 명당일세
후 렴 : 애해리 달궁
선소리 : 이 명당 잡을 적에
후 렴 : 애해리 달궁
선소리 : 육십갑자 팔괘 짚어
후 렴 : 애해리 달궁
선소리 : 이십사방 위 패철놓고
후 렴 : 애해리 달궁
선소리 : 월건일진 가리어서
후 렴 : 애해리 달궁
선소리 : 우물정자로 광정 짓고
후 렴 : 애해리 달궁
선소리 : 고인을 모신뒤에
후 렴 : 애해리 달궁
선소리 : 청송백송 황대 덮고
후 렴 : 애해리 달궁
선소리 : 청단홍단 예단들며
후 렴 : 애해리 달궁
선소리 : 명정공포 깔은 뒤에
후 렴 : 애해리 달궁
선소리 : 취토분토 하고 나니
후 렴 : 애해리 달궁
선소리 : 여기가 명당이라
후 렴 : 애해리 달궁
선소리 : 이 명당에 모신 뒤에
후 렴 : 애해리 달궁
선소리 : 아들나면 효자 낳고
후 렴 : 애해리 달궁
선소리 : 딸을 나면 열녀 낳고
후 렴 : 애해리 달궁

선소리 : 말을 기르면 용마되고
후 렴 : 애해리 달궁
선소리 : 개를 기르면 호박개요
후 렴 : 애해리 달궁
선소리 : 닭을 기르면 봉황되고
후 렴 : 애해리 달궁
선소리 : 나갈 때는 빈바리에
후 렴 : 애해리 달궁
선소리 : 들어올 때 가득 싣고
후 렴 : 애해리 달궁
선소리 : 열두 노적 쌓여 있네
후 렴 : 애해리 달궁
선소리 : 고대광실 높은 집에
후 렴 : 애해리 달궁
선소리 : 나귀에다 풍경 달고
후 렴 : 애해리 달궁
선소리 : 열두 대문 달아 놓고
후 렴 : 애해리 달궁
선소리 : 육산대청에 놀 적에
후 렴 : 애해리 달궁
선소리 : 주연상을 차려 노니
후 렴 : 애해리 달궁
선소리 : 일년 빚어 일년주요
후 렴 : 애해리 달궁
선소리 : 삼년 빚어 삼년주요
후 렴 : 애해리 달궁
선소리 : 석달 열흘 백일주요
후 렴 : 애해리 달궁
선소리 : 두꺼비표는 진로주요
후 렴 : 애해리 달궁

선소리 : 오똑이표는 금복주요
후 렴 : 애해리 달궁
선소리 : 초생 반달 월성주요
후 렴 : 애해리 달궁
선소리 : 동해표는 보해주요
후 렴 : 애해리 달궁
선소리 : 장생불사 불노주요
후 렴 : 애해리 달궁
선소리 : 먹고 놀자는 정배주요
후 렴 : 애해리 달궁
선소리 : 노세노세 늙어노세
후 렴 : 애해리 달궁
선소리 : 젊어 청춘 일하고서
후 렴 : 애해리 달궁
선소리 : 노후대책 마련하세
후 렴 : 애해리 달궁
선소리 : 청춘가고 백발오면
후 렴 : 애해리 달궁
선소리 : 황천고흔 될 줄 알고
후 렴 : 애해리 달궁
선소리 : 오는 세월 못 오도록
후 렴 : 애해리 달궁
선소리 : 철장대로 가로막고

후 렴 : 애해리 달궁
선소리 : 가는 세월 잡으려고
후 렴 : 애해리 달궁
선소리 : 뱃줄로 동여매고
후 렴 : 애해리 달궁
선소리 : 천년 만년 살자더니
후 렴 : 애해리 달궁
선소리 : 가는 세월 못 막고서
후 렴 : 애해리 달궁
선소리 : 월수백발 되었도다
후 렴 : 애해리 달궁
선소리 : 초로같은 우리인생
후 렴 : 애해리 달궁
선소리 : 아차 한 번 죽어지면
후 렴 : 애해리 달궁
선소리 : 움이 날까 싹이 날까
후 렴 : 애해리 달궁
선소리 : 또다시 못 오는 인생
후 렴 : 애해리 달궁
선소리 : 먹고 가고 쓰고 가고
후 렴 : 애해리 달궁
선소리 : 맘대로 놀고 가소
후 렴 : 애해리 달궁

제3절 유희요

유희요는 놀이를 하면서 부르는 민요로 주체에 따라 아동유희요·남성유희요·여성유희요로 나눌 수 있다. 아동들의 놀이는 대부분 노래를 필요로 하며, 동요는 대부분 아동유희요다. 그런데 성인남성들의 놀이는 노래를 필요로 하는 것이 흔하지 않다. 술 마시고 춤추면서 부르는 노래는 특별한 절차가 없고 고정된 종목을 갖추지 않으니 유희요라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성유희요로 강강수월래·놋다리밟기 등은 남성유희요보다 형식이 구비되고 내용이 풍부하다.

우리 고장에서는 남성유희요나 여성유희요는 전해지지 않고 아동유희요 몇 편이 전해지고 있다.

1. 고무줄 놀이

단추 단추 새 단추
어머니가 사다주신 새 단추
순이야 순이야 단추 달아라
싫어요 싫어요 나는 싫어요

2. 줄넘기 놀이

꼬마야 꼬마야 뒤로 돌아라
꼬마야 고마야 한 발을 들어라
꼬마야 꼬마야 땅을 짚어라
꼬마야 꼬마야 손뼉을 쳐라
꼬마야 꼬마야 만세를 불러라
꼬마야 꼬마야 잘 가거라

3. 숨박꼭질 놀이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텃밭에도 안된다
상추 씨앗 밟는다
꽃밭에도 안된다
꽃 모종을 밟는다
울타리도 안된다
호박순을 밟는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종종머리 찾았네
장독대에 숨었네
까까머리 찾았네
방앗간에 숨었네
빨간 땅기 찾았네
기둥 뒤에 숨었네

4. 연날리기

연아 연아 올라라
술개같이 올라라
구름까지 올라라
하늘까지 올라라

5. 팽이돌리기

팽글팽글 잘도 돈다

요리조리 잘도 돈다

고추먹고 매엠매엠

담배먹고 매엠매엠

6. 우리집에 왜왔니

우리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찾으러 왔단다, 왔단다, 왔단다

무슨 꽃을 찾으러 왔느냐, 왔느냐

은지꽃을 찾으러 왔단다, 왔단다

가위, 바위, 보

7.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잠잔다 잠꾸러기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세수한다 멋쟁이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옷 입는다 예쁜이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밥 먹는다

무슨 반찬

개구리 반찬

죽었니 살았니
살았다

제4절 비기능요

비기능요란 특정한 기능이 없이 노래 자체의 즐거움으로 불리는 노래를 말한다. 문학성에서 본다면 여러 민요 중 가장 두드러진다고 하겠다. 특히 현대문명이 발전함에 따라 본래는 기능요 이던 것이 비기능요로 전환되어 버린 것이 적지 않다. 뱃노래 등 본래 배를 저으며 부르는 노래 였으나, 이미 그 기능을 상실하여 단순히 음악적 즐거움 때문에 불리어지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시대가 흐름에 따라 기능요는 점차 사라지고 비기능요만 남으리라고 생각된다.

우리 고장에서도 기능요보다는 비기능요가 상대적으로 강한 전승력을 띠고 있다.

1. 소요산(逍遙山)을 그리며

- | | |
|--------------|------------|
| ① 逍遙山 藥水峯아래 | 玉流瀑布가 부서지고 |
| 搖石公主 애뜻한 사랑 | 元曉台위에 서려있네 |
| 自在庵 風景소리가 | 世俗五慾을 씻어주네 |
| ② 陽春佳節 杜鵑花피고 | 秋陽霜天에 千紫萬紅 |
| 雲霧間에 높이 솟는峯 | 白雲三臺가 仙境이라 |
| 逍遙山 좋을시고 | 京畿金剛이 여기로다 |
| | (李哲圭 作詞) |

2. 제갈공명(諸葛孔明)의 추모시

丞相祠堂 何處尋 金冠城外 柏森森
映階碧草 自春色 隔葉黃鶴 空好音
三顧頻繁 天下計 兩朝開濟 老臣心
出師未捷 自光死 長使英雄 淚滿襟

3. 강릉 경포대시

十二關間 碧玉台 大瀛春色 鏡中開
錄波淡淡 無深淺 白鳥雙雙 自去來
萬里歸遷 雲外笛 回詩遊子 月中盃
東飛黃鶴 知吾意 湖土徘徊 故不催

4. 통타령

이통	저통
신통	방통
노방통	금부통
장구통	여우 흘림통
깽깽이통	원산 고불통
옷집 오줌통	아랫집 똥통
우리집 절구통	술집 뜨물통
장님 북통	돼지 오줌통
수비대 나발통	얽은 놈의 상통
목수 목통	못생긴 밥통
큰애기 젖통	주정꾼 술통
못된놈 심통	설은 사랑애통

5. 이별곡

꽃은	곱다마는
가지 높아	못 꺾겠네
꺾든지	못 꺾든지
이름이나	짓고 갈까
아마도	그 꽃이름

단장화(斷腸花)인가

6. 시집살이요

시집살이 노래는 전근대 사회의 남녀차별정책으로 여성들의 애환이 서려 있다. 여자의 삼종지도(三從之道)는 미덕이요, 가치관이었다. 그런 만큼 시집살이에 대한 노래는 전국에 고루 분포하고 비교적 전승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① 아버님생전	내에모래
어머님생전	내에모래
뭐나뭐나	해여가나
뒷동산에	앞동산에
송기 뜯어	송기 절편 해여가지
뭐에뭐에	담아가나
표주박에	담아가지
뭐나뭐나	덮어가나
자면지나	덮어가지
뭐나뭐나	입구가나
장삼이나	입구가지
뭐나뭐나	쓰구가나
송낙이나	쓰구가지
뭐나뭐나	신구가나

놋파리나	신구가지
뭐나뭐나	타구가나
앞동산에	뒷동산에
비루먹은	당나귀나 타구가지

② 남방비단	남지불에
북방비단	동정받고
안웃 그럼	닷 냥 팔이
겉웃 그럼	엿 냥 짜리
고름 끝을	보니 끄내
을조롱	조롱조롱
타기 싫은	쌍가매야
가기 싫은	시집이라
우리 형제	다놔두고
나다니는데	자치도
없어지네	
밤이면	한 베개요
낮이면	한 자리요
티미하다	어이 살꼬
설마후설	하건마는
수재도 한치	후룡같이
가르친다.	
어린 동생	큰동생은
주역주역	눈물이라
늙은 종	젊은 종은
목을 놓고	슬퍼운다
사촌 종적	다 모여서
니야 무슨	한이 있노
아부님은	대현서고
총총시야	좋은 집에

열두 마리	동봉말이
니야 무슨	한이 있노
생야라던	우리집에
일조에	이별하고
생부지자하고	남의 집을
내집같이	가는구나
고마가에	동의하니
새각 나절	다다르니
저무도록	무산눈물
저 동리가	그동리가
사백비단	푸른 후에
동서방네	들어가니
저무도록	지닌 달이
각토증이	절로 난다
짭쌀감주	냉냉체로
먹으라고	하는 것을
조심 많아	못먹겠네
안모하신	늙은이가
며느리도	잘도 봤다
그래도	좋거니와
얼굴도	디복하다
녹의홍상	새댁들이
첩첩이	들어앉아
안모하신	늙은이가
첩첩이	들어앉아
하로밤을	자고난 후
아버님도	하직하고
하인도	이별하고
숨은 눈물	울고 나서
문을 닫고	들앉으니

거룩하다	시어머니
시수물을	손에 들고
웃지 말고	분석객 다시하고
오는 손님	영접해라
웃구경	하러온다
웃밑에	있는 것을
가지가지	들쳐낸다
홧웃에	발린 솔과
접웃에	창침손과
흘웃에	가끔새를
들쳐보며	
<u>즈그끄정</u>	짓거리며
이상하다	도령수사
잘도 했다	
<u>즈그끄정</u>	오므리고
산들산들	웃는구나
사날있다	정주간에
들어가	
시아버님	그건님이
기미몰라	헤메시나
맛을 보고	싱거워도
조심이요	
짭아도	근심이요
정주간에	들지마라
불티맞이	오라케지
방앗간에	들지마라
등기패	오른다
놀다가	심심그면
상육이나	쳐봐라
어린 아이	첫술이나

쳐줘라	
비단처마	댕기건던
모시치마	입어봐라
암만 섬겨도	남산 안 보인다
한길에	가든 손님
친정손님	오시는가
손님이	대문밖으로가니
손님도	날 속인다
하인도	친정하인
오시는가	
하인도	날 속인다
하늘가에	저 기러기
친정에	댕겨오는고
그러구로	친정가는
날이 닥쳐	
열두 마리	도복받고
시아버님	비행서고
오던 길로	호행하니
앞에 모양	부지구나
뒤에 모양	정에구나
어떡어떡	말만 몰아다고
전에 보던	동산 닥쳤구나
아들이나	되었으면
한강물의	
저고기	잡아서
부모님	반찬할 것인데
여자몸이	되었으니
그리 못하겠네	
사촌형제	다모이네
날마장	잔치로다

달마장	추지로다
한달은	머리빛고
한달은	잠을자고
청도입구	밀양박씨
반별도	좋거니와
부모도	가지라고
남게도	준수하다
백사도	구비하다

③ 성님성님	사춘성님
시집살이	어쩝디까
고추당추	맵다해도
시집보덤	더매울까
시집삼년	살고 나면
미나리꽃이	다펴나네
장다리꽃이	다펴나네
미나리는	사철이요
장다리는	한철일세
성님성님	사춘성님
시집살이	어쩝디까
시집간지	사흘만에
부엌문을	열어보니
거미줄이	가뜩하고
솔뚜껑을	열어보니
녹이하나	가뜩하구
아궁지를	디려다보니
각시풀이	가뜩하구
물독을	디려다보니
쟁개비가	가뜩하구
열두 폭의	다홍치마

햇대끝에
들며나며
눈물씻기

걸어놓고
나며들며
다씻었네

7. 상사요

간다간다	간다더니
금일이야	나는 간다
간다간다	간다더니
금일이야	아조가나
낭군은	갈지라도
정을 두고	가오
산아산아	수양산아
놀기좋다	백두산아
임 그려	상사병에
약을 쓴다고	일어나며
바람불어	누운 나무
비가 온다고	일어날까
반달같은	얼굴에
홍우산을	받치고
인력거	바람에
장안사로	돌아든다

8. 산타령

나느니나	어허어허어허
네매해해해야	에해야
에해로	산이로고나

삼각산이	뚝 떨어져서
어정주춤	나려왔네
왕심산이	청룡산되고
동구재가	白虎로다 해에
팔도로 돌아와	遊山客인데
여덟도 명산이	금강산이라 하해
만첩산중	늙은 범이
살찐 암개	물어다 놓고
이는 빠져	못먹구요
첨만 바르고	어르기만한다 해에

9. 베틀가

베틀을 놓세 베틀을 놓세 옥낙간에다 베틀을 놓세
 에해요 베짜는 아가씨 사랑노래 베틀에 수심만 지노나
 양덕맹산 중세포요 길주명천 세복포로다
 반공중에 걸린 저달은 바듸장단에 다 넘어간다
 초산벽동 칠승포요 휘천강계 육승포로다
 춘포조포 생당포요 경상도라 안동포로다
 젊은 비단 생팔주요 늙은 비단 노방주로다

10. 풍년가

풍년이 왔네 풍년이 왔네 금수강산으로 풍년이 왔네
 지화 좋다 얼씨구나 좀도 좋냐 명년 춘삼월에 화류놀이를 가자
 올해도 풍년 내년에도 풍년 년년년년이 풍년이로구나
 지화 좋다 얼씨구나 좀도 좋냐 명년 하사월에 관등놀이를 가자
 천하지대본은 농사밖에 또 있는가 놀지말고서 농사에 힘씁시다

지화 좋다 얼씨구나 좀도 좋냐 명년 오뉴월에 탁족놀이를 가자
저건너 김풍현 거동을 봐라 노적가리 처다보며 춤만 덩실춘다
지화 좋다 얼씨구나 좀도 좋냐 명년 구시월에 단풍놀이를 가자
함경전 넓은 뜰 씨암탉 걸음으로 아기장 아장 걸어 광한루로 걸어간다
지화 좋다 얼씨구나 좀도 좋냐 명년 동지섣달에 설경놀이를 가자
봄이 왔네 봄이 왔네 삼천리 이강산에 봄이 돌아왔네
지화 좋다 얼씨구나 좀도 좋냐 명년 봄돌아 오면 화전놀이를 가자

11. 방아타령

① 예-혜-에혜이야 에라 우거라 방아로구나

반넘어 늙었으니 다시 젊기는 꽂집이 앵도라진다 엣다 좋구나
오초동남 너른 물에 오고가는 상고선은 순풍에 뜻을 달고 북을 두리등실 울리면서 어기여
차 닻감는 소리 원포귀범이 애혜라 이 아니란 말가
에-에-에혜이야 에라 우거라 방아로구나 널과 날과 닻이나 감어라 줄을 당기어라 물때가
막 늦어간다 엣타 좋구나
무산십이 높은 봉은 구름밖에 솟아있고 해외 소상 떠가는 배는 범여의 오후주요 운간으로
날아드는 새는 서왕모의 애혜라 청조로다
에-에-에혜이야 에라우거라 방아로구나 일락은 서산에 해떨어지고 월출동령에 저기 저달
이 막솟아 온다 엣타 좋구나
영산홍록 봄바람에 넘노나니 황봉백접 붉은꽃 푸른 잎은 산용수세를 그림하고 나는 나비
우는 새는 춘광춘홍을 애혜라 자랑한다
에-에-에혜이야 에라우거라 방아로구나 삼산은 반락에 모란봉이요 이수중분에 애혜라 능
라도로다
강원도 금강산에 일만이천봉 낮으신 성불 좌좌봉봉이 만물상이요 옥태수 좌르르 흐르는
물은 구룡소로만 애혜라 감돌아 듈다
에-에-에라우거라 방아로구나 산계야목은 가막능순이요 노류장화는 애혜라 인개가절이라
노자 좋구나
꽃같이 고운 님을 열매같이 맺어놓고 가지가지 뻗은정이 뿌리같이 깊었으니 백년이 진토

록 애해라 잘살아볼가 애-해-애해이야

이리렁성 저리렁성 흐트러진 근심 만화방창에 애해라 궁굴여라 노자 좋구나
이십오현 탄야우러에 불승청원 저기러기 갈순 하나를 입에다 물고 부러진 다리를 절절끌
며 점점이 날아드니 평사낙안이 애해라 이아니란말가

② 사설방아타령

경기도라 여주이천 물방아가 제일인데 오곡백곡 잡곡중에 자차벼만 짧어보세
애해-애 애해야 애라 우겨라 방아로구나
마탄금탄 여울물에 물레방아 돌고돌아 줄기차게 쏟는 물은 쿠궁쿵쿵 잘도 짧네
산에 올라 수진방아 들에 내려 디딜방아 돌고돌아 연자방아 시름잊고 짧어보세
자주짧는 깨방아요 원수끝에 보리방아 짧기좋은 나락방아 현미백미만 짧어보세
쿠궁쿵쿵 쿵닥쿵쿵 절굿대로 짧는방아 이방아를 어서 짧고 정든 님을 만나볼까
만첩청산 남글베어 이방아를 놓았구나 방아방아 상사디야 덜크더덩 잘도 짧네
산골짜기 졸졸물에 물방아를 놓았구나 방아짧는 저 차자는 달만보고 졸고 있네

③ 잣은 방아타령(자진모리)

어얼시구 저얼시구 잣은 방아로 돌여라
아하 하- 애해요 애해여라 방아 흥아로다
정월이라 십오일 구모리장군 긴코백이 액맥이 연이 떴다
애라디여- 애해요 애해여라 방아흥아로다
이월이라 한식날 종달새 떴다
삼월이라 삼진날 제비새끼 먹마구리 바람개비가 떴다
삼월이라 삼진날 제비새끼 먹마구리 바람개비가 떴다
사월이라 초파일 관등하려 임고대 사면보살 장안사 아가리 병실 잉어 등에 등대줄이 떴다
오월이라 단오일 송백수양 푸른 가지 놓다랗게 그네매고 작작도화 늘어진 가지 백능버선
에 두 발길로 후리쳐 톡툭차니 낙엽이 둉실 떴다
강원도라 영천읍 물방아가 없다드니 밉지않은 처녀가 등구방아만 짧는다

12. 금강산 타령

천하명산 어디메뇨 천하명산 구경 갈제 동해끼고 솟은 산이
일만이천 봉오리가 구름같이 벼렸으니 금강산이 분명구나
장안사를 구경하고 명경대에 다리 쉬여 망군대를 올라가니
마의태자 어디갔노 바위우에 얹힌 꿈은 추모하는 누흔뿐이로다
종소리와 염불소리 바람결에 들려오고 옥류금류 열두 담이
구비구비 흘렀으니 선경인듯 극낙인듯 만물상이 더욱좋다
기암괴석 절경속에 금강수가 새음솟고 구름줄기 몸에감고
쇠사다리 더듬어서 발옮기어 올라가니 비로봉이 장엄구나
만학천봉 충암절벽 머리숙여 굽어보니 구만장천걸인 폭포
은하수를 기울인듯 비류직하 삼천척은 예를 두고 이름인가
해금강 총석정에 죽장놓고 앉아보니 창파에 나는 백구
쌍거쌍래 한가롭다 봉래방장 영주산은 구름밖에 솟았구나
금강아 말물어보자 고금사를 다일러라 영웅호걸 재자가인이
몇몇이나 왔다갔노 물음에 대답은 없어도 너는 응당 알리로다

13. 노랫가락

충신은 만조정이요 효자열녀는 가가재라 화형제 낙처자하니 봉우유신 하오리라 우리도
성주모시고 태평성대를 누리리라
무량수각 집을 짓고 만수무강 혼판달어 삼신산 불로초를 여기저기 심어놓고 북당의 학발
양친을 모시워다가 년년익수
송악산 나리는 안개 용수봉의 구진비되어 선죽교 맑은 물에 원앙선을 띠워놓고 밤중만 월
색을 조차 완월장취
무궁화 옛등걸에 광명의 새봄이 다시왔다 삼천리 뻗은가지 줄기줄기 꽃이로다 아무리 풍
우가 심한들 피는 꽃을 어이하리
인연없는 그사랑을 잊어무방 하련마는 든정이 병이 되어 살으나니 간장이라 지금에 뉘우
친들 무삼소용
공자님 심으신 남게 안연증자로 물을 주어 자사로 뻗은 가지 맹자꽃이 피었도다 아무리

그꽃이름은 천추만대에 무궁환가
울밑에 벽오동심어 봉황을 보라드니 봉황은 제아니오고 날아드느니 오작이로다 동자야
저오작 쫓아라 봉황이 앓게
님을 믿을것이냐 못믿을 것은 님이로다 믿을만한 사시절도 전혀 믿지는 못하려든 하물며
남의 님 정이야 어이전정으로 믿을소냐
운종용 풍종호라 용이 가는데 구름이 가고 범가는데 바람이가니 금일송군 나도가요 천리
에 님이별하고 주야상사로 잠못 일워
알뜰살뜰 맷은사랑 울며불며 헤어지니 아프고 쓰린 가슴 어이달래 진정하리 아마도 자고
청춘이 일로백발
세파에 시달린몸 산간을 의지하니 승방의 늦은 종소리 이내 시름을 아뢰는듯 아서라 다떨
쳐버리고 염불공부나 하여볼까
만균을 늘여내여 길게길게 노를꼬아 구만장천 가는 해를 휘휘칭칭 잡아매어 북당의 학발
양친을 더디늙게 하리로다
사랑도 거짓말이요 님이 날 위함도 또 거짓말 꿈에 와서 보인다하니 그것도 역시 못믿겠
구려 날같이 잡 못이루면 꿈인들 어이 꿀 수 있나
언덕에 들국화는 서리속에 애련하다 못휘는 절개라고 송죽만을 자랑하리 연약한 화초라
한들 한뜻지켜 피였구나
백두산 때구름지고 두만강 상에 실안개 끼니 비가올지 눈이 올지 바람불고 된서리칠지 님
이 올지 사랑이 올지 가이만 홀로 짓고 있네
사랑도 하여보고 실망실연도 당했노라 오동추야 긴긴밤에 기다리기도 하였노라 쓰리고
아픈 가슴을 쥐고 울기도 하였노라
내한을 누구를 주고 누구의 한을 가져다가 한평생 기나긴 밤을 한속에서 새는구나 한중에
말못할 한이 더욱 설워
청산이 불로하니 미록이 장생하고 강한이 무궁하니 백구의 부귀로다 우리도 이 강산풍경
에 분별없이 늙으리라

〈백운화〉

제5장 설화

제1절 개요

전설은 한 민족 사이에서 옛부터 전해오는 이야기이다. 그러므로 전설은 그 민족의 신앙·풍습·생활관·심리·정신문화의 밑바탕을 이루며 고유문화 현상을 보여준다. 이러한 면에서 전설 속의 풍부한 환상·신비·상징성 등은 예술적 요소로서도 훌륭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우리 지역에 퍼져 있는 전설 중에서 대표적인 것만을 골라 살펴보기로 한다.

제2절 동두천의 전설

1. 아들바위

동두천시 탑동에 있는 바위이다. 낙모루(落隅)마을과 동점(銅店)마을 중간지점인 개천 가운데 우뚝 선 두 개의 바위가 아들바위인데 옛날 자손이 없는 사람들이 자녀를 얻기 위해 개울 건너에 바위 하나를 지정하여 아들바위라 지칭하고 낙모루 마을 서향 30m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낭바위에 앉아서 돌을 던져 아들바위를 맞히면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2. 송아지 소(沼)

세목(細目)마을 입구에 폭포가 있고 그 폭포가 떨어지는 곳을 송아지 소(沼)라 부른다. 300여 년 전 이 폭포수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들리곤 했는데, 그 소리가 들린 후부터는 들에 매어 놓

은 소가 없어지곤 하여 하루는 동네 사람들이 숨어서 살펴 보니 폭포수에서 큰 이무기가 나와서 소를 끌고 그 소(沼)로 들어갔다고 한다. 그 후부터 사람들은 송아지가 들어간 소(沼)라 하여 송아지 소라고 부르고 있다.

3. 온수골

온수골은 천보산과 칠봉산이 서로 분지하는 서쪽 골짜기로 내동마을과 연결된다.

구전에 의하면 200여 년 전까지 이곳에서 온수가 나왔다고 한다. 그래서 이곳을 온수골이라 부르게 되었는데, 옛날에 피부병이 있는 어떤 환자가 이 물로 목욕을 하고 완치되었다. 그런데 그 소문이 원근에 퍼져 피부병 환자가 너무 많이 찾아 들어 마을 사람들이 온통 그 치다거리에 염증이 나 의논 끝에 온수가 나오는 우물을 묻어 버렸다. 근년에 일부 업자들에 의해 온천수 개발이 진행되더니 지금은 중단된 것 같다.

4. 마차산과 설인귀(薛仁貴)의 비(碑)

마차산(磨叉山)은 동안동, 상봉암동과 연천군 전곡면 천파리 경계에 서있는 산으로 높이가 587m이다. 구전에 의하면 당나라 장수 설인귀가 당나라가 평양(平壤)에 설치한 안동도호부(安東都護府)의 검교안동도호부(檢校安東都護府)로 부임하여 고구려 땅을 9도독부 42주(州) 100 현(縣)으로 나누어 관찰하였다고 한다. 이때 설인귀(薛仁貴)가 마차산 정상에 비를 세웠다고 한다.

또 구전에 의하면 아주 먼 옛날 천파리에 살던 김씨 성을 가진 한 노인이 있었는데, 어느날 꿈에 자기 집에서 기르는 황소가 마차산 정상에 서 있는 설인귀 비를 감악산 정상으로 옮겨 놓는지라 하도 꿈이 생생하여 눈을 뜨고 일어나 외양간에 가보았다. 그런데 소가 땀을 비오듯 흘리며 지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겨 날이 새기를 기다렸다가 마차산에 올라가보니 비(碑)는 오간데 없고 황소 발자국이 남아 있어 그 발자국을 따라가다 보니 어느새 감악산 정상까지 도달하게 되었다. 그런데 바로 그 앞에 비가 옮겨져 있었다. 노인은 '아마도 이것은 분명 산신령의 계시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고 이 사실을 인근 마을에 알려 주민들과 의논한 끝에, '이 비는 신성한 효험을 가진 비이니 우리 모두 이제부터 비에 치성을 드려야 한다'고 결의하고 그

때부터 매년 춘추로 치성을 드렸다고 한다. 그후부터 지금까지 치성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고 한다.

5. 사천리 사지(沙川里 寺址)

상패동 536번지에 위치한 곳으로 이곳을 뵠 또는 절터골이라 부른다. 여기에는 미완성의 석 불입상(石佛立像)이 남아 있다.

6. 금송굴(金宋窟)

소요산 자재암(自在庵)에서 남쪽 의상대 쪽으로 오르다 보면 7부 능선 정도에 천연동굴이 있는데 바로 이 동굴이 금송굴이다. 굴의 깊이는 10m, 폭은 5.6m 정도로 장정 30~40 명이 들어가 쉴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며 굴 안에 1평 반 가량되는 공간은 방같이 꾸며져 있다.

경주 김씨 이판공파(吏判公派)와 여산 송씨 세보를 보면 금송굴에 대한 내용이 실려 있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김상촌의 7세손 김륙의 가솔과 중종 때 영의정을 지낸 송질의 6세손 송명업이 임진왜란 때 이 곳에서 난을 피했다고 적고 있으며 송명업은 병자호란 때 이 굴에서 피난 중 죽었다고 되어 있다. 그후부터 이 굴을 김씨와 송씨가 피난한 굴이란 뜻으로 금송굴이라 전하고 있다. 지금 이 굴에는 박쥐들이 서식하고 있으며 등산객들의 휴식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7. 중사리낭골

광암동 내촌(內村)마을 (현 미 2사단 영내)의 뒷산 골짜기를 중수낭골[衆首囊谷] 또는 중사리낭골이라고 부른다. 구전에 의하면 고려 때부터 승려들의 화장장이 있어 그 골짜기를 이와 같이 불렀다 한다.

광암동은 회암사(檜岩寺)와 소요산 자재암의 중간지점으로 많은 절터가 현재까지 남아 있다.

8. 황희대(黃喜垈)

황희대(黃喜垈)는 조선 세종 때의 명재상(名宰相) 황희 정승이 이곳에서 얼마동안 머물렀다 하여 그곳을 황희대로 기념해 불러왔다. 이러한 영유로 점차 와전되어 '황하터' 또는 '황아터'라 불리고 있다.

9. 행단(杏壇)

지행동 행단마을(사당골)에는 천년에 가까운 세월동안 의연하게 이 마을을 지켜오고 있는 노거수(老巨樹)인 은행나무가 있다.

그 동쪽 산기슭에 자리잡고 있는 집은 지금으로부터 550여 년 전 성종 때의 대명장(大名將) 어유소(魚有沼)가 태어난 집이라고 한다.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분수와 개축으로 본래의 모습을 잃고 평범한 농가로 타성(他姓)이 살고 있으나 어유소 장군의 생가라는 사실이 아득한 옛 일을 회상하게 한다.

어장군은 이 은행나무 밑에 단을 쌓고 학문과 무예를 연마하여 무과에 장원하고 큰 인물이 되었다고 하며, 그 후부터 마을 이름을 행단이라고 불려 전해진다고 한다. 그리고 어장군의 자(字)와 휘(諱)가 이 연못에서 유래한다고 전하고 있다.

10. 아차노리(峨嵯洞)

이 곳의 유래는 고려 말 무학대사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한다. 무학대사는 주왕의 묘자리를 잡기 위하여 천보산맥(天寶山脈)을 따라 지금의 아차동까지 왔다고 한다.

천보산의 형세로 보아 분명 대지가 있을 것으로 확신하였던 무학산맥이 여기서 끊기고 자신이 예측하였던 것과 크게 어긋났음을 알자 '앗차' 하고 자신의 지술(地術)이 부족함을 자책(自責)하였다고 한다. 결국 무학대사는 그 부근에다 주왕의 묘를 정하였다고 하며 그 후 주왕의 행자가 그 곳에 와서 묘막을 짓고 있었다 하여 그 골짜기를 가리켜 '행자막골'이라 하였는데 점차 와전되어 '함지막골'로 불려오고 있다. 마을 이름은 무학이 자탄하고 '앗차' 한 것을 그대로 불어 왔으며 한자로 표기하기를 천보산 봉우리가 높고 험한 것을 뜻하여 '아차'로 하여 음을 같이

하였다. 이러한 연유로 아차노리가 점차 변하여 아치노리가 된 것이다.

11. 도독골(都督谷)

송내동 산 57번지를 도독골(都督谷)이라 불리어 온다. 구전에 의하면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敬順王)이 935년 고려에 항복하자 경순왕의 친족(親族)들을 보호·감금하기 위하여 이곳에 도독부를 설치하고 호위병을 배치하였으며, 이 지방에서 거둔 조세로 생활해 나가도록 위리안치(圍離安置) 한 곳이라 한다. 그 후부터 이곳을 도독골로 칭하여 왔으며 이 산골짜기를 대대장골, 중대장골로 부른다.

12. 진터(陣址)뜰

송내동(松內洞)과 지행동(紙杏洞) 서향에 펼쳐진 들판은 옛날부터 진터뜰이라 구전되고 있다. 일설에는 중종(中宗)의 딸이자 선조(宣祖)의 고모인 정순옹주(貞順翁主), 여성위(礪城尉) 송인(宋寅)의 배위(配位) 장례 때 장지인 양주군 은현면 선암리 소래산까지 선조가 몸소 와서 머무는 관계로 호위 군사들이 진(陣)을 치고 있었다 하여 진터로 불려 전해오고 있다고 한다. 또 한 설(說)에는 김유신 장군이 고구려를 쳤다가 연개소문에 패하여 후퇴하며 이곳에 진을 치고 전열을 가다듬기 위해 머물렀던 곳이라고 전해지기도 한다.

13. 불당골(佛堂谷)

광암 6통 골짜기 끝에 불당터(佛堂谷)가 있다. 조선 인조 때의 이상급(1571~1637)의 처 박씨는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난을 피해 이곳에 와 있었는데 남편 이상급이 강화도에서 전사하였다는 부음을 듣고 이곳에 불당을 쌓고 남편의 영혼을 위로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밭으로 변하여 지명만 전해지고 있으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밭 주변에서 기와조각이 발견되곤 했다고 한다.

14. 어등산(御登山)

생연동과 광암동 사이의 산이 어등산(御登山)이다. 구전에 의하면 어유소 장군이 성종대왕을 모시고 이 산에서 사냥을 했다고 하는 데서 임금이 오른산이라 하여 어등산으로 불려지게 되었다고 한다.

15. 국사봉(國射峰)

조선 세조는 과거를 후회하고 말년에 산수를 벗삼아 명산대찰(名山大刹)을 찾고 수렵에도 취미를 가졌다. 하루는 신하들과 함께 칠봉산에 사냥을 나왔다. 수렵할 때는 사방위 중에서 어느 한 곳을 정하여 시사(示射)를 하고 그 다음에 사냥이 시작되는데, 이 관례대로 왕은 칠봉산에서 동북방으로 마주보이는 왕방산의 주봉(主峰)을 겨누어 활을 쏘았다가하여 그 주봉을 국사봉(國射峰)이라 이름한다.

16. 밤나무골(栗木洞)

옛날에는 이곳을 양주 밤나무골이라 불렀는데 조선 명종 때의 양주 백정 임꺽정(林臣正)이 숨어서 인근 고을에 출몰하던 은거지로 명종 14년(1559)부터 수년간 이곳에 머물러 있었다고 한다.

임꺽정(?~1562)은 조선 명종 때의 협도(俠盜)이며 양주의 백정으로 지혜로우면서도 담대하였다. 당쟁으로 조정의 기강이 문란하고 사회질서가 어지러웠을 때 수년간 황해도와 경기도 일대을 횡행하면서 탐관오리들을 잡아 죽이고, 여러 고을을 소란케 하다가 재령(載寧)에서 황해도 토포사(討捕使) 남치근(南致勤)에게 잡혀 죽었다.

17. 요석공주 궁터(瑤石公主宮址)

원효대사(元曉大師)가 소요산 자재암에 기거할 때 요석공주가 아들 설총(薛聰)을 데리고 와

서 이곳에다 조그만 궁을 짓고 원효대사를 모시며 머물렀다는 데서 유래한다. 현재의 위치는 소요산 매표소 동쪽 20m 좌측에 요석공주지라는 작은 안내표석이 있다. 그러나 허목의 소요산기에 따르면 요석공주 궁지는 원효폭포에서 서북쪽 80장(丈)이라고 하였으니 현재의 위치가 아니고 소요산 팔주문 못 미쳐 약 100m 지점 길모퉁이 공간이다. 옛날부터 요석공주 궁지라고 한 노인들의 구전이 허목의 기록과 일치한다.

18. 이태조 궁지(李太祖 宮址)

조선 태조 이성계는 자식들 간에 왕권다툼으로 혈육상쟁(血肉相爭)이 벌어지자 왕위에서 물러나 이곳 소요산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때 거처하던 곳을 이태조 궁지라 한다. 그 위치는 소요산 입구의 오른쪽 측과 넓은 들판을 궁지전(宮址田) 또는 궁터들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숲이 우거진 산자락이다.

19. 감지(鑑池)

해룡산 정상(頂上)에 위치한 곳으로 천호(天湖)라고도 불려 전해지는 못이다. 비를 빌면 효험이 있다 하였으며 인마(人馬)가 못 가를 밟으면 비가 오거나 흐리기라도 하였다고 하나 지금은 그 자리만 남아 있을 뿐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다음과 같이 적혀있다.

有鑑池或稱天湖禱雨有驗俗傳人馬躡踏池傍不雨則陰云而今先其所俗傳

20. 배밀뚝

왕방산 정상에 박혀있는 배밀뚝의 유래는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 이 지방에 큰 홍수로 이곳 일대가 물에 잠겨 바다처럼 되었다고 한다. 그때 홍수를 피해 배를 타고 왕방산 정상에 다리를 매어놓고 물난리를 피했다고 전해지며 지금도 촌로들은 이 전설을 이야기하며 구전시키고 있다.

21. 부처고개

광암동에서 생연동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부처고개라 부른다. 구전에 의하면 500여 년 전 어느 풍수가(風水家)가 광암동을 바라보며 말하기를, 이곳엔 명당(明堂)이 많아 훌륭한 인물이 나올만한데 지기(地氣)가 흐르는 형국이라 이것만 막는다면 하고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한다.

이후 마을 사람들이 고개마루에 석불(石佛)을 세워 계절마다 치성(致誠)을 드려 마을의 안녕을 빌었다고 하며 이 때부터 부처가 서 있는 고개라 하여 부처고개(佛峴)라고 불러 전해진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해방 전후에 이곳에 고농산이 생기고 벌목 산판이 늘어나면서 도로가 넓혀지는 공사 중에 어느 몰지각한 인부에 의해 석불을 땅에 묻어 버렸다고 한다.

50여 년 전 혐로(險路)라고는 하지만 우리 지역에서 우마차(牛馬車)가 넘어 다닐 수 있는 유일한 도로였으며, 지금은 아스콘으로 포장된 4차선 도로로 포천을 연결하는 중요한 외각 도로이다.

22. 탑골고개(일명 오지재)

탑골고개는 탑골마을에서 동남쪽으로 포천군 포천면으로 이어지는 협로이다. 고개 정상이 동두천시와 포천군과의 경계를 이루며 북으로 해룡산이 펼쳐있고 남으로는 회암령과 주엽산이 펼쳐진다.

23. 수위봉고개

탑동의 왕방부락에서 북쪽으로 국사봉과 수위봉 사이에 있는 고개이다. 포천군 신북면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관통하며 해발 754m로 동두천시 관내에서 제일 높은 산이다.

국사봉 정상에 오르면 인근의 도시가 한눈에 들어오며 쾌청한 날씨에는 멀리 개성의 송악산과 서울의 관악산, 북악산이 시야에 들어온다.

고개 정상이 동두천시와 포천군의 경계이다.

24. 쇄고개

내행동 행단마을에서 남쪽의 송내동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쇄고개라고 한다. 이 고개 정상이 쇄가루와 흙으로 덮혀 있어 쇄고개 또는 쑥고개라 부른다.

25. 간폐고개

동안동 내안홍에서 서쪽으로 마차산 남록을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이 고개 정상을 넘어가면 연천군이 되며 고개 정상이 동두천시와 연천군의 경계를 이룬다.

26. 뱃골고개

송내동(현, 교육청 뒤) 아파트 촌에서 산고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뱃골고개라고 부른다. 구전에 의하면 옛날엔 이곳에 기와집이 백여 채나 있어 기와집이 백 채가 있던 동네라 하여 백골고개라 불러 왔는데 점차 와전되어 뱃골고개로 전해지고 있다.

27. 금동고개

보산동의 탑개울 마을에서 북쪽으로 포천군 신북면이나 청산면으로 가려면 이 고개를 넘어야 한다. 고개 정상이 동두천시와 포천군의 경계이고, 고개를 넘으면 열두개울이 펼쳐진다.

28. 덕고개

광암동 좌기골에서 서북쪽의 동두천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한국전쟁까지는 광암동과 탑동 등지에서 동두천을 가려면 반드시 넘어야 되는 고개이다. 지금은 미군이 주둔해 있는 관계로 사람들의 왕래가 뜸하다.

29. 산안고개(山內峴, 일명 끝양목고개)

광암동 세목마을의 북쪽에서 포천군 신북면 금동으로 이어지는 고개이다. 고개 정상이 동두천시와 포천군과의 경계로 조선 후기까지 서울 방면에서 철원이나 연천·영평 등지로 가려면 이 고개를 넘어야 했는데 관리들이 말을 타고 넘어 다니던 곳이라 하여 서반고개라고도 불려지며 고개 정상에 끝양목이 많다 하여 끝양목고개라고도 불려진다.

한국전쟁 당시 중공군이 이 고개를 넘어 남진하여 서울로 이어지는 지름길인 탑골고개를 관통해 축석령을 장악하여 포천에 주둔하고 있던 한국군 부대를 포위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혔던 군사적으로도 요충지(要衝地)가 되는 고개이기도 하다.

30. 왕방고개

탑동 왕방마을의 동쪽에서 포천군 포천면 선단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고개 정상이 동두천시와 포천군과의 경계로 북으로 왕방산이 펼쳐 있으며 남쪽으로 해룡산이 이어진다. 1950년대까지만 해도 백주에 호랑이가 나타나 이 고개를 넘으려면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같이 넘었다고 한다. 지금은 아스콘으로 잘 포장된 6m 도로로 포천군을 연결하는 동두천시의 중요한 외곽도로이다.

31. 회암고개

탑동 탑골마을의 남쪽에서 영주군 회천면 회암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고개 정상은 동두천시와 양주군 회천읍과의 경계를 이루는 곳으로, 천보산의 지맥이 남쪽으로 칠봉을 일으켜 절경을 펼친다. 대한제국 말까지 양주에서 산내면과 청송면을 가려면 이 고개를 넘어야 했지만 지금은 아스콘으로 포장된 6m의 동두천시의 중요한 외각 도로이다.

32. 마고개〔馬廄峴〕

생연2동에서 신천교를 건너 상폐동 동사무소를 지나 사천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마고개라고 부른다. 구전에 의하면 옛날 사천현(沙川縣) 당시 관아(官衙)에서 수십 마리의 말을 사육하였는데 그 마굿간이 이곳에 있었다고 하여 마구현이라 불려오던 것이 지금은 구자를 빼고 마고개〔馬峴〕로 불려지고 있다.

33. 돈넴이고개

이 고개는 회암령의 오지마루터기에서 해룡산의 서록을 가로질러 동점마을로 넘어가는 고갯길로 남북을 관통하는 지름길이다. 그 옛날 우마를 타고 다니던 시절 서울 방면에서 영평·철원·연천 등지를 왕래하려면 넘어야 하는 험준한 고개로, 옛날부터 산돼지가 넘어다니는 고개라 하여 돈넴이라고 구전되고 있다.

대한제국기 의병들이 이 고개를 막고 주변에 은거하며 일제에 대항하였던 의병들의 중요한 거점이기도 하였다.

34. 송터고개

생연 1동 사무소에서 목골로 넘어가는 나즈막한 언덕을 송터고개라고 부른다. 이 고개의 유래는 조선 중종 때 영의정을 지낸 송질의 후손 송반이 이 곳에 낙향하여 살던 집터가 있던 곳이라고 하여 이 고개를 송터고개라고 전해지고 있다.

35. 불당고개

광암동 6통의 자연촌인 골짜기 끝에서 개안이나 세목마을로 가려면 넘어야 되는 고개이다. 이 고개 마루에 불당터가 있어 불당고개라고 하는데 그 유래는 다음과 같다.

조선 인조 때 병조참의인 이상급(1571~1637)의 배위(配位)되는 울산 박씨가 병자호란(丙

子胡亂)이 일어나자 난을 피해 이곳 골말마을에 은거하며 난이 평정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뜻하지 않게 강화도에서 남편 이상급이 전사하였다는 부음이 당도하니 이곳에다 불당을 쌓고 남편의 영혼을 위로하였다고 하며, 이후부터 이 고개를 불당고개라고 불려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도 기와장의 잔해가 남아있다.

36. 기룡고개

현재는 미2사단의 영내에 위치하고 있으나 미군부대가 주둔하기 전에는 내촌마을에서 골말마을이나 기촌·조산·탑동 등지를 왕래하려면 이 고개를 넘어야 하는 요로이다.

기룡고개라고 하는 유래는 내촌부락의 토박이 성씨인 광주 이씨의 낙향조 이지운이 무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향리인 내촌으로 돌아올 때 마을 입구인 이곳 언덕에다 장원기를 꽂아 놓고 잠시 쉬었다고 하는데, 그 후부터 이 언덕이 기룡고개라고 불려 전해지고 있다.

37. 천보산고개

송내동에서 동쪽으로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 온수골이 나타나고 조금 더 올라가면 천보산맥이 약해지면서 65° 정도로 경사를 이룬 산허리가 천보산고개이다.

정상이 송내동의 탑동과 경계를 이루며 고개 너머에는 탑동의 조산마을과 탑골마을이 전개된다. 1950년대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던 고개길이었으나 지금은 인적이 드문 산길로 등산객들이나 오고 갈 뿐이다.

38. 율목고개

동점마을에서 동북쪽으로 계곡을 따라 600m 정도만 올라가면 고개 정상이며 정상이 바로 광암동의 세목마을과 탑동의 동점마을 간의 경계이다. 1973년 7월 1일 전까지는 포천군과 동두천시의 경계지점이기도 하였다. 옛날부터 이곳에 밤나무가 많다 하여 지명이 밤나무골이라고 불려 전해지고 있으며, 몇십년 전까지만 해도 인가 몇 채가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도 집터 흔적

이 남아있다. 조선 명종 때의 임꺽정이 이곳에서 은거하며 연천지방에 출몰하였다고 촌로들은 입을 모아 말하고 있다.

이 고개를 넘어 국사봉의 동록을 가로질러 2km 정도의 험로를 가다보면 서반고개가 나타나고 포천군 신북면 금동과 연결된다. 조선시대에는 양주지방과 포천군, 연천군 철원 등지를 왕래하는 요로였다.

39. 구리개고개

상패동의 사천마을에서 북쪽으로 동안동의 자연마을인 담안으로 연결되는 산길로 마차산의 남쪽 자락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고개를 구리개고개라고 부른다. 우리 지방에서는 이 고개에 대해 많은 전설이 전해지고 있는데 일설에 의한 고개의 유래는 다음과 같다.

임진왜란 때 왜병이 북진하면서 이 고개를 넘을 때 사천지방에 주둔하고 있던 의병들이 구리로 만든 도리깨를 무기로 왜병과 치열한 전투를 전개하여 왜병들이 타고 있던 말 수십 필을 빼앗았는데 그 중 몇 마리가 죽어 고개 중턱에 매장하였다고 한다. 고개 정상 옆으로 작은 봉우리를 매봉재라 부르고, 그 아래 넓은 비탈을 복치밭이라고 하는데 모두가 우리에겐 낯설지 않은 지명들이다.

옛날부터 이 고개가 요충지로 전해지는데 파주군 어유지리, 연천군 간파 등지에서도 의정부나 포천을 가려면 간파고개를 넘고 이 구리개 고개를 넘어야만 하였다.

40. 동점(銅店)고개

광암동 6통의 자연촌인 세목에서 남쪽으로 가려면 넘어야 하는 고개를 동점(銅店)고개라고 부른다. 세목에서 출발하여 이 고개를 넘다보면 정상 못 미쳐 석전(石田) 가운데서 솟아 오르는 약수가 있는데 길 가는 사람들의 길증을 풀어 줄 뿐만 아니라, 피부병이나 심장질환에 효험이 있다 하여 많은 사람들이 줄을 이어 물을 길어갔다는 설도 전해진다. 행정구역상으로는 이 고개 정상이 광암동과 탑동과의 경계를 이룬다.

41. 검모넴이고개

지행동의 자연촌인 안골에서 광암동 턱거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검모넴이라고 한다.

검모넴이라고 하는 지명은 옛날부터 이 곳에 검은 바위들이 무수히 널려 있어 '검모넴'이라고 불려지게 되었다고 한다. 1950년대 말까지만 해도 숲이 우거지고 고목이 많아 희귀 야생조류들의 군락지로 유명해져 조류학자들의 발길이 잦았던 곳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60년대 말부터 산림이 훼손되면서 유원지로 탈바꿈되어 그 옛날의 정취는 찾아볼 수 없는 삭막한 벌판으로 변했다. 근년에 와서 대진재단(大進財團)이 이곳을 사들여 종합병원 건물을 짓고 있다.

42. 서낭당고개

내행동의 생골마을에서 기상아파트를 잇는 4차선 도로를 따라 동북방향으로 가다보면 기상아파트 뒤로 나즈막한 언덕이 나타나는데 이곳이 서낭당고개이다. 고개 정상에 300여 년 된 느티나무가 풍상의 세월을 말해 주는 듯 우뚝한데 한눈에 이 노목이 영험을 가지고 서낭당을 지키는 수호신이라는 느낌을 주고 있다.

이 고개 바로 옆에 예비군 훈련장이 있으며 정상이 생연1동 연동마을과 내행동 생골마을과의 경계지점이다.

43. 덕수동(德水洞)고개

광암동 6통의 자연촌인 세목에서 북쪽으로 덕수동(德水洞)과 결산동을 연결하는 고개로 정상이 해발 500m나 되는 험준한 고개길이다.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왕래 하였으나 지금은 약초캐러 다니는 사람들이나 지날 뿐 인적이 아주 드문 산길이 되어 버렸다.

44. 못골고개

생연1동의 자연촌인 못골에서 동향으로 결산동 등지를 잇는 고개이다. 지금은 미2사단이 주

둔해 있어 농로로 이용할 뿐이지만 미군이 주둔하기 전에는 넓은 바위·점말·덕수동 등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사천이나 덕정 등지를 가려면 왕래하던 고개였다.

45. 감투고개

광암동 사방천(현재, 미2여단 주둔) 들판에서 생연동으로 넘어가는 고개길을 감투고개라고 한다. 고개 정상에서 능선을 따라 100m 지점에 옛날 사대부들이 쓰던 관모의 모양을 한 집채만 한 바위가 서 있는데, 전부터 이 바위를 감투바위라고 불러오고 있으며 그래서인지 이 고개를 감투고개라고 부른다.

46. 달맞이고개

신천마을에서 정감마을로 가려면 넘어야 하는 고개를 달맞이(또는 갈마지)고개라 부른다. 구전에 의하면 옛날부터 정감마을 주민들이 새해를 맞아 달맞이 행사를 이 고갯마루에서 계속해온 데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달맞이는 정월 15일(대보름)에 행해지는데 미혼인 자녀들의 1년간의 건강과 소원성취를 기원하는 행사이다. 시골에서는 주로 다복쑥을 꺾어서 해를 만드는데 나이 수대로 짚으로 동여 매어(5살이면 5마디, 10살이면 10마디) 달이 동녘에 떠오를 때를 기다려 달을 향하여 “달님사료 달님사료” 하고 외치면서 해를 휘두르며 태운다. 이 때는 대개 보호자들이 옆에서 어찌어찌하고 옛 풍속대로 일러준다.

47. 놀이목고개

정감마을에서 사천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놀이목고개라 부른다. 고개 정상엔 성황당이 있어 마을 사람들이 자주 찾아와 무병장수를 빌 뿐만 아니라 소원을 축원하면 영험을 얻는다고 하여 인근 무속인들까지도 이 성황당을 찾는다고 한다. 정감마을 주민과 사천마을 주민들도 추수가 끝나면 10월 상달에 길일을 잡아 이 성황당 신에게 치성을 드리고 정월 15일(대보름)에는 주민들 합동으로 이 성황당에 치성을 드린다고 한다.

48. 소리개고개

신천마을 10통에서 동안동 담안마을로 넘어가는 고개를 소리개고개라 부른다. 구전에 의하면 사천현 당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던 요로로서 산세가 아름다울뿐만 아니라 산자락이 여러 굽이로 험하지 않는 고개길이다.

또한 산이 남향으로 이어져 있어 옛날에는 사대부들이 자주 찾아와 매사냥을 즐기던 고개라 하여 소리개고개라고 불려지고 있으며, 지금은 약초 캐는 사람이나 등산가들이 오고 가는 인적 이 드문 고개가 되어 있다.

49. 능안고개

능안마을에서 지동마을로 넘어가는 고개를 능안고개라고 부른다. 능안이라는 유래는 이 마을 뒷산에 곽정승의 묘가 있어 풍수지리상 능터자리라 하여 능안이라고 불려지고 있는데 지금은 그 곽정승의 묘는 보이지 않는다.

지금은 이 고개 밑이 에이스 아파트 단지로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지금도 이 고갯길은 조골을 왕래하는 지름길로 사용되고 있다.

50. 말턱고개

이 고개는 현재 동두천시와 연천군의 경계이며 옛날에는 서울에서 원산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였다고 한다. 지명의 유래는 위낙 고개가 험하고 지금은 없지만 수목이 우거졌기 때문에 말이 고개를 오를 때 말의 턱이 고개에서 닿았다고 하며 또한 이곳에서 말이 쉬어가곤 했다고 하여 말턱고개라고 불려졌다고 한다. 그러나 경원선 철로가 놓아지면서 3번 국도가 지나는 요로가 되어 점차 언덕이 낮아졌고, 지금은 4차선 대로가 되어 옛 이름이 어울리지 않는다. 고개 정상은 동두천시와 연천군 청산면과 경계를 이루는 지점이다.

〈조 규 진〉

제6장 민속어

제1절 속담

속담은 옛날부터 전해오는 말 중의 하나로 어느 때, 어디서, 누가 말했는지는 모르나 여러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오면서 짧고 간결하게 다듬어져 짧은 말로 그 뜻을 분명하게 나타내어 쉽게 잊혀지지 않는 교훈을 담고 있는 말이다. 이러한 속담은 우리의 언어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민중에 의해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나 널리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민족의 마음이 반영되고, 민중의 꿈과 삶의 슬기·유머·아이러니가 색동저고리의 무늬처럼 아로새겨져 있다고 하겠다.

속담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사회적 소산이란 점에서 민중의 생활철학과 향토성, 그리고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간결한 형식을 취하고 있고, 우리의 언어생활을 윤택하게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 속담은 한 시대의 문화적 정서에 따라 생성·사멸되기도 하는데,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인든 새롭게 생성되는 것인든 모두가 우리 고유의 민속이라는 점에서 매우 귀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본절에 수록된 속담은 1994년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생연1동에 위치한 동두천 중학교 3학년 5개반 학생들을 통해 조사된 것과 관내의 노인정을 방문하여 조사된 것이다. 전자의 경우는 동두천중학교 서규석 교감선생님의 협조 덕택인데, 속담에 대한 설명과 학생 본인은 물론 부모님이나 이웃어른께 도움을 받아 조사하라는 내용의 조사표를 담임선생님을 통해 학생들에게 전달하여 조사하였다. 조사표는 약 97%가 회수되어 괄목할 만한 성과를 얻었다고 하겠다.

이 글에서는 속담을 운명, 처신, 심성, 성품과 각 계층간의 생활상 등 모두 열네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또한 각 유형으로 분류된 속담을 자모 순으로 정리하였으며, 보는 이의 이해를 돋고자 《속담사전》(종로서적 출판사, 1993), 《한국 속담사전》(문학출판사, 1991), 《한국속담 활용사전》(도서출판 한울, 1993) 등의 속담사전을 참고로 하여 속담의 뜻을 밝히는 방법으로 작성하였다.

1. 운명

- 가난은 죄가 아니다 : 죄를 받아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가난은 한때의 운명이다.
- 거지도 쌀밥 먹을 날이 있다 : 고생하는 사람도 잘 살 때가 있다.
- 날 받아 놓고 죽는 사람 없다 : 사람은 언제 어디서 죽을지 모른다.
- 달도 차면 이지러진다.
- 대문밖이 저승이다 : 죽음이란 먼 곳에 있는 것 같으나, 실상 가까운 곳에 있다.
- 물에 죽을 팔자면, 접시 물에도 빠져 죽는다.
- 부모가 반 팔자다.
- 음지가 양지 되고 양지가 음지 된다.
- 이고 지고 가도, 제 복 없으면 못 산다.
- 작은 복은 제게 달렸고, 큰 복은 하늘에 달렸다.
- 제 팔자 개〔犬〕 못 준다.
- 쥐구멍에도 별들 날 있다.
- 파리 목숨이다 : 사람의 목숨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짧은 목숨이다.
- 헌 짚신도 짹이 있다.

2. 쳐신

- 가는 말에도 채를 치랬다 : 일이 잘되어 나가더라도 방심하지 말고 더욱 노력해야 한다.
-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다.
- 가려운데 긁을 줄 알아야 한다 : 남의 어려운 사정을 알면, 동정할 줄 알아야 한다.
-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
- 개구리도 움쳐야 뛴다 : 아무리 급하더라도 어떤 일을 이루려면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준비를 해야 한다.
- 개도 기르면, 은혜를 안다 : 남으로부터 입는 은혜를 잊지 말고 갚도록 해야 한다.
- 개도 주인은 물지 않는다 : 주인에게 잘못이 있더라도 그를 해쳐서는 안된다.
- 개도 주인을 알아본다 :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감사해야 한다.

- 겉보리 서 말만 있으면 처가살이 할까 : 아무리 살기에 고생스럽더라도 처가의 도움을 받지 말도록 하라는 뜻.
- 곡식은 잘 될수록 고개를 숙인다 : 겸손해야 한다.
- 곰은 쓸개 때문에 죽고, 사람은 혀 때문에 죽는다 : 말을 조심해야 한다.
- 공든 탑이 무너지랴.
-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까 : 다소 방해가 되는 일이 있더라도 해야 할 일은 마땅히 해야 한다.
- 굳은 땅에 물이 고인다 :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재물을 함부로 쓰지 말고 절약해야 한다.
- 귀는 크게 열고, 입은 작게 열랬다 : 많이 들을 필요는 있지만, 말은 적게하는 것이 좋다.
- 귀신도 빌면 듣는다 :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심으로 비는 사람은 용서를 해 주어야 한다.
- 급하다고 바늘 허리에 실 매어 쓸까.
- 급히 먹는 밥에 체한다 : 일을 급하게 서둘러 하지 말라.
- 나가는 이삿짐 밀어내고, 들어오는 이삿짐은 받아들인다.
- 남의 눈에 눈물 내면, 제 눈에는 피가 난다 : 남에게 악독한 짓을 해서는 안된다는 뜻.
- 남의 흥 한 가지면, 제 흥이 열 가지.
- 남자의 말 한 마디는 천금보다 무겁다.
- 낫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 다리도 뻣을 자리 보고 뻣는다 : 일을 할 때는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미리 생각해 본 다음에 시작하도록 하라.
- 낫 잡아 쥐를 나그네 소잡아 쥐는다 : 재물을 제 때에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
- 땅을 열 길 파면 돈 한 푼 생기나 : 헛수고를 하지 말고, 소득이 있는 일을 하라는 뜻.
- 돌다리도 두들겨 보면서 건너라.
- 뜻은 건드릴수록 구린내만 난다 : 못된 사람을 건드리면 불쾌한 일만 생기니, 그러한 사람은 건드리지 말고 상대도 하지 말아야 한다.
-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 말에 밑천 들지 않는다 : 말 하는 데는 돈이 들지 않으므로, 말은 친절하게 해야 한다.
- 모르면 약이요, 알면 병이라 : 남이 싫어하므로 모르면서 아는 척하여 지껄이지 말라.
- 물은 깊을수록 소리가 없다 : 겸손해야 한다.
- 바람에 잘 견디는 나무는 뿌리가 튼튼하다 : 무슨 일에서나 기반을 튼튼하게 해 두어야 한다.

한다.

- 백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없다 : 어려운 일이라도 성취하려면 초지일관하여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
- 범 굴에 들어가야 범을 잡는다 : 발 벗고 나서야 비로소 성공할 수 있다.
- 부러질 망정 휘어지지 않아야 한다 : 어떠한 곤란을 당하더라도 지조를 굽혀서는 안된다.
- 부지런한 부자는 하늘도 못 막는다 : 잘 살려면 부지런히 일하도록 해야 한다.
- 손자를 귀여워하면 할아버지 상투를 당긴다.
- 쇠뿔도 단김에 빼라 : 일은 열이 나는 그 당장에 해치우도록 하라.
- 스스로 뿌린 씨앗은 그 자신이 거둔다.
- 아는 길도 물어 가라 : 쉬운 일에도 조심하여 물어서 틀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얇은 물은 소리를 내도, 깊은 물은 소리가 없다 : 아는 체하지 말고 묵중(默重)해야 한다.
- '어' 해 다르고, '아' 해 다르다 : 비록 사소한 차이가 있는 말일지라도 상대방에게 주는 느낌이 다르므로 말씨에 조심해야 한다.
-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 입에 쓴 약이 병에는 좋다 : 자기에게 충고하는 말이 듣기 싫은 것일지라도, 그것은 자기를 도와주는 말이기 때문에 자기수양을 위해서는 달게 받아들여야 한다.
- 입은 거지는 얻어 먹어도, 벗은 거지는 못 얻어 먹는다 : 옥 차림새를 깨끗이 해야 한다.
- 자는 놈의 뜻은 없어도 나간 놈의 뜻은 있다 : 게으름을 부리면 혜택을 입을 수 없으니, 부지런히 일하도록 하라.
- 자식 자랑과 남편 자랑은 팔불출의 하나.
- 잠을 자야 꿈을 꾼다 : 어떤 일을 이루려면 선행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절하고 뺨 맞는 일 없다.
- 짊어서 고생은 돈 주고도 못 산다.
- 정에서 노염이 난다 : 아무리 친한 사이에서도 예절을 지켜야 한다.
- 주인 많은 나그네 조석이 간데 없다 : 무슨 일이든 한 곳으로만 하라.
- 지성이면 감천이다.
- 친물도 위아래가 있다 : 무엇에나 순서가 있으니 그 순서를 따라 해야 한다는 뜻.
- 천냥 빚도 말로 갚는다 : 말을 현명하게 잘해야 이익을 보게 된다.
-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이다.
- 철 들자 망령난다 : 인생은 길지 않으므로 사람은 곧 늙어진다.

- 첫 술에 배 부르랴 :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 칼날 흠은 고쳐도, 말 흠은 못 고친다 : 말을 조심해야 한다.
- 큰 굿 한 집에 저녁이 없다 : 고생을 하지 않으려면 재물을 아껴 쓰도록 하라.
- 토끼 둘 잡으려다가 하나도 못 잡는다 : 욕심을 내어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면 하나도 이루지 못하니, 하나의 일에만 힘을 쓰도록 하라.
- 티끌 모아 태산 : 적은 것이라도 많이 모으면 큰 것이 되니, 저축에 힘써야 한다.
- 한 번 엎지른 물은 다시 주워 담지 못한다.
- 한 잔 술에 눈물난다 : 사소한 일로 인하여 원한이 생기는 수도 있으니, 사람을 대접할 때 어떤 사람에게는 후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박하게 하는 일 없이 고르게 해야 한다.
- 헤엄 잘 치는 놈 물에 빠져 죽고, 나무에 잘 오르는 놈 나무에서 떨어져 죽는다.
- 혀는 칼보다 날카롭다 : 남을 말로 혜치는 것이 칼로 혜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다.
-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 아주 사소한 결함이라하여 그것에 손을 대지 않으면 그것이 커져 망치게 되니, 미리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 화살을 쏘고 주워도, 말은 하고 못 줍는다 : 말을 조심해야 한다.
- 휘는 벼들가지는 부러지지 않는다 : 사람은 부드러운 성격을 지녀야 한다.

3. 심 성

- 가까운 남이 먼 일가보다 낫다 : 멀리 있는 친척보다도 이웃에서 자주 만나는 사람과 더 친근해 진다.
- 가난하면 친척도 멀어진다 : 가난하게 되면 친한 사람이라도 그를 멀리하게 된다.
- 가재는 게 편이다 : 서로 비슷한 사람끼리 서로 친하게 따르며 어울리게 된다.
- 갑갑한 놈이 송사한다 : 누구나 곤경에 빠지면 거기서 벗어나려는 궁리를 하게 마련이다.
- 개꼬리 삼년 두어도 황모(黃毛) 못 된다 : 타고난 좋지 않은 성질은 언제까지 가도 변하지 않는다.
- 개 눈에는 뚱만 보인다 : 어떤 것을 좋아하면 다른 것도 그와 같은 것으로 여기게 된다.
- 공것이라면 양잿물도 들고 마신다.
- 과부사정은 과부가 안다 : 어려운 처지에 같이 놓인 사람들은 서로의 사정을 잘 이해한다.
- 굼벵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멸시를 당하면 반항을 하게 된다.

- 귀신은 경문에 막히고, 사람은 인정에 막힌다 : 사람은 인정이 있어서 사정하는 사람에게는 심하게 대하지 않는다.
- 남의 짐이 가벼워 보인다 : 남의 고통이 더 큰 것이 사실이라도 자기가 직접 당하고 있는 괴로움을 더 큰 것으로 여긴다.
- 놓친 고기가 더 크다 : 잃은 것을 애석하게 여겨 현재 가지고 있는 것보다 먼저의 것이 더 나은 것으로 보인다.
- 도둑 맞으면 어미 품도 들춰 본다 : 물건을 잃게 되면 남을 의심하게 되며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사람까지도 의심하게 된다.
- 도둑질한 사람은 오그리고 자고 도둑 맞은 사람은 퍼고 잔다.
- 뒷간 문은 열수록 구린내만 난다 : 악한 짓을 보면 볼수록 의문이 커진다.
- 뒷간에 갈 적 마음 다르고, 올 적 마음 다르다 : 제가 긴요할 때는 다급하게 굴다가, 제가 할 일을 다 하면 마음이 변하여 쌀쌀하게 군다.
- 땅은 비 온 뒤에 굳어진다 : 고생을 해보면 의지가 굳어진다.
- 때린 놈은 다리를 못 뻗고 자고, 맞은 놈은 다리를 뻗고 잔다.
- 며느리 자라 시어미 되니, 시어미 티 더한다.
-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 짖주리면 마음이 변하여 불가피하게 나쁜 짓을 하게 된다.
- 물에 빠지면 짚이라도 잡는다.
-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 : 처음에는 하찮은 것을 훔치다가 나중에는 큰 도둑질을 하게 된다.
- 봉사가 보지는 못해도 꿈은 꾼다 : 비록 무엇을 보지 못했거나 경험하지 못했더라도 그것을 상상은 해 본다.
- 성급한 놈 술값 먼저 낸다 : 성미가 급한 사람은 손해될 것까지 한다.
- 세살 적 버른 여든까지 간다 : 어릴 때 몸에 젖은 버릇은 늙도록 고치기 힘들다.
- 세월이 약이다 : 세월이 지나가면 괴로운 것이 다 잊혀지게 된다.
- 쌀독에서 인심난다 : 여유가 있으면 비로소 남을 돋고 생각해 줄 수 있게 된다.
- 양반도 사흘 짖으면 도둑질 한다 : 아무리 점잖은 사람이라도 짖주리게 되면 서슴지 않고 나쁜 짓을 하게 된다.
- 얹은 자국 보조개로 보인다 : 정만 들면 상대편에게 결점이 있더라도 좋게만 보게 된다.
- 없는 놈이 찬 밥, 더운 밥 안 가린다.
- 옷이 날개다 : 못난 사람도 옷을 잘 입으면 잘나 보인다.

- 울지 않은 아기 젖 줄까 : 가만히 있지 않고 간청하는 사람에게는 더 잘 해주기 마련이다.
-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솔뚜껑 보고 놀란다 : 무엇에 한 번 놀란 사람은 그와 비슷한 것만 봐도 놀란다.
- 제 버릇 개 못준다 : 한번 듣 버릇은 매우 고치기 어렵다.
- 중이 고기 맛을 알면 절에 빈대가 안 남는다 : 무슨 좋은 일을 한 번 경험하면 거기에 혹하여 정신을 못차리고 자꾸만 그것을 하려고 한다.
- 집에서 새는 바가지 나가서도 샌다 : 나쁜 성질을 지닌 사람은 어디서든지 그 본색을 드러내게 된다.
- 처녀가 아이를 낳고도 할 말이 있다 : 사람은 무슨 일에나 잘못을 변명하는 심리를 가진다.
- 토끼를 다 잡으면 사냥개를 삶는다 : 자기가 필요할 때는 사람이나 사물을 긴요하게 이용 하지만, 이용가치가 없을 경우에는 함부로 다루거나 돌보지 않는다.
- 평계없는 무덤 없다 : 사람은 누구나 평계를 하기 마련이다.
- 한량이 죽어도 기생집 올타리 밑에서 죽는다 : 오랜 습관이 된 것은 좀처럼 떼어버릴 수 없다.
- 한 솥의 밥 먹고도 송사(訟事)한다 : 사람은 정분이 친밀한 사이에서라도 하찮은 일을 가지고 서로 다투게 된다.
- 한 치 건너 두 치 : 사람은 조금이라도 더 가까운 사람에게 정이 쓸리며, 촌수가 먼 사람에게는 자연적으로 등한하게 된다.
- 횟김에 서방질한다 : 사람은 분에 못 이기면 분풀이로 이성을 잃고 잘못을 저지르기 쉽다.

4. 성 품

- 간에 붙고, 쓸개에 가 붙는다 : 지나치게 아부한다.
-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을 못한다.
- 걷기도 전에 날기부터 배운다 : 자기의 분수에 넘치는 행동을 하려 하거나 그러한 행동을 한다.
- 게으른 여편네 아이 평계하듯 : 일을 하지 않으려고 평계를 부린다.
- 고양이 쥐 생각한다 : 당치도 않게 남을 위하여 무엇을 생각해 주는 척 한다.
- 공자 앞에서 문자 쓴다 : 자기보다 훨씬 유식한 사람 앞에서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잘

아는체 한다.

-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 : 타지에서 들어온 사람이 본래부터 있던 사람을 내쫓는다.
- 귀신 씨나락 까 먹는 소리 : 남이 알아듣지 못할 소리로 중얼거린다.
- 귀에 못이 박힌다 : 전에 들었던 것을 자주 되풀이한다.
- 급하기는 우물에 가서 숭늉 달라겠다.
- 길 닦아 놓으니까 문둥이가 먼저 지나간다 : 애써서 이루어 놓은 것을 반갑지 않은 자가 먼저 이용한다.
- 김서방이 아픈데, 이서방을 침 준다 : 영뚱한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
- 꼬리 아홉 달린 여우다 : 사람이 아주 요사스럽다.
- 꿈도 꾸기 전에 해몽한다 : 어떻게 될지도 모를 일을 가지고 제멋대로 상상하여 말한다.
- 꿈보다 해몽이 좋다 : 언짢은 일을 유리하게 둘러대어 말한다.
- 나는 바담풍 해도 너는 바람풍 해라 : 자기는 잘못하면서도 남에게는 잘하라고 권한다.
- 나무에 오르게 해 놓고는 흔들어 댄다 : 곁으로는 위해 주는 척하면서 남을 골려 준다.
- 난장이 허리춤 추기듯 : 잘한다 하여 남을 자꾸만 추어 올린다.
- 날알 세어 밥한다 : 지나칠 정도로 살림살이에 인색하다.
- 날 잡아 잡수 한다 : 어떻게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상대방에게 배짱을 부린다.
- 남대문 가본 놈하고 안가본 놈하고 다투면 안가본 놈이 이긴다.
- 남의 염병이 내 고뿔만 못하다 : 남의 큰 불행을 하찮게 여기고, 자기의 작은 불행을 더 걱정하며 더 절박한 것으로 여긴다.
- 남의 일이라면 쌍지팡이를 짚고 나선다 : 남의 일에 지나치게 간섭한다.
- 남의 제사에 감 놓아라 곶감 놓아라 한다 : 자기와는 상관도 없는 일에 쓸데없이 간섭한다.
- 낮 도깨비 같다 : 해괴망측한 짓을 한다.
- 내 할 말 사돈이 한다 : 남을 탓하려고 하는 차에 도리어 그쪽에서 먼저 자기를 책망한다.
- 냉수 먹고 이 쑤신다 : 실속은 없으면서도 곁으로는 있는 체한다.
- 냉수에 이부러진다 : 조금도 사리에 맞지 않는 말을 한다.
- 넘어진 소경이 지팡이 탓만 한다 : 자기의 결함으로 인한 잘못이나 실패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린다.
- 노처녀 보고 시집가라 한다 : 물어보나 마나 상대방이 좋아할 것을 쓸데없이 묻는다.
- 누워서 침 뱉기 : 자기가 자기에게 해되는 짓을 한다.
- 눈 가리고 아웅한다 : 얇은 수단으로 남을 속이려고 한다.

- 눈 먼 개 씨암탉만 물어 죽인다 : 제 할일은 하지 못하는 주제에 남에게 해가 되는 짓을 한다.
- 뉘 집 개가 짖느냐 한다 :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못 들은 척 한다.
- 능글맞은 능구렁이다 : 성격이 솔직하지 못하고 음흉하다.
- 달걀로 바위치기다 : 강한 사람에게 무모하게 덤빈다.
- 닭 잡아 먹고 오리발 내 놓는다.
- 당나귀 못된 것이 생원님만 업신여긴다 : 천한 자가 인품이 좋고 점잖은 사람을 괴롭힌다.
- 대들보 썩는 줄 모르고 기왓장 아낀다 : 장차 크게 손해 볼 줄 모르고 당장 돈이 좀 든다고 하여 사소한 것을 아낀다.
- 더부살이가 주인 아가씨 혼수 걱정한다 : 제게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일에 주제넘게 관여 한다.
- 더운 밥 먹고 식은 말 한다 :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
- 도둑이 제 발 저린다 : 제가 나쁜 짓을 저질러 놓고는 안한 척 하면서 숨기려 한다.
-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지난다.
- 동헌에서 원님 칭찬한다 : 칭찬하면서 아첨한다.
- 되 글을 갖고 말 글로 써 먹는다 : 배운 글은 적으나 그것을 효과적으로 써 먹는다.
- 되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 : 일에 있어서 인내성이 아주 강하다.
- 뒷구멍으로 호박씨 깐다 : 곁으로는 어리석은 체 하면서 속심은 엉큼하여 딴 짓을 한다.
-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 제 허물이 큰 줄 모르고, 남의 작은 허물을 들어 흉본다.
- 똥이 무서워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 똥인지 된장인지 모른다 : 경우를 모르고 경망하게 덤빈다.
- 망둥이가 뛰니까, 꼴두기도 뛴다 : 처지가 남만 못하면서 남이 하는 짓을 따라 한다.
- 못 되면 조상 탓 : 자기가 잘못 하거나 못나서 실패하고는 반성은 하지 않고 그 실패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린다.
-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난다 : 되먹지 못한 사람이 건방지고 좋지 못한 짓을 한다.
-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 : 자기에게는 이득이 없는 일에 심술을 부려 방해를 놓는다.
- 문둥이 콧구멍에 박힌 마늘씨도 파 먹겠다 : 지나치게 인색한 사람이다.
- 물에 빠진 놈 건져 놓으니까 내 봇짐 내라 한다 : 남에게 은혜를 받고서도 그 공은 모르고 도리어 그 사람을 나무라고 원망한다.

- 미운 중놈이 고깔을 모로 쓰고 요래도 밉소 한다 : 미운 놈이 더 미운 짓만 골라 한다.
- 바느질 못하는 년이 실은 길게 훈다 : 일을 못하는 사람이 연장 치장은 잘 한다.
- 밤 새도록 울다가 누가 죽었느냐고 한다 :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그 일에 참견하고 있다.
- 밥 빌어다 죽을 쑤어 먹을 놈 : 성질이 느리고 게으르며 하는 짓이 어리석다.
- 방귀 편 놈이 성낸다 : 제가 잘못을 하여 놓고는 도리어 큰 소리를 친다.
- 뱃대기에 기름이 끼는 모양이다 : 전에는 공손하던 사람이 점점 거만해진다.
- 뱃사공 뱃머리 둘러댄다 : 평계를 만들어 말을 둘러대면서 거짓말을 한다.
- 벌집을 건드린다 : 아주 위험한 짓으로 화를 자초한다.
- 벼룩의 간을 내어 먹는다 : 극히 적은 이익을 얻기 위해 부당한 수단을 써 남의 것을 착취 한다.
- 병신 육갑한다 : 못난 자가 더욱 더 미운 짓만 한다.
- 병 주고 약 준다 : 남의 일을 방해하여 망쳐 놓고는 도와주는 척 하면서 남을 놓간한다.
- 봉사 하늘 쳐다보기다 : 공연히 실속 없는 짓을 한다.
- 봉이 김선달 대동강물 팔아먹듯 : 이득을 보려고 감쪽같이 남을 속인다.
- 부처님 가운데 토막 : 성질이 온순하고 마음이 어질다.
- 비가 와도 양반 걸음이다 : 바쁜 일이 있어도 게으름을 부려 서두르지 않는다.
- 빈 수레가 더 요란하다.
- 뺨 맞을 놈이 여기 때려라 저기 때려라 한다 : 꾸중을 듣거나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 도리어 큰소리를 한다.
- 사돈네 남의 말 한다 : 제 일은 젖혀 놓고 남의 일에 참여하여 간섭한다.
- 상여 메고 가다가 귀 후빈다 : 무슨 일을 하다가 엉뚱한 짓을 한다.
- 서울 가서 김서방 찾는다 : 잘 알지도 못하고 막연한 것을 무턱대고 찾아 다닌다.
-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 능하지도 못한 자가 아는 체하여 남에게 실수를 하게끔 한다.
- 선무당이 장고 탓한다 : 자기의 기술이 모자라 일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 사실은 인정 하지 않고 도구가 나빠서 잘 할 수 없다고 한다.
- 소리없는 방귀가 더 구리다 : 말 없는 사람이 더 무섭다.
- 시거든 떫지나 말고, 얹거든 겹지나 말지 : 사람이 쓸모가 없고 변변치 못하고 어리석다.
- 싱겁기는 늑대 불알이다 : 사람됨이 매우 싱겁다.
- 싸라기 밥을 먹었나 : 기분 나쁘게 자기에게 반말을 쓴다.
- 아닌 밤중에 홍두깨 : 전혀 관계가 없는 딴 소리를 불쑥 내놓는다.

- 아이 난 데 개 잡는다 : 경사스러운 일에 심술을 부려 불길한 짓을 한다.
- 아이 밴 년 유세한다 : 믿는 데가 있어서 감히 어떻게 하지 못할 줄 알고 배짱을 부린다.
- 약방에 감초 : 어떤 일에나 빠짐없이 참석한다.
- 양반 못 된 것이 장에가 호령한다 : 못된 것이 만만한데 가서 허세부린다.
-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 : 못난이가 그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전체를 망신시킨다.
- 얼굴에 뚱칠한다 : 남에게 불명예가 되는 짓을 한다.
- 업은 아이 삼년 찾는다.
- 여드레 삶은 호박에 이 안들 소리 : 조금도 사리에 맞지 않는 말을 한다.
- 염병에 땀을 낼 놈 : 죽어야 할 악독한 놈이다.
- 오소리 감투가 둘이다 : 한 일에 주관하는 자가 둘이 있어서 서로 다투다.
- 오지랖이 넓다 : 간섭할 필요가 없는 일에 나서서 간섭한다.
- 의젓하기는 시아비 뺑치겠다 : 못난 주제에 기세만 부린다.
- 이마를 찔러도 피 한 방울 안나겠다 : 남에 대해서는 너무 인색하다.
- 이마빡에 피도 안 말랐다 : 변변치 못한 자가 자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자기보다 나은 사람들이 취하는 바와 같은 격식을 취한다.
- 입술에 침이나 바르지 : 거짓말을 천연스럽게 잘도 한다.
- 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다 : 갑자기 엉뚱한 짓을 한다.
- 자던 아이 깨겠다 : 자던 아이도 놀래서 깔 정도로 얼토당토 않는 소리를 한다.
-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지게 지고 방으로 들어간다 : 추켜 주니까 신이 나서 괴상한 짓까지 한다.
- 점잖은 개 부뚜막에 오른다 : 실상은 그렇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점잖은 체 한다.
- 젓가락으로 김칫국 집어 먹을 놈 : 어리석고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한다.
- 제 코도 못 닦는 것이 남의 코 닦으려고 한다 : 제일도 감당하지 못하는 주제에 남의 일에 참견하여 무엇을 해 주려고 한다.
- 종로에서 뺑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 : 화를 입은 자리에서는 아무런 말도 못하고 관계 없는 자리에서 화풀이 한다.
- 첫날 밤에 아니 낳으라는 격이다 : 되지 않을 일을 하라고 참을성 없이 억지로 졸라 재촉한다.
- 콩이냐 팥이냐 한다 : 대수롭지 않는 것을 가지고 야단스럽게 따지거나 시비를 하며 지껄여 댄다.

- 털도 안 뜯고 먹겠다 한다 : 너무 급히 하려고 덤빈다.
- 팔자가 사나우면 시아비가 삼간마루로 하나 : 너무나 망측스럽고 어이가 없다.
- 평계김에 서방질한다 : 묘한 평계를 대고 나쁜 짓을 한다.
-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안다 : 하는 행동 하나를 보면, 다른 여러 행동까지도 짐작할 수 있다.
-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 융통성이 없고 미련하다.
- 하늘 보고 손가락질 한다 : 제게는 당치도 않는 엄청난 짓을 한다.
- 하던 지랄도 명석 퍼 놓으면 안한다.
-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 자기의 분수도 모르고 철없이 강한 사람에게 덤빈다.
-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 : 너무나도 뜻밖의 좋은 일을 하였다.

5. 생활상

- 가난이 죄다 : 사람은 가난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
- 가을 별에는 딸을 쪘이고 봄 별에는 머느리를 쪘인다 : 시어머니는 자기 딸은 위해 주지만 머느리는 위해 주지 않는다.
- 가지 많은 나무가 잠잠할 적 없다 : 자식을 많이 거느리는 어버이는 자식을 위하는 걱정이 많고, 또한 할 일이 많아 편한 날이 없다.
- 가진 놈이 더 무섭다 : 부자일수록 더 인색하다.
- 고슴도치도 제 새끼가 예쁘다며 좋아한다 : 자기 자식이 못났더라도 어버이의 눈에는 잘나 보인다.
- 짖아도 젓국이 좋고 늙어도 영감이 좋다 : 싱싱하지 못하고 삭아버린 젓국이 맛이 있듯이 아내는 남편이 아무리 늙어도 그를 좋아한다.
- 과부가 찬 밥에 꽂는다 : 과부는 남편이 없다하여 음식물을 장만하는 테에 충실을 기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못 먹어서 몸이 허약해진다.
- 과부는 은이 서말이다 : 과부는 혼자 살아도 살림살이를 알뜰히 하기 때문에 경제생활을 잘한다.
- 귀여워 하는 할미보다 미워하는 어미가 더 낫다 : 어머니가 자식을 미워하는 것은 일시적이고, 자애로운 사랑에는 변함이 없다.
- 귀엽게 기른 자식이 어미 꾸짖는다 : 자식을 귀엽게만 기르면 벼룩이 없어진다.

- 그릇은 돌면 깨지고, 여자는 돌면 버린다 : 여자가 외출을 자주하면 부정한 짓을 하게 된다.
- 긴 병에 효자 없다 : 오래 앓는 어버이가 있으면 자식은 간병에 지쳐 효자 노릇을 하기 어렵다.
- 나는 새도 떨어뜨리고, 달리는 짐승도 못 가게 한다 : 권세가 등등하여 두려울 것 없으면, 모든 일을 뜻대로 휘둘러 한다.
- 늙으면 아이가 된다 : 사람은 늙으면 아이와 같은 언행을 하게 된다.
- 늙은 소 콩 밭으로 간다 : 늙으면 더 먹고 싶어진다.
- 뒷간 다른 데 없고, 부자 다른 데 없다 : 부자치고 돈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 없다.
- 딸 셋이면 문을 열어 놓고 잔다 : 딸을 출가시킬 때 혼비(婚費)로 인해 재산이 남아 있지 않은 상태다.
- 만만한 데 말뚝 박는다 : 권세가는 기세가 등등하여 두려울 것 없이 행세한다.
- 말딸은 살림 밑천이다 : 말딸은 시집가기 전에 집안 살림살이를 도와 준다.
- 병어리도 아이 어미가 되면 말을 한다 : 어린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는 노고를 많이 한다.
- 볶은 콩과 기생첩은 옆에 두고 못 견딘다 : 남자는 예쁜 청과는 떨어져 살지 못한다.
- 봄 사돈은 꿈에도 보기 무섭다 : 농촌 사람들은 한창 궁한 봄에 손님이 올까봐 걱정을 한다.
-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 : 부부는 싸움을 하더라도 곧 화합하게 된다.
- 부자가 없는 놈 보고 왜 고기 안 먹느냐 한다 : 부유하게 사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의 괴로운 사정을 모른다.
- 사내가 부엌일을 하면 불알이 떨어진다 : 남자는 여자가 하는 일을 하면 성미가 여자같이 된다.
- 사위는 백년 손님이다 : 사위가 오면 처가집에서는 그를 귀한 손님처럼 극진히 대우한다.
- 시집 간 딸년치고 도둑 아닌 년 없다 : 시집 간 딸은 친정에 올 때마다 무엇을 가지고 간다.
- 아내가 귀여우면 처가집 말뚝 보고도 절을 한다.
- 아들 밥은 앉아 먹고, 딸의 밥은 서서 먹고, 남편 밥은 누워 먹는다.
- 양반은 추워도 결불은 쪘지 않는다 : 양반은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점잔을 빼며 유지하려고 한다.
- 어린애 보는 데는 찬물도 못 마신다 : 어린 아이는 어른이 하는 것을 본받아 한다.
- 없는 놈이 밥술이나 먹게 되면 과객 밥 한 술 안준다.

- 여자 셋이 모이면 놋양푼도 남아나지 않는다 : 여자들이 모이면 말이 많고 떠들썩하다.
- 여편네 팔자는 뒤옹박 팔자 : 뒤옹박이 끈에 매여 있듯이, 여자의 팔자는 남편에게 매여 있다.
- 열두 효자가 악처 하나만 못하다.
- 열 손가락에 어느 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을까.
- 옷과 여자는 새 것이 좋다 : 바람기가 있는 남자는 새로이 사귀는 여자를 자기의 아내보다 더 낫게 여긴다.
- 외손자를 귀여워 하느니 절굿공이를 귀여워 하랬다 : 외손자를 아무리 귀여워 해 주어도 그는 결국은 외조부모에게는 덕을 보여주지 않는다.
- 자식은 먹고 남아야 부모에게 주고, 부모는 먹지 않고 자식에게 준다.
- 자식은 장가 들기 전까지가 제 자식이다 : 자식이 장가를 가면 부모는 자식을 마음대로 다를 수 없게 된다.
- 자식은 품안에 들 때 자식이다.
- 장독하고 아이는 얼지 않는다 : 겨울에 어린이는 추운 줄 모르고 뛰어 논다.
- 첫 애 낳고 나면 평양감사도 뒤틀아 본다 : 첫 아이를 낳고 나면 여자는 여인으로서의 태도나 행동이 떳떳해지며 아름다움도 돋보이고 예뻐진다.
- 칼날이 제 몸에서 녹이 난다 : 권세를 지닌 사람이나 명문가족이라도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몰각하게 된다.
- 한 남자가 열 계집 마다 않는다 : 남자는 여자를 여럿이라도 얻고 싶어한다.
- 홀아비 삼년에는 이가 서 말이다 : 혼자 사는 홀아비는 살림이 안되어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된다.
- 훈장의 똥은 개도 안 먹는다 : 어린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은 가르치느라고 고생을 하고 그의 똥도 썩게 되어, 개도 그 똥을 못 먹는다.
- 흉년에 어미는 죽어 죽고 아이는 배터져 죽는다.

6. 세 태

- 가는 방망이 오는 홍두깨 : 흔히 사람은 가혹한 짓을 하면 더 가혹한 양값을 받는다.
- 개똥참외는 먼저 맡은 이가 임자다 : 소유자가 없는 물건은 먼저 발견하는 사람이 가지게

된다.

- 개천에서 용난다 : 비천한 집안에서도 훌륭한 인물이 난다.
- 고르고 고르다가 곱보 마누라 얻는다 : 너무 고르다가 도리어 나쁜 것을 고른다.
- 굽은 나무가 선산 지킨다 : 기대하지도 않던 대수롭지 않은 사람이 착한 일을 하는 수가 있다.
- 귀신도 경문에 매여 산다 : 가장 자유스러운 듯한 사람도 무언가에 의해 구속을 받게 된다.
- 그물에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 : 법망에도 피할 수 있는 맹점이 있다.
- 깊은 물에는 안 빠져도, 얕은 술에는 빠진다 : 술을 과음하는 사람은 패가망신하게 된다.
- 나쁜 소문은 천리를 간다 : 소문은 가까운 곳보다도 먼 데서 잘 퍼진다.
- 날개없는 소문이 천리를 간다 : 나쁜 소문은 빨리 퍼져 나간다.
- 너무 고르다가 눈 먼 사위 본다 : 욕심을 너무 내어 고르다가 나쁜 것을 고르게 되어 낭패를 보는 경우가 허다하다.
- 너무 맑은 물에는 큰 고기가 없다 : 사람이 너무 깔끔하면 그에게는 재물이 따르지 않는다.
- 높은 나무에는 바람이 세다 : 흔히 지위가 너무 높아지게 되면 중상모략을 입어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된다.
- 눈 뜨고 코 베어 갈 세상 : 이 세상의 인심은 사납고 무섭고 혐악하다.
- 도끼가 제 자루 목 찍는다 : 흔히 사람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내버려 두거나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를 가진다.
- 도둑을 맞으려면 개도 안 짖는다 : 운이 나빠 일이 잘 안되려면 모든 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다 : 올바른 방법으로 하는 일은 안 되고, 나쁜 방법으로 하는 일은 되는 어지러운 세상이다.
- 되는 집안에는 가지 나무에도 수박이 열린다.
- 말 많은 집은 장 맛도 쓰다 : 말이 많고 시비 가리기 좋아하는 집안은 불화하여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 밀가루장사 하면 바람이 불고, 소금장사 하면 비가 온다 : 운수가 사나우면 당하는 일마다 공교롭게도 일이 안 된다.
- 설마가 사람 죽인다 : 흔히 사람은 설마 그럴리야 없겠지 하고 속으로 믿고 있다가 크게 낭패를 보게 된다.
- 실없는 말이 송사 건다 : 무심코 한 말 때문에 큰 변이 생기는 수도 있다.

- 쌀 먹은 개는 안 들기고 등겨 먹은 개가 잡힌다 : 큰 죄를 지는 자는 교묘하게 빠져 나가고 덜한 죄를 지은 자가 들켜서 남의 죄까지도 뒤집어 쓰게 된다.
- 아는 놈이 도둑놈이다 : 잘 아는 처지에 있는 사람이 손해를 보게 된다.
- 안 되는 놈은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 : 운수가 사나우면 대수롭지 않는 일에도 낭패를 본다.
- 약삭빠른 고양이 앞을 못 본다 : 매우 영리하여 실수를 하지 않을 듯해 보이는 사람도 역시 부족하고 어두운 점을 지닌다.
-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 공교롭게도 원한을 맺은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허다하다.
- 잔칫날 기다리다가 굶어 죽는다 : 기다리고 벼르던 일이 빗나가 낭패를 보는 일이 있다.
- 장군나면 용마나고, 문장나면 명판난다 : 일이 잘 되려면 좋은 기회가 저절로 와서 일이 자꾸만 잘 되어간다.
- 장군 집에서 장군난다 : 흔히 훌륭한 집안에서 훌륭한 인물이 난다.
- 장마다 망둥이 날까 : 인간사나 자연사에서 예외의 경우가 허다하다.
-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다 : 이 세상에서는 법보다 폭력이 더 강세를 부린다.
- 쥐 구멍에도 별 들 날이 있다 : 고생만 하는 사람도 좋은 시기를 만날 적이 있다.
- 집안이 망하려면, 맘느느리 턱에 수염이 생긴다 : 가운이 기울어지려면 집안에 괴상한 일이 다 생긴다.
- 피라미만 잡힌다 : 권력이 있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잡히지 않고 권력이 없는 범죄자만 잡힌다.
- 흥조가 들려면, 장맛부터 변한다 : 집안에 화가 있으려면, 먼저 어떤 변이 생긴다.

7. 처지

- 가난이 빼 속까지 스며든다 : 몹시 가난하다.
- 가랑이가 찢어지게 가난하다 : 몹시 가난하다.
- 갈수록 태산이다 : 점점 더 어려운 일을 당한다.
- 고무줄 없는 팬티 : 보람 없고 따분한 처지에 놓여 있다.
- 기둥뿌리가 흔들린다 : 집안이나 사업이 망해간다.

- 날개 부러진 매 : 세력을 부리던 사람이 세력이 없는 신세가 되었다.
- 내 코가 석자다 : 근심이 쌓이는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 맥이 빠졌다.
- 눈코 뜰 새 없다 : 너무나 바쁜 처지에 놓여 있다.
- 독안에 든 쥐다 : 빠져나갈 수 없는 극단적 곤경에 빠져 있다.
- 등 따시고 배 부르다 : 궁색함이 없이 잘 살아 나간다.
-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다 : 매우 가난하다.
- 먹기는 아귀같이 먹고, 일은 장승같이 한다 :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놀고 먹는다.
- 바람 앞의 등불이다 : 사태가 매우 위태롭게 되었다.
- 발등에 불 붙었다 : 당한 일이 매우 다급하다.
- 보리고개가 태산보다 높다 : 묵은 곡식은 거의 없어지고 보리는 아직 여물지 않아 먹고 살기가 가장 어려운 춘궁기 지내기가 매우 힘들다.
- 불알 두 쪽 밖에는 없다 : 가지고 있는 재물이라고는 아무 것도 없다.
- 빈 외양간에 황소 들었다 :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 알뜰하게 벌어 잘 살게 되었다.
- 빼지도 박지도 못하겠다 :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처지에 놓여 있다.
- 침도 절도 없다 : 세상에 의지할 바 없는 외로운 처지에 놓여 있다.
- 짹 짖은 기러기 : 정다운 사람을 잊고 서럽고 외로운 처지에 놓여 있다.
- 찬 물에 불알 오그라들 듯 : 모르는 사이에 재산이 점점 줄어든다.
- 풍년에 깔주린다 : 남들은 다 넉넉하게 지내는데 자기만 아주 가난하고 어렵게 지낸다.
- 학질을 뗐다 : 폐기 어려운 고역을 면했다.
- 호박 덩굴 뻗듯 한다 : 세력이 급속히 퍼진다.

8. 자기 보전

- 개도 제 털을 아낀다 : 자기의 몸을 항상 돌보고 아껴야 한다.
- 개똥 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 세상에서 사는 것이 괴롭더라도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것이 낫다.
- 내 돈 서 푼이 남의 돈 삼백 냥보다 낫다 : 자기의 재산이 적더라도 그것에 만족할 것이지 남의 많은 재산을 부러워 하거나 탐내지 말라.
- 네 발 짐승도 넘어질 때가 있다 : 세상에는 안전한 일이 있을 수 없으니, 항상 조심하라.

- 돌을 차면 발부리만 아프다 : 당치도 않은 자리에서 쓸데없이 화를 내지 말라. 때문에 사람은 괴롭더라도 마음을 진정시켜 낙천적이고 편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 모난 돌이 정 맞는다 : 모난 짓을 하면 남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니, 모난 짓을 하지 말라.
- 배움 길에는 지름길이 없다 : 학문은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배워나가야 한다.
- 뱃새가 황새 걸음을 걸으면, 가랑이가 찢어진다.
-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한다 : 자기의 분수에 넘치는, 힘에 겨운 짓은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술은 백약 중에서 으뜸이다 : 술은 많이 먹지 말고 알맞게 먹어야 한다.
- 알아야 면장을 한다 : 남의 윗자리에 서려면 알아야 한다.
- 양반은 비를 맞아도 빨리 가지 않는다 : 사람은 아무리 다급한 일이 있더라도 점잔을 차려야 한다.
- 어질병이 지랄병 된다 : 대단치 않은 병이 점점 악화되어 큰 병이 되므로, 그러한 병일지라도 일찌감치 고치도록 해야 한다.
- 오랜 원수를 갚으려다가 새 원수가 생긴다 : 뒤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기니, 보복이나 앙갚음을 하지 말라.
- 외모는 거울로 보고 마음은 술로 본다 : 술에 취하면 할 말 안할 말을 다 털어 놓고 이야기 하기 때문에, 아무리 술에 취했을지라도 말조심을 해야 한다.
-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 능한 재주를 가지고 있다 하여 방심하다가는 해를 입는 경우가 있으니, 방심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 적게 먹어야 가는 뚝 누지 : 제 힘에 맞도록 분수를 지켜 쭉 욕심을 부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짧은 시간도 돈이다 :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선용해야 한다.
- 학은 짚주려도 곡식은 먹지 않는다 : 아무리 구차해도 온당치 못한 짓은 하지 말라.
- 허공을 보고 가다가 개천에 빠진다 : 목표를 향하여 똑바로 가도록 하라.
- 헤엄 잘 치는 사람은 물에 빠져 죽고, 말 잘 타는 사람은 말에서 떨어져 죽는다.
-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 물욕이 심하면 천한 사람이 되니, 물욕을 너무 내지 말라.
-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 : 사람은 활동을 하지 않으면 건강이 나빠지므로 활동을 해야 한다.

9. 가정규범

- 구름은 바람 따라 모이고, 바람 따라 흩어진다 : 가족원은 가장의 지시에 잘 따라야 한다.
- 귀머거리로 삼년, 병어리로 삼년, 장님으로 삼년 : 여자가 출가하여 시집살이 할 때는 못들은 체, 못 본 체하여 묵묵히 지내도록 하라.
- 북과 아이는 칠수록 큰 소리만 난다 : 부모는 아이에 대해서 잘 타일러야 한다.
- 북어와 여자는 두들겨야 한다 : 여자는 간사한 짓을 하기 쉬우니, 남편은 그러한 짓을 못하도록 아내에게 엄격하게 대해야 한다.
- 사내가 부뚜막의 맛을 알면 계집을 못 거느린다 : 남자는 아내의 일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 사람은 낳으면 서울로 보내고, 맡은 낳으면 제주도로 보낸다 : 부모는 되도록 자식을 교육적 환경이 좋은 곳에 보내어 교육을 받게 해라.
- 아들 못난 것은 제 집 망치고, 딸 못난 것은 양사돈 망친다 : 여자는 품행을 단정하게 해야 한다.
- 아버지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 : 자식은 아버지를 진심으로 존경해야 한다.
- 아이 자라 어른 된다 : 부모는 어린이를 심하게 구박하지 말아야 한다.
-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 집안일에 대하여 여자가 떠들고 간섭하면 집안이 잘되는 일이 없으니, 여자는 그러한 짓을 하지 말아야 한다.
- 여자의 맡은 잘 들어도 폐가하고, 안 들어도 망신한다 : 남편은 아내의 말에 조심해야 한다.
- 예쁜 자식 매로 키운다 : 경우에 따라 부모는 자식을 엄격하게 다루어야 한다.
- 장닭이 울어야 날이 새지 : 남편이 주장이 되어 집안 일을 처리해 나가도록 하라.
- 죽어도 시집 울타리 밑에서 죽어라 : 여자는 한 번 출가하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시집에서 끝까지 살아 나가도록 해야 한다.
- 집안이 화합하려면 베개 밑 송사는 듣지 않는다 : 남자는 아내의 하소연이나 요구를 그대로 믿고 행하지 말도록 해야 한다.
- 호랑이 새끼는 산에서 커야 하고, 사람의 새끼는 글방에서 커야 한다.
- 효성이 지극하면 돌 위에 풀이난다 : 어버이에 대한 효성이 지극하면 천우신조가 있게 되는 법이니, 자식은 어버이에 대하여 효성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

10. 심리상태

- 가뭄에 비 기다리듯 : 좋은 일이 생기도록 간절히 기다린다.
- 간이 콩알만하다 : 간담이 서늘해질 정도로 아주 놀란다.
- 감나무 밑에 누워 연시 입안에 떨어지기를 기다린다.
- 곧은 나무도 뿌리는 구부러졌다 : 겉으로는 얌전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야심을 품고 있다.
- 깊주린 나귀가 매를 무서워할까 : 극도로 가난하여 악만 남았기에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는다.
- 귀신은 뭘 먹고 사나 :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속이 시원할 정도로 미워한다.
- 깨가 쏟아진다 : 아주 재미가 있다.
- 깨소금 맛이다 : 아주 통쾌하다.
- 나 먹자니 싫고, 개 주자니 아깝다 : 자기는 싫지만 미련이 있어 남주기가 아깝다.
- 내일은 삼수갑산을 가더라도 : 최악의 경우를 각오하고 일을 단행하겠다.
- 내친 걸음이다 : 이미 시작한 일로서 그만 둘 수가 없으니 끝까지 해보겠다.
- 노루가 제 방귀에 놀란다 : 자기가 한 대단치 않은 일에 스스로 겁을 먹고 놀란다.
- 눈에 쌩심지가 오른다 : 몹시 성이 난다.
- 눈에 가시 : 자기에게 불리를 끼치는 사람을 몹시 미워한다.
- 눈허리가 시어 못보겠다 : 하는 짓이 볼 수 없을 정도로 아니꼽다.
- 도마 위의 고기가 칼을 무서워하랴 : 이미 운이 결정되었으니 아무것도 두려워 하지 않는다.
- 동네 색시 믿고 장가 못 간다 : 남은 생각도 하지 않는데, 그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리라고 기대를 걸고 있다.
- 때리는 시어미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 겉으로는 위해 주는 체하면서 속으로는 해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주 밉다.
- 떡 줄놈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 : 남은 생각하지도 않는데, 그가 자기에게 줄 것이라고 생각하여 미리부터 기대한다.
- 똥 누고 밑 안 셋은 것 같다 : 일을 완전히 끝맺지 못하여 마음이 꺼림직하다.
- 만만찮기는 사돈집 안방 : 처신하기가 자유롭지 못하고 불편하다.
- 머리털을 베어 신발을 한다 : 무슨 짓을 해서든지 잊지 않고 받은 은혜에 보답하겠다.
- 목 마른 송아지 우물 들여다 본다 : 애타게 얻고자 하는 것을 볼 수만 있고 얻을 수 없어서

매우 안타까워 한다.

- 밑이 구리다 : 숨기고 있는 범죄나 비행 때문에 기가 죽어서 떳떳하지 못하다.
- 바늘 방석에 앉은 것 같다 : 자리에 그대로 있기가 몹시 불안하다.
- 바지 저고린 줄 아나 : 남을 무능하다고 업신여긴다.
- 발가락의 티눈 만큼도 안 여긴다 : 남을 심하게 업신여긴다.
- 백사장에 혀를 꽂고 죽을 일이다 : 너무나 기가 막히고 억울하고 원통하다.
- 병어리 냉가슴 않듯 : 남에게 말 못할 사정이 있어서 마음 속으로 답답하게 애 태운다.
- 봉사가 눈 뜯 것 같다 : 문제가 잘 해결되어 매우 시원하다.
- 사족을 못 쓴다 : 무엇에 반하거나 혹하여 꼼짝을 못한다.
-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 남이 잘 된 것을 보고 시기한다.
- 살얼음을 밟는 것 같다 : 위태위태하여 마음이 대단히 불안하다.
- 세 살 난 아이 물가에 둔 것 같다 : 어떠한 불상사가 일어날런지 마음이 졸이고 불안하다.
- 손도 안대고 코 풀려고 한다 : 수고는 조금도 하지 않고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 손자 턱에 흰 수염이 나겠다 : 너무 오래 걸려서 기다리기에 지루하다.
- 송사는 졌어도 재판은 잘 하더라 : 서로 다투다가 비록 자기가 지기는 하였으나, 그 판결이 공평하였으므로 조금도 억울하지가 않다.
- 시어미 죽고 처음이다 : 오랜만에 흡족하고 시원하다.
- 신선 놀음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 :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어떤 일에 몰두하고 있다.
- 앓던 이 빠진 것 같다 : 고통스러운 것이 없어져서 기쁘고 속이 시원하다.
- 어느 장단에 춤추랴 : 다급한 일이 연속적으로 발생하여 어쩔 줄을 모른다.
- 어디 개가 짖느냐 한다 : 남의 말을 듣고 그것을 완전히 무시한다.
- 염불에는 마음이 없고, 젯밥에만 마음이 있다 : 제가 할 일에는 정성이 없고, 제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다른 데에만 관심을 쓴다.
- 오장이 뒤집힌다 : 마음이 몹시 상하여 건잡을 수 없다.
- 입에서 신물이 난다 : 두 번 다시 대하기 싫을 만큼 지긋지긋하다.
- 작년 추석에 먹은 송편이 나온다 : 거만한 행동을 보니 속이 뒤집힐 정도로 아니꼽다.
- 접시 물에 빠져 죽지 : 같잖은 일에 격분하고 있다.
- 조상같이 여긴다 : 매우 귀하게 여긴다.
- 죽기가 서러운 것이 아니라, 아픈 것이 서럽다 : 후에야 어떻게 되든, 현재 당하고 있는 일에 참기가 어렵다.

- 쥐면 꺼질까, 불면 날까 : 매우 애지중지한다.
- 초가삼간 다 타도 빈대 죽어 좋다 : 비록 큰 손해를 보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보기 싫고 미운 것이 없어져서 속이 시원하다.
- 촌놈 똥배 부른 것만 친다 : 자기가 위하는 사물의 집에는 관심이 없고 그 양이 많은 것을 가지고 만족한다.
- 파리 보고 칼 뗐다 : 화를 내지 않아도 될 일에 지나치게 화를 낸다.
- 팔자가 사나우니까 의붓아들이 삼년 말이라 : 일이 마땅치 못하여 매우 개탄스럽다.

11. 인지

- 귀에 걸면 귀엣고리, 코에 걸면 코엣고리 : 사물은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이렇게도 인식될 수 있고 저렇게도 인식될 수 있다.
-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한다 : 좋고 나쁜 것은 실제로 경험해 봐야 알게 된다.
-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 : 기억력이 없어서 잘 잊어버린다.
- 눈에서 별이 반짝인다 : 현기증이 나서 눈이 아찔아찔하다.
- 둘이서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르겠다 : 맛이 매우 좋다.
- 소태 씹는 맛이다 : 입맛이 없다.
- 시장이 반찬 : 젊주린 사람이 무엇이나 맛있게 먹게 된다.
- 장님 코끼리 말한다 : 한 부분만 알고 그것이 전체인 것처럼 여긴다.
- 장사 지내려 가는 놈이 시체두고 간다 : 사람이 아둔하여 필수적인 것을 잊어버리고 일을 하려고 한다.
- 코를 잡아도 모르겠다 : 몹시 캄캄하다.
- 콩으로 메주를 쌈다 해도 곧이 안 듣는다 : 무슨 말을 하든 믿지 않는다.
- 팥으로 메주를 쌈대도 곧이 듣는다 : 남의 말을 지나치게 잘 믿는다.
-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 : 말을 듣고는 곧 잊어버린다.
- 호랑이 날고기 먹는 줄 모르나 :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12. 부지(不知)와 지식

- 개뿔도 모른다 : 바보같이 남이 다 알고 있는 것도 모른다.
- 귀가 보배다 : 배운 것은 없으나 귀로 들어서 아는 것이 많다.
- 남의 흥 열 자는 봐도, 제 흥 한 자는 모른다 : 사람은 남의 사소한 허물을 잘 보지만, 자기의 허물을 모른다.
- 낫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 배우지를 못하여 글을 모른다.
- 내 살을 찢어봐야 남의 아픔도 안다 : 자신이 고생을 해 본 사람이 아니면 남의 고생을 모른다.
- 너하고 말하느니 개하고 말하겠다 : 사람이 우둔하여 남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사리를 인식하지 못하여 도무지 이해를 못한다.
- 눈은 있어도 망울이 없다 : 사물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안목과 식견이 없다.
- 당나귀는 제 귀 큰 줄 모른다 : 제게는 추악한 일이 있어도 그 사실을 모른다.
- 등잔 밑이 어둡다 : 자기가 잘 알고 있을 법한 가까운 일을 모르고 있다.
- 무식한 도깨비 부작(簿作)을 모른다 : 자기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몰라 실수할 정도로 무식하다.
- 물때 쌀때를 다 안다 : 일의 형편이나 진퇴의 시기를 잘 안다.
- 삼천갑자 동방삭(三千甲子 東方朔)이도 저 죽을 날을 몰랐다 : 사람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 것인지 모른다.
- 소 귀에 경 읽기 : 사람이 둔하여 가르치고 설명해도 알아 듣지를 못한다.
- 수박겉핥기 : 무슨 일을 하면서도 그것의 참뜻이나 내용을 모른다.
- 앓아서 천리를 본다 : 가만히 앓아서도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안다.
- 어깨 너머 글 : 정식으로 배우지 못하고 자주 들어 피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
- 우물안의 개구리 : 일부분만 알고 넓은 세상의 형편을 모른다.
- 집게 놓고 A자도 모른다 : 배우지를 못하여 글을 모른다.
- 한 치 앞을 못 본다 : 한 가지만 알고 두 가지는 모른다.

13. 인간관계

- 개 밤에 도토리 : 따로 돌리어 떨어져 여럿이 어울리지 못한다.
- 개와 고양이다 : 서로 사이가 나빠 적대시한다.
- 깨진 거울이다 : 부부가 이혼을 하였다.
- 꾸어다 놓은 보릿자루 : 여럿이 모여 서로 재미있게 지내는데, 혼자서 가만히 앉아 남들과 어울리지 못한다.
- 단맛 쓴맛 다 보았다 : 세상의 즐거움과 괴로움을 다 겪어 보았다.
- 담을 쌓았다 : 좋게 사귀던 사이를 끊고 서로 교제를 않는다.
- 바늘 가는데 실 간다 : 서로 떨어지지 않고 붙어다닌다.
- 배가 맞는다 : 서로 마음이 잘 통한다.
- 사돈의 팔촌 : 자기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 서울에 안 가본 놈이 있나 : 그만한 일은 누구나 다 해 보았다.
- 이마를 맞댄다 : 이마를 맞댈 정도로 아주 가까운 사이다.
- 찬물에 기름이 돈다 : 서로 화합하지 않고 따로 돈다.
- 콩 한 쪽도 나누어 먹는다 : 정분이 아주 좋아서 사소한 것까지도 서로 나눠 가진다.
- 형이니 아우니 한다 : 서로 다정한 사이다.

14. 기타

- 가게 기둥에 입춘이라 : 격에 맞지 않는다.
- 가난 구제는 나라도 못한다 : 가난한 사람을 구제한다는 것을 한이 없는 일이므로 매우 어렵다.
- 가는 년이 물 길어다 놓고 갈까 : 일이 틀어져서 나가는 터에 뒷일을 생각하고 돌볼리 없다.
- 가다가 말면 아니 간만 못하다 : 일을 시작했으면 끝까지 해야 한다.
- 가던 날이 장날이라 : 뜻하지 않은 일을 공교롭게 당하게 되었다.
-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 : 사소한 일이라 하여 소홀히 하다가는 낭패를 당하거나 큰 손해를 보게 되니, 그러한 것에도 방심하지 말고 유의해야 한다.

- 가물에 콩 나듯 : 어떤 일이나 물건이 드문드문 있다.
- 가을 밭에 가면 가난한 친정에 가는 것보다 낫다 : 가을 밭에는 먹을 것이 많이 있다.
- 가진 것이라고는 불알 두 쪽 밖에 없다 : 재산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빈털터리다.
- 간다 간다 하면서 아이 셋 놓고 간다 : 그만둔다고 말로만 하면서 그만두지 못하고 끌려간다.
- 간에 기별도 안 간다 : 성에 차지 않게 너무 적게 먹었다.
- 감사 덕분에 비장나리 호사한다 : 남의 덕분에 호강한다.
- 갓 쓰고 망신 : 점잔을 빼고 있는데 망신을 당했다.
- 강 건너 불구경 하듯 : 자기와는 아무런 이해 관계가 없다.
- 개가 짖을 때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아니다 : 남의 말을 다 믿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한다.
- 개도 뒤 본 자리를 덮는다 : 자기가 저지른 일은 자기가 처리해야 한다.
-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 : 평소에는 흔하고 보잘 것 없는 것이지만, 필요한 때는 없다.
- 게으른 선비 책장 넘기기 : 일에 삶증이 나서 빨리 벗어나려는 궁리만 하고 게으름을 피운다.
- 계란이나 달걀이나 : 이것이나 저것이나 마찬가지다.
- 고기도 먹어 본 사람이 많이 먹는다 : 무슨 일이든지 해 본 사람이 능숙하게 한다.
-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 강자끼리 다투는 사이에서 관계도 없는 약자가 해를 입는다.
- 고목에서 꽃이 필까 : 도저히 실현될 가망이 없다.
- 고양이 앞에 생선 반찬 : 제가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이 손 댈 겨를 없이 반드시 쳐치하고야 만다.
- 곱사등이 짐 지나 마나 : 하나 마나 마찬가지다.
- 곶감 꼬치에서 곶감 빼먹듯 : 애써 모아 두었던 것을 힘들이지 않고 하나씩 소모해 버린다.
- 구렁이 담 넘어가듯 : 우물쭈물하는 듯 보이지만 어느 틈에 일을 이루어 놓았다.
- 구멍은 깎을수록 커진다 : 잘못된 것을 수습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악화된다.
- 구슬이 서 말이라도 뛰어야 보배 : 쉬운 일이라도 힘써 노력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 국물도 없다 : 아무 것도 생긴 것이 없다.
- 굽기를 밥 먹듯이 : 자주 굽는다.
- 굽벵이도 뭉구는 재주가 있다 : 아무리 미련하고 못난 사람이라도 한 가지 재주는 있다.

- 굼벵이도 지붕에서 떨어질 때는 생각이 있다 : 남 보기에는 못난 짓 같지만, 그러한 짓의 배후에는 무슨 요긴한 뜻이 있는 것이다.
- 그릇이 모가 나면 거기에 담긴 물도 모가 진다 : 아랫사람은 웃사람이 하는대로 그 영향을 받아 따라서 하게 마련이다.
- 그림의 떡이다 : 보기는 하지만 실상은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다.
- 굵어 부스럼 : 가만히 두었으면 아무런 일도 없었을 것을 공연히 견드려서 탈을 내었다.
- 금강산도 식후경 : 해야 할 일이 자기에게는 아무리 좋은 것 일지라도, 배고플 경우에는 먼저 먹고 실속을 차린 후에 하도록 해야 한다.
- 급히 더운 방이 쉬 식는다 : 일이 너무 속히 잘되면 그것은 오래 가기가 어렵다.
- 기척이 없으면 개도 짖지 않는다 : 잘못이 없으니 남들이 자기를 나쁘다고 할 리가 없다.
- 길 아니거든 가지 말고 말 아니거든 듣지 말라 : 사리에 어긋나는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상관하지 않아야 한다.
- 김 빠진 맥주다 :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서 쓸모없는 물건이다.
-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 아무 관계없이 한 일에 공교롭게도 때를 같이하여 다른 일이 생겨 오해를 받게 되었다.
- 깎은 밤 같다 : 사람이 똑똑하게 보이며 말쑥하다.
- 꼬리가 길면 밟힌다 : 옳지 못한 짓을 오래 계속하면 결국은 남에게 들키고야 만다.
- 꼬리 흔드는 개가 맞지 않는다 : 불임성이 있는 사람은 남에게 맞는 일이 없다.
- 펑 구워 먹은 소리 : 아주 소식이 없다.
- 펑 대신 닭 : 자기가 쓰려는 것이 없어서 그와 비슷한 것으로 대용한다.
- 나도 사또 너도 사또 하면, 아전 할 놈이 없다 : 상부 사람이 많으면 일이 진전되지 않는다.
- 남산에서 돌을 던지면 김씨나 이씨 집에 들어간다 : 김씨나 이씨 성을 가진 사람이 많다.
- 남색은 쪽풀에서 짜냈지만 쪽보다 푸르다 : 배운 제자가 스승보다 더 잘 안다.
- 남이야 전봇대로 이를 쑤시건 말건 : 너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니 관여할 것이 아니다.
- 내가 중이 되니 고기가 흔해진다 : 자기가 필요없게 되니까 흔해진다.
- 넘어진 김에 쉬어 간다 : 불행한 기회를 도리어 유리하게 이용한다.
- 노처녀가 시집 가려니 등창이 난다 : 벼르던 일을 하려 하니 방해가 끼어 하지 못하게 되었다.
- 누룩만 보아도 술 취한다 : 술을 조금도 하지 못한다.
- 누울 자리 보고 발 뻗는다 : 결과를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살피고 일을 시작한다.

- 누이 좋고, 매부 좋고 : 서로가 좋다.
- 눈 뜨고 도둑 맞는다 : 번연히 알면서도 손해를 본다.
- 눈 온 뒷날에는 거지가 빨래를 한다 : 눈이 온 뒷날에는 꽉 따뜻하다.
- 눈치가 빠르면, 절에 가서도 새우젓을 얻어 먹는다 : 사람은 눈치가 빠르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 늙은이 호박죽에 힘 쓴다 : 몸이 매우 허약하고 체력이 없다.
- 능참봉을 하니까, 한달에 거등이 스물아홉 번 : 모처럼 좋은 일을 얻어 좋아하고 있는 중에 성가신 일이 자꾸만 생긴다.
- 다 된 죽에 코 떨어졌다 : 다 된 일을 그만 망쳐버렸다.
- 더벅머리에 땅기 치레 하듯 : 격에 맞지 않는다.
-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본다 : 애써 하던 일이 실패로 돌아가서 어찌할 도리가 없이 민망한 표정을 짓고 있다.
- 대추나무에 연 걸리듯 : 남에게 진 빚이 많다.
- 대한이 소한 집에 가서 얻어 죽는다 : 이름으로 보아서는 소한보다는 대한이 더 추워야 하지만 실제로 대한보다 소한이 더 춥다.
- 덕은 닦은대로 가고 죄는 지은대로 간다 :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게 된다.
- 도둑질을 해도 손이 맞아야 한다 : 서로 합심하여 일을 해야 한다.
- 도랑치고 가재 잡는다 : 일의 순서가 뒤바뀌었다.
- 돈만 있으면 귀신도 부린다 : 돈만 있으면 세상일을 어떻게든지 뜻대로 이를 수 있다.
- 동지 팔죽 쉬겠다 : 풍년이 올 징조로 추워야 할 동지에 날이 따뜻하다.
- 돼지 낮짝 보고 잡아먹나 : 겉모양에는 관여치 말고 속만 좋으면 그것을 취하도록 한다.
- 돼지 목 따는 소리 : 목소리가 듣기 싫게 아주 날카롭다.
- 된장 맛이 좋아야 집안이 잘 된다 : 주부의 솜씨가 좋으면 집안이 번영한다.
- 된장에 풋고추 박히듯 : 어느 한 자리에 늘어붙어서 꿈쩍도 아니하고 가만히 있다.
- 두 손뼉이 맞아야 소리가 난다 : 상대가 있어야 일을 이룰 수 있다.
- 들어치나 메치나 :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결과적으로 마찬가지다.
- 둘째 며느리 얻어 보아야 큰 며느리 착한 줄 안다 : 비교할 것이 없으면 진가를 알 수가 없다.
- 땅 넓은 줄 모르고 하늘 높은 줄만 안다 : 키가 매우 크다.
- 때리는 시늉을 하면, 우는 시늉을 한다 : 일을 같이 할 때 손이 척척 맞아들어간다.

-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 : 기회를 이용하여 일을 치룬다.
- 떫기로 고음하나 못 먹겠다 : 다소 힘이 들더라도 그만한 일은 할 수 있다.
- 떼어 둔 당상 : 일이 확실하여 조금도 틀림이 없다.
- 뛰어 봤자 벼룩이다 : 도망쳐 봤자 별 수 없다.
- 마파람에 계 눈 감추듯 : 몹시 빠르게 마시거나 먹어 치운다.
- 말이 씨가 되었다 : 항상 말하던 것이 밑천이 되어 일을 이루게 되었다.
- 망건 쓰자 파장된다 : 장에 가려고 망건을 쓰다가 파장이 되고 만 것처럼, 하고자 하는 일을 준비하다가 그만 때를 놓쳐 이미 늦었다.
- 먹고 죽으려고 해도 없다 : 아무리 애써 찾아도 없다.
- 메뚜기도 유월이 한 철이다 : 모든 일에는 전성기가 있다.
- 모래밭에 물 붓기다 : 애를 써서 하지만 아무런 보람이 없는 짓이다.
- 모로 가도 서울에만 가면 된다 : 목적을 이룰 수 있다면, 어떠한 수단이라도 쓰도록 해야 한다.
- 목구멍에 때를 벗긴다 : 맛있는 음식물을 오래 간만에 많이 먹는다.
- 목 마른 사람이 물을 얻는다 : 곤란한 문제가 흡족하게 해결되었다.
- 문턱이 높도록 드나든다 : 매우 자주 쉴 새 없이 문을 여닫으며 사람이 많이 드나든다.
- 문풍지 떨어진 데는 풀비가 제격 : 사람이나 사상이나 사물이 서로 잘 어울린다.
- 물이 얕으면 돌이 보인다 : 경솔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그 속을 드러낸다.
- 물장수 삼년에 궁둥이 짓만 남았다 : 오랫 동안 애써 수고한 결과가 아무런 소득도 없이 보람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
- 미운놈 떡 하나 더 준다 : 제가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잘 해주고 인심을 얻도록 하라.
-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 은혜를 끼쳐 준 사람으로부터 도리어 해를 입었다.
- 바늘구멍으로 황소바람 들어온다 : 추울 때에는 아무리 작은 문구멍으로 새어 들어오는 바람이라도 차다.
- 바쁘게 찧는 방아에도 손 놀 틈이 있다 : 아무리 바쁠 때라도 쉴 사이가 있다.
- 반찬 항아리가 열둘이라도, 서방님 비위를 못 맞춘다 : 성미가 까다로와 비위 맞추기가 어렵다.
- 밥 순가락 놓았다 : 운명하였다.
- 배 먹고, 이 닦는다 : 한 가지 물건을 이용하여 두 가지 이득을 본다.
-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 본체보다 거기에 딸린 것이 더 크다.

- 뱃속에 거지가 들었다 : 음식을 맛있게 많이 먹는다.
- 버스는 떠났다 : 이미 기회를 놓쳐버렸다.
- 번갯불에 콩 볶아 먹겠다 : 성미가 급하여 무엇이든지 당장에 처리해 버린다.
- 범도 제 소리 하면 온다 : 아침 이야기에 오르고 있는 제삼자가 나타났다.
- 병어리 속은 그 어미도 모른다 : 마음 속으로 애태울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말은 해야 한다.
- 봉사 문고리 잡기 : 재간도 없고 솜씨도 없는 자가 우연히 일을 잘 하였다.
- 부자는 망해도 삼년 먹을 것 있다 : 부자가 망하여 재산을 다 없앴더라도 얼마 동안은 큰 곤란없이 그럭저럭 살아 나간다.
- 부잣집 맘며느리감이다 : 여자의 얼굴이 복스럽고 원만하게 생겼다.
- 부처님 뒷이라 : 겉보기에는 매우 훌륭하나 그 이면을 들추면 지저분한 것들이 있다.
- 빛 좋은 개살구 : 겉모양은 좋으나 실속이 없다.
- 뽕도 따고, 님도 보고 : 동시에 두 가지의 좋은 일을 이루었다.
- 사또 뒤에 나팔 분다 : 제 때에 아니하다가 시기를 놓친 뒤에 한다. 사람이 그 일을 맡고 행세하게 된다.
- 사십에 첫 버선이라 : 나이 들어서 늦게야 관직이나 일자리를 얻게 되었다.
- 산에 가야 범을 잡고, 물에 가야 고기를 잡는다 : 경우에 잘 맞아야 일을 이룰 수 있다.
- 산전수전 다 겪었다 : 세상의 모든 일을 다 겪어서 무슨 일에나 노련하다.
- 서당개 삼년에 풍월한다 : 무식한 사람도 유식한 사람과 함께 지내면 지식을 높일 수 있다.
- 소금 먹은 놈이 물을 켠다 : 어떤 사상의 배후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 소금에 아니 전 놈이 장에 절까 : 깊은 계책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여간한 꾀임에 속을 리 없다.
- 소금이 썩을 일이다 :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
- 소나기 맞은 생쥐 같다 : 꿀이 몹시 흉하다.
- 소·대한에 얼어죽지 않는 놈이 우수경침에 얼어 죽을까 : 큰 고생을 참고 견딘 사람이 작은 고생을 참지 못할 리가 없다.
-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 훌륭하거나 좋다고 하는 소문이 실제와는 달라 그 실상은 보잘것 없다.
-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 평소에 손을 쓰지 않고 있다가 손해를 보거나 실패한 뒤에 대비한다.

- 송곳 하나 꽂을 땅도 없다 : 빈 틈이라고는 없을 정도로 사람이 가득히 모여 있다.
-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샌님 : 사람에게는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시어미가 죽으면, 안방이 내 차지 : 어떤 일을 하던 사람이 없어지게 되면, 그 다음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
- 식은 죽 먹기 : 일하기가 아주 쉽다.
- 십년 공부 나미아미타불 : 오랫 동안 애써 한 일이 허사로 돌아갔다.
- 십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 십년 동안에 강산은 변하지 않은 것 없이 다 변한다.
- 짹수가 노랗다 : 일이 시초부터 어긋나 이루어질 가망이 없다.
- 쌈 것이 비지떡 : 값싼 물건치고 품질이 좋은 것은 없다.
- 쏘아놓은 화살이요, 엎지른 물이다 : 한 번 저지른 일은 다시 고쳐 할 수 없다.
- 쑥 밭이 되었다 : 집이 없어지고 빈 터만 남았다.
- 씨도둑은 못한다 : 유전의 법칙은 어길 수 없다.
- 아침 안개에 중 이마가 벗어진다 : 아침에 안개가 끼는 날은 이마가 벗어질 정도로 햇빛이 세게 내리 쪼여 매우 덥다.
- 안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옳고,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옳다 : 시시비비를 가리기 어렵다.
- 앉아서 주고 서서 받는다 : 돈을 꾸어 주고 그것을 다시 받기는 매우 어렵다.
- 앵무새가 말은 잘하지만 봉황을 닮기는 어렵다 : 말만 잘하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없다.
- 양귀비 뺨치겠다 : 매우 아름다운 여인이다.
- 엎어지면 코 닿을 데 : 거리가 아주 가깝다.
-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 사람의 마음을 알아낸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 반복을 계속하면, 일을 뜻대로 이룰 수가 있다.
- 열 사람이 지켜도 한 도둑을 못 막는다.
- 오금아 나 살려라 한다 : 매우 급하게 전력을 기울여 달린다.
- 오뉴월 감기는 개도 아니 앓는다 : 여름에 앓는 감기는 매우 지독하다.
- 오뉴월 하루 별도 무섭다 : 단시일 동안에 생기는 차이가 현저하게 다르다.
- 오르지 못할 나무 쳐다보지도 말라 :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되는 것은 일찌감치 단념하고 그냥 두도록 하라.
- 옥에 터다 : 나무랄데 없는 것에 한 가지 흠이 있다.

- 요지경 속이다 : 속 내용이 아주 복잡하고 기괴하다.
- 용꿈을 꾸었다 : 매우 좋은 수가 생겼다.
- 우수경첩에 대동강 풀린다 : 우수와 경첩이 지나면 아무리 추운 날씨도 누구려진다.
- 우습게 본 풀에 눈 찔린다 : 변변치 않아 우습게 알고 대한 일에 뜻밖에 큰 손해를 입었다.
-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 조상이나 웃사람이 훌륭하면, 아랫사람은 그 영향을 받아 훌륭하게 된다.
- 유월 장마에는 돌도 자란다 : 유월 장마에는 식물이 잘 자란다.
- 인정에 겨워 동네 시아비가 아홉 : 지나치게 남의 사정을 보아주어서는 안된다.
-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하라 :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말은 바로해야 한다.
- 입이 광주리만 해도 말은 못 하리라 : 잘못이 이미 명백히 드러났으므로, 제 아무리 입이 크더라도 변명은 할 수 없다.
- 입춘을 거꾸로 붙였나 : 추위가 풀려야 할 계절에 날씨가 거꾸로 더 추워진다.
- 자루 속의 송곳은 빼져 나온다 : 아무리 감추어도 탄로될 것은 탄로되고야 만다.
- 작은 고추가 더 맵다 : 몸집이 작은 사람이 큰 사람보다 도리어 단단하고 재주가 더 뛰어나다.
- 잔디밭에서 바늘 찾기 : 도저히 찾을 수 없다.
- 잘 짖는 개 물지 않는다 : 말이 많거나 경솔한 사람은 성공하지 못한다.
- 저녁 굽은 시어미 상이다 : 못 마땅하여 얼굴을 잔뜩 찌푸리고 있다.
- 젖 먹던 힘까지 다 든다 : 몹시 힘드는 일을 한다.
- 제 도끼로 제 발등 찍는다 : 제 일을 제가 망쳐 놓았다.
- 제 발등의 불을 끄지 않는 놈이 남의 발등의 불을 끌까 : 자기의 급한 일도 처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남의 일을 해결해 줄 리가 없다.
- 제 집 제사는 모르면서 남의 집 제사 알까 : 자기네 집 일도 모르면서 남의 집 일을 알 리가 없다.
- 조막손이 달걀 만진다 : 물건을 꽉 잡지 못하고 주무르기만 한다.
- 주머니 돈이 쌈짓돈 : 한 집안 식구의 것이니 이러나 저러나 결국은 마찬가지다.
- 주인보다 객이 많다 : 응당 적어야 할 것이 도리어 더 많다.
- 죽도 밥도 안 된다 : 되다가 말아서 쓸모가 없는 것이 되어 낭패를 보게 된다.
- 죽 쑤어 개 좋은 일만 했다 : 애써서 한 일이 남에게 좋은 일을 한 결과가 되어버렸다.
- 죽어 석 잔 술 살아 한 잔 술만 못하다 : 죽은 후에 아무리 잘 해주어도 소용이 없으니.

살아있는 동안에 적은 대접이라도 정성껏 해 주어야 한다.

- 중매는 잘하면 술이 석 잔이고, 못하면 뺨이 석 대다 : 혼인중매는 선불리 할 것이 아니라 신중을 기해야 한다.
- 쥐 잡으려다가 독만 깨었다 : 미운놈을 헤치려다가 도리어 큰 손해만 보았다.
- 쥐 죽은 듯 : 무서우리만큼 조용하다.
-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 싸움에는 지는 척하고 물러서는 것이 좋다.
- 집안 귀신이 사람 잡아간다 :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해를 입었다.
- 쪽박과 사람은 있는 대로 쓴다 : 사람은 어디에나 쓸모가 있지, 못 쓸 사람은 없다.
- 쭈그렁 밤송이 삼년 간다 : 아주 약해 보이는 사람이 얼마 못 살 듯 싶으면서도, 오래 목숨을 이어간다.
- 참새가 방앗간 그냥 지날까 : 제가 즐기는 것을 그대로 보고만 지나칠 까닭이 없다.
- 처삼촌 묘에 벌초하듯 : 무성의하게 일을 한다.
- 첫 술에 배 부를까 : 무슨 일에서나 처음에는 큰 효과를 얻을 수 없다.
- 코 아래 입이다 : 서로의 거리가 아주 가깝다.
- 콧구멍에 낀 대추씨다 : 매우 작고 보잘 것 없는 물건이다.
- 콩나물만 먹고 자랐나 : 몸이 가늘고 키가 크다.
-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놈 없다 : 사람은 누구나 다 허물을 지니고 있다.
- 파리똥도 똥이다 : 양적으로 비록 저러한 처지에 있다 해도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 패장은 말이 없다 : 일에 실패를 하고 나서는 구구한 변명을 해서는 안된다.
- 평양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이다 :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억지로 그것을 하라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
- 풀 방구리에 쥐 드나들 듯 : 매우 자주 드나든다.
- 하늘과 땅 사이다 : 차이가 아주 심하다.
-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땅 넓은 줄만 안다 : 키가 작고 뚱뚱하다.
- 하늘도 끝 갈 날이 있다 : 무엇이나 다 한이 있다.
- 하늘의 별 따기다 : 매우 하기 어려워서 도저히 이를 가망이 없다.
-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 아무리 큰 난관 속에서도 재기할 수가 있다.
-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 : 한 가지의 일을 보면 다른 모든 행동도 알 수 있다.
- 한강에 배 지나갔다 : 무슨 일을 했거나 어떤 일이 있었는데 전혀 흔적이 없다.
- 한 배 새끼에도 오롱이 조롱이가 있다 : 이 세상에는 서로 똑같은 사람이 없다.

- 한 치 앞이 지옥이다 : 늙어서 죽을 때가 다 되었다.
- 함홍차사 : 한 번 간 사람이 돌아오지 않는다.
- 허파에 바람이 들었다 : 실없이 비실비실 웃는다.
- 호랑이 담배 먹을 적 : 아주 옛날의 일이다.
-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을 차리면 산다 : 아무리 위급한 경우를 당할지라도 정신을 똑똑히 차려야 한다.
- 호박이 넝쿨째 굴러 떨어졌다 : 아주 좋은 운수가 닥쳤다.
- 훌아비 사정 보다가 과부 아이 밴다 : 남의 사정을 보아주다가 실수를 하거나 망신을 당하는 경우가 있으니, 함부로 남의 사정을 보아주어서는 안된다.
- 황소 뒷걸음질에 쥐 잡기 : 요행으로 뜻밖에 좋은 성과를 이루었다.
-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리랬다 : 좋은 일은 하도록 권해야지만, 싸움은 하지 못하도록 말려야 한다.

제 2 절 수수께끼

수수께끼는 은유를 써서 대상을 정의하는 언어 표현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어떤 것을 바로 말하지 않고 빗대어 나타내 그 물건의 뜻이나 이름을 알아 맞추는 놀이를 말한다.

수수께끼의 특성을 살펴보면 형식이 간결하여 기억하기가 쉽다는 점,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한 시대의 공존하는 구성원의 정서를 알 수 있다는 점, 내용이 재미있어 우리에게 해학의 멋과 건강한 웃음을 제공한다는 점, 표현에서 화자와 청자 쌍방이 참여하여 의도적인 오도성(誤導性)을 주고 받아 재치와 사고의 폭을 넓히고 교육적인 효과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수수께끼에 대한 정확한 어원은 미상이지만 고어에 나타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용어의 역사 는 그리 오래되지 않은 듯 싶다. 1933년 이후 사전에 정착된 수수께끼란 용어와 강원지방의 수수께끼·수수꺼기, 평북지방의 수수고끼, 전남지방의 수수적기·수지기·춘추세끼·제주지방의 두리치기·수수잡기·시끼저름·예숙제낄락·걸룩락 등의 방언을 제외하면 이 같은 언어표현법을 지칭하는 별도의 용어가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본 절에 수록된 수수께끼의 조사방법은 속담의 조사방법과 같으며, 보기 쉽고 이해를 돋기

위해 자모순으로 정리하였다.

- 가늘고 긴 몸을 가졌고 코도 눈도 없으며 다만 귀만 있는 것은? - 바늘
-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것은? - 하늘
- 가도 붙잡지 못하는 것은? - 세월
- 가만히 있어도 붙잡지 못하는 것은? - 그림자
- 가면서 빈대떡 부치는 것은? - 쇠똥
- 가시밭 속에 길이 난 것은? - 칫솔
- 가시 안에 매끈, 매끈 안에 텔털, 텔털 안에 맛있는 것은? - 밤
- 가위는 가위인데 자르지 못하는 가위는? - 한가위
- 가위 하나로 모든 사람이 다 쓰는 것은? - 한가위
- 가을 들판에서 어서 오라고 손을 흔드는 것은? - 갈대
- 가을 소식을 전하는 나뭇잎은? - 낙엽
- 가을이 오면 제비가 남쪽으로 날아가는 이유는? - 걸어갈 수 없으니까
- 가장 빨리 죽는 것은? - 하루살이
- 가죽 벗기고, 수염 깎고, 살은 먹고, 뼈는 버리는 것은? - 옥수수
- 가죽 속에 털이 난 것은? - 옥수수
- 가지는 가지인데 못 먹는 가지는? - 한가지
- 가지없이 자라는 것은? - 머리털
- 갈 때는 속이 비었는데 올 때는 속이 차는 것은? - 두레박
- 갈비집에서 뼈다귀에 붙은 살을 뜯으며 하는 말은? - 살맛난다
- 갈수록 멀어지는 것은? - 출발점
- 감은 감인데 못 먹는 감은? - 영감
- 갓 쓰고 때때옷 입은 것은? - 닭
- 갓 쓰고 부엌에서 평생을 사는 것은? - 솔뚜껑
- 갓은 갓인데 먹지 못하는 것은? - 삿갓
- 갓은 갓인데 쓰지 못하는 것은? - 쑥갓
- 갓 태어난 병아리가 찾는 약은? - 뼈약
- 강 가운데 등근 은쟁반은? - 달 그림자
- 강아지는 강아지인데 못 짖는 강아지는? - 땅강아지

- 강에 실뱀이 떠 있는 것은? - 등잔
- 강은 강인데 배가 뜨지 못하는 강은? - 요강
- 같은 날 같이 태어난 다섯 형제가 키가 모두 다른 것은? - 다섯 손가락
- 개가 '멍멍' 하고 짖는 이유는? - '야옹야옹' 하고 짖으면 고양이라 할테니까
- 개는 개인데 아름다운 개는? - 무지개
- 개는 개인데 짖지 못하는 개는? - 산고개
- 개조심이라고 쓰인 집을 좋아하는 사람은? - 개도둑
- 개 중에서 가장 큰 개는? - 안개
- 객이 들어가서 주인을 내쫓는 것은? - 열쇠
- 거꾸로 매달린 집에 많은 문이 달린 것은? - 벌집
- 거꾸로 보면 3분의 1 손해보는 숫자는? - 9
- 거꾸로 서서 걷는 것은? - 봇
- 거꾸로 자라는 것은? - 고드름
- 걷지 않고 삽시간에 멀리 가는 것은? - 광선
- 걸어가면서 도장 찍는 것은? - 지팡이
- 걸어 다니는 귀는? - 당나귀
- 걸을 때마다 앞뒤로 흔드는 것은? - 팔
- 검은 개가 백사장을 이리저리 다니면서 검은 똥을 누는 것은? - 봇
- 검은 소가 이 산 저 산의 나무를 다 먹는 것은? - 아궁이
- 검은 입으로 붉은 밥을 집어 넣는 것은? - 아궁이
- 검정 고무신과 하얀 고무신을 당기면 어느 것이 먼저 찢어질까? - 약한 것
- 계급이 가장 높은 병균은? - 대장균
- 고개넘어 낭떨어지는? - 목구멍
- 고개는 고개인데 보이지 않는 고개는? - 보릿고개
- 고양이를 무서워 하지 않는 쥐는? - 박쥐
- 고체를 쪼개면 액체고, 그 액체에 열을 가하면 다시 고체가 되는 것은? - 달걀
- 고추장이나 된장을 잘못 담그면? - 젠장
- 공기는 공기인데 들이마실 수 없는 공기는? - 밥공기
- 공은 공인데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은? - 성공
- 공은 공인데 뭉길 수도 없고 던질 수도 없고 나가지도 않는 공은? - 뱃사공

- 공휴일에 일하는 것은? - 태극기
- 과수원의 과일을 따 먹을 때 제일 좋은 때는? - 주인 없을 때
- 구리는 구리인데 사용하지 못하는 구리는? - 명텅구리
- 구멍이 뚫린 병뚜껑은? - 젖병뚜껑
- 구멍이 크면 잘 안나오고, 작으면 잘 나오는 것은? - 물총
- 군함과 바둑돌 중 어느 것이 무거운가? - 바둑돌(물에 가라 앉으므로)
- 굴 속에 들어가 목욕하는 것은? - 치솔
- 굴 속에서 흰 할아버지가 들락날락 하는 것은? - 콧물
- 굽었어도 뻗었다 하는 나무는? - 베드나무
- 궁둥이만 그슬리고 밥 얻어 먹지 못하는 것은? - 솔
- 궁둥이에 모자 쓴 것은? - 도토리
- 귀는 귀인데 못 듣는 귀는? - 빠다귀
- 그네를 쉬지 않고 뛰는 것은? - 시계추
- 그 놈의 정 때문에 사는 사람은? - 석수장이
- 그대로 두면 둘이지만 깨지면 하나가 되는 것은? - 38선
- 금은 금인데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금은? - 손금
- 금은 금인데 먹는 금은? - 소금
- 기는 제비는? - 족제비
- 기다란 외나무 끝에 갈대밭이 있는 것은? - 치솔
- 기둥 하나, 가지가 열둘, 잎이 삼백육십오 개인 것은? - 1년
- 기둥 하나로 지은 집은? - 벼섯
- 길면 짧아지고 짧아지면 길어지는 것은? - 낮과 밤
- 길에 다니는 집은? - 가마
- 길은 길인데 가기 싫은 길은? - 저승길
- 까만 것을 칠해야 깨끗해지는 것은? - 까만구두
- 깎으면 깎을수록 길어지는 것은? - 연필심
- 깎으면 깎을수록 커지는 것은? - 구멍
- 깜깜할수록 잘 보이는 것은? - 영화
- 깡충깡충 뛰어야 건너는 다리는? - 징검다리
- 깨면 깔수록 올라가는 것은? - 기록

- 깨물어야 노래하는 것은? - 파리
- 꽂만 먹고 사는 것은? - 꽂병
- 꽃 한 송이 방안에 가득한 것은? - 등잔불
- 꾸면 꿀수록 많아지는 것은? - 이자
- 끓어도 끓어도 끓어지지 않는 것은? - 물
- 끓여도 차다 하는 것은? - 차[茶]
- 끝없이 올라가지만 다시 내려오지 못하는 것은? - 나이
- 나갈 때는 배를 끓고 들어올 때는 배가 부른 것은? - 물동이
- 나갈 때는 홀쭉이, 들어올 때는 배불뚝이인 것은? - 쌀자루
- 나오자 마자 어머니 뺨을 때리는 것은? - 성냥
- 날개가 없어도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 연기
- 날씨가 더우면 크고, 추우면 작아지는 것은? - 온도계
- 날아다니는 개는? - 솔개
- 남에게 먹여야만 맛있는 것은? - 골탕
- 남의 눈으로 먹고 사는 사람은? - 안과의사
- 남자가 여자에게 이기기 힘든 씨름은? - 입씨름
- 낮에는 바위였다가 밤에는 마당이 되는 것은? - 이불
- 낮에는 살고 밤에는 죽는 것은? - 해
- 낮에도 밤이라 하는 것은? - 밤[栗]
- 내 것인데 남이 더 많이 쓰는 것은? - 이름
- 냄새 안나는 방구는? - 문방구
- 네모졌는데 잘 굴러 다니는 것은? - 지폐
- 네 쌍둥이를 집어 던지며 노는 것은? - 윗놀이
- 노처녀가 가장 끌고 싶은 차는? - 유모차
- 높은데로 떨어지는 것은? - 경매물건
- 누더기를 입고 파마를 하는 것은? - 옥수수
- 눈 깜짝할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은? - 윙크
- 눈물없이 우는 것은? - 새
- 눈에는 안 보이나 마디가 있는 것은? - 노래
- 눈은 눈이지만 못 보는 눈은? - 티눈

- 눈을 감아도 보이는 것은? - 꿈
- 눈이 오면 좋아하는 사람은? - 안과의사
- 늘 둑근데 길어졌다 짧아졌다 하는 것은? - 해
- 늙을수록 살찌는 것은? - 벼, 과일
- 다른 날은 가만히 있다가 비오는 날 큰소리 치는 것은? - 천둥
- 다리 한 개로 목발없이 잘 서 있는 것은? - 허수아비
- 다리는 하나, 눈은 3개인 것은? - 신호등
- 다리는 하나인데 머리털이 수없이 많은 것은? - 총체
- 다리 하나는 땅을 디디고, 다른 쪽 다리는 빙글빙글 도는 것은? - 컴퍼스
- 다섯 형제가 한 집에서 방 하나씩 차지하고 사는 것은? - 장갑 낀 손
- 다 컸어도 자라라고 하는 것은? - 자라
- 닦으면 닦을수록 더러워지는 것은? - 걸레
- 달걀 살 때 주는 돈은? - 에그머니
- 대는 대인데 구멍이 없는 대는? - 둑대
- 대대로 곱사등이네? - 새우
- 더운 날에 운동하는 것은? - 선풍기
- 더울 때는 일하고 추울 때는 잠자는 것은? - 부채
- 더워지면 키가 크고, 추워지면 키가 작아지는 것은? - 온도계
- 덥다덥다 하면서 작아지는 것은? - 얼음
- 돈은 돈인데 쓰지 못하는 돈은? - 사돈
- 돈 주고 사서 물에 적셔버리는 것은? - 수영복
- 돌 많은 언덕에 붉은 날개는? - 혀
- 돌벽에다 비단 늘여뜨린 것은? - 폭포
- 돌아다닐 때는 가장 윗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 모자
- 동생은 형집에 갈 수 있어도 형은 동생집에 갈 수 없는 것은? - 그렇
- 동생하고 형이 싸우면서 내는 소리는? - 아우성
- 돼지가 꼬리를 흔드는 이유는? - 꼬리가 돼지를 흔들 수 없으니까
- 두 개의 철로가 기차가 지나가면 하나가 되는 것은? - 지폐
- 둘이 먹다 둘이 죽어도 모르는 것은? - 연탄가스
- 뒤에서 소리나면 뒤돌아 보는 이유? - 뒤통수에 눈이 없어서

- 들어올 때는 가볍고, 나갈 때 무거운 것은? - 두레박
- 등에 뿔난 것은? - 지게
- 등위에 배꼽 달린 것은? - 솔뚜껑
- 등은 앞으로 두고 배는 뒤로 둔 것은? - 정갱이와 장딴지
- 등이 높은 생선은? - 고등어
- 따뜻할 때는 안보이고, 추울 때는 보이는 것은? - 입김
- 때려야 사는 것은? - 팽이
- 때리면 때릴수록 깊이 들어가는 것은? - 못
- 때리면 때릴수록 점점 커지는 것은? - 북소리
- 때리면 먹기 좋아지는 것은? - 북어
- 떡은 떡인데 못 먹는 떡은? - 그림의 떡
- 떡은 떡인데 빨리 먹을 수 있는 떡은? - 헐레벌떡
- 똥은 똥인데 튀기는 똥은? - 불똥
- 똥의 성은? - 응가
- 똥뚱한 여자가 밥 먹을 때 우는 이유는? - 밥이 줄어들으니까
- 뜨개질을 해야 먹고 사는 동물은? - 거미
- 떠는 없이 갓만 쓴 것은? - 자봉
- 마른 몸에 얼음 옷을 입고 추운 곳만 찾는 것은? - 아이스케이크
- 마른 옷을 벗고 젖은 옷을 입는 것은? - 빨래줄
- 마셔도 마셔도 배 부르지 않는 것은? - 공기
- 만지면 마디는 없는데 보면 12마디요. 머리와 꼬리는 차갑고 중간은 더운 것은? - 춘하추동
- 많이 먹으면 배 부르지 않고 화만 나는 것은? - 욕
- 말은 말인데 타지 못하는 말은? - 거짓말
- 맛보고 떨어지는 것은? - 밑씻개
- 맞고 오면 엄마가 좋아하는 것은? - 백점
- 맞춤옷을 가장 많이 입는 나라는? - 가봉
- 매 맞기 위해서 태어난 것은? - 다듬이돌
- 매 안의 뚝은? - 소매 안의 팔뚝
- 매일 학교에는 따라가지만 공부하지 않는 것은? - 가방

- 매일 허리띠를 조르고 있는 것은? - 울타리
- 머리가 두 쪽이 나도 죽지 않는 것은? - 콩나물
- 머리 가운데 혹이 난 것은? - 솔뚜껑
- 머리가 잘못한 걸 풍지가 고쳐주는 것은? - 지우개 달린 연필
- 머리로 먹고 입으로 나오는 것은? - 주전자
- 머리를 얻어 맞아야 들어가는 것은? - 못
- 머리를 풀고 독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 김장배추
- 머리를 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 연기
- 머리와 꼬리가 똑같은 날은? - 일요일
- 머리 위에 눈이 있는 것은? - 등잔불
- 머리 하나에 몸뚱이 하나인 것은? - 못
-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은 것은? - 나이
- 먹으면 먹을수록 가벼워지는 것은? - 풍선
- 먹으면 서고 못먹으면 앓는 것은? - 자루
- 먹을 때마다 따라 다니는 개는? - 이쑤시개
- 먹지도 못하고 입만 그슬리는 것은? - 부지깽이
- 먹지도 쉬지도 않으면서 앞으로만 가는 것은? - 세월
- 먹지 않아도 맛이 단 것은? - 단감
-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 먹어도 더 이상 배부르지 않는 것은? - 항아리
- 먹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것은? - 음식맛
- 먼 산 밑에 바가지 엎어 놓은 것은? - 무덤
- 먼 산 보고 절하는 것은? - 디딜방아
- 먼 산을 보며 부채질 하는 것은? - 키
- 멀어질수록 힘이 강해지는 것은? - 고무줄
- 모든 사람이 길어졌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조금도 길어지지 않은 것은? - 해
- 장사꾼들이 싫어하는 경기는? - 불경기
- 몸에 항상 지니고 있는 반찬은? - 장단지
- 못 사온다 하면서 사오는 것은? - 못
- 무거울수록 위로 올라가는 것은? - 저울주
- 무대에서 뒷모습만 보이는 사람은? - 지휘자

- 묵은 묵인데 먹지 못하는 묵은? - 아랫묵
- 문은 문인데 떠돌아 다니는 문은? - 소문
- 물에서 태어났으면서 물에 들어가면 죽는 것은? - 소금
- 물은 물인데 무서운 물은? - 괴물
- 물이 흘러야 사는 것은? - 물레방아
- 미끄럼 타면서 불을 만드는 것은? - 성냥
- 밑에서 먹고 밑에서 내놓는 것은? - 만년필
- 밑으로만 자라는 것은? - 고드름
- 밑을 치면 혀가 나오는 것은? - 자물쇠
- 바다와 물 사이에 있는 것은? - 와
- 바람 불어 좋을 때는? - 연 날릴 때
- 바람은 바람인데 부는 바람이 아닌 것은? - 신바람
- 바른 손으로 드는데 원손으로는 못드는 것은? - 원손
- 박은 박인데 쓸모없는 박은? - 우박
- 밭이 두 개 달린 소는? - 이발소
- 밟을수록 달아나는 것은? - 자전거
- 밤낮없이 남의 말만 전하는 것은? - 전화
- 밤에 들어가면 검고, 아침에 나오면 하얀 것은? - 연탄
- 밤엔 내려오고, 아침엔 올라가는 것은? - 이불
- 밥은 밥인데 못 먹는 밥은? - 톱밥
- 밥은 주지도 않으면서 밥을 준다는 것은? - 시계
- 방귀를 뀌고 성내는 것은? - 성냥
- 배꼽으로 먹고 입으로 토하는 것은? - 연적
- 병은 병인데 안 아픈 병은? - 물병
- 불인데 타지도 않고 뜨겁지 않으며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불은? - 반딧불
- 비가 와도 젖지 않는 것은? - 연기
- 빈손으로 갔다가 들고 오는 것은? - 두레박
- 빨간 모자 쓰고 눈물 흘리는 것은? - 촛불
- 빨간 얼굴에 검은 깨가 있는 것은? - 팔기
- 뼈 속에 살이 든 것은? - 호두

- 사면으로 바삐 다녀도 얻어 먹지 못하는 것은? - 젓가락
- 산부인과 의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귀절은? - 애베소서
- 산은 산인데 못 올라가는 산은? - 우산
- 삼각모자 쓰고 발 열 개 달린 것은? - 오징어
- 상은 상인데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상은? - 상상
- 새긴 새인데 제일 빠른 새는? - 눈 깜짝할 새
- 새끼는 가는데 아비는 못 가는 것은? - 활과 화살
- 새 옷을 입어도 검고, 헌 옷을 입어도 검은 것은? - 그림자
- 새 옷을 입으면 매 맞는 것은? - 다듬이 돌
- 새 중에 가장 큰 새는? - 하늘과 땅 새
- 생일은 내일인데 낳기는 오늘 낳는 것은? - 신문
- 서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는? - 부귀영화
- 서서 먹고 누워서 토하는 것은? - 병
- 성공하면 죽고 실패하면 사는 것은? - 자살
- 세 살 때 나서 열다섯 살까지 자라서 서른 살에 죽는 것은? - 달
- 세상 사람들이 동시에 먹고 있는 것은? - 나이
- 세상에 날 때부터 늙은이는? - 할미꽃
-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 눈꺼풀
- 세상에서 제일 높은 고개는? - 보릿고개
- 세상에서 제일 빠른 개는? - 번개
- 세상에서 흰 것을 붉다고 하는 것은? - 눈보라
-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 먹고 입을 봉해 버리는 것은? - 편지봉투
- 세월의 속도는? - 시속 60분
- 소는 소인데 뿐 없는 소는? - 미소
- 소화가 잘 안되는 밥은? - 눈치밥
- 속으로 살찌는 것은? - 게
- 손님이 올 때마다 끌려나오는 것은? - 방석
- 쇠만 먹고 사는 것은? - 도가니
- 술과 술이 서로 맞닿아 있는 것은? - 입술
- 술은 술인데 못 마시는 술은? - 마술

- 술에 취한 무는? - 홍당무
- 슬픔을 모두 받아주는 것은? - 손수건
- 신경통 환자가 싫어하는 악기는? - 비올라
- 신은 신인데 귀가 붙어있는 신은? - 귀신
- 신은 신인데 못 신는 신은? - 귀신
- 실뱀이 샘을 다 빨아먹는 것은? - 등잔의 심지
- 실어도 실어도 무겁지 않은 것은? - 신문
- 심지 못하는 씨는? - 아저씨
- 십리는 가지만 오리는 못 가는 것은? - 팔
- 씨는 씨인데 심어도 안 나오는 것은? - 솜씨
- 아궁이에 불 때고, 굴뚝에서 먹는 것은? - 담뱃대
- 아들 아홉을 세글자로 줄이면? - 아이구
- 아무리 도망가려 해도 제자리인 것은? - 그네
- 아버지는 하나인데 아들은 둘, 셋으로, 건너산을 보고 절하는 것은? - 도리깨
-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은? - 방학동
- 아침마다 절 받는 것은? - 세숫대야
- 아침에는 네 발, 점심에는 두 발, 저녁에는 세 발인 것은? - 사람
- 안으로 들어갈 때는 한 개인데, 나올 때는 두 개인 것은? - 바지
- 앉으면 높고, 서면 낮아지는 것은? - 천정
- 알을 알인데 날아가는 알은? - 총알
- 암만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많이 먹으면 죽는 것은? - 나이
- 약삭 빠른 사람들이 사는 술은? - 치세술
- 양파를 계속 까면 나오는 것은? - 눈물
- 양품점 점원 아가씨와 총각손님 사이에 오고가는 정은? - 흥정
- 어느 계절이나 피는 꽃은? - 웃음꽃
- 어려서는 희고, 커서는 푸르고, 늙어서는 붉은 것은? - 고추
- 얼굴은 여섯 개이고, 눈이 스물 한 개인 것은? - 주사위
- 얼굴이 바뀌는 것은? - 달력
- 오른쪽에서 보면 왼쪽에 있고 왼쪽에서 보면 오른쪽에 있는 것은? - 코
- 오른쪽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것은? - 피아노

- 오리의 방석은? - 물
- 오이의 나이는? - 10살
- 올라갈 때는 다리로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엉덩이로 내려오는 것은? - 미끄럼틀
- 왼쪽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것은? - 주판
- 우물안의 흰돌은? - 이빨
- 울어도 눈물이 안 나오는 것은? - 금붕어
- 울퉁, 쑥, 뾰죽 그 밑에 낭떨어지인 것은? - 얼굴
- 위로 먹고 옆구리로 내뱉는 것은? - 맷돌
- 위, 아래로만 움직이는 것은? - 엘리베이터
- 위에선 소용없고, 밑에서만 사용하는 것은? - 책받침
- 음식을 먹기 전에 두 손을 썩썩 비비는 것은? - 파리
- 이 산 저 산 편지 보내는 것은? - 가랑잎
- 이 세상에서 불필요한 사람은? - 입에 담배 문 사람
- 일어섰을 때는 안 보이고 앉았을 때만 보이는 것은? - 발바닥
- 일을 하기 전에 키부터 재어보고, 키가 꼭 같은 것 끼리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은? - 젓가락
- 일 할 때 모자를 벗고 쉴 때 모자를 쓰는 것은? - 만년필
- 입으로 먹고 등으로 나오는 것은? - 대폐
- 자리는 자리인데 깔지 못하는 것은? - 꿈자리
- 자신은 얻어먹지도 못하면서 남에게는 열심히 밥을 주는 것은? - 순가락
- 잘못했을 때 권하는 과일은? - 사과
- 잡아당기면 죽고 뛰면 흔들리는 것은? - 넥타이
- 장님도 볼 수 있는 것은? - 꿈
- 장은 장인데 못 먹는 장은? - 송장
- 저녁에만 피는 꽃은? - 별
- 적에게 꽁무니를 보여야 이기는 것은? - 달리기
- 짚어서는 약하고 늑을수록 튼튼해지는 것은? - 대나무
- 짚어서는 은돈, 늑어서는 금돈인 것은? - 고추
- 젖은 옷만 입고 마른 것은 벗어 놓는 것은? - 빨랫줄
- 제일 어렵게 지은 절은? - 우여곡절
- 조개는 조개인데 못 먹는 조개는? - 보조개

- 종이 밥 먹고 종이 뚝 누는 것은? - 우체통
- 죄도 없이 밤낮 발로 채이는 것은? - 축구공
- 주고도 가지고 있는 것은? - 지식
- 주름에서 음악이 나오는 것은? - 레코드판
- 죽도록 매 맞고 줄에 매달려 춤추는 것은? - 빨래
- 죽은 나무가 걷는 것은? - 목발
- 죽은 소가 우는 것은? - 북
- 집에서 나오자 마자 자기 집 벽에 머리 부딪히고 죽는 것은? - 성냥
- 창은 창인데 못 찌르는 창은? - 시궁창
- 책은 책인데 읽지 못하는 책은? - 주책
- 최초의 다이빙 선수는? - 심청이
- 추우면 늘어나고 더우면 오그라드는 것은? - 고드름
- 침은 침인데 놓지 않는 침은? - 목침
- 카메라로 사진 찍을 때 한 쪽 눈을 감는 이유는? - 두 눈 다 감으면 안 보이니까
- 칼은 칼인데 자르지 못하는 칼은? - 머리칼
- 커질수록 값이 싸지는 것은? - 물건의 흠집
- 코는 코인데 제일 큰 코는? - 멕시코
- 콩은 콩인데 먹지 못하는 콩은? - 베트콩
- 키스를 거꾸로 하면 스키, 스키를 거꾸로 하면? - 넘어진다
- 푸른 끈으로 묶인 붉은 주머니에 노란 알이 들어 있는 것은? - 고추
- 푸른 치마 입고, 빨간 땅기 드리고, 아리랑 고개 넘어가는 것은? - 상추쌈
- 피도 빼도 살도 없는 손은? - 장갑
- 하늘 보고 송곳질 하는 것은? - 절구
- 하루종일 걸어도 오리 밖에 가지 못하는 것은? - 오리
- 하얀 차돌에 풀 난 것은? - 무
- 학은 왜 한쪽 발을 들고 서나? - 두 발 다 들면 넘어지니까
- 한달에 두 번 병신되는 것은? - 달
- 한 독에 두 가지 장 담는 것은? - 달걀
-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않는 것은? - 세월
- 한 사람으로 만원이 되는 곳은? - 화장실

- 한 자 반이 되는 콩은? - 콩자반
- 한 칸 방에 머리를 가지런히 하고 빽빽하게 누워 있는 것은? - 성냥
- 한편에서는 불때고 한편에서는 먹는 것은? - 담뱃대
- 함은 함인데 넣지 못하는 함은? - 명함
- 해와 달이 씨름하는 글자는? - 명
- 해의 오빠는? - 해오라비
- 허수아비의 아들 이름은? - 허수
- 현병도 잡을 수 있는 사람은? - 엊장수
- 희어도 검고 검어도 검은 것은? - 그림자

제3절 금기어 · 길조어

우리 조상은 옛날부터 나무 · 돌 · 고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연물의 정령(精靈)이 모두 인간과 관계가 있다고 믿어왔으며, 이러한 모든 것의 표현수단인 언어 또한 영이 있다는 언령사상(言靈思想)을 믿어왔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공포와 흥조를 연상케 하는 행동에 대해 금기시하는 것을 언어로 표현한 것이 금기어이다. 따라서 금기어와 길조어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경거망동하는 행동에 제재를 가하는 교훈적인 특성을 지닌다.

일회적이고 찰라적인 행동이 저변에 팽배되어 있는 현대사회의 병폐를 생각해 볼 때, 금기어는 이러한 현상을 치유할 수 있는 귀중한 무형 재산이라고 할 수 있겠다.

1. 금기어

1) 혼례

- 나이 많은 총각이 남의 혼인집에서 음식을 먹으면 늦게 장가간다.
- 새색시가 시집가는 날 솔뚜껑을 만지고 가야 잘 산다.

- 신부의 꽂다발을 비 맞게 하면 좋지 않다.
- 처녀가 상 위에다 바가지를 올려 놓으면 혼인이 늦어진다.
- 첫날 밤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신방 밖으로 나가면 복이 달아난다.
- 함 속에서 붉은 옷을 꺼내면 첫 아들을 낳고, 푸른 옷을 꺼내면 딸을 낳는다.
- 혼인날 눈이 오면 부자가 된다.
- 혼인날 마당에 차일(遮日)을 치지 않으면 해를 받는다.
- 혼인날 비가 오면 불길하다.
- 혼인날 신부가 눈물을 흘리면 잘 살지 못한다.
- 혼인날 신부가 부엌에 들어가면 시어머니에게 말대꾸한다.
- 혼인날 신부가 웃으면 첫 딸을 낳는다.
- 혼인날을 받아 놓고 남의 결혼식이나 상가집에 가지 않는다.
- 혼인 첫날밤 신방의 촛불을 손으로 꺼야지, 입으로 불어 끄면 복이 달아난다.

2) 임신

- 아이 벤 여자가 절구통에 앉으면 째보난다.
- 여자가 절구통에 앉으면 절구통같이 못생긴 아이를 낳는다.
- 임신부가 남을 속이면 아이에게 지장이 있으므로 남을 속이지 않아야 한다.
- 임신부가 부엌비를 깔고 앉으면 쌍둥이 난다.
- 임신부가 손가락으로 장독의 간장을 찍어 먹으면 어린 아이가 혀를 날름거린다.
- 임신부가 오리고기를 먹으면 손가락 붙은 아이를 낳는다.
- 임신부가 있는 집에서는 집을 수선하거나 개축하여서는 안된다.
- 임신부는 가축 등을 죽이는 것을 보아서는 안된다.
- 임신부는 말 고삐나 새끼줄을 넘지 않아야 된다.
- 임신부는 몸 속에 불결한 물건을 품고 자면 안된다.
- 임신부는 시루나 무거운 독을 들어서는 안된다.
- 임신부는 초상집 음식을 먹어서는 안된다.
- 임신부는 초상집에 문상을 가지 않는다.
- 임신한 여자가 남을 미워하거나 흉을 보면 어린애가 그렇게 된다.
- 임신한 여자가 남의 담을 넘어 다니면 어린 아이가 커서 도둑이 된다.

- 임신한 여자가 빨래를 널으면 좋지 않다.
- 임신한 여자가 숯불을 피우면 좋지 않다.

3) 출 산

- 미역을 뜯어 먹어서는 안된다.
- 부정한 사람은 산실에 들어가지 못한다.
- 산후 7일 동안 돼지고기를 먹어서는 안된다.
- 산후 삼칠일 안에 사람이 들어오면 부정 낸다.
- 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은 금줄을 쳐야 한다.
- 이웃집에서 아이를 낳으면 빨래를 하지 않는다.
- 한 집에서 두 사람이 출산을 하면 한 사람이 친다.

4) 상례와 제례

- 객사한 시체는 방에 들여 놓지 않는다.
- 마을에 초상이 나면 장례를 마칠 때까지 빨래를 하지 않는다.
- 사람이 죽으면 바로 아궁이를 막아 고양이가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 사람이 죽은 집에서는 삼년상이 끝날 때까지 머리에 빗질을 하지 않는다.
- 상주가 새 옷을 입으면 부모님의 저승길이 어둡다.
- 상중에 빨래를 하면 병이 난다.
- 상중에 이웃집에서 바느질하면 그 집안이 망친다.
- 시체가 든 관위에 칼을 남기면 시체가 일어선다.
- 시체가 든 관을 밖으로 운반할 때 관이 벽이나 문지방에 부딪치지 않게 한다.
- 어린애는 시체를 보아서는 안 된다.
- 염할 때 시체 위로 칼을 널기면 살인하게 된다.
- 제사 다음 날 조상의 성묘를 하면 조상이 기뻐한다.
- 제사 때 축문을 크게 읽어야 조상이 기뻐한다.
- 제사 지내기 전에 닭이 울면 귀신이 오지 못한다.
- 제사 지낸 밥을 먹으면 마른 벼침이 없어진다.

- 제사 지낸 숭늉을 먹으면 겁이 없어진다.
- 제사 지낸 후 대추를 먹어야 늙지 않는다.
- 제사 지낸 후 떡을 이웃과 많이 나누어 먹어야 조상이 기뻐한다.
- 제사 지낸 후에는 음복(飲福)을 해야 자손이 잘 된다.
- 제사 지낸 후에는 음식을 여럿이 먹어야 좋다.
- 제사 지낼 때는 문을 열어 놓아야 조상이 들어온다.
- 제삿날 빨래를 다리면 곰보자식 낳는다.
- 제삿날 빨래줄을 매면 귀신이 오다 돌아간다.
- 제삿날에는 머리를 벗지 않는다.
- 제삿날 조상의 묘를 깨끗이 단장하면 복을 받는다.
- 죽은 시체를 사람이 넘어 다녀서는 안된다.
- 초상집에 다녀오면 소금을 뿌린다.
- 초상집에 다녀오면 짚을 태워 불을 쏘여야 한다.

5) 동 · 식물

- 개가 땅을 파면 바깥 주인이 죽는다.
- 개가 마루밑을 파면 흉년이 든다.
- 개가 사람의 똥 위에다 똥을 누면 집안이 잘 된다.
- 개가 지붕 위에 올라가면 집안이 망한다.
- 개가 풀을 뜯어 먹으면 그 해에 가뭄이 든다.
- 개꼬리에 짚이 붙어 들어오면 손님이 온다.
- 개가 새끼 낳는 것을 보면 부정탄다.
- 고양이가 국수를 먹으면 뱀을 물고 들어온다.
- 고양이가 사람의 관을 넘으면 관이 일어난다.
- 고양이가 얼굴을 씻으면 비가 온다.
- 고양이를 죽이면 고양이가 원수를 갚는다.
- 고양이를 죽이면 집안에 액운이 든다.
- 까마귀가 많이 울면 마을에 초상이 난다.
- 까마귀 고기를 먹으면 기억력이 없어진다.

- 꿩이 몹시 울면 지진이 일어난다.
- 나비를 잡고 눈을 비비면 장님이 된다.
- 눈에 거머리가 많으면 벼가 잘 된다.
- 닭 대가리를 여자가 먹으면 그릇을 깬다.
- 닭이 쌩알을 낳으면 집안이 흉한다.
- 닭이 지붕 위에 올라가면 비가 오지 않는다.
- 닭이 화에 일찍 올라가면 쌀값이 떨어지고, 늦게 올라가면 쌀값이 오른다.
- 대나무에 꽃이 피면 나라가 망한다.
- 대나무로 빗물 받아내면 가난해진다.
- 대나무로 사람을 때리면 몸이 마른다.
- 대나무로 사람을 때리면 살이 내린다.
- 돼지꼬리를 먹으면 글씨 잘 쓴다.
- 마늘껍질을 불에 태우면 부스럼이 난다.
- 마늘대를 떼면 속이 없는 아이를 낳는다.
- 맹꽁이나 개구리가 처마 밑에 들면 장가가 듦다.
- 밤에 거미가 줄을 타고 내려가면 우환이 생긴다.
- 밤에 여우가 몹시 울면 사람이 죽는다.
- 뱀을 죽이다 말면 그 뱀이 살아서 원수 갚으러 온다.
- 뱀이 길가는 사람의 앞길을 질러가면 재수없다.
- 뱀이 집에서 나오면 초상난다.
- 봄에 흰나비를 먼저 보면 상복을 입게 된다.
- 부엉이가 많이 울면 동네에 초상난다.
-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 제비나 나비를 잡으면 별을 받는다.
- 제비를 잡으면 학질에 걸린다.
- 제비를 죽이면 어머니가 돌아가신다.
- 죽제비가 집안에 있으면 부자가 된다.
- 쥐가 많이 우글거리면 세상이 시끄럽게 된다.
- 집안에 제비가 집을 지으면 좋다.
- 참새다리를 여자가 먹으면 그릇을 잘 깬다.

- 청개구리가 울면 비가 온다.
- 황새가 마을 뒤에 서식하면 마을이 부자가 된다.
- 흰 뱀을 보면 좋은 일이 생긴다.

6) 식사와 여성예절

- 고부간에 화합치 않으면 집안이 망한다.
- 국그릇을 밥의 왼쪽에 놓고 식사하면 복이 나간다.
- 국물을 먹다 남기면 복이 나간다.
- 국수를 잘 먹으면 오래 산다.
- 깨진 거울을 보면 근심이 생긴다.
- 남자가 밥상의 모서리에 앉으면 모난소리 듣는다.
- 누워서 밥을 먹으면 소가 된다.
- 다리를 뻗고 밥을 먹으면 가난하게 산다.
- 마루에서 밥을 먹을 때에는 꼭 방문을 열어 놓고 먹어야 한다.
- 맑며느리가 외출이 잦으면 집안이 망한다.
- 말이 많은 여자의 집에는 장맛도 쓰게 변한다.
- 문지방에 밥사발을 올려 놓고 먹으면 귀머거리가 된다.
- 문지방에 여자가 앉으면 남편에게 재수없는 일이 생긴다.
- 문지방을 타고 앉아 밥을 먹으면 빌어 먹는다.
- 바가지를 밥상 위에 올려 놓으면 가난하게 산다.
- 밤에 머리를 벗으면 팔자가 사납다.
- 밥그릇을 손을 받치고 먹으면 가난해진다.
- 밥그릇을 들고 다니면서 밥을 먹으면 여러 번 이사한다.
- 밥 먹고 나서 곧 그 자리에 누우면 죽어서 소가 된다.
- 밥 먹고 물 마시지 않으면 가난하게 산다.
- 밥 먹다가 숟가락을 상 위에 소리내어 놓으면 밥 빌어 먹는다.
- 밥 먹을 때 밥그릇을 겹쳐 놓고 먹으면 줄초상난다.
- 밥 먹을 때 수저 든 손 흔들면 복이 나간다.
- 밥 먹을 때 턱을 괴고 먹으면 복이 나간다.

- 밥 비벼먹은 그릇에 물을 부어 마시면 체증이 없어진다.
- 밥상 앞에서 울면 부모가 돌아가신다.
- 밥상 위에 칼을 올려 놓으면 부부싸움 한다.
- 밥상을 두 손으로 들지 않고 한 손으로 밀거나 잡아 당기면 두더지가 땅을 파 해친다.
- 밥을 먹거나 밥을 먹고 바로 기지개 켜면 복이 달아난다.
- 밥을 먹고 밥 그릇에 물을 부어 먹지 않으면 복이 달아난다.
- 밥을 먹을 때 밥그릇을 깨끗하게 먹지 않으면 복이 달아난다.
- 배개를 깔고 앉으면 시집가서 소박 맞는다.
- 삼년 간 밥상을 한 손을 밀거나 당기지 않으면 부자가 된다.
- 세수한 뒤 그 물로 발을 씻지 않고 다른 물로 씻으면 시집 두 번 간다.
- 수저로 밥을 먹을 때 한 번 뜯다가 다시 밥을 엎은 후 떠 먹으면 복을 엎는 것이다.
- 수저를 짧게 잡으면 가까운 곳으로 시집가고 길게 잡으면 먼 데로 시집간다.
- 시아버지 앞에서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 나쁘다.
- 시집가서 바로 사발을 깨면 계속 깨게 된다.
- 시집가서 바로 큰 그릇을 깨면 재앙이 생긴다.
- 식사 도중 청소를 하면 빌어 먹는다.
- 식사 때 밥그릇의 뒷면부터 먹으면 커서 도둑이 된다.
- 식사 때 밥알을 많이 흘리면 복이 달아난다.
- 식사를 할 때 말을 많이 하면 복이 달아난다.
- 식사를 하다가 변소에 가면 복이 달아난다.
- 식사를 하다가 이를 보이면 가난하게 산다.
- 식사를 한 뒤에 수저를 바로 놓지 않고 엎어 놓으면 복이 달아난다.
- 식사 중에 입안의 음식이 보이면 복이 나간다.
- 아침에 여자가 큰 소리 치면 재수가 없다.
- 여자가 남달리 말이 많으면 과부가 된다.
- 여자가 남의 집에 가서 문지방에 걸터 앉으면 재수가 없다.
- 여자가 남의 집에 가서 배개 위에 올라 앉으면 몸이 오른다.
- 여자가 남자를 앞질러 지나가면 재수가 없다.
- 여자가 남자의 허리를 넘으면 그 남자가 허리를 앓는다.
- 여자가 다듬이돌 위에 앉으면 소박 맞는다.

- 여자가 다른 남자의 신을 신으면 후생에 그 사람과 부부가 된다.
- 여자가 문지방을 베고 자면 평생 집을 사지 못한다.
- 여자가 비를 깔고 앉으면 도깨비가 생긴다.
- 여자가 시기심이 많으면 오래 살지 못한다.
- 여자가 임신중에 화로를 타 넘으면 불효자식을 낳는다.
- 여자가 자면서 발장난 하면 시집가서 쫓겨난다.
- 여자가 치마를 태우면 부모와 이별한다.
- 여자가 휘파람 불면 팔자가 세다.
- 여자의 소리가 집밖으로 나가면 집안이 망한다.
- 여자의 속옷을 울타리에 널면 복이 나간다.
- 음식을 문턱에 놓았다 먹으면 일이 되지 않는다.
- 음식을 칼로 베어 먹으면 죽을 때 칼에 맞아 죽는다.
- 자정에 거울을 보면 원귀가 나타난다.
- 자정에 거울을 보면 미운 남편 얻는다.
- 처녀가 머리를 풀고 문지방을 넘으면 시집을 못 간다.
- 처녀가 머리를 풀고 부엌에 들어가면 평생 고생한다.
- 해진 다음 비누로 발을 씻으면 곰보신랑을 얻는다.

7) 일상생활

- 갓 이사와서 팥죽을 쑤어 먹으면 부자가 된다.
- 거짓말을 하면 엉덩이에 뿔난다.
- 고기의 눈알을 먹으면 효성이 없어진다.
- 길에서 칼을 주워오면 동티난다.
- 남을 비웃으면 입이 비뚤어진다.
- 남의 몸을 함부로 넘어가면 재수가 없다.
- 남의 집에 가서 발이 저리면 자주 놀러간다.
- 남의 귀를 휘벼주면 재수가 없다.
- 남의 집에서 손톱을 깎으면 그 집과 사이가 멀어진다.
- 누워서 벽에다 발을 올려놓고 자면 집안이 망한다.

- 놀은 밥을 좋아하면 다시 그 집에 태어난다.
- 늦잠이 많으면 가난해진다.
- 다리미질 할 때 옷고름부터 다리면 빌어 먹는다.
- 도마 위에 바가지 올려놓으면 가난해진다.
- 돌 때 떡을 해 주지 않으면 잘 넘어진다.
- 돌 떡을 얻어 먹으면 무엇으로든지 갚아줘야 아이의 명이 길다.
- 두 사람이 한 대야에 손을 씻으면 싸움질을 한다.
- 뜨거운 것을 잘 먹으면 효성이 지극한 사람이 된다.
- 마르지 않은 옷을 입으면 옷을 못 얻어 입는다.
- 마른 때를 벗기면 어머니가 돌아가신다.
- 말띠 해에 태어난 여자는 팔자가 세다.
- 머리를 북쪽으로 두고 자면 병이 잦다.
- 물건을 주었다 빼앗으면 항문에 종기난다.
- 바가지를 머리에 쓰면 흉년이 든다.
- 발바닥과 발바닥을 맞대면 복이 나간다.
- 밤에 방망이질하면 우환이 든다.
- 밤에 손톱을 깍으면 인정없는 사람이 된다.
- 밤에 하늘을 보고 자면 입이 빼뚤어진다.
- 밤 이슬을 맞고 자면 입이 돌아간다.
- 방에서 휘파람을 불면 뱀이 들어온다.
- 벼선을 뒤집어 신으면 재수없다.
- 베개를 높게 베고 자면 쉬 죽는다.
- 벽에 바늘을 꽂아 놓으면 남편이 마른다.
- 벽에 손그림자 비추면 도둑이 든다.
- 복승아 벌레 먹으면 예뻐진다.
- 부엌 바닥에 침을 뱉으면 죄가 된다.
- 불 장난하면 오줌싼다.
- 사내가 부엌에 들어가면 불알이 떨어진다.
- 사람이 자면서 입맛 다시면 근심이 생긴다.
- 삭망지낸 밤을 먹으면 무서움을 안 탄다.

- 솔뚜껑 위에 바가지 엎어 놓으면 도둑이 듣다.
- 수의를 만들 때는 실을 매듭 짓지 않는다.
- 시루떡을 구워먹으면 가난해진다.
- 시험칠 때 미역국 먹으면 낙방한다.
- 쌍동밤을 나누어 먹지 않으면 쌍둥이를 낳는다.
- 아궁이에 소변 보면 불행해진다.
- 아내가 이마에 손을 얹고 자면 남편이 죽는다.
- 아랫목에다 머리를 두고 자면 해롭다.
- 아이 낳은 여자가 세수를 하면 남편이 첨을 얻는다.
- 아침에 엎드려 자면 복이 나간다.
- 양말을 머리맡에 벗어 놓고 자면 꿈자리가 사납다.
- 어두울 때 빨래를 하면 동네가 망한다.
- 어른의 신을 아이가 신으면 해로운 일이 생긴다.
- 옛날 이야기를 좋아하면 가난하게 산다.
- 오지 않는 사람 온다고 하면 그 사람이 와서 화를 낸다.
- 옷고름을 자르면 재수가 없다.
- 옷을 뒤집어 입으면 남에게 미움을 받는다.
- 옷을 입고 단추를 달면 도둑 누명을 쓴다.
- 음식물을 나누어 먹지 않으면 쪽니가 난다.
- 자면서 입을 벌리고 자면 복이 나간다.
- 잠 자면서 이를 갈면 복이 나간다.
- 잠 잘 때 발을 포개고 자면 복이 달아난다.
- 잠 잘 때 발을 팔을 베고 자면 가난하게 산다.
- 지게를 부숴 때면 육손이를 낳는다.
- 지게 작대기로 부지깽이하면 언청이 손자 낳는다.
- 집안 어른이 식사할 때 머리를 벗으면 해롭다.
- 초복에 비가 내리면 삼복 모두 비가 내린다.
- 초저녁에 일찍 자면 부자가 된다.
- 초하룻날 아침 일찍 깨면 부자가 된다.
- 초하룻날 아침 일찍 여자가 찾아들면 재수가 없다.

- 치마로 남자옷을 만들면 재수없다.
- 칼을 부뚜막 위에 그냥 놓으면 부정탄다.
- 팔을 이마에 올려 놓고 자면 어머니가 죽는다.
- 해진 뒤에 장독에서 장을 펴내면 복이 나간다.
- 호주머니에 물건을 많이 넣고 다니면 커서 가난하게 산다.
- 흥역할 때 개를 잡으면 해롭다.

8) 기타

- 가르마가 길면 명이 길다.
- 가물 때 어린애가 입술로 투레질하면 비가 온다.
- 가운데 손가락이 길면 재주가 있다.
- 간장 맛이 변하면 집안이 망한다.
- 거울을 깨뜨리면 집안에 화를 당한다.
- 겨울이 춥지 않으면 그 해는 병이 많다.
- 굴뚝이 무너지면 재수가 없다.
- 귀가 길면 오래 산다.
- 귀문이 좁으면 부자가 된다.
- 길 떠날 때 까마귀가 울면 재수가 없다.
- 길에서 담뱃대나 머리빗을 주으면 재수가 없다.
- 남자가 여자옷을 입어보면 재수가 없다.
- 누룽지를 길에 버리면 복이 달아난다.
- 빈 가위질을 하면 복이 나간다.
- 신발을 거꾸로 신으면 복이 나간다.
- 신발을 잃어버리면 재수가 없다.
- 쌀 뒤주 밑바닥을 너무 닥닥 긁으면 가난하게 산다.
- 어린애가 앞머리를 긁으면 외출한 아버지가 일찍 돌아온다.
- 어린애가 뒷머리를 긁으면 아버지가 늦게 돌아온다.
- 아버지를 너무 따르는 아이는 수명이 짧다.
- 자는 사람 얼굴에 그림을 그리면 그 사람이 죽는다.

- 자루를 베고 자면 귀머거리가 된다.
- 자를 부러뜨리면 삼년 재수 없다.
- 작은 항아리를 상 위에 올려놓으면 빛을 못 받는다.
- 잔소리가 많으면 가난해진다.
- 주걱에 돌이 막히면 혀바늘 선다.
- 주판을 엎어놓으면 재수 없다.
- 짐승이 오래 묵으면 도술을 한다.
- 책상에 올라앉으면 공부 못 한다.
- 책을 베고 자면 공부 못 한다.
- 콩을 뷔아 껍질을 까 먹으면 가난하게 산다.
- 토끼 새끼 낳을 때 사람이 들여다보면 어미가 새끼를 잡아 먹는다.
- 평상시에 한숨을 쉬면 팔자가 사나워진다.
- 홍역할 때 개를 잡으면 해롭다.
- 환갑 잔치는 앞당겨서는 해도 늦춰서 하지는 않는다.

2. 길조어

- 까치가 자기집 남쪽에 있는 나무에 집을 지으면 큰 인물이 나온다.
- 까치집이 있는 나무 밑에 집을 지으면 부자가 된다.
- 까치집이 있는 나무에 씨를 받아 심으면 그 집에 벼슬할 사람이 나온다.
- 꿈에 귀인에게 절을 하면 대길하다.
- 꿈에 돼지새끼를 낳으면 운수대통한다.
- 꿈에 몸이 날아오르거나 하늘에 오르면 운수대통한다.
- 꿈에 무지개를 보면 집안에 경사가 생긴다.
- 꿈에 용을 타고 물에 들어가면 운수대통한다.
- 네잎 크로버를 찾으면 행운이 온다.
- 노름판에서 굴뚝쪽으로 앉으면 돈을 땐다.
- 닭이 밤나무에 올라가면 재수가 좋다.
- 돌날 어린애가 돈을 집으면 부자가 된다.

- 돌날 어린애가 연필을 잡으면 공부를 잘 한다.
- 돌날 어린애가 책을 잡으면 학자가 된다.
- 돌날 어린애에게 실을 사다주면 명이 길다.
- 동짓날 팔죽이 쉬면 그 다음해에 풍년이 든다.
- 등에 점이 일곱 개 있으면 큰 인물이 될 사람이다.
- 메주를 예쁘게 만들면 예쁜 딸을 낳는다.
- 밤에 거미가 들어오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
- 밤에 부엉이가 울면 그 해 풍년이 든다.
- 밥상에 반찬그릇이 우연히 가로·세로로 줄이 맞으면 손님이 온다.
- 봄에 노랑나비나 호랑나비를 먼저 보면 좋은 일이 생긴다.
- 봄에 벌을 제일 먼저 보면 부지런해진다.
- 빼꾸기가 울면 풍년이 든다.
- 사람이 보지 못하는 밤 사이에 눈이 쌓이면 풍년이 든다.
- 새해에 복조리를 많이 사면 복이 많이 들어온다.
- 설날에 널을 뛰면 발이 건강해진다.
- 소쩍새가 우는 것을 보면 풍년이 든다.
- 승둠에 밥알이 뜨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
- 시험보기 전 날 옛을 먹으면 합격한다.
- 시험보는 날 배냇저고리를 몸에 지니고 가면 합격한다.
- 시험칠 때 정문에다 옛을 붙여 놓으면 합격한다.
- 식전에 상제가 상점에 오면 재수가 좋다.
- 아침에 집안에서 거미를 보면 돈이 생긴다.
- 아침에 천장에서 거미가 내려오면 반가운 손님이나 소식이 온다.
- 아침에 호랑나비를 보면 그날 재수가 좋다.
- 암탉이 알을 낳는 것을 보면 횡재수가 좋다.
- 여자의 속옷을 입고 노름을 하면 돈을 땐다.
- 옷고름이 저절로 풀어지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
- 이른 아침에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
- 임신한 여자가 꿈에 용을 보면 큰 인물을 낳는다.
- 자기도 모르게 쇠똥을 밟으면 재수가 좋다.

- 장례차를 보면 재수가 좋다.
- 집안에서 돈벌레를 보면 돈이 들어온다.
- 집에 개미가 들끓으면 부자가 된다.
- 학이 새끼를 낳으면 그 해 풍년이 든다.

〈서 혁〉

제7장 지명유래

제1절 동두천

동두천은 본래 고구려시대에는 내을매(內乙買) 또는 (內爾米)라고 불리었다. 《대동지지(大東地誌)》에는 백제의 영토로 기록되어 있다. 신라 경덕왕 16년(757)에는 사천으로 변경하여 견성군(堅城郡, 현재 포천군)의 영현(領縣)으로 삼았다가 고려 현종 9년(1081)에 양주에 예속되었고 조선에 들어와서 세조 12년(1466) 1월 관제개정(官制改正)에 따라 양주가 목(牧)으로 승격되어 진이 두어졌다. 그 당시 양주의 속현으로는 견주·풍양·사천이 있었으며 목의 34개 방리중의 하나인 이담이 동두천시의 근원이 되었다.

조선왕조 건국 초기에 지방 조직은 중앙과 마찬가지로 고려의 제도를 대개 그대로 답습하였으며 그 뒤 국가의 기초가 서서히 잡혀 감에 따라 이른바 8도체제(八道體制)가 갖추어지게 되었다. 즉 전국을 경기·충청·전라·경상·강원·황해·함경(영안)·평안 등 8도로 나누어 각각 관찰사(觀察使, 종2품)를 두고 그 밑에 부(府), 대도호부(大都護府), 목(牧), 도호부(都護府), 군(郡), 현(縣)을 두어 부윤(종2품), 군수(종4품), 현령(종5품), 현감(종6품) 등의 수령을 파견하였다.

이같은 행정 조직의 구분은 취락(聚落)의 대소, 인구의 다과, 전결의 다소, 지역적인 특수성 등을 기초로 하여 정해진 것이다.

이들 각 주(州)·군(郡)·현(縣)에는 자치적인 면·방·사를 두었고 그 밑에는 리·촌·동이 있었다. 이러한 지방 조직 편제가 조선초기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볼 때 이담면의 지명과 편제도 이때에 이루어졌으며 수백년이 흐르는 동안 지방의 조직 편제도 여러번 바뀌었고 일담(一潭), 가정자(柯亭子), 이담(伊潭), 이담면(伊淡面) 등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어 온 것이다. 그후 1914년 우리나라가 일제에 의해 강제로 병합되고 우리의 유구한 전통문화를 말살하기 위한 일제의 간악한 수단으로 시도한 것이 행정구역 개편이다.

그때 시행된 동두천시(이담면)의 리별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1912~1914년 18개리, 1914~1942년 16개리로 운영해 오다가 그해인 1942년 다시 10개

리로 축소했다. 1945년 해방은 되었어도 리 편제는 그대로 유지하다가 1953년부터 점차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말단 행정 단위를 세분 23개리가 되었으며, 1963년 이 담면이 읍(邑)으로 승격되면서 이 담이 동두천으로 지명이 바뀌게 되었고, 1973년 포천군 포천읍 탑동 3개리가 동두천으로 편입되면서 26개리가 되었다. 이후 1981년 7월 1일 읍이 시로 승격되면서 9개 행정동으로 재편하였으며, 1983년 2월 15일 양주군 은현면 상폐리가 동두천시 관할로 편입되어 1개 행정동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동두천시는 12개 법정동과 10개 행정동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법정동이 병합, 분할되어 그로 인해 동명(洞名)이 자연 달라지게 된 것이다. 현재 행정구역의 편성과 관할 자연부락의 지명 유래를 구전과 사료에 근거하여 첨기하면 <표 1>과 같다.

<표 1> 행정구역의 변천

행정동명	법정동명	자연촌명
동안동	동두천동	동두내(東豆川), 원터(院址), 가정자리(柯亭子里), 창말(倉末)
	안흥동	밧안홍(外安興), 독터골(陶址谷), 담안(牆內), 영진(永進)
소요동	상봉암동	윗사야위, 쇠둔치
	하봉암동	아랫사야위, 동막골(東幕谷), 용연동(龍淵洞)
보산동	보산동	싸리말(柵村), 보뚜둑(保安), 빈양말(濱陽末), 비석거리
	결산동	결뫼(傑山), 능말(陵村), 덕수동(德水洞), 탑개울(塔溪鬱)
내행동	송내동	안골(內洞), 아치노리(峨嵯洞), 서낭댕이(城隍堂)
	지행동	사당골(祠堂洞), 조꼴(紙洞), 무수구미(無水洞)
	생연동	산고리(生骨里), 능안(陵內)
생연1동	생연동	방축골(防築谷), 못골(淵洞), 황말음(黃末音), 샛골(間村)
생연2동	생연동	생연2,3,4동은 전부 생연동을 분할한 행정동이며 모랫말(沙洞)이 있다.
생연3동	생연동	1950년 이후에 형성된 사가지로 오래된 자연마을은 어수물(御水洞)이 있을 뿐이다.
생연4동	생연동	1950년 이후에 형성된 시가지이다.
광암동	광암동	좌기동(座起洞), 내촌(內村), 골말(谷末), 세목(細目)
광암동	탑동	기촌(基村), 넓은바위, 승지골([承旨谷] 일명 턱거리), 탑동(일명 장림),
		섬말, 조산(造山), 낙우(落隅), 동점(銅店), 왕방(旺方)
상폐동	상폐동	가마소(釜沼), 샛골(間村), 골말(谷村), 사천리(沙川里), 선곡(仙谷),
		새말(新村), 인곡(仁谷), 정감(井甘), 남산모루(南山隅)

제2절 동안동(東安洞)

동안동은 과거 이담면의 행정 중심지 였던 동두천동과 안홍동 등 2개의 법정동으로 편성되었으며 관내 자연마을의 지명유래는 다음과 같다.

1. 동두내(東頭川)

동두천은 한국전쟁 전까지 면행정의 중심부로 면사무소는 물론 경찰관서·체신·금융기관과 경원선의 철도가 지나가는 구 동두천역(현재 동안역)의 소재리로서 지역 경제의 주축을 이루었다.

옛날부터 가정자리(柯亭子里)라고 불려오던 것이 경원선 철도가 개통되면서 일제의 문화말 살정책에 의해 우리 조상의 숨결이 담겨있는 가정자리를 동두천리로 바꾸었다.

이는 동쪽에 균원을 두고 냇물이 흐르고 있어 붙여진 이름이며 40여 년 전까지도 일반적으로 '동두내'란 이름으로 불려왔다. 그러던 것이 현재는 동두천으로 표기되는데 예전의 '頭' 자가 '豆' 자로 변한 시기와 내역에 대하여는 1950년대 초기로만 추정한다.

2. 가정자(柯亭子)

가정자의 유래는 조선 영조 때의 문신으로 도승지(都丞旨)를 지낸 이중경(李重庚, 1680~1757)이 벼슬에서 물러나 현 동두천동에 정자를 짓고 정자의 이름을 가정자로 한 이후 이곳 일대(현 동두천동 일대)가 가정자리(柯亭子里)로 불려오다가, 경원선 철도가 개통되고 역명(驛名)을 동두천역(東頭川驛)으로 명명하면서부터 일제의 문화 말살 정책에 의해 행정명도 동두천리로 개칭되었다.

3. 원터(院址)

원은 고려와 조선 때 관리들이 출장중에 유숙하는 숙소를 뜻하며 공무(公務)로 출장하는 공무원들의 숙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각 요로나 인가가 드문 곳에 공용으로 설치했는데, 고려 공민왕 때 유지비로 원위전을 주조했으나 정착되기는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이루어졌다.

세종 27년(1445)에는 원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한 사람을 뽑아 원주(院主)로 삼아 이를 관리하게 하였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원주에게 대로(大路)이면 1결 35부(1결은 100부), 중로(中路)이면 90부, 소로(小路)이면 45부를 주어 원을 유지하게 하였다고 한다.

원은 한때 크게 번성하였으나 국한된 이용자로 인하여 조선후기에는 점차 쇠퇴해 갔다. 동두천 240번지는 연천과 철원 등지로 관통하는 대로와 포천에서 파주로 이어지는 길이 고려시대 이래로 나있던 교통의 중심지였으며 이 지역은 오랜 옛날부터 군사적인 요충지이다. 원에서 북향으로 1km지점에 북창이 있었다. 이 곳에 설치된 이담원은 자좌오향으로 자리를 잡았고 그 규모를 살펴보면 초석과 기와 조각이 산재한 것으로 미루어 백여간은 족히 된듯하다. 그러나 150여년 전에 원은 폐지되었고, 원터란 지명이 남아있다. 현재는 아파트 군이 들어서 있다.

4. 창말(倉末)

임진왜란(1592년) 후 재정상의 곤란으로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이원익(1547~1634, 정치가)의 주장에 따라 공납물(公納物)을 쌓아둘 창고를 경기도부터 설치되기 시작했는데, 이때 이 곳에다 북창(北倉)을 설치하였다. 창고의 크기는 좌기청 4간, 창사 30간 등이었다.

그후부터 창고가 있는 마을이라하여 창말(倉里)로 불리 전해지고 있다. 창고가 있던 자리는 한국전쟁 전에는 동두천국민학교가 자리잡고 있었으나 지금은 미 2사단 공병부대가 주둔하고 있다.

5. 안흥리(安興里)

안흥리는 밖안흥과(外安興) 내안흥(內安興)으로 2km 정도 상거한 2개의 마을로 구별하는데, 밖안흥에는 외안흥과 독터골(陶谷)이 있고 위안흥에는 내안흥과 담안이 있다.

담안 마을에는 큰 룹(陵)이라 불리는 묘가 있는데 이 묘는 고려말 어느 옹주의 무덤이라고 하며 그 묘를 쓰고부터 옹주의 명복을 빌기 위해 안홍사(일설에는 興慶庵)라는 절을 지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곡담이 다 무너져 흔적까지 찾기 어려우나 널려있는 기와 조각이 위치를 말해준다. 옹주의 묘소 역시 평지가 되었으나 동자석이 홀로 그 자리를 말해준다.

그런 연유로 이 마을의 지명을 안홍리라 하였는 바, 안홍사가 있던 마을을 내안홍이라 하고 밖안홍은 밤여울(栗灘) 옆에 형성된 마을을 말한다.

6. 독터골(陶址谷)

독터골은 마차산 동록의 협소한 계곡에 위치한 마을로서 조선 중엽부터 이곳에서 질그릇을 굽는 도요(陶窯)가 있어 질그릇을 굽는 가마터가 있는 마을이라 하여 독터골이라고 부른다.

7. 담안(壇內)

우암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의 문하생 이팀이 이곳에 있던 홍경암(興慶庵)에서 수학 하였으며 그의 후손 이유(李瑜)가 낙향하여 주위에 넓게 돌담(石牆)을 쌓고 살았다는 이유로 마을 이름을 담안이라고 하였다고 한다.

이 마을에 있었다는 안홍사(홍경암) 옛터는 깨어진 기와장이 흩어져 있어 '절골'로 부르고 있으며 주인을 알수 없는 고려말 어느 옹주의 무덤이 오랜 세월 풍수에 시달려 평지가 된 채 흔적만 남아있다. 마을명의 원인이 되었다는 돌담 역시 군데군데 흔적만 남아 있을 뿐 세월의 덧없음을 말해준다.

8. 영진(永進)마을

영진(永進)은 내안홍의 담안과 윗안홍의 2개 자연마을을 합해서 부른 이름인 바 지명(地名)의 내력에 대해서는 알수 없다.

다만 과거 면당시 영진이라는 1개 구로 정하고 행정하였음을 기억하고자 한다.

제3절 소요동(逍遙洞)

소요동은 동두천시의 최북단에 위치하며 상봉암동과 하봉암동 2개의 법정동을 합쳐서 소요동이란 행정동이 된 것이다.

소요동이란 본래 '쇠둔치' (소요둔치)란 이름이 상봉암동에 속한 자연마을이던 것이 시승격과 더불어 소요산이 그 관할 구역에 있으므로 소요동이라고 행정동명을 정한 것이다.

1. 쇠둔치

'쇠둔치'는 소요산 입구에 자리잡고 있는 마을이다. 경원선과 3번 국도가 마을 중앙을 관통하며 소요산역이 있어 교통이 편리하게 되어 있다. 원래 상봉암동에 속한 작은 취락이었으나 소요산이 개발되고 관광객이 몰려옴에 따라 점차 인구가 증가되었다.

소요(逍遙)라는 지명은 신라 때의 고승 원효대사(元曉大師)가 이 산을 개산하고 소요암을 세운 후부터 소요산이란 이름이 붙었으며 산입구에 자리잡은 마을을 '쇠둔치'라 하였다.

2. 사야위(鳳洞)

'사야위'는 '봉골'로도 불러지며 '아래사야위'와 '윗사야위'의 2개 마을로 되어있다. 마을 앞에 봉황새를 닮은 바위가 있어 이름을 봉바위라 하는데, 그로 인해 봉암이란 이름을 붙여 상봉암동 하봉암동으로 하였다. 지금은 채석으로 인해 훼손되었다.

(사야위란 들판을 말한다. 윗사야위는 윗돌, 아랫사야위는 아래돌을 뜻한다.)

3. 동막골(東幕谷)

왕방산의 힘찬 지맥이 북으로 뻗어 나가면서 서향으로 소요산을 펼쳐놓고 다시 꼼틀거리며 1km를 달리다 동서로 아름다운 계곡을 형성, 그 입구에 옹기종기 20여 호의 마을을 이루어 수

백년을 내려온 뿌리깊은 마을이다.

동두천시의 북단에 위치한 마을로 동쪽이 산으로 막혀있어 그 지형에 따라 동막골이라 한다.

4. 용연동(龍淵洞)

용연동은 동두천시의 최북단 동향 계곡에 위치한 마을로서 계곡 안에 작은 폭포가 있고 그 폭포와 웅덩이를 용못(龍淵)이라 해서 이렇게 불러오고 있다. 일설에 의하면 도적의 은거지라 해서 도독골로도 불려오고 있다.

제4절 보산동(保山洞)

보산동은 종전의 보산동 전부와 결산동(傑山洞) 등 2개의 법정동을 병합해서 1개의 행정동이 되었다.

옛날부터 전래하던 마을은 한국전쟁 후 미군의 주둔으로 거의 흔적이 없어졌다. 지금은 새로 형성된 도시 형태의 상가가 점차 확장 발전되고 근접한 미군부대를 주요 거래선으로 하여 동두천시의 전체경제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1. 쌔리말(杻山)

예로부터 이 동리 주위 산과 골짜기에 쌔리나무가 많이 자생하여 '쐐리울(杻)' 골짜기라 부르다가 그 산 밑에 강릉김씨(江陵金氏)가 뿌리를 내려 집성촌(集姓村)을 형성, 누대(累代)를 이어 오면서 마을 이름이 '쐐리마을(杻村)'이 되었다 한다.

2. 보뚝뚝이(保安)

언제부터인지는 알수 없으나 옛날부터 이곳에 수리시설(水利施設)인 보(洑)가 있어 보뚝뚝이라고 불러왔으며 보안이라 함은 근세에 와서 이를 한자화 한 것이라 한다.

지금은 미 2사단 영내이다.

3. 빈양말(濱陽)

이 마을은 조선 영조 때 대사헌을 지낸 이세근(李世瑾)이 뿌리를 내린 곳으로 그의 후손들이 대를 이어온 마을이었다. 동리 앞에는 동두천 맑은 물이 흐르고 동천 하안은 깍아지른 듯한 낭 빈양이 있고 주변에는 노송(老松)이 많아 풍치를 더해 주고 있었다. 그러므로 사대부들간에 널리 유행하던 매사냥이 늘 이곳에서 행해졌으며 양주목사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고 하여 마을 이름은 동천의 맑은 물과 서남향의 양지바른 것을 뜻해서 빈양이라 하였다고 한다.

4. 걸뫼(傑山)

걸뫼는 능말(陵末), 덕수동(德水洞)과 함께 일개 법정동을 이루었으나 미군의 주둔으로 민가 마을은 없이 보산동이란 행정동에 편입되었다. 소요산 응봉을 등에 업고 동천물이 옆으로 흘러 산간지대에 형성된 아득하고 풍치 좋은 곳인 바 사지(寺址)와 탑지(塔址) 등이 오랜 옛날부터 있었다고 구전되어온 것으로 미루어 불교문화가 융성하던 고려 때부터 마을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으로 추측된다.

마을 전체를 포근히 감싸주고 있는 소요산 남록(南麓)을 가리켜 호걸다운 뷔(山)라하여 '걸뫼(傑山)'라고 이름 붙였다 하며 또한 일설에는 풍수지리설의 산수가 수려하고 소요산의 정기를 받아 인걸이 태어날 수 있는 인걸 지형이라는 데서 유래한다는 설이 있다.

5. 능말(陵末)

능말은 결산동에서 제일 중심마을이라 여러 집이 모여 있었으나 지금은 미군주둔부대의 영내 중심이 되었다. 조선 선조 때의 명필인 한성부윤 김협이 이곳에 뿌리를 내려 그 후손들이 집성한 마을로 김협의 묘를 가리켜 능으로 높혀서 부른 데서 유래하였다. 릉이 있는 마을이란 뜻에서 '능말'이라고 하였으며 또한 음지라하여 '음지말'이라고도 불려지고 있었다.

6. 덕수동(德水洞)

덕수동은 소요산 남록계곡에 있는 마을이다. 옛날 이 마을은 산간계곡이어서 그러하였는지 심한 가뭄이 들어 이웃마을은 폐농할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이 동리 계곡에 흐르는 물은 마르지 않고 농사를 지을 수 있었으며 인근 마을까지 물을 보내주었다고 한다. 따라서 인근 마을이 그 덕을 보게 되었다고 하여 마을 이름을 덕수동이라 하였다.

7. 점말(店末)

옛날부터 이 곳은 농경시대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무쇠솥·보습 등 농기구를 구어 파는 마을이었다' 하여 점말로 불리어 왔고 1945년까지도 이어져 왔으나 지금은 미군이 주둔하여 마을이 없어졌다.

8. 탑개울[塔溪谷]

구전에 의하면 고려 초기에 이곳에 탑이 세워져 인근 주민들이 불공을 드렸던 곳이라 하여 탑개울로 불리었으며 구한말까지 이곳에 탑과 석불이 있었다고 한다.

제5절 내행동(內杏洞)

내행동은 동두천시 남부를 점유하고 있으며 양주군 회천읍과 접하고 있다. 시 승격과 더불어 송내동과 지행동, 그리고 생연동 일부(生骨)를 병합하여 일개 행정동을 이루었다. 동명은 송내동의 내자와 지행동의 행자를 따서 내행동이란 행정동이 되었다.

1. 송내동(松內洞)

송내동은 일명 송라(松蘿)마을로도 불린다. 조선시대에는 강화천(江華川)부근에 한 마을을 이루었는데 1914년 행정 구역을 개편하면서 강화천을 경계로 남으로 분리된 마을명을 송촌이라 하고 북으로 분리된 마을명을 라리(蘿里, 일명 서낭댕이로 城隍堂의 준말)로 부르게 됨에 따라 두 마을의 이름 중에서 한 자씩을 따서 송나라고 부르게 되었다. 또한 안골(內洞)의 내자와 송나의 송자를 따서 송내동이라고 하였다.

2. 안골(內洞)

안골마을은 강화천변 큰길에서 동쪽으로 깊숙히 들어가 칠봉산(七峰山) 서록(西麓)에 자리 잡고 있어 안골로 마을 이름이 되었는데, 이 마을은 조선 초기 청주 한씨가 정착하였으며 중종 조 말에는 함종 어씨가 뿌리를 내려 4백여 년째 세거하며 사천 목씨도 이곳에서 깊숙히 뿌리를 내려 양대 성씨가 집성촌을 이루고 있다.

3. 아치노리마을

고려 말의 무신 주왕(朱王)의 묘자리를 잡기 위하여 당대의 유명한 지사(地士) 무학대사(無學大師)는 천보 산맥을 따라 지금의 아차동(峨嵯洞)까지 왔다. 천보산의 형세로 보아 분명 대지가 있을 것으로 확신하였던 무학은 산맥이 예서 끊기고 자신의 예측하였던 것과 크게 어긋났음

을 알자 자신의 지사(地士)로서의 안목이 부족함을 자책하였다 한다.

결국 무학대사는 그 부근에 주왕의 묘를 정하였다. 그후 주왕의 행자(行子)가 그곳에 와서 묘막을 짓고 있었다 하여 그 골짜기를 가르켜 '행자막골'이라 하였는데 점차 와전(讛傳)되어 '함지막골'로 불리우고 있다.

마을이름은 무학대사가 자탄(自歎)하고 '앗차' 한 것을 그대로 불러왔으며 한자로 표기하기를 천보산(天寶山) 봉우리가 높고 힘한 것을 뜻하여 '아차(峨嵯)'로 하여 음을 같이 하였다. 이러한 연유로 아차노리가 점점 변하여 아치노리로 되었다.

4. 지행동(紙杏洞)

닥채나무를 많이 재배하여 종이를 생산하였던 관계로 종이골(紙洞)과 사당골(杏壇)의 한 자씩을 따서 지행동이 되었다.

5. 종이골(紙洞)

조골은 종이골로서 예전에 이 마을은 닥채나무를 재배하여 종이를 생산하였으므로 종이골이라 부르게 된 것인데 이를 축약해서 '조골'이 된 것이다.

일제시대 공동작업반 조직인 진홍회의 명칭을 당시 구장이 화성진홍회로 명명한 데서 일제 말기를 전후해서 화성마을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6. 사당골(祠堂洞)

사당골은(일명 杏壇) 어유소(魚有沼) 장군이 출생하고 성장한 마을이며 그가 죽은 후에 후손들이 장군의 사당을 짓고 모시며 뿌리를 내려 살아오던 중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나 전화가 미치자 사당을 장군의 묘소가 있는 좌기골(座起洞)로 옮기었다. 그로 말미암아 사당이 있던 마을이라 하여 '사당골'이란 마을 이름이 되었다. 1914년 일제의 조선문화 말살정책에 따라 행정 구역 개편이란 미명 아래 우리 조상의 얼이 담긴 마을 이름을 바꾸어 향단(杏丹)으로 부르기도

하였다.

7. 무수동(無水洞)

이 마을은 물이 귀하여 무수동이라 하였다. 조선 초기부터 이곳에 세거하여 온 평해 황씨 일문에서는 조선 중기에 이르러 농사철만 돌아오면 물이 부족하여 곤란을 겪어야 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방축을 쌓고 다시 물걱정을 안하는 마을로 만든다고 '수(水)' 자를 '수(愁)' 자로 고쳐 '무수동(無愁洞)'이라고 하였다 한다.

또한 방축을 단단히 쌓기 위해 뚝 위에다 엽전을 뿐여 놓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뚝을 밟으며 돈을 주워가도록 했다고 한다.

그러나 물을 채워두면 홍수가 나서 뚝이 붕괴되고 다시 쌓아 놓으면 터져 나가기를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마침내 황씨네 재산이 탕진되어 결국 막지 못하였다 한다. 수백년이 지난 지금도 무수동은 수리시설이 없는 마을로 남아있다.

8. 산고리(生骨)

산고리는 본래 생연동에 속해 있던 자연마을이던 것이 시 승격과 동시에 내행동에 속하게 되었다. 옛날부터 이 마을 돌 틈에서 또는 지표 밑에서 산골(生骨)이 나오고 있어 마을 이름이 산고리(산골)로 부르게 되었으며 이것을 생골이라고 한자화 한 것이다.

제 6절 광암동(廣岩洞)

광암동은 동두천시의 남동부를 차지하고 있는 곳이다. 1981년 7월 1일 시 승격과 더불어 종래의 광암동과 포천군 포천면에 속하던 탑동이 동두천시로 편입됨에 따라 기존의 광암동과 탑동 2개의 법정동이 1개의 행정동으로 되었다. 왕방산·해룡산·천보산 등 수려한 명산이 병풍

같이 두르고 동두천이 흐르는 정서향으로 지방도로가 내행동 생골을 거쳐 3번 국도에 연결된다. 남향으로 탑동천의 하안을 따라가다 보면 양주군과 통하며 회암사에 이른다.

또한 동쪽으로는 왕방계곡을 따라 도로가 있어 포천군으로 이어지며 왕방리에서 북향으로 우뚝 솟은 국사봉에서 발원한 계곡을 따라 난 도로가 포천군 신북면 금동리로 연결된다. 광암동은 미군이 주둔한 관계로 좌기골·내촌·개안·너븐바위 등의 마을이 없어진 지 오래이다.

1. 좌기골(座起洞)

예성군(義城君) 어유소 장군(1434~1489)으로 연유하여 성종이 이곳에 거동하여 잠시동안 좌정하였던 사실이 있어 그 후부터 좌기골(座起洞)로 부르던 것이 오랜 세월동안 점차 와전(訛傳)되어 '자기골'이라 부르게 되었다.

구전에 의하면 성종이 좌정하고 어장군의 궁술(弓術)을 시험하기 위해 공중에 날고 있는 솔개를 쏘게 한 후 솔개가 맞아 떨어지는 곳까지 땅을 하사(下賜)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윽고 백발백중의 명궁인 어장군의 화살은 창공에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 솔개를 맞추었고 화살을 맞은 솔개는 허공을 맴돌며 떨어졌다.

이 일화로 지금의 광암, 결산, 송내, 지행, 보산, 동두천 일대가 전부 어장군의 사패지(賜牌地)가 되었다고 한다.

2. 승지골(丞旨谷)

기촌(일명 턱거리)은 옛 지명이 승지골이다. 구전에 따르면 조선 중종조에서 충청, 전라, 경상도 관찰사와 도승지를 지낸 황서(인물편 참조)가 태어나 성장한 마을이라 하여 승지골로 전해 오다가 1914년 일제 하에서 행정구역을 개편할 때 기촌(턱거리)으로 되었다. 기촌은 1945년경부터 터 기(基)의 뜻인 터(地와 同音)와 거리의 터(街地)란 뜻이 합쳐져 턱거리로 불려지더니 한국전쟁 후에 주택과 상가가 들어서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더욱 턱거리란 지명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3. 내촌(內村)

자기골(座起洞)과 이웃한 마을로 미군이 주둔하고 있어 없어진 마을이다. 내반이라고도 불리오던 이 마을은 광주 이씨가 3백여 년을 살아오던 마을이었으나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소개(疏開)되어 현재에 이른다.

4. 세목(細目)

세목은 일명 밤나무골(栗木洞)이라고도 부른다. 이곳은 명종 때의 양주백정이자 협도(俠盜)로 유명한 임꺽정(林巨正)이 험준한 산세를 이용하여 양주·포천 고을에 출몰하는 은거지로 삼았다고 전해진다.

이 마을 입구에는 이무기가 살았다는 깊은 소(沼)가 있고 그 소 위로 백운폭포가 있다. 또한 폭포수가 떨어지는 북쪽 언덕위를 절골이라 부르는데 1925년 경 일본인에 의해 불상과 석등 등 중요한 문화재가 도굴되었다고 한다. 이곳은 천여 년 전부터 마을이 형성되어 왔던 흔적이 남아 있다.

5. 외부인통골(外婦人通谷)

광암동 골말마을은 일명 외부인통골이라 불려져 오고 있다. 인조 14년(1636)에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병조참지 이상급(강화도에서 전사)의 배위인 울산 박씨(1602~1682)가 난리를 피해 이곳에 정착하여 뿌리를 내린 이래로 외명부 서열에 있던 부인이 이 마을을 관장하였다 해서 외부인통골이라 불려왔다.

6. 조산(造山)

구전에 의하면 1637년 충의교위(忠毅校尉)로 있던 이달준(李達俊, 全州人)이 죽자 묘를 이곳에 썼는데 한 지사(地士)가 말하기를, 묘 앞이 허전하면 후손들이 가난하고 번성하지 못하니

앞에 흙을 둑구어 작은 봉을 만들면 후손들이 번창하고 부를 누린다고 하므로 후손들이 묘 앞에 작은 산을 만들어 놓고 조산(造山)이라 부른 것이 마을 이름이 되어 전해지고 있다.

7. 탑동(塔洞)

탑동(塔洞)은 원래 포천군 포천면이 속해 있었으나 1973년 7월 1일 동두천읍에 편입되었으며 1981년 7월 1일 시 승격에 따라 광암동에 속하게 되었다. 탑동은 회암사의 아홉 암자 중의 한 암자가 있었던 자리에 탑과 석불이 있어 붙여진 지명이었는데 현재는 석불(石佛)만 남아 있다.

8. 장승거리

탑동의 낙우(落隅)마을 입구 752번지는 옛날부터 '장승거리'라고 불려져 왔다. 마을 촌로들에 의하면 옛부터 마을 입구가 허(虛)해 마을 주민들이 매년 장승을 세워 치성을 드리면서 마을 수호신으로 모셔 놓았다고 한다. 그러나 1945년 이후부터는 장승을 세우지 않아 지금은 지명만 장승거리라고 전해지고 있다.

9. 넓은바위

이 마을은 결산동과 접하고 광암동의 한 마을이었으나 지금은 미군의 주둔으로 없어졌다. 이 마을에는 크고 넓은 바위가 있음으로 해서 너분바위(넓은바위)라 불렸으며 넓은바위가 광암동 이란 동명의 원인이 되었다 한다.

제 7 절 상패동(上牌洞)

동두천시의 남서부를 차지하는 동이며 고려 현종때까지 포천군의 영현(領縣)이었던 사천현의 형세를 그대로 포용하고 있다. 1패리, 2패리를 상패리라 하던 것을 1965년 1월 1일 상패1, 2, 3리로 분리하였으며, 1983년 2월 15일 양주군 은현면에 속해있던 상패리가 동두천시로 편입되어 상패동이란 행정동이 되었다. 자연마을로는 상패, 사천, 정감, 가마소〔釜谷〕, 샛골〔間村〕, 골말〔谷末〕, 남산모루〔南山隅〕, 선곡〔仙谷〕, 새말〔新村〕, 인사적골〔仁谷〕 등이 있다.

1. 가마소〔釜谷〕

고려 말엽 이 마을 입구에 가마솥 모양의 큰 소가 있었는데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물이 마르는 적이 없어 이 마을 사람들은 이 소를 귀중히 여겼으며 마을 이름을 소의 모양을 따라 가마소〔釜谷〕라 하였다. 그러나 조선시대 중엽에 대홍수로 마을 근처 지형이 크게 달라졌고 귀중히 여겨오던 가마 모양의 소도 없어졌다 한다. 그러나 비록 소가 없어졌어도 마을 이름은 여전히 가마소라고 불려 전해지고 있다.

2. 샛골〔間村〕

샛골은 이 마을 북서에 위치한 미동(彌洞) 마을이 근원이 되어 인구가 늘고 남쪽에 있는 골말〔谷末〕과의 사이에 마을이 형성됨으로 미동을 포함하여 샛골〔間村〕이라 부르게 되었다.

3. 골말〔谷末〕

골말은 가마소 고개 아래에 있는 골짜기에 위치한 마을로써 골짜기 안에 있다 하여 골말〔谷末〕이라 부른다.

4. 사천리(沙川里)

본래는 사천현인데 지금은 사천리라 부른다. 고구려 때에는 내을매였는데 신라 경덕왕 때 사천으로 개칭하여 견성군(현 포천군)의 영현(領縣)이 되었다. 그후 현종 9년(1018)에 양주에 예속되어 조선조까지 그대로 이어졌다.

5. 선곡(仙谷)

선곡마을은 옛날 신선이 사는 동네 또는 어진 선비가 모여 사는 곳이라 하여 선곡이라 불러오고 있으며, 이 골짜기를 통하여 남북을 잇는 큰길이 있고 산마루에는 통행인들의 무사함을 기원하는 서낭당이 있었으므로 일명 서낭당골이라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일본인들에 의해 1910년경 서낭당은 없어지고 그 유래만 전해지고 있다.

6. 새말(新村)

새말은 구한말 양천 허씨들이 모여 마을을 형성하고부터 새로 생긴 마을이란 뜻으로 새말로 불러졌다.

7. 인골(仁谷)

고려때 이곳에 어진 선비가 살았다 하여 인곡(仁谷)이라 불러왔으며 인사절골(仁士寺谷)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옛날 이곳에 절이 있었다고 전하고 있으나 지금은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8. 남산모루(南山隅)

남산모루마을은 옛 동두천에서 볼때 남쪽 산모퉁이에 위치한다. 마차산의 지맥이 남쪽으로

뻗어나가다 다시 기봉(起峰)하면서 문필봉을 임태하는데, 이 산을 남산이라고 부르며 그 산 모퉁이에 마을이 있어 이름을 남산모루라고 부른다. 이 마을에는 한양 조씨가 3백여 년간 세거하고 있다.

9. 정감(井甘)마을

정감마을에는 옛날부터 동네 중안을 중심으로 동남간에 세곳의 우물이 있어 마을 주민들의 식수로 사용하였는데 그 물맛이 하도 좋아 정감 즉, 단우물이라고 부른데서 유래된 것이며 지금도 세 곳에 우물이 있다. 그러나 각종 공해로 두 곳의 우물이 오염되어 폐정(廢井)하였고 한 곳의 우물만 사용하고 있다.

제8절 생연1동(生淵一洞)

생연1동은 법정동인 생연동을 인구 과다에서 오는 행정 능력의 미급을 막고 시행정의 원만을 기하고자 생연1,2,3,4동으로 분할된 행정동이다.

종래의 자연마을로는 샛골〔間村〕, 방축골〔防築洞〕, 못골〔淵洞〕, 황말음리(黃末音里) 등이 있으며 한국전쟁 후 동두천이 발전되는 과정에서 3번 국도 동편에 새롭게 형성된 곳이다. 이곳에는 동두천초등학교, 동두천중고등학교, 동두천여중고, 보영여중고 등 교육기관이 집결되어 있으며 동두천시청도 생연1동 관할인 방축동(防築)에 있다.

1. 방축골〔防築洞〕

방축골은 그 마을 앞에 방축(저수지)이 있어 방축골이라 하였다. 지금은 도시로 변하여 거의 없어졌다. 성터별이라 부르던 전답은 이 방축에 저장된 물을 이용하여 경작하였으나 전답이 도시화되고 저수지가 필요치 않게 되어 방축을 메꾸고 시청사를 건축하게 된 것이다.

2. 뭇골(淵洞)

동두천시 생연동 뭇골(池谷)의 유래는 고려 공양왕 때 공조판서(工曹判書)를 지낸 홍언수(洪彦修)에게서 비롯된다.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개국되자 그는 이태조(李太祖)의 출사(出仕) 권유로 뿌리치고 개성에서 뭇골로 낙향하여 저택을 새로 짓고 사대부가(士大夫家)의 전형적인 멋을 살리기 위해 집앞 정원에 연못을 만들어 운치를 더하게 하였다. 그 후부터 연못이 있는 마을이라 하여 600여 년째 뭇골로 불려 전해지고 있다.

3. 황말음(黃末音)

이 마을은 조선 초기부터 평해 황씨가 집성촌을 이루어 조선 말기까지 내려온 마을로 (평해 황씨 세보 참고), 황씨가 사는 응달말이라 하여 황말음리로 불려졌으며 한편 마을에 누런 매화꽃(黃梅花)이 많이 피었다는 연유에서 황매동으로도 불렸었다. 황매화는 죽단화를 이르는 말인데 한때 동두천시화로 지정된 바 있으나 황매화는 식물도감에도 없는 식물로 밝혀져 시화를 장미꽃으로 바꾸어 지정하였다.

제9절 생연2~4동(生淵二~四洞)

1953년 처절하였던 한국전쟁이 소강상태를 지속하고 있을 무렵 난을 피하여 유리(遊離)·방황하며 근근히 생을 유지하던 주민들이 속속 고향을 찾아 수복하였으나 산간오지의 마을을 제외하고 당시 이담면의 중심부인 동두천 장거리는 완전히 폐허가 되었다. 삶의 터전을 찾아 구사일생 수복은 하였으나 비바람을 피하고 머리를 디밀어 안식할 곳이란 없었다. 그러므로 연고를 찾아 그나마 남아 있는 집을 찾아 염치를 무릅쓰고 신세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와중에서 재생의 몸부림은 시작되었다. 흙더미만 남아있는 동두천 장거리에는 입주(入住)가 허락되지 않아 개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싸리말에다 보따리를 풀고 판자집을 짓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다시 쫓겨났다. 그리고 송내리 안골에다 포막을 치고 그날의 삶을 유지하게 되

었다. 모든 기관이 그곳에다 터전을 잡고 있었으나 역시 그곳에서 오래 견디기는 불가능하였다.

주민들은 옛 집터에라도 살고 싶어했다. 그리하여 좀더 넓은 곳을 찾아 지금의 모랫말에다 판자촌을 짓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주민들의 욕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좀더 북쪽으로 좀더 부대 가까이 가기를 원했다. 그리하여 다시 짓다만 판자집을 뜯어 가지고 지금의 신천교(생연2동) 4거리를 중심으로 새로운 마을을 건설하기에 이르렀다. 그 후 원주민은 물론 이북 실향민들이 계속 모여들기 시작하여 판자집은 급속도로 늘어나고 미군부대를 근간으로 한 돈벌이는 그런대로 난민들 생활에 부족함이 없었다.

그 후 인구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그에 따라 점차 도시 형태를 갖추어 갔으며 시가지는 미군부대가 있는 쪽으로 늘어나 급기야 구동두천까지 연결되었고 기지촌(基地村)이란 말이 무색하게 소도시로 발전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이룩된 곳이 생연2동과 생연3동, 생연4동이다.

생연1동은 황매, 방축, 연동 등 오랜 세월동안 살아온 자연마을이 있었으나 생연2, 3, 4동은 과거부터 이어져 온 유래나 전설어린 마을이 없다. 다만 지금의 생연3동 철도 서편에 위치한 어수물(御水洞)이라 하는 작은 마을이 내력을 간직하고 있다.

1. 어수물(御水洞)

어수물은 현 생연3동 철도 부근에 자리잡고 한국전쟁 직후까지 오랜 세월동안 존속해 온 조그만 한촌이었으나 예전의 모습은 찾을 길없이 도회지로 변해있다. 다만 어수물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어수정(御水井)과 근년에 세워진 조그마한 정자가 옛 이름을 회상하게 할 뿐이다.

조선 태조가 아들 태종에 대한 분노와 불쾌감을 가슴 가득히 품고 왕좌에서 물러나 함흥 이궁(離宮)으로 향하던 도중 잠시 어가(御駕)를 멈추고 갈증을 풀기 위해 길가 우물에서 냉수를 떠오게 하였다. 시종이 떠다 진상한 시원한 샘물을 마시고 난 태조의 울적한 기분은 얼마간 후련해졌다고 한다. 이러한 연유로 임금님에게 냉수를 진상하게 된 벽촌(僻村) 백성에게는 크나큰 영광으로 생각하였다. 그래서 우물을 어수정이라 하였고 그것이 곧 마을 이름이 되었다 한다.

얼마전까지 현 동두천역을 어수동역이라 하여 귀중한 사적 내력이 간직되는 듯하였으나, 그마저 동두천역이라고 역명이 바뀌어 어수물이라는 말은 점차 사라져 가고 있다.

〈조규진〉